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

리 동 구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제 1 장

1

방안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집무탁의 한귀에 놓인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가볍게 흔들었다.

(영결식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뵙지 못하게 되는가?… 조국의 앞길에 언제나 태양의 밝은 빛을 뿌려주던 민족의 어버이이시였고 그처럼 받들고 따르던 우리 인민이였는데…)

김정일동지께서는 비통한 현실을 긍정하실수 없었다.

조용히 뇌이시는 **김정일**동지의 눈에는 느닷없이 눈물이 어리였다.

청천벽력을 당하신듯 한 7월 8일의 그밤으로부터 십여일이 흘렀다. 이 기간에 수없이 찾아오는 조객들을 맞으며 눈물인들 얼마나 많이 흘리셨던가. 하지만 홀로 조용히 앉아있고보니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으시였다.

정녕 수령님령전을 떠나고싶지 않아서 영결식이 끝난 후에는 금수산의사당에 오래동안 계시였다. 집무실로 돌아오신것은 방금전이다. 하지만 낮에 영결식의 연도에서 보셨던 눈물에 젖은 인민들의 얼굴이 눈앞에 방불히 재생되였다. 땅을 치며 터뜨리던 그들의 통곡소리가 귀가에 쟁쟁했다.

수령님의 초상화를 앞에 모신 령구차행렬이 나타나면 연도에 섰던 인민들이 폭발적으로 통곡을 터뜨렸다. 생전의 해빛같은 미소를 그대로 담고계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셨다는것이 거짓말이 아닌가? 환생하신 수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계시지 않는가! 어리둥절한 첫 순간엔 분명 생전의 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옵는것만 같은 감정이 북받쳐올랐다.

《아, 수령님!》

누구의 가슴속에서나 저절로 부르짖음이 터져올랐다. 하지만 뒤따르는 령구차행렬이 나타나자 현실적인 사고로 되돌아가며 극에서 극으로 급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의 부르짖음은 피를 토하는 호곡으로 변하였다.

《수령님,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메아리쳐오는 그 호곡에 가슴이 찢기는듯 하시였다. 100여리를 거치는 긴 연도에서 마음속으로 인민들을 부여안고 그들과 함께 하염없이 피눈물을 뿌리시였다. 더구나 참을수 없는 오열을 느끼신것은 **김일성**광장에서였다. 광장에는 어른들과 함께 소년단넥타이를 맨 수천명 아이들이 모여있었다. 아이들은 령구차행렬이 지날 때 발을 구르며 피타게 부르짖었다.

《아버지대원수님! 가시면 안됩니다. 돌아와… 돌아와주십시오.》

《우릴 두고 못 가십니다!》

아이들은 눈물이 즈락한 얼굴로 두팔을 벌려 허우적이며 령구차를 허둥지둥 따라오다가 너무도 비통한 감정에 떠밀리워 포도에 쓰러졌다. 그리고는 땅을 치며 다시 부르짖었다.

《아버지대원수님, 가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갈가리 찢기는듯 하시였다. 저 어린것들의 정상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리을설에게 말씀하시였다.

《저 애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목터지게 부르는데… 이대로 떠날수 없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광장을 한바퀴 더 돌고 떠납시다.… 부탁이요.》

흐느낌에 젖은 목소리를 간신히 번지시였다. 장군님의 그 비애와 부탁을 싣고 령구차는 천천히 광장을 한바퀴 더 돌았다. 호곡의 합성은 더욱 세차게 폭발하여 광장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행사때마다 주석단에서 한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만세의 합성을 터치던 광장이였다. 여기서 그이를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길로 보내드리며 호곡의 합성을 터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너무도 절통하여 땅을 치며 몸부림쳤다. 그러면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덜릴것만 같이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광장 오른쪽초대석에는 검은색치마저고리를 입은 재미교포 녀류

기자 문명자가 서있었다. 국내인민들처럼 그도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있었다.

그는 미국을 떠나올 때 클린톤대통령으로부터 평양의 동향을 정확히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는것을 우리 일군들에게 고백했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영결식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비애의 감정에만 묻히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국제기자협회 부회장이며 미국녀류기자협회 회장인 문명자는 세계언론계의 이름있는 인물이였다. 그는 《부리사나운 암독수리》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만큼 그의 붓은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백악관출입기자인 그는 미국의 력대 대통령을 수행하거나 단독으로 여러나라 외국수반들을 만났는데 대체로 상대들은 문명자의 예리한 붓으로 하여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던 허물이 드러나군 했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에 대해서는 여태껏 여러편의 글을 썼으나 그이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매번 경탄과 매혹의 심정만을 피력했다. 그처럼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하시기때문이였다.

지금까지 그의 문필활동은 그 어떤 외부적인 강압에도 굴함없이 사실과 진실을 존중하는것으로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었다. 정의와 량심, 진실과 사실앞에서만 자기는 머리를 숙일줄 안다고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께 실토한바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이 얼마나 뜨거운 혈연의 뉴대로 이어져있었는가를 오늘의 영결식에서 새삼스레 실감하시였다.

지난 10여일동안에 시각마다 사무쳐오는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잃었는가 하는 생각이였다. 생전의 수령님을 모실 때에는 미처 그이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다 모르고 지낸것처럼 생각되시였다. 수령님의 위인적인 인간상은 돌아가신 후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국상을 당한 후에 우리 인민 역시 얼마나 위대하고 충실한 인민인가를 새롭게 깨달은듯싶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공고한것이였는가를 피눈물의 바다가 훌륭히 보여주었다. 피는 거짓을 모른다. 눈물은 꾸밈을 모른다. 우리 인민은 심장과 진정을 다해 수령님을 따르고 받들어왔다.

《아— 수령님, 우릴 두고 가시면 우린 어찌랍니까!》

깊은 상념에 잠기신 장군님의 귀가에 그 부르짖음이 또다시 메아리쳐왔다. 갑자기 목이 타는듯 한 갈증을 느끼시였다. 집무탁에서 물러나 물을 한고뿌 따라 마시시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이어지는 사색속에 뚜렷해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들의 이 혈연적뉴대를 영원히 고수해야 한다는 생각이였다. 인민들이 그처럼 그리워하는 수령님을 앞으로도 언제든지 만나뵈올수 있도록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수령님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의 혁명위업은 영원토록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수령영생위업은 우리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추호의 드팀도 없이 실현해야 할 총적목표로 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으로 돌아와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조인규비서에게 대주시오.》

교환수는 지체없이 전화를 련결했다.

《조인규동무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석쉼하게 갈렸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시였다. 10여일간의 조의식과 오늘의 영결식까지 치르는 과정에 침식을 잊으셨다. 내처 가슴을 어이는듯 한 비통한 감정에 휩싸이다보니 어느새 목이 잠겨버린 모양이다.

《조인규 전화받습니다.》

어음이 선명한 귀익은 목소리가 수화구의 진동판에 울려왔다.

조인규는 원칙성과 론리가 강한 그 성품처럼 목소리도 모가 나게 선명했다.

《우리가 정치국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정하자고 했는데 전당에 포치가 되였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그저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이 구호를 제정하셨던것이다.

《어제 각급 당위원회들에 그 구호와 관련한 지시문을 하달했습니다.》

《이 구호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도덕의리심이 어려있습니다. 나는 오늘 영결식에서 이 구호가 우리 인민의 심정을 잘 반영하였다는 생각을 다시금 굳게 하였습니다.

이 구호를 평양과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에 있는 만수무강축원탑 구호와 바꾸어 게시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힘있는 대답과는 대조적으로 뒤따르는 목소리가 더듬어졌다. 그 무슨 간절한 심정이 넘치고있었으나 선뜻 입을 열기가 주저되는것 같았다.

《무슨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정히 물으셨으나 조인규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듯 선뜻 응대가 없었다. 마른침을 꿀꺽 삼키는듯 한 소리가 가늘게 들리더니 목메인 그의 음성이 뒤따랐다.

《전에없이 장군님의 갈리신 목소리를 들으니… 제 방금전에 인민들이 당중앙위원회에 올려보낸 편지를 읽던 참이였습니다. 텔레비죤화면을 통해서 조의식장에 나서신 장군님의 수척해지신 모습을 뵈온 인민들이 장군님의 건강을 념려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돌아가시고 인제는 장군님밖에 믿을분이 없는데 몰라보게 축가신 장군님의 모습을 뵈오니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펜을 든다고 편지마다 썼습니다. 인제는 영결식도 끝났는데 오늘 밤만이라도 푹 쉬십시오. 인민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오시였다. 조인규를 통해 전체 인민들에게 진정으로 고마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송수화기를 놓고 충혈진 눈을 조용히 감으시였다. 아닌게아니라 더는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엄습해오는 피로를 느끼시였다. 그 간절한 부탁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만은 일찌기 잠자리에 눕고싶으시였다. 래일은 중앙추도대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열린다. 오늘 밤마저 지새운다면 래일 인민들에게 더 수척해진 모습을 보일수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집무탁앞에 모신 수령님의 원형초상화를 우러

르며 하직인사를 올리려고 하셨다. 그 순간에 가슴을 치는 하나의 기억이 머리속을 스쳤다.

…서거하시기 전날 저녁이였다.

리을설은 식탁에서 인차 수저를 놓으시는 수령님께 절절히 말씀드리였다.

《식사를 조금이라도 더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쩐지 밥생각이 없구만. 이제 일을 하느라면 생각이 나겠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응대하시였다. 하지만 리을설은 어쩐지 수령님의 건강이 좋지 못하신것만 같은 기미를 느끼며 다시 말씀드리였다.

《식사도 드시지 못하고 어떻게 집무를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만은 부디 집무를 삼가해주십시오.》

《고맙소.… 그러나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 할일이 얼마나 많소. 내가 일손을 놓으면 동무네 최고사령관에게 그만큼 더 부담을 줄것이요. **김정일**동지가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걸머지고 얼마나 수고가 많소. 나는 **김정일**동지가 인민을 위해 밤새워 일하는걸 보면 잠시도 쉴수가 없소.》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집무실로 가시였다. 며칠전에 이 사연을 리을설로부터 전달받은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전류가 전신에 줄달음치는듯 하시였다.

아, 그렇게도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

뜨거운 격정의 파도에 휩싸이며 마음속으로 수령님을 목메여 부르시였다.

되새겨지는 그 기억은 다밀리던 피로감을 산산이 날려보냈다. 그대신 경건하고 후더운 감정이 사무쳐오면서 눈시울이 화끈 달아오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집무탁에 마주앉으시였다. 인민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심장을 불태우신 수령님을 생각하시였다. 멈춤없는 사색과 더불어 밤이 깊어갔다.

2

방안에 들어서니 외사촌오빠 주영훈이 **김일성**주석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문명자는 문설주에 기대여선채 기척없이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슬픔에 잠긴 오빠를 보니 자기의 눈시울도 젖어들었다. 그도 고려호텔의 독방에서 주석님을 잃은 비애를 누를길 없어 하염없이 울며 마음속으로 《사향가》를 부르다가 오빠네 집을 찾아왔다.

여러해전부터 평양에 자주 오는 문명자는 번번이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 언젠가 그는 오찬이 끝났을 때 주석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노래를 한곡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무랍없이 청을 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꺼이 응하며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항일혈전시기에 멀리 두고온 고향산천과 부모처자에 대한 투사들의 그리움을 반영한 노래라고 하시였다. 일찌기 고국을 떠나 오랜 세월 이역살이를 하여온탓인지 문명자는 그 노래의 가사와 선률이 불러내는 절절한 감정이 사무치게 가슴에 안겨왔다. 숙소에 돌아온 그는 안내원의 도움을 받으며 그날로 노래를 익히였다. 이듬해 평양에 왔을 때에는 주석님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는 행복을 느껴보기도 했었다. 그에게 있어서 《사향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이기 전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다. 그래서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게 된 때로부터 눈물속에 그 노래를 불러보며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군 하였다. 지금도 그는 어버이주석님을 눈물로 그리워하는 오빠의 곁에 서고보니 저도 모르게 《사향가》의 선률이 입밖으로 흘러나왔다. 그제서야 오빠는 이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물기어린 눈시울을 훔치더니 다소 놀란듯 한 기색이였다.

《밖에 나갔던 로친이 들어서는줄 알았는데 명자가 왔구나! 어서 앉아라.》

남매는 쏘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니?》
잠시 진정을 한 후에 오빠가 물었다. 문명자가 평양에 와서 고려호텔에 려장을 푼 후에 오빠네 집에 나타나기는 오늘이 두번째이다. 무슨 일이 그리 바쁜지 좀처럼 오지 않는 녀동생이였다.
《어제 영결식에 이어 오늘 중앙추도대회까지 참가하고나니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와 차후 이북의 정치추이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싶었구요. 오빠야 얼마전까지 건재공업상을 지냈으니까 이제부터 평양이 어떤 정치리념을 내세우겠는지 짐작하시겠는데…》
주영훈은 달포전까지 건재공업상을 하다가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왔다. 그의 나이가 70살에 이르렀던것이다.
《너는 만나자마자 정치이야기로구나.》
주영훈은 희고 성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싱긋이 웃었다.
《오빠, 나는 오늘 저녁중으로 미국무성에 평양의 정치실상을 확스로 날려야 해요.》
《네가 주관하는 신문, 통신이 아니라 국무성에?…》
《왜 그리 놀라세요. 내가 백악관출입기자라는것을 모르세요?》
《그거야 알고있지.》
《나는 이번에 평양으로 오기 전에 클린톤대통령의 부탁을 받았어요. 이번걸음에 평양의 형세와 새 지도부의 정치좌표를 잘 살펴서 시급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오빠의 낯색이 돌변했다. 안면근육이 긴장해지면서 눈에 예리한 빛이 가해졌다. 무릎우에 놓인 주먹이 가볍게 떨리기도 했다.
《너 내앞에서는 솔직한 말을 할테지. 혹시 조의명분으로 미국놈의 렴탐군노릇을 하러 평양에 온게 아니냐?》
주영훈은 험악해진 표정처럼 목소리도 서리찼다.
문명자는 놀라움과 불쾌감이 치솟는것을 느끼였다.
《오빠의 눈엔 이 동생이 렴탐군노릇이나 할 그런 년으로 보여요? 난 이미 해외동포영접국의 안내원에게도 클린톤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고왔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안내원은 그럴수 있다면서 우리 현실을 외곡됨이 없이 사실그대로 클린톤에게 잘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오빠는 오해하는군요. 정

말할 재미가 없군요. 난 가겠어요.》
새침해서 벌떡 일어서는 문명자의 손목을 주영훈이 얼른 잡았다.
《명자야, 진정해라. 오빠가 오해를 했다면 용서해라. 미국놈들이 우리에게 하도 고약스러운짓을 많이 하다보니 오빠의 신경이 그만 곤두섰댔구나. 이제 거리에 나갔던 로친도 오고 아이들도 오겠는데 네가 이렇게 훌 떠나가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니?》
문명자는 한껏 미안한 기색으로 애원을 하는 오빠의 말을 차마 거절할수 없었다. 도로 자리에 앉은 그는 웃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여 한대 꼬나물었다. 걸탐스레 연기를 빨아서 페장에 스미도록 깊이 삼키였다가 입귀로 내부는 품이 여느 애연가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였다.
주영훈은 움쭉 일어서더니 재털이를 가져다가 문명자의 발치에 놓아주었다.
《오빠 내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녀자의 행실이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꾸짖더니 오늘은 웬일이세요? 재털이까지 가져다주시니!》
《부리사나운 암독수리가 담배연기에 취하여 진정하기를 바래서 그런다.》
《내 부리와 발톱이 아무리 사나운들 설마 오빠까지야 할퀴겠어요?》
《거야 모르지. 네 부리와 발톱에 서방세계의 대통령들도 할퀴군 했으니까.》
《하긴 그렇기도 해요. 이번에 클린톤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이예요. 그가 비보에 접하자마자 전체 미국국민의 이름으로 평양에 조의전문을 보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나운 내 부리맛을 톡톡히 보았을거예요. 나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인데 민족의 구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조객으로 가는 나에게 그 무슨 부탁을 한다면 그러한 비도덕성에 가만있지 않았을거예요. 그가 평양에 조의전문을 보냈기때문에 나도 너그럽게 그의 청을 들었던거예요.》
문명자는 탐스럽게 담배를 피우며 오빠를 바라보았다.
주영훈은 심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너 오빠한테 진실을 말하겠지?》
문명자는 담배를 빨다말고 의아한 눈빛으로 오빠를 주시했다.

《내가 언제 오빠를 속인적이라도 있었던가요?》
그 반문에 노여움의 가시가 박혔다. 낯빛으로 보아 여차하면 훌 일어설 잡도리였다. 그랬으나 주영훈은 제 할말을 명백히 하였다.
《속인 일은 없지만 내 말을 끝내 거역한 일은 있었지.》
《언제 말이예요?》
《네가 평양에 처음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을 때였지. 그때 내가 수령님앞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넌 끝내 지키지 않았지.》
《그랬어요.》
한껏 노기가 어렸던 문명자의 표정이 풀리였다. 동시에 목소리도 공손했다. 가볍게 머리를 숙이더니 다 타지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꺼버렸다.
남매는 똑같이 그때의 사연을 회상했다.
해외동포영접국 일군으로부터 래일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명자는 흥분을 걷잡을수 없었다. 한평생의 소원이 풀리는듯 한 기대감에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모든 애연가들이 흥분하면 그러하듯이 문명자는 앉은자리에서 담배를 세가치나 연거퍼 피웠다. 이것을 지켜보던 주영훈은 이튿날 아침 집을 나서는 문명자에게 엄히 말하였다.
《명자야, 웃주머니에서 담배갑과 라이타를 내앞에 내놓아라!》
《오빠, 왜 그러세요?》
문명자는 놀라서 항변했다. 담배와 라이타를 내놓으라고 하는것이 육체의 한 부분을 떼여놓으라는것만치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몰라서 묻느냐? 네가 다른 나라 수반들앞에서 꺼리낌없이 담배질을 하였다는걸 잘 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앞에서는 그래서는 안돼. 두말 말고 내놓아라.》
오빠의 요구가 강경하다보니 거역하기가 어려웠다. 곁에 서있는 해외동포영접국 일군의 얼굴을 얼핏 살펴본즉 그도 오빠의 요구에 공감하는 기색이였다. 문명자는 아쉬운대로 담배갑과 라이타를 오빠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다.

금수산의사당구내에 승용차를 세우고 발걸음을 옮기는 문명자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였다. 의사당건물을 바라보며 이제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뵈올 영광의 그 시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여러 나라 수반들과 인터뷰를 하였지만 지금처럼 흥분과 긴장을 느껴본 때는 없었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이름을 떨치는 그였지만 주눅이 들고 몸가짐이 서슴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하지만 오랜 숙원이 풀린다는 기쁨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돌이켜보면 그 숙원은 해방직후부터 품어왔다고 할수 있었다.

문명자는 서울에서 숙명녀고를 다닐 때 외사촌오빠 주영훈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좌익학생운동에 참가했다. 불같은 성미를 가진 그는 리승만괴뢰도당의 반인민적책동을 반대하는 학생시위의 앞장에 섰다.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되여 재판을 받고 1년간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였다. 그때 같은 감방에는 위대한 주석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 청년공산주의자의 한사람이였던 한영애가 있었다. 문명자는 감옥생활의 나날에 한영애로부터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무수히 들었다. 그때에는 물론 한영애가 어떤 투쟁경력을 엮어온 녀자인지 알수 없었다. 다만 사상적지향이 예민하던 사춘기의 문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그런데 평양에 와서 위대한 주석님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청춘시절의 첫시기 서대문형무소에서 알게 된 한영애가 일찌기 주석님의 지도를 받으며 투쟁한 녀자임을 알게 되였다. 그때의 놀라움과 감회는 깊었다. 물론 조국의 북과 남의 현실에 무관심할수 없었던 문명자는 미국에서 기자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책을 여러권 읽었다. 그 과정에 위대한 주석님은 삼도왜적이 그 명성만 들어도 벌벌 떠는 전설적영웅으로, 세계《최강》을 뽐내는 미군과 그 추종국가 군대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으로 주석님의 위인상이 표상되여있었다. 예로부터 영웅맹장은 그 외양부터가 범접하기 어려우리만큼 엄하고 그 성향 또한 과격한 결단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오빠가 담배갑을 빼앗은것도 그러한 까닭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으나 의사당 현관문앞에까지 나와 친절히 맞아주시는 위대한 주석님을 우러르게 되였을 때 자신의 표상이 일면적이였다는것을 깨

달았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자기에게 《이렇게 문녀사를 만나게 되여 더없이 기쁩니다.》라고 하며 그 독특한 미소를 보내주실 때 긴장감은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정아버지를 만난듯 한 느낌이였다.

《년로하신 주석님께서 이렇게 문앞까지 나와 맞아주시니 황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문명자는 다시금 깊이 머리숙이였다.

《나를 찾아 수륙만리를 왔는데 어떻게 앉아서 맞이하겠습니까. 자, 어서 들어갑시다.》

집무실에 이르러 장방형의 앞탁을 사이에 두고 어버이주석님과 마주앉았을 때 의례원이 담배갑과 라이타를 가져왔다. 그것을 띄여본 문명자는 갑질이 날 정도로 담배를 피우고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 심정을 꿰뚫어보신 주석님께서는 미소어린 안색으로 말씀하시였다.

《문녀사는 애연가라는데 어서 담배를 피우시오. 그래야 안정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것입니다.》

문명자는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침묵했다. 어찌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주석님께서는 다시 권하려고 담배갑을 집어드시였다. 상표를 보시니 외국담배였다. 오래동안 외국에서 살아온 문명자의 기호를 헤아려서 의례원이 외국담배를 가져왔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의례원에게 이르시였다.

《우리 나라 담배를 가져오시오. 문녀사는 뭐나 우리 나라것을 좋아하오.》

의례원이 우리 나라 담배를 가져왔다.

문명자는 어줍은 미소를 그리며 조심히 입을 열었다.

《제가 남달리 담배를 즐기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 주석님앞에서 무엄하게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배갑을 문명자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설사 다른 사람앞에서는 담배를 삼가하더라도 내앞에서는 피우시오. 그것은 내가 문녀사를 잘 알고 깊이 리해하고있기때문이요.》

그 말씀의 의미가 충격적으로 가슴에 안겨왔다. 문명자는 더는 사양하지 않고 약간 얼굴을 돌리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탐스럽게 한모금 깊숙이 연기를 삼키였다. 즐거운 안정감과 류다른 쾌감이 전신을 휩쓰는듯 했다. 어쩌면 담배맛이 이다지도 좋을가? 죽을 때까지도 그 맛을 잊을수가 없을것 같았다.

이날 접견을 마치고 오빠를 만났을 때였다. 오빠는 간수했던 담배갑과 라이타를 돌려주었다.

《그동안 담배를 못 피웠으니 갑질이 날대로 났겠구나.》

《오빠는 담배갑을 뺏아냈지만 난 오늘 주석님앞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오빠는 억이 막힌듯 아무 말도 못하고 부릅뜬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러나 녀동생으로부터 저간의 사연을 듣고는 감격한 표정으로 경탄했다.

《우리 수령님은 그처럼 너그럽고 자애로운분이시란다!》

…추억에서 깨여난 문명자는 처음화제에로 생각을 돌리며 심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수반이 서거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엄청납니다. 이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어나가시겠는지.… 평양이 차후 그어갈 정치좌표는 오늘의 세계가 관심을 모아 주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 미국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있느냐?》

주영훈은 무심히 물었다.

문명자는 그러한 질문을 기다린듯 선뜻 응대했다.

《클린톤대통령은 평양으로 떠나는 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북조선은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완강히 도전할수 있는 상대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새 세계 국제질서에 정면으로 돌파구를 낼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것만큼 미국은 차후 평양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있습니다. 클린톤행정부는 평양의 새 지도부가 어차피 개혁, 개방에로 나아가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지요. 만일 그 전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추동하여 평양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북조선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미국방장관은 아시아지역연단의 안보문제토의에서 북조선의 정세를 위험한것으로 묘사하면서 평양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놈은 역시 미국놈들이로구나! 초상난 집에 불질을 하려는 고약한 놈들!》
주영훈은 격분에 넘쳐 부르짖었다.
《지금 평양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미국뿐아니라 서방세계가 입을 모아 북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하면서 평양의 정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있어요.》
문명자는 세계보도계들의 예평과 론조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었다. 일부 소식통들은 **김일성**주석께서 뜻밖에 서거하셨기때문에 평양에서 어쩔수없이 정치적혼란이 일어나며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것이라고 하였다.
지어 남조선당국은 위대한 주석님 서거로 북이 예상외로 빨리 붕괴되여 통일이 앞당겨진다고 하면서 이북지역에 토지를 갖고있던 《실향민》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줄데 대한 방안까지 꾸미였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에서 통일후 동부도이췰란드토지의 소유권자들에게 취한 조치를 본딴것이였다.
서방의 많은 외교소식통들은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후계구도가 안착되는대로 개혁과 개방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갈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론조는 각이하지만 아무튼 세계여론은 북조선의 정치정세에서 그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측하고있다.
그러한 반면에 남조선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리사장 김대중은 북조선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책정한것만큼 령도자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지적하고 **김일성**주석의 서거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명자는 김대중의 견해에 어느 정도 공감했다. 이미 오래전에 당국의 탄압과 살인음모에 걸려들었던 김대중을 동정하고 량심의 붓을 들어 그를 도와주었던 인연때문인지도 모른다.

1973년에 벌어진 김대중랍치사건은 남조선당국과 일본당국의 공모밀에 철저한 보도관제속에 묻혀있었다. 그러했지만 문명자는 워싱톤에서 도꾜로 날아와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도꾜에는 일찌기 문명자가 와세다대학 연구생으로 적을 두고 녀성지《여원》도꾜지국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인연이 깊었던 일본언론계의 인물들이 많았다. 그는 김대중랍치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자 주저없이 붓을 들었다.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문명자다운 일종의 모험이였다. 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세계여론이 떠들썩했고 반면에 남조선중앙정보부는 문명자암살음모를 꾸미였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문명자는 하는수없이 정치망명을 선언했다. 미국시민권이 결정되는 재판정에서 문명자는 울었다. 재판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말했다.

《타국민, 타민족인이 미국시민으로 법적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문녀사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문명자는 의분에 넘쳐 재판장에게 항변했다.

《당신은 내 눈물의 의미를 잘못 리해하고있습니다. 나는 군사파쑈독재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슬픔때문에 울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비록 국적은 바꾸어도 몸과 마음만은 영원히 배달겨레의 한 성원으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정녕 문명자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북조선의 정치형세에 무관심할수 없었다.

《오빠, 이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실가요?》

일순 자기 생각에 잠겼던 문명자는 오빠에게 물었다.

주영훈은 명백한 어조로 대답했다.

《너도 평양의 거리와 건물들에 있는 구호들을 보지 않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 말이다. 이 구호들은 명백히 우리 당의 정치선언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같이 모든 일이 되여나갈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과 꼭같으신분이시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민은 눈물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분연히

일떠서는게 아니냐. 나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 많은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더 살아 무엇하랴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지만 수령님과 꼭같으신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모진 마음들을 거두었다. 너도 영결식과 중앙추도대회에 참가하고 느끼고 깨달은바가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빠의 말씀이 옳아요.》

문명자는 오빠의 신중한 표정을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려호텔의 독방에서 고민에 시달리던 머리가 거뜬해지는듯싶었다.

이날 저녁 그는 국제우편으로 미국무성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날리였다.

《북조선은 아무런 혼란도 없이 안정되여있다. 그 무슨 혼란이 있을것이라는 예측은 북조선의 현실을 잘 모르는 억측이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로 슬픔에 잠긴 전체 인민과 군대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단합되여 친근한 하나의 대가정을 방불케 한다.

평양의 정책에서는 조금의 변화도 없을것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제3단계 조미회담도 주석님 생전의 뜻대로 재개될것으로 예견된다.

김일성주석서거후 〈개혁〉과 〈개방〉으로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와 같은 사태발전씨나리오가 평양에서는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평양의 독특한 현 정치체계를 놓고볼 때 다른 공산권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자기 식의 길을 따라 나아갈것이다. 아직 공식발표는 없으나 조만간 **김정일**장군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될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북조선국민들속에서 기정사실로 인정되고있다.

차후 평양의 동향은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알리겠다.

문명자 》

전문을 날리고 문명자는 잠시 생각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얼마나 어려운 형세에서 주석님의 위업을 넘겨받으셨는가? 그이께서 체험할 고뇌는 또 얼마나 크실가?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그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3

어쩌면 향기가 이렇게도 짙을가? 노란 빛갈은 또 얼마나 고운가?

김구선은 그 향기와 빛갈에 취한듯 한동안 남방과일인 향참외를 얼없이 바라보았다. 익을대로 익어서 제풀에 꼭지가 무삭아버린 향참외가 수십개나 온실바닥에 널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누구도 온실을 돌보지 못했다. 경황이 없었다. 전국의 모든 인민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수령님을 직접 모시고 일을 하여오던 금수산의사당의 관리성원들은 국상을 당하자 누구보다 비통한 절망에 휩싸여버렸다.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앞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여럿이였다. 수령님의 사업과 생활을 보좌해드리던 본분을 이제는 어찌한단 말인가. 의사당의 안팎을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는것도, 정원의 나무들과 꽃을 가꾸고 온실의 남새와 열매를 키우는것도 어느것이나 다 수령님을 위해서였다. 금수산의사당의 울타리안에서 그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을 가장으로 모신 하나의 가정처럼 지내던 그들이였다. 누구의 가슴속에나 수령님에 대한 가지가지의 추억이 깊이 새겨져있었다. 그런것만큼 상실의 비애는 남다른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이 몸이 살아서 무엇하랴. 잘 보좌해드리지 못해서 수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죄의식이 그들의 가슴을 찢었다. 죽음으로 자신을 징벌하고싶은 죄의식속에 지난 10여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수 없었다.

금수산의사당의 관리사업을 책임진 김구선은 더구나 그러했다. 그는 이 기간 내처 피눈물을 뿌리며 조의식과 영결식 보장에 드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 행사들을 보장하는데 헌신하는것이 자기 본분을 마지막으로 다하는것이라는 자각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 쓰러져버리거나 극단적인 충동을 걷잡지 못하였을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지나온 나날이 도저히 믿을수 없는 꿈결의 한 순간인듯싶었다. 어쩌면 아득한 력사의 수천년이 함축되여 흘러간듯도 하였다. 어제 중앙추도대회가 있었다. 김구선은 비로소 향참외에 생각이 미

치여서 오늘 아침에야 온실로 나왔다.

그는 꼭지가 떨어진 향참외 한개를 조심히 집어들었다.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껍질이 터져서 단물이 흘러버릴것 같았다. 코에 가까이 가져다대고 걸탐스레 향기를 들이마시였다. 그러자 눈시울이 화끈 달아올랐다. 향기에 자극된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치밀었다.

《어버이수령님께 이 향참외를 끝내 맛보여드리지 못하고…》

뒤따라 목메인 흐느낌소리가 저도 모르게 터져올랐다. 향참외에 깃든 사연이 가슴을 지지며 떠올랐던것이다.

…지난 6월 하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날 아침이였다. 짧지 않은 기일을 예견하고 떠나시는 길이여서 김구선은 여느때없이 작별의 서운한 감정이 컸다. 물론 그때에는 이것이 생전의 수령님과 마지막헤여짐이 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하지만 오래동안 현지지도의 길에 계실 그이께 무엇인가 꼭 대접해드리고싶었다. 두루 생각던 끝에 온실에 달려가서 먼저 익은 수박 한개를 따왔다. 수령님께서는 평소에 과실을 좋아하시였다. 김구선은 그것을 잘 알고있었다.

《아니, 벌써 수박이 익었소?》

수박을 보신 수령님께서는 사뭇 놀라시였다.

《이른봄 온실에 심은것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맛을 보십시오.》

《좋소. 햇수박을 어디 먹어봅시다.》

수령님께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김구선은 수박에 칼을 박고 쪽을 내였다. 검은 씨가 드문드문 박힌 빨간 속살이 드러났다.

수령님께서는 한쪽을 집어들고 김구선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도 한쪽 드시오.》

김구선은 사양하지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무엇이든 달게 잡수시였다.

《맛이 좋구만. 온실에 심은 수박을 얼마나 딸것 같소?》

맛을 보신 수령님께서 물으시였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수박이 잘되였습니다. 잘하면 50톤가까이 딸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딸수 있단 말이지!》

수령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어리시였다.

《그렇습니다.》

《50톤이라…》

수령님께서는 그 수량의 크기를 새겨보는듯 실눈을 짓고 일순 생각에 잠기시였다.

무엇때문에 갑자기 심중한 안색을 지으실가? 김구선은 알수 없었다. 기회를 놓칠세라 진작 품고있던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며칠후에 수령님께서 가계시는 곳으로 수박을 한지함 골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러나 나한테 보내느라고 하지 말고 평양시내 유치원과 탁아소들에 보내시오. 아이들이 한쪽씩이라도 햇수박맛을 보도록 해야 하겠소.》

똑바로 마주보는 수령님의 눈에 간절한 빛이 어리시였다.

김구선은 가슴이 뭉클했다. 수령님께서는 수박을 맛보면서 먼저 아이들을 생각하시였다. 물론 이런 일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 금수산의사당에는 울타리주변을 따라 즐비하게 심은 포도나무에서 해마다 많은 량의 포도를 땄다. 수령님께서는 그 포도를 평양시내 아이들에게 보내주군 하시였다.

《말씀하신대로 수박을 아이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목메여 대답을 올린 김구선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어조를 바꾸며 뒤를 이었다.

《그런데 먼저 어버이수령님께 한지함 보내드리겠으니 받아주십시오.》

《보내지 말라니까. 나는 이미 햇수박맛을 보지 않았소. 50톤이면 아이들의 수에 비해 너무 적은 량이요.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맛을 보이자면 한개라도 축을 내서는 안되겠소.》

《그렇지만 한지함쯤이야… 저희들이 수령님을 위해 가꾼것인데 끝내 사양하시면 섭섭합니다.》

김구선은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관리처장각하!》

이윽히 마주보던 수령님께서 《동무》가 아니라 《각하》라고 부르시였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롱담을 하신다고 여길수 있었으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있는 김구선은 튕겨나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타협할 여지를 주지 않고 무조건 집행을 요구할 때 그렇게 부르시였던것이다.

《나에게 보낼 한지함의 수박이면 수십명의 아이들에게 맛을 보일수 있소. 가뜩이나 량이 적어서 걱정인데 한지함이나 축을 내다니… 한개도 허실없이 몽땅 아이들에게 보내고 그 정형을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김구선은 차렷자세를 취했다.

《앉소.》

수령님께서는 근감하신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이 수박맛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으면 먹은것보다 더 기쁘단 말이야. 동무에게 손자애들이 있던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정을 모를수밖에… 입안의것도 꺼내서 손자들에게 먹이고싶은게 할아버지들의 심정이야.》

수령님께서는 그윽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 미소에는 손자들에게 수박맛을 보이고 기쁨에 잠기는 할아버지의 자애깊은 감정이 흘렀다.

김구선은 후더운 온기에 휩싸이며 입을 열었다.

《올해 저희들이 온실에 남방의 향참외를 열포기가량 심어보았습니다. 예상외로 열매가 잘 달렸습니다. 향참외가 익으면 보내드리겠으니 그것만은 꼭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열포기에서 딴 향참외야 아이들에게 노나줄 형편이 못되지. 그대신 향참외재배와 관련한 기술지표들을 잘 정리해두오. 온실조건에서 향참외를 재배할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향참외를 맛보일수 있을거요. 나는 남방과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지 못하는게 마음에 걸렸는데 동무네가 향참외재배경험을 쌓은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자, 그럼 떠나겠소. 잘있소.》

《어버이수령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작별의 그날부터 김구선은 매일 한번씩 향참외를 돌아보았다.
지난 7월 8일 아침에도 출근길에 온실부터 들리였다. 그사이 향참외는 어른의 주먹만 하게 컸다. 껍질이 연황색을 띠기 시작한 한개는 특이한 향기를 연하게 풍기였다. 언제면 다 익을수 있을가?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 몇개인가를 세여보았다. 한 지함은 잘될듯싶었다. 둘러볼수록 흐뭇하여서 먼저 익기 시작한것을 소중히 만져보았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여 향참외를 끝내 보내드리지 못하였다.…
그 아침의 기억은 어제런듯 방불했다. 그때의 절통하던 감정도 되살아났다. 김구선은 온실의 향참외에 시선을 주고 하염없이 앉아있었다. 입귀로 찝찔한것이 흘러들었다. 비로소 눈물을 의식했다.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는데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손에 물조리를 든 온실관리원처녀가 나타났다. 김구선은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눈시울이 젖어있는 이쪽을 띄여본 처녀는 입귀를 떨었다. 울음이 터지는 모양이다.
《옥실동무.》
다정히 불렀다. 몇걸음앞에서 무엇인가 서슴어하던 처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 향참외의 씨를 잘 받아두라구. 명년에는 온실에서 더 많이 시험재배를 해야겠소.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대로 전국의 아이들에게 향참외를 먹일수 있는 방도를 우리가 개척해야 하겠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처장아바이.》
처녀는 갈린 목소리로 응대했다.
김구선은 눈을 슴벅이며 처녀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목이 메여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곡진한 당부였다.

4

김구선은 어버이수령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방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이 여기 금수산의사당으로 옮겨질것이다. 의례히 그렇게밖에 될수 없다고 생각했다. 국가수반이 바뀌면 선대의 궁전으로 계승자가 옮겨오기마련이다. 그것은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나 굳어진 전례였다.

아직까지는 수령님의 령구를 그냥 의사당에 모시고있다. 서거하신 첫날에 열린 정치국회의에서는 론의가 많았다. 수령님의 령구를 어디에 모시고 조의식을 할것인가를 두고 일군들속에서 여러갈래의 의견들이 교차되였다. 4.25문화회관과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이 물망에 올랐다.

그들의 의견을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가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내 생각에는 어버이수령님을 금수산의사당에 안치하고 인민들이 금수산의사당에 와서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금수산의사당은 수령님께서 근 20년이나 집무를 보시던 곳입니다. 나는 수령님의 령구를 여기저기에 옮겨모실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국성원들은 그이의 충의에 깊이 머리숙이였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구선은 류다른 공감을 느끼였다. 조의기간만이라도 전날처럼 수령님을 곁에 직접 모실수 있었다. 생전의 수령님을 보좌해드리던 자신의 본분을 그만큼이라도 연장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하지만 인제는 조의행사가 끝났으니 수령님의 령구를 다른데로 옮겨모시게 될것이다. 떠도는 말도 있지만 **김정일**동지께서 어떤 결심을 하고계시는지… 어느 곳이든 옮겨질것만은 사실이다.

앞으로 장군님을 의사당에 모시자면 새롭게 정리할것은 정리해야 했다. 그러한 조직사업을 위해 방안들을 돌아보기로 결심했던것이다.

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시던 방 문앞에 이르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옷깃을 여미고 몸가짐을 단정히 했다. 생전의 수령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이 문앞에서 갖추던 행동이 저도 모르게 반복되였다.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얼핏 환영이 스쳤다.

넓다란 집무탁을 마주하고 앉은 수령님께서 어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다. 반겨맞으시는 모습이 눈앞에 안겨온다. 귀에 익은 독특하신 음성이 심장에 흘러든다.

그 환영이 사라지자 방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깃들었다. 인제는 그처럼 친절하신 모습과 다정하신 음성을 다시는 볼수도 들을수도 없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가슴을 쳤다. 막혔던 날숨을 길게 내불고 비품들을 둘러보았다. 천천히 옮겨지던 시선이 텔레비죤에 박히였다. 모서리의 칠이 벗겨진 오래된 《목란》은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널리 보급된 천연색텔레비죤이였다. 오래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텔레비죤을 보시였다.

몇해전이였다. 김구선은 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가신 사이에 텔레비죤을 새것으로 바꾸어놓았다. 그런데 그 일이 그이의 노여움을 사게 될줄이야. 현지지도에서 돌아온 수령님께서는 당장 김구선을 부르시였다.

《왜 아직 잘 나오는 텔레비를 다른것으로 바꾸었나?》

처음부터 노기어린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그 텔레비죤은 오래된것이여서 음과 화면의 질이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침 최신형텔레비죤이 생겼길래 바꾸어놓았습니다.》

《당장 낡은것을 도로 가져다놓으시오!》

《어버이수령님, 저희들의 성의를 좀 받아주십시오.》

김구선은 선뜻 물러서지 않고 간청했다. 그러자 더욱 준절하신 수령님의 음성이 방안을 울리였다.

《관리처장각하!》

전혀 예상치 않았던 호칭에 김구선은 어리둥절했다. 《각하》로 불리우기는 그때가 처음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여전하신 표정으로 뒤를 이으시였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색텔레비는 고사하고 흑색텔레비도 갖추지 못한 가정들이 있소. 그걸 생각했어야지. 두말 말고 낡은

텔레비를 도로 가져다놓으시오!》
김구선은 수령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는것을 깨달았다. 즉시로 돌아가서 낡은 텔레비죤을 가져다놓았다.
그후에도 이따금 《관리처장각하》로 불리우군 했었다. 수령님의 낡은 실내화를 바꾸어드리려고 했을 때, 의사당의 환기시설을 바꾸려고 했을 때 그러하였다.
언젠가 정원을 거니시는 수령님을 뒤따르던 김구선이 조심히 물었다.
《저에게 노여움을 가지실 때마다 왜 〈각하〉라고 부르십니까?》
《왜? 그렇게 부르는것이 귀에 거슬렸나?》
수령님께서는 돌아보며 빙긋이 웃으시였다.
《평소에는 〈동무〉라고 부르다가 노여울 때만 〈각하〉라고 부르시니 하는 말입니다.》
《그랬댔군. 내 진작 그 까닭을 알려줄걸 그랬소. 이 금수산의사당은 인민을 위해 헌신할 의무만을 지닌 인민의 수령이 일을 보는 집이야. 그런데 이따금 동무는 자본주의나라 대통령궁전같이 필요이상 호화롭게 꾸려놓으려고 하거던. 그때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고위관리들을 부르는 식으로 〈각하〉라는 말이 저절로 튀여나갔지. 내나 동무는 〈각하〉가 될것이 아니라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해. 앞으로는 내가 다시 〈각하〉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라구.》
《알겠습니다.》
김구선은 뜨거운 감동속에 머리숙여 수긍했다.
그러했으나 지금 낡은 텔레비죤을 바라보니 가슴찢기는 회오가 갈마들었다. 기어이 바꾸어드렸어야 하는건데… 수령님께서는 최근년간에 시력의 장애를 받으셨다. 보다 화면이 선명하고 음질이 좋은 텔레비죤을 보시게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가. 풀길 없는 여한이 사무쳐왔다.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한 일군이 들어섰다.
《관리처장동지, 리을설동지가 찾습니다.》
《어데서?》
《지금 관리처장동지 사무실에 와계십니다.》
김구선은 지체없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

《차수동지, 부르셨습니까?》
정중히 인사를 하였다.
리을설은 일어서서 이윽히 마주보더니 말없이 눈시울을 내려깔았다. 으리으리한 차수복장을 하였지만 크지 않은 체구에 수더분한 농민형의 외양은 언제나 가식없는 소박한 인상을 풍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때문인지 얼굴에 그늘이 비끼였다.
《여기 와 앉소.》
석쉼하게 울리는 조용한 목소리에도 더듬는 음조가 흘렀다.
김구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가 가리키는 쏘파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일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구선은 리을설의 낯색을 살피며 조심히 물었다.
《내가 이리로 온것은…》
힘겹게 입을 열던 리을설은 말끝을 삼키더니 이렇게 반문했다.
《방금전에 무슨 일을 하댔소?》
《어버이수령님의 집무실을 돌아보댔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이제 나와 함께 의사당밖을 돌아봅시다.》
그들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리을설은 포장을 한 정원길바닥을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자국을 옮겼다. 길바닥에 떨어뜨린 그 무엇을 찾기라도 하는듯싶었다. 그러더니 바닥에 금이 간것을 발견하고 우뚝 멈춰섰다. 금이 간 사이로는 뾰족한 풀싹들이 머리를 내밀었다.
《구내길이 이렇게 터진 곳이 몇군데나 되오?》
《10여군데 됩니다.》
《그러니 인민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수밖에…》
리을설은 길게 한숨을 내불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구내길포장을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긴장한데 다시 포장을 하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거야 나도 잘 아는 일이지.》
리을설은 어성을 높였다. 김구선의 응대가 변명처럼 들려서 저도

모르게 의분이 치밀었던것이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풀싹을 뽑아버리더니 말했다.

《조의행사에 참가했던 인민들로부터 신소가 제기되였소. 관리처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니시는 구내길이 터진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냈다고… 아무튼 인민들은 관리처사람들의 모시는 립장과 자세가 그렇게 틀려먹었기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리을설은 뒤말을 번지기가 두려운듯 훅 숨을 들이긋더니 외면을 했다.

김구선은 철추가 정수리에 떨어지는듯 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스스로 느껴오던 자책과 회오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것인가를 새삼스레 깨달았다.

《저는 인민들의 분노와 원망앞에서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오?》

《그렇습니다.》

《좋소. 래일 관리처회의에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더잘 받들어모실데 대한 결의를 다지시오. 동무도 이미 짐작하고있는 일이지만 조만간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집무실을 여기 의사당으로 옮기게 될거요. 그이를 의사당에 모실 준비사업을 서둘러야겠소. 그러자면 의사당 안팎을 새로 꾸리고 비품들가운데서 바꿀것은 바꾸어야 하겠소. 이것은 동무네 관리처의 힘만으로는 어려울거요. 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동무네가 작성해야 하겠소.》

《알겠습니다.》

×

예견대로 관리처회의가 열리였다. 리을설이 회의를 지도했다. 책임일군 여럿이 집행석에 오르고 련관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리을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금수산의사당에 모시기 위한 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회의의제를 선포하고 김구선이 보고를 하였다.

김구선은 어버이수령님을 잘 모시지 못하였던 관리처사업을 뼈저

리게 반성하면서 이렇게 계속했다.

《…조의기간 의사당에 왔던 인민들이 참을수 없는 격분을 조직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침저녁으로 다니시는 의사당구내길에 금이 갔는데 의사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았는가, 도대체 의사당 관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저주와 규탄을 보내여왔습니다. 우리들은 인민들의 이 저주와 항의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느새 김구선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힘겹게 말을 번지는 목소리도 물기에 젖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자신의 자세와 립장을 전에는 의심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후에는 자신의 충정이 너무도 부족했기때문에 수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절통한 마음과 죄스러움이 너무도 커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없이 징벌하고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사당관리처의 전체 성원들은 그 절통함과 죄스러움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서 이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집무를 보시게 될 의사당을 더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김구선은 어조를 바꾸어 의사당 안팎을 새롭게 갱신할 구체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구내길을 다시 포장하고 온실을 확장하는 문제와 일부 내부구조를 변경시킬 건설대상들과 새것으로 바꾸어야 할 설비와 비품의 명세를 렬거했다.

보고가 끝나자 불같은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에는 의사당관리처성원들뿐만아니라 방청자들도 참가했다.

리을설은 회의를 마감지으며 말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여러번 당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유훈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 못다한 충정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방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금수산의사당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은 조용히 진행되여야 합니다. 만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알면 엄하게 만류하실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말고 자재와 설비, 비품들을 마련했다가 건설공사도 빠른 시일내에 와닥닥 해제껴야 합니다.

2~3일내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과 분공을 토론한 후 의사당관리처와 산하조직들에 해당한 과업들을 전달하겠습니다.》

5

김정일동지께서는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컸지만 피눈물을 삼키며 불굴의 의지로 자신을 다잡고 담담한 표정으로 세계를 굽어보시였다. 설사 다른 사람들은 가셔질줄 모르는 비통한 감정을 어쩔수 없어서 계속 슬픔에 잠겨있다 하더라도 자신께서만은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넘겨주고가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실려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을수 없으시였다.

이즈막에 세계의 관심사는 한결같이 조선으로 쏠리고있었다.

이제 조선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굳건히 계승될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것인가?

저마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쏟아놓았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봉쇄에 경제적난관까지 겹친 우리 나라를 두고 깊은 우려와 동정을 표시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선에서 일정한 정도의 정책변화가 있을것이라면서 어차피 《개혁, 개방》이 있을것이라는 여론도 내돌리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은근히 쾌재를 올리면서 《3, 3, 3》이라는 랑설을 퍼뜨렸다. 우리 나라가 사흘 아니면 석달, 늦

잡아서 3년이상 더 지탱하지 못한다는것이였다. 물론 우리를 잘 모르고 지껄이는 잠꼬대같은 수작이였다. 그러나 국내외정세를 놓고보면 우리 앞길에 전례없이 엄혹한 난관이 겹쌓인것만은 사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하기 위하여 이 난국을 어떻게 뚫고나갈것인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수령님서거직후에 일군들에게 표명하신 자신의 정치의지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닥친 중중첩첩한 난관을 뚫고나가자면?… 너무도 무겁게 실리는 력사의 중하를 실감하며 조용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 누구와 가슴 후련히 심금을 터놓고싶은 생각이 미치시였다. 집무탁앞으로 다가가 전화로 인민무력부 책임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자신과 함께 오늘의 난국을 헤쳐갈 우리 혁명대오의 앞장에는 변함없이 인민군대가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였던것이다. 얼마후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도착했다. 책임부관의 안내로 그들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맨앞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총참모장 최광이 서고 그뒤로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총참모부 국장들 여럿이 뒤따랐다.

그들모두가 낯익으신 얼굴들이였다. 그런데 누구나 전에보다 얼굴이 수척해진것이 눈에 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10대의 청소년시절부터 한품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주신 오진우와 최광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일군들도 해방직후 평양학원과 보안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을 헤쳐오며 수령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장령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니 대국상을 당한 후에 그야말로 살이 내리고 뼈가 깎이는듯 한 마음의 아픔을 겪었을것이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몸이 축간것은 오진우였다. 그는 7월 8일 오전 정치국비상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사실을 알게 되자 돌아가는 길에 의식을 잃고 며칠간 깨여나지 못했다고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례로 그들의 인사를 받은 다음 자리를 권하

시였다. 자리에 앉은 그들을 다시금 둘러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금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크나큰 슬픔에 몸부림치고있는데 동무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그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서 관하군부대지휘를 비롯한 직책상임무를 더잘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방금전에 수령님께서 남기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동무들과 마주앉고싶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가 처한 엄혹한 내외정세를 설명하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인민군대만 강하면 천하대적이 덤벼들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조만간에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조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수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완성에서 주력군이 되여야 합니다.

인민무력부에서는 인민군대를 수령님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가슴은 한결같이 격동되였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외워보았다.

《수령님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

그 말씀의 의미를 다는 알수 없었으나 인민군대가 보다 중요한 임무를 지니게 된다는것만은 명백히 깨달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갈린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나는 여러 동무들이 얼마나 모진 마음의 괴로움에 잠겨있는가를 잘 압니다. 동무들은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자라난 일군들입니다. 그러니 수령님을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수령님께서 병석에 계시며 나의 정성을 조금

이라도 받다가 돌아가시였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것을 생각하면 절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장군님의 눈가에 불시로 눈물이 어리시는것을 보았다. 누구누구하여도 대국상을 당한 후에 제일 크나큰 비애에 잠긴분은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목메인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그러나 나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있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남기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동무들이 나의 이 심정을 리해하고 나와 함께 분연히 일떠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세계사를 둘러보면 제일 어려운 고비는 국가수반을 잃었을 때입니다. 국가수반을 잃었을 때 흔히 사람들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대렬안에 숨어있던 야심가, 음모가들이 나타나 국권과 군권을 탈취하려고 책동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러한 력사적교훈을 잊지 말고 높은 정치적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미제를 비롯한 우리의 원쑤들은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책동을 짓부셔야 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수령님의 군대이며 당의 군대입니다. 나는 인민군대를 우리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때일수록 의탁해야 할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최고사령관이 의탁해야 할 혁명의 기둥은 인민군대입니다. 나의 이 심정을 모든 인민군병사들에게 전하여주시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그이의 크나큰 믿음에 가슴이 격동되였다. 인민군대에 대한 그이의 신임과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며 숭고한 사명과 임무가 자신들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리는것을 의식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외워보았다.

《혁명의 주력군!》

《혁명의 기둥!》

새로운 결의가 불타오르는 일군들의 얼굴을 둘러보던 **김정일**동지께서 오진우의 얼굴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오진우의 얼굴에 병색이 돌고 있었다. 단순히 국상을 당한 후 마음의 슬픔때문만이 아닌것 같았다. 이미전부터 몸에 병조가 있다는것을 느껴왔으나 수령님서거에 접하고보니 진찰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치료에 무관심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셨는데 이 몸이 뭐 중하다고 치료를 받으랴 하는 심정들이였다. 청소년시절부터 수령님을 따라 고령에 이르는 오늘까지 혁명의 길을 걸어온 오진우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을것이다.

《내 인민무력부장동지한테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과업을 하나 주겠습니다.》

다소 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오진우는 수첩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한껏 긴장과 의혹이 어린 표정이였다. 특별과업이란 과연 어떤것일가? 어떤 과업이든 기어이 수행하리라는 불타는 결의가 뒤따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전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부장동지는 오늘중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얼굴색을 보니 무슨 병에 든것 같습니다.》

순간 오진우의 얼굴에 놀란 빛이 떠올랐다. 그는 어리둥절하여 마음을 수습하는듯 하더니 떨리는 어조로 응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저의 건강에 대해서는 념려마십시오. 저는 건강합니다.》

《부디 검진을 받도록 하십시오! 병세가 확증되면 즉시 입원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과 같은 때에 제가 어떻게…》

오진우는 장군님의 엄한 시선에 부딪치자 입을 다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총참모장동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광동지가 오늘 함께 병원에 가서 오진우동지를 검진시키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그 누구에게 그런 과업을 준다면 오진우의 요구나 간청에 의해 에누리가 있을수 있었다. 오진우의 얼굴색이 눈에 뜨이게 나빠

졌는데도 부관이나 담당의사가 여적 어쩌지 못하고있는것은 본인의 요구를 거역하기가 어려웠기때문일것이다.
최광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진우의 낯색을 얼핏 살피더니 장군님께 힘있는 어조로 대답을 올리였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들 가보시오. 나는 동무들이 국상을 당한 후로 지금까지 어느 하루도 퇴근하지 않고 긴장하게 일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누구나 건강에 류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건강만을 축원하고있습니다.》
오진우가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였다.
《고맙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동무들도 모두 건강해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굳세게 이어갑시다.》
《알았습니다.》
격동된 심정들이 일시에 목소리를 터쳤다. 그들은 숭고한 결의가 빛나는 얼굴로 인사를 드리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날 저녁이였다.
최광이 집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못 초조한 심정으로 전화를 받으시였다. 오진우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내처 검진결과를 기다려오시던 참이였다. 그런데 최광은 무엇인가 서슴어하는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부장동무는 병원에 안 가겠다는걸 제가 우겨서 데리고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잇지 못하고 갑자르고있었다.
《그런데 어찌되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재촉하시였다.
《검진결과 페암이라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해서 인제는 암세포가 일정하게 전이되였다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이마를 맞대고 일을 하면서도 부장동무가 진작 검진을 받도록 하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괴로움과 자책이 어린 목소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에 그 무엇이 박히는듯 한 아픔을 느끼시였다.

오진우동지가 불치의 병에 걸리다니… 만일 그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 혁명에 커다란 손실이 아닐수 없었다. 그는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로투사이며 충실하고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이였다. 우리 혁명이 입게 될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처럼 미더웁고 친밀하게 지내던 일군을 잃을수 있다는 우려가 가슴에 서려드시였다.

《오진우동지가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고있습니까?》

《본인에게는 의사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래일중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한사코 입원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앞에 보다 무거운 임무가 나서고있는 이때에 자기가 어떻게 입원을 하겠는가고 합니다.》

《그로서는 그럴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견했기때문에 그의 검진과 입원치료를 최광동지에게 맡겼습니다. 무조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통화가 끝난 전화기에 시선을 멈춘채 생각에 잠기시였다.

비록 상하관계에 있지만 최광은 오랜 전우이며 벗인 오진우를 설득시킬것이다. 인민무력부장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입원을 한다는것은 인민군대사업에서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는것을 의미했다. 그는 총정치국장임무도 겸임하고있었다. 물론 총참모부나 총정치국의 책임일군들이 보다 분발해서 그 공백을 메꾸어나갈것이다. 제일 우려되는것은 오진우가 건강을 회복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괴로움과 안타까움에 오래도록 잠겨계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나는 입원을 하겠소.》

오진우는 마침내 수긍했다.

그를 설복하느라고 한시간나마 땀을 빼던 최광은 날숨을 길게 내불었다.

오진우는 상심한듯 한 기색으로 이윽토록 최광을 지켜보더니 입을 열었다.

《최동무, 동무한테는 의사들이 내 병명이 뭐라고 했나?》

최광은 일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길줄 모르는 성미였다.

《눈치가 빠르기란 참…》

무엇인가 낌새를 차리고 묻는다는것이 뻔하기때문에 최광은 롱말로 얼버무리였다. 사업상문제를 떠난 화제를 단둘이 이어갈 때에는 어느쪽에서나 직급상관례를 벗어나서 허물없는 사이로 되여버리는 오진우와 최광이였다.

《에돌지 말고 어서 사실대로 말하게.》

오진우가 정색해서 뒤를 재촉했다.

《뭐 뻔히 알고있는것 같은데 새삼스레 나에게 따지고드나?》

《음—》

신음소리를 앞세운 오진우가 제 먼저 실토했다.

《나는 페암에 걸렸네. 병원의사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못 속여.》

최광은 가볍게 놀랐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담당의사는 이미 여러날전에 내 병이 심상치 않다면서 페암일수 있다고 하였댔네. 병원에서 검진을 할 때 나는 여러 의사들의 얼굴에서 당혹한 기색을 보았네. 방금 최동무가 말한것처럼 나는 아직 눈치가 무디지 않네. 그런데 의사들은 나를 로둔해진 령감으로 알고 거짓말을 하였네. 괘씸한것들.》

오진우는 의사들을 진심으로 괘씸하게 여기는것 같았다.

《실망감을 주지 않기 위해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불치의 병은 말하지 않지. 그것은 그들대로 옳은 처사일세.》

최광의 말이였다. 그러자 오진우의 갱핏한 얼굴에 노기가 어렸다.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그랬어야지. 내나 최동무야 지나온

생애에 죽을 고비인들 얼마나 많이 겪었나. 그러나 우리는 어느때든 실망을 모르지 않았나. 병치료는 어느 경우든지 의사와 환자가 합심이 되여야 잘되는 법이네. 나도 자기가 무슨 탈에 걸렸는지 명백히 알아야 그에 해당한 몸조리도 하고 약도 먹을게 아닌가. 나에게는 기관지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폐암치료를 하자니 의사들이 얼마나 불편스럽겠나. 내 오늘 병원에 가면 즉시로 툭 터놓고 치료를 받겠네. 물론 로친이나 아이들에게는 무슨 병인지를 숨기겠네.》

《생각을 잘했네. 나도 인민무력부의 다른 동무들에게는 부장동무가 기관지염으로 입원을 했다고 하겠네.》

한순간 생각에 잠겼던 오진우가 신중한 안색으로 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는 검진결과를 어떻게 보고드렸나?》

최광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네.》

오진우는 첫순간 놀라는듯 하더니 인차 표정을 바꾸며 응대했다.

《우리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는 무슨 일이나 진실만을 말씀드리군 하였지. 하지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고 걱정하실걸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네. 어느때보다도 그이의 뜻을 따라서 몸과 맘을 다 바쳐야 할 이즈막에 오히려 걱정을 하시게 하였으니 죄스럽기가 이를데 없네.》

오진우의 낯색이 심한 자책으로 이지러졌다.

최광은 그의 감정에 공감되는 자신을 의식했다. 자신의 건강이나 마음속 괴로움은 전혀 내색하지 않으면서 전사들의 건강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관심과 걱정이 크신 최고사령관동지의 풍모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은 부장동무가 빨리 입원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것일세.》

이날 오진우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을 밤이 깊도록 최광에게 인계했다. 직무상의 실무적인 사업들을 인계하고난 오진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한가지 특별히 당부하고싶은것이 있네. 그게 뭔고 하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

사업일세. 내 생각에는 이 중대사가 너무 지체된다고 보네. 이 사업에는 누구보다 백두산에서 싸우던 우리들이 앞장에 서야 하네. 최동무가 내 심정까지 합쳐서 이 중대사가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하여주게.》

어찌보면 개인적인 당부라고 할수 있었지만 최광은 명령을 접수할때처럼 《알았습니다!》라고 엄숙히 대답했다.

오진우는 은근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최동무, 추대사업이 벌어지는 당회의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병원에 와서 소식을 알려주시오. 입원중인 나에게는 누구도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라고 통지를 하여주지 않을거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총비서로,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하는 회의에서 손을 높이 들어 찬성을 표시하면 나는 조금도 여한이 없겠소.》

최광도 오진우와 같은 심정이였기때문에 선선히 수긍했다.

이튿날 아침 오진우는 병원을 향해 인민무력부청사를 떠났다. 최광은 함께 가보려고 현관까지 따라나섰다.

오진우는 그의 심정을 알고 펄쩍 뛰였다.

《부관과 함께 가는데 총참모장동무까지 뭘 따라가겠소.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적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은 이때 총참모장이 자리를 뜬다는게 말이 되오?》

딴은 그렇기도 했다. 놈들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무시로 도발을 일으켰다.

6

《아니, 최광동지가 어떻게?…》

양석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방안으로 들어서는 손님을 반겨맞았다. 인사를 나눈 다음 군복차림의 로투사를 놀라운 눈길로 다시 바라보았다. 국가적인 중요한 회의나 행사들에서는 만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그가 여기로 걸음을 하기는 처음인것 같다.

그들은 벽밑에 놓인 쏘파에 나란히 앉았다. 최광은 낯선 방안을 유심히 둘러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양석은 부드러운 선이 단정하게 둘러맺힌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물었다.
《나도 대의원의 한사람으로 의장동지한테 긴히 전하고싶은 심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처음부터 자못 심중한 표정이였다. 케를 보니 전하고싶다는 심정이 보통문제가 아닌듯싶었다. 그는 얼른 입을 열지 않고 채양에 금빛장식이 돋친 위엄있는 차수모자를 벗어서 앞탁에 놓았다. 그것은 평범한 한 대의원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뜻인지도 몰랐다. 양석은 다소 긴장을 느끼며 성긴 백발이 드러난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진작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했어야 했습니다. 한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으니 안타까워서 찾아왔습니다. 내 어저께 병석에 있는 오진우동지를 문안했는데 그도 같은 심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오셨군요!》
양석은 그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였다. 지금처럼 한달가까이 국가수반직이 비게 된 일은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본적이 없었다. 이 중대사변을 두고 전체 인민이 그러하지만 항일의 로투사들은 특별히 생각이 깊을것이다. 하루빨리 **김정일**동지를 국가주석으로 모시고싶은 심정이 누구보다 절절한 그들이다. 그이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하던 때에도 항일의 로투사들이 앞장에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물론 다른 사람이 새삼스레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도 이미 의장동지가 무슨 조치를 취하고있을줄 압니다.》
《국가주석추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는것만큼 아닌게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마음을 많이 써왔습니다.》
참으로 그랬었다. 양석은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자기의 본분을 자각하고있었다. 전례를 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령도자의 서거로 국가수반직이 비게 되는 일은 늦어서 한주일이였다. 레닌이 서거한 후

쓰딸린이 취임한것도, 쓰딸린이 서거한 후 말렌꼬브가 취임한것도 불과 며칠후였다. 수반직이 공백으로 남아서 시일을 끌면 정치적혼란이 불가피하다는것은 굳어진 정치상식이다. 그렇기때문에 인류사에 정치가 출현하여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기간에 수반직계승은 어느 시기에나 시간을 다투는 중대사로 여겨왔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수반직을 비여둔다고 하여 정치적혼란이 있을수는 없었다. 우리 생활의 면모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인민들의 신념은 철석으로 굳어졌다. 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심단결은 반석으로 다져졌다. 그러나 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 하루빨리 높이 추대하여야 인민들의 슬픔을 가실수 있고 모든 국가사업들이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것이다. 양석은 그렇게 생각하고있었다.

《그래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까?》

최광의 물음에 양석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비상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날자와 회의진행일정을 짜놓고있습니다.

며칠전 금수산의사당에서 수령님령전에 조의를 드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끝나면 정치국성원들이 다 모인데서 장군님께 저희들이 짜놓은 계획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국성원들이 저희들의 계획을 적극 찬동하리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조이며 기회를 엿보았는데 그만 아쉽게 되였습니다. 제가 회의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여서 어지간히 주저하며 일어서려는데 회의를 마친 장군님께서 그만 자리를 뜨시였습니다. 우물쭈물한 제탓이였습니다.》

최광은 마치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한듯이 아쉬워하며 무릎을 쳤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구만. 우물쭈물할 일이 따로 있지 그 일이야… 역시 학자들이란…》

얼결에 비난이 튀여나갔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말끝을 감추며 미안한 기색을 지었다.

양석은 젊은 시절에 력사학자로 대학교단에 섰던 경력이 있었다. 그 기간은 몇년밖에 안되였다. 그후 수십년간 정계에서 활동했으나

옛시절의 굳어진 몸가짐이 남아있었다. 그러한 과거가 아니더라도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학자풍의 인상이 짙었다. 단정한 옷차림, 높은 교양이 느껴지는 몸가짐이 그러한 인상을 풍겼다.

《옳습니다. 그 일만은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였습니다.》

최광의 비난을 성근히 수긍한 양석은 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뒤를 이었다.

《그날 금수산의사당에서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도무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력사앞에 커다란 실책을 저지른것 같은 자책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성한 계획서를 다시 검토한 후에 장군님께 보고드리였습니다. 물론 계획서에는 추대행사가 하루빨리 있기를 바라는 각지 인민들의 반영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였습니까?》

최광은 초조히 물었다. 마주보는 눈빛도 간절한 기대로 빛났다.

《여러날 장군님의 결론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시였습니다.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임무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시였습니다. 전화를 받고난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여 됐구나! 하는 환성이 가슴속에 터져올랐습니다. 전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국가주석추대와 관련된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서둘러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를 뽑아서 보고드리였습니다.》

《드디여 됐구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문에 보도될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관련한 상설회의 결정도 만들어놓고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기를 잘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후련합니다.》

양석은 커다란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최광을 복도까지 바래워주었다.

×

언제면 기쁜 소식이 있을가? 이제나 저제나… 안타까운 기다림속

에 또 하루가 흘렀다. 밤중에라도 장군님께서 국가주석추대를 수긍하셨다는 소식이 날아올것만 같아서 사무실에서 간밤을 보냈다.
마침내 장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양의장동무입니까?》
그이의 음성이 귀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흘러드는것 같았다. 공식석상이 아닌 때에는 이름대신 《양의장》이라고 불러주군 하시였다. 그 부르심에서 류다른 친근감을 느껴보는 양석이였다.
《그렇습니다.》
수화구를 귀에 바싹 눌렀다.
《오후에 토론할 문제가 있으니 헌법원문을 가지고 2시까지 내 집무실로 오시오. 당중앙위원회 조인규비서동무도 불렀으니 함께 오시오.》
《알았습니다.》
양석은 느닷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드디여 애타게 기다리던 시각이 왔다. 주석추대와 관련하여 올린 문건을 보신 장군님께서 이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실것이다. 그런데 헌법원문은 왜 가지고오라고 하셨을가? 예견과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긴것은 아닌지… 피끗 그런 의혹이 떠올랐다. 그러나 곧 의혹을 부정했다. 절대로 다른 일이란 있을수 없다. **김정일**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것은 달리될수 없는 기정사실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되고있었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있었다.
예정된 시간에 양석은 조인규와 함께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조인규는 틀진 체구에 비해서는 키가 작은편이였다. 키가 크고 몸매가 호리호리한 양석과는 대조적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두 일군을 반겨맞으시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앉으시오.》
그들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집무탁옆의 걸상에 앉았다.
《국가주권기관 기구체계를 일부 고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해보자고 동무들을 찾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에 놓인 헌법원문을 펼치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앞으로 주석제를 없애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의논조로 조용히 물으시였다. 하지만 상대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시선에는 깊은 사색의 여운이 흘렀다. 여러날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하시는 말씀이라는것을 깨달으며 양석은 순간에 굳어졌다. 너무도 예상밖이였다.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하자고 하였는데 주석제를 없애다니?!… 그 절절한 념원을 안고 자기를 찾아왔던 대의원들의 모습과 전국각지에서 보내온 편지의 내용들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아무 말도 못하고 조인규를 돌아보았다. 둥실한 그의 얼굴도 무척 놀란 기색이였다. 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관련된 계획서는 사전에 그와 토의하고 올렸던것이다. 그때 그도 커다란 흥분을 안고 열렬한 공감을 표시했다. 그와는 사업상련계가 깊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상종을 하여오지만 국가주석추대문제를 놓고 토론을 할 때처럼 견해와 감정이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여본적은 없었다. 토론을 마쳤을 때에는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서 서로가 손을 맞잡고 흔들었다. 그랬던것만큼 방금 뜻밖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두 일군의 표정을 살피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처음과는 달리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주석제를 없애는것은 나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두사람은 말을 못하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헌법원문을 가져왔겠지요?》

잠시후에 그이께서 침묵을 깨치시였다.

두 일군은 가져온 헌법원문을 펼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에 놓인 헌법원문의 조항들을 짚어가며 말씀하시였다.

《나의 의견을 참고하시오.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공화국을 대표한다는 내용을 없애자는것입니다.

주석이 명령을 낸다는 내용을 페지해야 합니다.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주석이라는 내용도 없애자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임무와 권

한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리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돌아들 가서 토론해보시오.》

양석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내 자신의 심정을 헤쳐보일 기회가 왔다는것을 깨달았다.

《경애하는 장군님,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면 안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언제나 단정하고 침착하던 그가 돌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것이 참말로 뜻밖이시였다.

《왜 안된다는겁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양석은 그이의 시선에서 결연한 빛이 뿜겨지시는것을 보았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만일 이 자리에서 인민의 념원을 대변해야 할 자신이 숙어든다면 력사앞에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를것이다. 비장한 각오가 북받쳤다.

《장군님, 수령님께서 령도해오신 국가사업은 장군님께 그대로 계승되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석을 하시든 안하시든 장군님의 령도에 충실할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외적기능을 수행하는데서 수뇌외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수한 론거들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폭발하는 격정으로 갑자기 목이 막혔다. 그 찰나에 곁에 앉았던 조인규가 일어섰다.

《장군님!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석으로 추대하게 될 시각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간곡한 빛이 어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완강하게 나오는 두사람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동무들도 잘 알다싶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초대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직함은 위대한 수령님과만 결부되여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함을 다른 사람과 결부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은 수령님그대로이십니다. 반드시

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주석의 직함을 장군님께서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나라 인민은 물론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겁니다.》

양석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보니 불시로 눈물이 솟았다. 그 눈물이 담고있는 감정이 어떤것인지는 스스로도 분석할수 없었다.

《장군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인규도 목메인 음성으로 청을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이 폭발하는듯 걷잡을수 없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여태껏 내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일뿐입니다!

돌아가시오.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는 동무들과 더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석은 조인규와 함께 말없이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고 집무실을 나섰다. 어쩌면 **김정일**동지를 공화국 최고공직에 추대하는 사업을 못할수도 있지 않을가? 불안과 실망이 가슴에 스미였다. 하지만 다음기회를 보기로 다짐을 했다.

7

김정일동지께서는 경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시였다.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마음의 시선이 닿는 곳은 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의사당이였다. 입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양석과 조인규는 이 구호를 어떻게 리해하고있는가? 안타까움이 북받치시였다. 그들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호의 참뜻을 잘 모르고있다. 수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생활적인 사상감정이 아니라 그 어떤 상징적인것으로 리해하고있다. 어제도 금수산의사당에 나가시였다. 오래동안 수령님령구앞에 서있다가 건물의 내부를 돌아보시였다.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계

실 태양의 집으로 의사당을 전변시킬 구상을 무르익히시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알바 없는 김구선은 여러 방들로 안내를 하다가 이렇게 간청했다.

《경애하는 장군님, 여기로 하루빨리 집무실을 옮겨주십시오. 저는 지금 빈 집을 지키고있는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의분이 치미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여기 의사당에 모시고있는데 빈 집을 지키는것 같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수령님외에 그 누구도 이 집을 리용할수 없소. 금수산의사당은 영원히 수령님의 집이란 말이요.》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하지만 김구선의 얼굴이 해쓱하니 질리는것을 보고는 곧 후회하시였다. 그에게 지나쳤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김구선은 어디까지나 충직하고 성실한 일군이다. 이제 금수산의사당을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모시는 기념궁전으로 꾸린다는것을 안다면 누구보다 기뻐할것이다.

금수산의사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래 집무를 보신 곳이다.

의사당에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던 날의 추억을 잊을수가 없으시였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며 만족해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평생의 소원이 풀린듯 한 기쁨이 가슴에 넘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후 줄곧 의사당에 계시면서 혁명을 령도해오시였다. 금수산의사당에서 수령님을 모신 중요한 회의들이 열리였고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들이 결정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여기서 무수한 고전적로작들과 회고록을 집필하시였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과 외국인들을 여기서 접견하시였다. 분명히 금수산의사당은 누리를 향하여 주체의 태양이 광휘로운 빛을 발산하던 성스러운 광원지였고 이민위천의 인덕정치가 펼쳐지던 사랑의 집이였다. 때가 늦어진감은 있었지만 금수산의사당을 건설한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였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불현듯 하나의 기억이 되새겨지셨다. 생각을 더듬어보니 겨울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시였다.

《내 **김정일**동지에게 감사를 전하고싶어 송수화기를 들었소.》

《수령님, 무슨 말씀이신지…》
영문을 알수 없어서 말끝을 삼키시였다.
《오늘이 내가 여기 금수산의사당으로 옮겨온 날이요.》
(아, 수령님께서 그날을 기억하고계셨구나!)
놀라움에 사로잡히며 수화구에 귀를 강구시였다.
깊은 감회에 젖은 수령님의 목소리가 계속되였다.
《내 방금전에 의사당의 로대에서 포대경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바라보면서 옛전우들과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었소. 김혁, 차광수, 김책…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이요. 이 **김일성**이가 보고싶을 때마다 마주서서 정을 나누도록 의사당을 금수산기슭에 지어준 **김정일**동지에게 감사를 드리고싶다고 하였소. 내 눈앞에 그려지던 그들모두가…》
수령님의 음성이 잠기더니 끝내 뒤를 잇지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수령님의 감정에 공명되여 불시로 눈시울이 화끈해지시였다.
일순 동안을 두었던 수령님의 목소리가 계속되였다.
《물론 환각이였지. 그러나 그들도 넋이 있다면 분명 그런 심정이였을거란 말이요. 그들의 심정까지를 합쳐서 감사를 보내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더 일찌기 의사당을 지어드리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것을 두고 오히려 수령님께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슨 소릴… 나라사정이 어려웠던 전후시기나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 그런 집을 지어주었다면 나는 들지 않았을거요.
얼마전에 왔던 외국대통령의 특사는 의사당을 둘러보더니 이런 훌륭한 건물을 난생처음 본다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소. 나는 그에게 **김정일**동지가 지어준 선물이라고 말해주었소. 그리고 나에게는 두가지 복이 있는데 인민복과 후계자복이라고 했소. 이 두가지 큰 복을 누리고있기때문에 백살까지는 문제없다고 했소.》
《수령님, 저녁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련결된김에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분사이에는 제정된 시간에 정상적으로 통화가 있었다. 물론 급

한 중대사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시간에 구애되지 않았다.

《어떤 소식이요?》

《오늘 11시 산원에서 또다시 세쌍둥이가 출생했습니다. 모두 사내애들인데 건강상태가 좋답니다. 산모는 강원도에 사는데 군관의 안해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소. 나라가 흥하자고 또 그런 일이 생겼구만.》

만면에 기쁨의 미소가 함뿍 어리신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에 방불히 그려지시였다.…

전화종이 울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추억에서 채 풀려나지 못한채 송수화기를 드셨다.

공군사령관이 걸어온 전화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열띤 어조로 보아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닌듯싶었다.

《무슨 소식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번 건군절에 공군부대를 찾아오셨을 때 말입니다. 연구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른 〈은빛－7〉을 보시고 수령님께서는 기어이 성공하라고 고무해주시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공군부대에서는 공군대학의 과학집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해전부터 《은빛－7》을 개발하고있었다.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 공군무력의 타격력은 비할바없이 높아질수 있었다. 부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수령님께서 《은빛－7》이 완성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그러면 자신께서 나와보겠다고 하시였던것이다.

《그래 성공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다급히 물으시였다.

《성공했습니다. 위력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상상밖입니다.》

이제 우리의 비행대는 섬멸적타격력을 가지게 되였다.

《수령님께서 알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곧 수령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른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보

고를 받고 기뻐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셨다. 충격적인 흥분으로 가슴이 설레이시였다.

《교환수동무, 위대한 수령님의 집무실에 련결하오!》

《…》

언제나 명랑한 목소리로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던 교환수처녀가 침묵했다.

《수령님께 급히 보고드릴것이 있소. 빨리 련결하오!》

《경애하는 장군님…》

교환수처녀의 갈린 목소리가 간신히 울리더니 흐느낌소리가 뒤따랐다. 점점 높아지는 애절한 흐느낌소리가 현실감을 깨우쳐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꿈아닌 현실에서도 지금처럼 수령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착각하시는 때가 많았다.

《교환수동무, 미안하오. 내가 그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갑자기 목이 메여 뒤를 잇지 못하고 송수화기를 놓으시였다. 금시 심장이 찢기는듯 하셨다. 불로 지지듯이 눈시울이 화끈해지더니 뒤따라 눈이 뿌잇하게 흐려지면서 무지개같은 빛발이 부서졌다. 아, 수령님께서 정녕 돌아가셨단 말인가! 7월 8일의 그 비통한 새벽으로부터 수천번도 더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던 부르짖음이 다시 터져올랐다. 그것을 부인하고싶은 마음의 몸부림속에 수령님의 영상이 안겨왔다. 공군부대를 돌아보시면서 뜨거운 고무와 격려를 안겨주던 모습이시였다. 그것이 수령님의 군부대들에 대한 마지막현지지도로 될줄이야! 그때로부터 넉달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날부터는 달포가 지났다. 아마도 공군부대에서는 지난 한달동안에 피눈물을 머금고 기어이 유훈을 관철하려고 더욱 분발했을것이다. 조의식이 벌어지던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수령님령전을 찾은 인민에게 오늘 우리가 터치는 통곡은 그대로 용기와 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공군부대에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령님생전에 그들이 《은빛-7》을 완성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가? 모르긴 해도 성공의 순간에 그들은 기쁨보다 수령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때문에 눈물을 머금었을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의 심정을 소중히 자신의 마음속에 부여안고 금수산의사당으로 나가시였다.

초병마냥 가라목 두그루가 서있는 의사당정문에서 그곳 책임일군이 맞이했다.

《얼마후에 모임을 가지겠으니 수령님 책임서기와 리을설동지, 만수대창작사 사장동무를 불러주시오.》

그에게 간단히 지시를 준 장군님께서는 곧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를 모신 방으로 들어가시였다. 방안에는 숭엄한 고요가 흘렀다.

수령님께서는 잠에 든듯 조용히 누워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시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뇌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 기뻐하십시오. 지난 건군절에 현지지도를 하신 군부대에서 〈은빛－7〉을 완성했습니다. 시험결과가 매우 좋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에 수령님께서 금시 잠에서 깨여나신것처럼 느껴지셨다.

《그렇소? 정말 기쁜 소식이구만! 뭐니뭐니해도 총대가 강해야 하거던. 그 공군부대동무들이 큰일을 했소.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안겨줄 또 하나의 된매를 마련했단 말이요. 내 그 부대에 갔을 때 최고사령관을 무장으로 잘 받들라고 말해주었소. 그랬더니 〈은빛－7〉연구개발에 기어이 성공했소. 그들과 한 약속대로 인차 내려가보겠소.》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령님께서 그것을 보아주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하지만 그 환각은 순간에 물러가버렸다. 현실속의 수령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수령님을 우러르는 눈에 핑하니 물기가 어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녕 자리를 뜨고싶지 않아서 수령님곁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책임서기와 군사무관, 리을설과 의사당관리처장, 만수대창작사 사장 리수환. 너무도 잘 아시는 일군들이였다.

《오늘 동무들을 모이라고 한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전부터 무르익혀온 구상과 결심을 말해주자고 불렀습니다.》

그이께서는 마디마디에 깊은 사색과 여운이 흐르는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세계는 우리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주시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있은 정치국회의에서 명백히 선언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수령영생위업의 정치사를 펼쳐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과 의지이고 도덕과 의리입니다. 그런데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당면하게 가장 선차적인것은 생전의 모습대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시도록 잘 모시는 문제입니다.》

좌중은 침묵했다. 장군님을 바라보는 긴장된 시선들에 의혹과 경탄의 빛이 떠올랐다. 그들로서는 상상밖이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수반이 서거하거나 자리를 내놓으면 그 집무실은 후임자에게 넘겨졌다. 이것은 오랜 력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공인된 관례였다. 그리고 서거한 수반의 령구는 그가 생존시 집무를 보던 장소와는 관계없이 도시 중심부의 광장이나 주변의 적당한 지역에 릉을 꾸리고 안치하였다. 먼 과거의 실례를 들것도 없다. 가까운 현세기에도 그러했다. 레닌묘는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꾸려졌고 마오(모)주석기념당은 베이징의 티엔안먼(천안문)광장에 꾸려졌으며 호지명의 묘는 하노이의 바딩광장에 꾸려졌다. 이러한 관례를 생각하며 우리 일군들가운데서도 수도의 중심부인 **김일성**광장이나 만수대언덕, 아니면 만경대지구에 릉을 새로 꾸리고 그곳

에 어버이수령님을 영구히 모실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였다. 조의기간은 물론 이즈막에도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의사당으로 잇닿고있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생각할 때면 오래동안 집무를 보시였던 금수산의사당을 저도 모르게 떠올리군 하였다. 참말로 금수산의사당은 수령님의 영생을 바라는 인민들의 념원과 분리시켜볼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금수산의사당과 떼여놓을수 없듯이 수령님의 영생도 금수산의사당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금수산의사당을 어떻게 보존하고 리용하는것이 좋겠는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금수산의사당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집입니다. 나는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의사당에 모시려고 합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깊이 감복하였다. 모두다 깊이 머리숙이며 그이의 말씀에 찬성을 보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꾸리실 구체적인 구상을 펼쳐가시였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을 쓰신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실 방을 어디에 정하고 그 방을 어떻게 꾸릴것인가 하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나오시여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며 일군들과 의논하시였다. 어떤 일군은 조의행사를 한 중앙홀(지금의 울음홀)이 어떻겠는가고 하였고 다른 한 일군은 여기보다 다른 호동의 방이 좋을것 같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 일리는 있는 의견들이지만 다른 방들을 더 돌아본 다음에 합의를 보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을 데리고 높은 곳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어느 한 방에 이르시였다. 천만구슬을 뿌리며 장쾌하게 폭포가 쏟아져내리고 기암절벽을 단풍이 아름답게 단장을 한 금강산을 형상한 벽화가 펼쳐진 방이였다. 생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시다가 손님들이 찾아오면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산천경개와 유구한 력사를 소개해드리던 뜻깊은 방이였다.

방의 안팎을 주의깊게 돌아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영구히 모실 방을 여기에 꾸려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일 많이 리용하신 방을 영생실로 꾸리는것은 현명한 방안이라고 일치하게 찬동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찌하여 이처럼 높은 곳에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려는지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는 알지 못하였다. 후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최고의 성지로 꾸리면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모신 방을 높은 곳에 꾸렸습니다. 레닌묘는 붉은광장 주석단밑에 있기때문에 열병식을 비롯한 행사를 할 때 주석단성원들이 레닌묘우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나는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모신 방을 높은 곳에 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돌계단을 걸어올라가서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령님의 전사들인것만큼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금수산의사당에 높이 모시기 위하여 최대의 충정과 깊은 사색을 거듭해오시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위업완성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사업이였다.

여러가지로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금수산의사당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실 구상을 그동안 무르익혀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일군들을 부르시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꾸리시려는 결심에 도달하기까지의 자신의 심정을 기탄없이 일군들에게 헤쳐보이고 이렇게 물으시였다.

《내 심정은 이러했는데 동무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리을설이 눈을 슴벅이며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여기 의사당에 장군님을 모시게 된다는 생각만 하여왔

는데 장군님께서는 그동안 그런 결심을 하셨군요! 뜻밖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보니 어버이수령님을 다시 만나뵈옵게 될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인민들이 이 소식을 안다면 모두 감격할것입니다.》

다른 일군들도 같은 심정이라는것을 빛나는 눈빛들이 말해주었다.

《그러자면 금수산의사당을 형태적으로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안팎을 일부 다시 꾸려야 하겠습니다.

수령님의 립상을 모실 입구홀과 대계단도 새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은 다음번에 말해주겠습니다.

동무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해당한 형성안을 작성하고 공사에 착수하는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성안설계는 관리처장동무가 책임져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김구선에게 시선을 주시였다.

《알았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힘차게 대답을 하는 관리처장은 격동된 표정이였다. 예견하셨던바대로 그는 생전의 수령님께 못다한 충정을 영생의 모습으로 수령님을 모시는 사업에 다하려는 불타는 결의에 가슴을 불태우는것이 분명했다. 그는 워낙 재능있는 건축가였다. 관리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건설부대의 기술을 담당한 일군으로 일하였다. 의사당을 건설할 때 설계의 일부를 책임지기도 했었다.

장군님께서는 앉으라고 그에게 손짓을 하고 만수대창작사 사장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리수환은 50대의 중년기에 이른 나이였으나 넘치는 정력이 건장한 체구에 비껴있었다. 체육선수처럼 균형잡힌 몸매에 두리두리한 얼굴은 혈색이 좋았다.

《만수대창작사동무들은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 태양상을 훌륭히 형상하였습니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화가들은 충정이 지극하고 재능도 있습니다. 기념궁전건설에서도 동무들이 크게 한몫하여야 하겠습니다. 설계집단의 형성안작성에 만수대창작사의 도안창작가들을 망라시켜야 하겠습니다.… 참, 사장동무는 의사당을 건설할 때 도안창작가로 참가했댔지요?》

《그렇습니다.》

리수환은 그때 도안창작실 실장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때를 상기하시였다.

《의사당을 지은 설계가들과 건설자들의 공로는 알려졌지만 장식도안가들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동무들이 소문없이 수많은 도안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려한 장식을 추구했기때문에 그때 수환동무가 나한테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하나의 미술대학을 나왔습니다.)

리수환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싶었다. 그랬으나 목소리가 입밖으로 울려나오지 못했다. 그 나날들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때로는 준절히, 때로는 따뜻이 이끌어주시던 갖가지 추억이 떠오르며 목이 메였던것이다.

일순 감회에 잠겼던 그이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외국인들이 의사당에 와보고 사소한 건구 하나에도 예술적품위가 느껴진다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저 동무들의 숨은 공로와 재능이 깃들어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상의 수준에서 장식도안을 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만수대창작사에 특별한 과업을 주시였다.

《알았습니다.》

리수환은 치미는 감격과 흥분으로 힘있게 대답을 올렸다.

그가 앉기를 기다린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동무들, 당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이 구호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그대로 이어갈뿐아니라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인민들속에 영원히 계시도록 기념궁전까지 꾸려놓으면 이 구호가 우리 인민의 생활자체를 반영한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이 펼쳐갈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기념궁전건설은 선차적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색깊은 안색으로 잠시 침묵하시였다.

리을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 건설은 념려마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놀란 시선으로 리을설을 바라보시였다.

《리을설동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하고 리을설은 일순 주저하더니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저희들은 장군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 다음 여기 의사당으로 집무실을 옮기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의사당의 안팎을 보수하고 비품들을 새것으로 바꾸어드리려는 저희들의 소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의기간 의사당을 찾아왔던 인민들은 금이 간 구내길이며 집무실에 색날은 텔레비죤이 그대로 있었다는것을 알고 저희들에게 신소편지를 보내여왔습니다. 수령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신소편지가 아니더라도 수령님을 잃고보니 저희들의 가슴에는 그 모든것이 지울수 없는 여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0여일전에 회의를 열고 수령님께 못다한 충정을 장군님께 다하려고 의사당안팎을 새로 꾸리고 낡은 비품들을 교체할 대책을 의논하고 실행해왔습니다.

장군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는 행사가 벌어지면 며칠사이에 의사당을 새로 꾸리는 사업을 벼락같이 하려고 그 준비사업으로 자재와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아시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나 몰래 그런 일을 꾸미였구만.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으리라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일을 은밀히 꾸민것은 심히 잘못되였습니다. 건설자재와 자금이 마련되여있다는것은 기쁜 일입니다.

더 제기할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리을설이 대답을 드리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모두 생전의 위대한 수령님께 못다한 충정을 다해서 금수산의사당을 새롭게 꾸리는데 최대의 성의를 다합시다.》

좌중은 튕겨나듯 동시에 일어섰다. 저도 모르게 격동적인 충격에 떠밀리웠던것이다.

한없이 경건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장군님을 우러르는 시선들에 결의가 불타오르고있었다.

8

김정일동지께서 의사당밖을 나서신 잠시후였다. 그이께서 관리처장을 다시 부르신다는 전달이 왔다. 방금전에 준 과업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이 있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관리처장은 황황히 밖으로 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사당의 울타리곁에 서계시였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선 김구선은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부르심대로 왔습니다.》

울타리를 따라 길게 뻗어간 포도덕을 바라보던 **김정일**동지께서 돌아서시였다.

《그동안 경황이 없다보니 동무들이 포도수확을 못했구만. 며칠만 더 있으면 포도가 지내 익어서 물크러질수 있겠소.》

김구선은 새삼스레 포도덕에 눈길을 주었다. 무덕지게 달린 포도송이들이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보미가 뽀얗게 오른 까만 포도알들은 다치기만 하여도 터질듯이 지나치게 익었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경황이 없다보니 누구도 포도가 익어가는줄도 몰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는 제철에 이 포도를 수확해서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보내주군 하셨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감개어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김구선은 나직이 대답을 올리며 잊지 못할 추억에 잠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울타리에 포도를 심고 가꾸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시기 시작한것은 벌써 여러해전부터이다.

수령님께서는 의사당직원들과 함께 가지도 잘라주고 거름도 주면서 손수 포도나무들을 가꾸어오시였다. 그 나날중에서도 지난 6월초에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을수가 없었다.

초여름의 불볕이 쨍쨍 내려쪼이는 날이였다.

김구선은 땀을 철철 흘리며 포도밭 김을 매고있었다. 부지런히 호

미질을 하는데 머리우에서 친근하신 목소리가 울렸다.

《동무들, 그동안 잘있었소?》

너무도 귀에 익은 음성이였다. 가슴에 마쳐오는 세찬 충격을 느끼며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어느새 오셨는지 어버이수령님께서 곁에 서계시였다. 여러날동안 협동농장들의 농사를 현지에서 지도하고 돌아오신 수령님이시였다. 김구선은 헤여져 그립던 심정이 북받쳐서 한걸음 다가서며 인사를 올렸다.

《어버이수령님, 건강하십니까?》

《며칠간 포전길을 걸었더니 건강이 좋아졌소.》

김구선은 경건한 표정으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전이 넓은 흰 모자를 쓰신 그이의 얼굴은 거무스름하니 볼볕에 그을렸다. 팔순을 넘긴 그이께서 쉼없이 포전길을 걸으시였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떠날 때 일군들은 더는 포전길을 걷지 마시라고 간절히 만류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이 걱정되여 잠을 이룰수 없다며 그예 떠나시였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두렁길과 들길을 걸으시였겠는가. 볼볕에 그을린 얼굴모습이 그것을 말해주는듯싶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농촌에서 돌아온 걸음으로 함께 포도밭 김을 매자고 하시였다. 김구선은 편히 쉬시라고 절절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노여운 기색으로 말씀하시였다.

《땀을 흘리며 내 손으로 포도밭을 가꾸어야 그 포도를 먹는 아이들을 볼 때 기쁨이 크단 말이요. 손자애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든 할아버지들은 힘든줄 모르는 법이요. 관리처장동무야 내 심정을 알아줘야 할것 아니요. 어서 호미를 한가락 가져오시오.》

말씀의 뜻을 가려볼 겨를도 없이 김구선은 가슴뭉클한 충격에 사로잡혔다.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호미를 한가락 가져다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커다란 소원이 풀린듯 흡족해하며 김을 매기 시작하시였다. 김구선과 로동자들도 다시 일손을 잡았다. 되도록이면 수령님앞에 솟아있는 풀포기들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다.

《내앞의 풀은 내가 뽑아버리게 둬두라구. 내 이번걸음에 나이가 나와 비슷한 로인과 함께 강냉이밭 김도 매여봤소. 그 로인의 말이 농사일처럼 보람있고 재미나는 일은 없다는거요. 웬고하니 땅은 주

인이 땀을 흘리고 가꾸어준것만큼 주인에게 에누리없이 보답할줄 알기 때문이라오. 땅처럼 정직하게 주인의 노력에 보답할줄 아는 대상은 드물거요. 우리가 땀을 흘려 정성을 기울인것만큼 포도도 주렁질거요.》

김구선은 후더운 감정에 휩싸이며 말씀올리였다.

《올해는 포도가 특별히 많이 달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목에 걸친 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훔치고 다시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병석에 누워계실 때에도 내 동무들이 찾아오면 꼭 자신의 손으로 끼니를 지어주시였소. 그냥 누워계시라고 만류해도 듣지 않으시였소. 자신의 손이 간 음식을 먹이고싶어 그러니 그 심정을 알아달라고 하시였소. 나이들고보니 어머님의 그 심정이 보다 깊이 리해되는듯싶소. 나도 내 손이 간 포도를 유치원과 탁아소아이들에게 먹이고싶단 말이요.》

이때 **김정일**동지께서 찾아오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오셨던것이다. 그이께서도 흥건히 땀을 흘리며 김을 매시는 수령님을 뵈옵고 처음은 저으기 놀라시였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미를 놓으시라는 그이의 말씀에 수령님께서는 싱긋이 웃으면서 방금 김구선에게 하던 말씀을 반복하시였다. 그러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감격한 표정으로 호미를 들고 포도밭 김을 매시였다. 두분께서는 나란히 자리를 잡고 호미질을 하시였다. 로동자들도 여느때없이 걸싸게 일을 했다. 빨리 김매기를 끝내야 두분께서 일어서실수 있다고 생각했다. 잡초가 가셔진 포도나무밑둥은 새롭게 단장을 한것처럼 말끔해졌다. 한창 쌀알같은 열매가 달린 가지들은 눈부신 해빛에 반짝이는 잎새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어느새 울타리를 따라 길게 뻗은 포도밭김을 말끔히 맸다.

손을 털고 일어선 수령님께서 김구선에게 말씀하시였다.

《포도를 딸 때 잊지 말고 나에게 알리시오. 지난해 포도를 받고 유치원아이들이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오. 올해도 내 손으로 딴 포도를 그 아이들에게 먹이고싶소.》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포도가 탐스럽게 익는것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셨다.

김구선은 추억의 여운이 불러내는 짜릿한 아픔이 가슴을 허비며 온몸에 퍼지다가 눈굽을 쿡 쑤시는것을 느끼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그날의 추억에 잠긴듯 추연한 낯색으로 한동안 포도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보시였다.

《구선동무, 다른 일은 좀 미루더라도 총동원해서 오늘중으로 포도를 모두 따서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내 익어서 맨손으로 따다가는 포도알들이 상할수 있습니다. 가위나 손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구선은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서 부서책임자들을 불러놓고 작업을 포치했다.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창고에서 지함들도 꺼내왔다.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여서 포도를 담을 지함들은 미리 준비되여있었다.

사무용가위를 찾아들고 김구선은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다.

그때까지 **김정일**동지께서는 포도밭기슭에 서계시였다. 뜻밖이였다. 김구선은 그이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고있었다.

(저희들이 책임적으로 포도를 오늘중에 공급하겠습니다. 념려마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이 금시 입밖으로 튀여나오려는 순간이였다. 그이께서 먼저 말씀하시였다.

《관리처장동무, 손에 든 가위를 나에게 주고 돌아가보시오. 포도를 수송할 자동차들도 동원시키고 각 구역 탁아소, 유치원공급소들에 포도를 접수할 준비도 하라고 련락을 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는것은 우리 동무들만으로도 넉근합니다.》

《로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꾸어서 자신의 손으로 딴 포도를 아이들에게 먹이고싶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어서 가위를 주시오.》

김구선은 그이의 얼굴에 절절한 심정이 비끼는것을 보았다. 더는 말없이 손에 들었던 가위를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에게는 포도에 깃든 사연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꾸신 포도라는것을 알면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울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신다는것을 알게 될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이들이 포도를 받아안고 통곡을 터칠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오. 물론 탁아소보모들이나 유치원선생들에게는 사연을 알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들에게 래일쯤 포도의 사연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김구선은 그이의 말씀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나니 3시간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포도밭으로 다시 나왔다. 그사이 포도를 다 따서 지함에 포장을 하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금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작업을 지휘하는 일군에게 장군님께서 손수 따신 포도는 따로 포장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 포도를 지난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유치원에 보내줄 생각이였다.
얼마후에는 포도지함을 실은 화물차들이 의사당구내를 떠났다. 맨뒤차의 운전실에는 김구선이 앉아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가셨던 유치원에 가보고싶었다. 구역을 거쳐서 그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유치원선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있었다. 이미 련락을 받았던것이다.
《이 포도는 어데서 보내오는겁니까?》
나이지숙한 원장이 김구선에게 물었다.
《구역공급소에서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공급소장동무는 목이 메여 말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화기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리는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울고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조르는 품이 사연을 말해주지 않고서는 못 배길상싶었다. 김구선은 건기침을 앞세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포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손수 가꾸신것입니다.》
녀선생들모두가 놀랐다.
김구선은 그득해지는 목을 열려고 마른 침을 삼키며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농촌현지지도에서 돌아온 그날 수령님께서 손수 포도

밭 김을 매며 하신 말씀과 오늘 포도수확을 하며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다.

그러자 녀선생들은 일제히 얼굴을 싸쥐고 흐느꼈다. 비록 수령님께서는 서거하셨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우리 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걷잡을수없이 격동되였던것이다.

김구선은 당황했다. 만일 아이들이 안다면 어찌되겠는가. 다행 아이들은 운동장에 없었다.

《선생님들, 진정하십시오. 방금전에도 말했지만 장군님께서는 아이들이 포도에 깃든 사연을 알면 먹지 못하고 수령님을 그리며 통곡을 터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어서 포도를 부리웁시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그랬으나 제 귀에도 걷잡을수없이 갈린 음성이였다. 잠시후에야 녀선생들은 어느 정도 진정을 하고 포도를 부리우기 시작했다.

김구선은 그들과 함께 일손을 잡으며 당부했다.

《포도가 지내 익어서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지함들을 다 부리웠을 때 원장이 김구선에게 말했다.

《지함들을 교실로 날라가자면 포도가 상할수 있기때문에 여기 운동장에서 나눠주겠습니다.》

《좋도록 하십시오.》

녀선생들이 자기 교실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나왔다.

김구선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포도를 나누어주는것은 선생들이 할 일이였다.

운동장밖으로 나와 돌아보았다. 마당에 정렬한 아이들이 포도를 나누어준다는 원장선생의 말에 환성을 질렀다. 철부지들은 어찌된 포도냐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매일같이 거듭되는 새참시간에 흔히 있는 일로 여기는 모양이다.

담임선생들이 지함을 터치고 포도를 나누어주기 시작하였다.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들을 하나씩 받아안은 아이들의 얼굴들은 떨기떨기 웃음꽃들이였다. 먼저 포도를 받은 아이들은 참지를 못하고 걸탐스레 먹어대기 시작했다. 지내 익은 포도알들이 터지면서 아이

들의 입언저리에 문양을 그리였다. 미처 삼키지 못한 단물이 턱밑으로 흐르기도 했다.

《야, 맛있다!》

사내애의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원을 떠나려고 옆으로 돌아선 김구선은 두눈을 커다랗게 떴다. 저켠 울타리밖 백양나무곁에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포도를 먹으며 기뻐하는 아이들이 보고싶어 오셨을것이다. 아까부터 아이들을 지켜보고계신것이 분명했다. 급히 그이를 향해 다가갔으나 김구선은 몇걸음밖에서 우뚝 서버린채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이의 눈에 눈물이 어린것을 보았다. 이 순간에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무슨 말로 형언할수 있을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더라면… 여기에 생각이 미치시자 형언 못할 애절한 감정이 북받쳤을것이다. 아니, 그것만이 아닐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꽃피워주려고 육친의 애정을 기울인 그이께서만이 체험하실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 눈물에 담겨져있을것이다. 아무튼 이 순간에 보게 된 그이의 눈물과 철없이 웃고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심각한 대조를 이루며 김구선의 뇌리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였다.

아이들이 운동장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으며 저켠에 서있는 승용차를 향해 가시였다.

아마도 아이들은 포도를 먹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려고 그이께서 오셨던 사실을 언제까지나 모를것이다. 그이께서 남모르게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더구나 모를것이다.

9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거운 상념에 잠기시였다. 오늘 포도를 공급받은 몇개의 유치원과 탁아소를 돌아보면서 최근 아이들에게 콩우유가 정량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셨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아이들에게 공급할 콩우유량을 정해주시였다. 그런데 그 공급량이 줄어들고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유치원이나 탁아소의 선생들은 그 까닭을 몰랐다.

집무실에 돌아온 **김정일**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 사업을 보는 김연희부총리를 찾으시였다.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콩우유와 관련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우유를 먹이려고 오래전부터 깊이 마음쓰시였다. 일찌기 명태를 주원료로 하는 우유를 만들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소젖이 얼마 생산되지 않는 우리 나라 형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였다. 명태는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과 리진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영양소들이 갖추어져있고 가공을 하면 아이들의 소화흡수에도 좋았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의 식료공학자들은 짧은 기간에 명태우유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했다. 어린이식료품공장과 지방의 식료공장들에서 명태우유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였다. 처음에는 비린내가 나서 아이들이 잘 먹지 않았는데 인차 그 비린내는 제거되였다. 수령님께서는 직접 맛을 보고 명태비린내가 가셔진 우유를 《명태우유》라는 이름대신 《영양우유》로 고쳐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해류변동으로 그렇게도 흔하던 명태가 잡히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우유공급이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런 사실을 두고 안타까와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는 걸음으로 경성역에 멈춰선 렬차안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열고 콩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콩우유는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생산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기술적으로 새로 개발할것은 없었다. 문제는 설비였다. 국내에서 생산하자면 일정한 기일이 걸려야 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먹이시려는 수령님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만국박람회에서 1등을 하였다는 콩우유기계를 지체없이 사오도록 하시였다. 콩우유를 나르는 랭장차와 필요한 량의 우유통도 일식으로 갖추어주시였다. 그리고 랭장차의 량면에 《콩우유》라고 써붙이고

그 차들은 다른 차들의 통행이 제한된 구간도 거침없이 달리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아이들이 앓아서 입원을 한 병원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자면 그러한 통행조치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흔히 콩우유차를 《왕차》라고 불렀다. 거기에는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의 우유를 실어나른다는 뜻도 있었고 그 어데나 통과할수 있는 자동차라는 의미도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신설비로 콩우유를 폭포처럼 생산하는 모습으로부터 콩우유차들이 거리와 골목을 달리는것을 보고 인민들이 기뻐하는 모습과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콩우유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찍은 두툼한 사진첩을 만들어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사진첩을 보시고나서 감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 오늘처럼 기쁜 날은 없었소. **김정일**동지가 내 숙원을 풀어주었소. 인제는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였소! 혁명하는 보람이 있소.》

그토록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방불하시였다.

그런데 그 콩우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다니…

김정일동지께서는 돌이켜볼수록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수령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신다는것은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것과 함께 수령님의 숙원과 념원, 인민과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꽃피워나간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김연희부총리가 집무실로 조심히 들어섰다. 환갑을 앞에 둔 녀성일군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그에게 물으시였다.

《요즈음 아이들의 콩우유량이 줄어들었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린이식료품공장에 콩우유생산용쌀과 콩이 한달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농사가 잘 안되여서 필요한 콩과 쌀 전량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생산된 쌀과 콩이 공장에 들어오자면 아직 두달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공장에 있는 원료로 그때까지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얼마전부터 콩우유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있습니다.》

부총리의 자책에 잠긴 목소리였다.
《그렇게 되였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아픈 충격을 받으며 다시 물으시였다.
《콩우유생산용사탕가루는 확보되여있습니까?》
《사탕가루는 콩보다 더 부족합니다.》
《콩우유생산이 그런 난관에 부닥쳤는데 왜 나한테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누구보다 참기 어려운 슬픔에 잠기신 장군님께…》
부총리는 말을 삼켰다. 순간에 그의 눈동자가 뿌잇하게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이미 눈물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자신이 그럴 결심이 확고했기때문에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힘주어 말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뒤를 이으시였다.
《콩우유공급량을 줄일수 없습니다. 콩우유공급량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의 나이에 따르는 소화흡수기능을 친히 알아보시고 정해주신것입니다.
부총리동무는 어린이식료품공장에 나가서 원료가 있는것만큼 생산을 정상화하라고 하시오.》
부총리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라도 한듯이 어리둥절한 낯빛이였다. 잠시후에야 생각을 수습한듯 조심히 말씀올리였다.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생산을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탁아소와 유치원만이라도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습니다.》
학령전아이들에게만이라도 콩우유를 공급하려는 의도였다.
《부총리동무의 그 심정은 리해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오. 인차 부족되는 원료를 사오도록 합시다.》
부총리는 두눈을 커다랗게 떴다. 두번다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경건한 낯빛으로 깨우치듯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꼭 그렇게 하셨을것입니다. 나

는 수령님께서 남기신 사업수첩을 여러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농사문제와 함께 콩우유와 애기젖가루를 걱정하신 기록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 수첩만 보고도 우리 수령님의 사색과 실천의 전과정이 인민과 후대들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셨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콩우유생산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당의 구호에는 수령님께서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정치리념이 영원히 구현된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경탄과 경모의 빛으로 바뀌였다. 동시에 눈굽이 젖어들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콩우유생산이 정상화되더라도 그것으로 애기젖가루는 대신할수 없습니다, 젖먹이아이들은 소화기능이 약해서 콩우유를 소화시킬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해전 경공업제품전시장을 돌아볼 때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를 기어이 개발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지금 애기젖가루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제가 며칠전에 어린이식료품공장에 나갔다가 어린이영양연구소에도 들렸댔습니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녀선생이 연구소에 와서 애기젖가루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 녀선생은 대국상을 당한 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유훈을 관철할 결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결의도 높았지만 착상도 기발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젖을 전혀 쓰지 않고 콩과 흰쌀을 효소처리하여 애기들이 쉽게 소화시킬수 있는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시도와 착상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 동무의 연구사업을 적극 지지하고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소젖을 가지고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법만을 알고있는데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만든다면 매우 의의있는 과학적발견입니다. 우유가 대량생산되지 않는 우

리 나라 형편에서는 날알로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방법외에 다른 길이 없을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창조의 길에는 뜻하지 않았던 애로와 난관이 있을수 있고 실패도 있을수 있습니다. 설사 실패를 한다고 하여도 날알로써는 애기젖가루생산이 불가능하다는것을 학술적으로 론증하면 그것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사가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것이니까.

아무튼 우리 그 동무의 연구사업을 잘 도와줍시다. 어느 나라에서나 젖이 적거나 나오지 않는 애기어머니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못하는 젖먹이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나라에서만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려는것이 어버이수령님의 뜻이였습니다. 콩우유생산이 정상화되고 애기젖가루까지 개발되면 그야말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여난 첫날부터 모두가 배불리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참말로 그렇습니다.》

부총리는 목메여 응대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후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체현하고계시였다. 부총리는 지난 시기 아이들의 먹는 문제, 학용품문제, 교복문제와 관련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수령님의 열렬하고 지극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저도 모르게 지금 그때의 감격하던 심정이 되살아났다. 가슴속 깊이에서 소리없는 격동된 부르짖음이 울려나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록 서거하셨지만 후대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구나!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발효공학과를 졸업하고 교원이 된 장연순은 산원을 비롯하여 여러 병원의 소아과들을 찾아다니며 갓난애기들의 생리적특성과 소화기능을 연구하고 애기어머니들의 젖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보는 과정에 날알로 애기젖가루를 만드는데서 문제는 흰

쌀단백이나 콩단백의 분자구조사슬을 애기들의 소화능력에 맞게 분해하는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낟알의 분자구조사슬을 뜻하는대로 분해할것인가? 여러날을 고심하여 탐구하던끝에 된장에 생각이 미쳤다. 우리 나라 된장은 어른은 두말할것도 없지만 갓난애기들조차 소화시킬수 있었다. 장연순은 이미 첫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었다. 애기가 태여나서 몇달은 젖걱정이 없었으나 그후부터는 어머니젖이 모자랐다. 장연순은 애기가 배고파 울 때마다 된장물을 연하게 타서 거기에 사탕가루를 얼마간 풀어 먹여보았다. 아기는 설사를 하지 않고 소화시켰다. 된장은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 단백질의 분자구조사슬이 소화에 알맞게 리상적으로 분해되여있었다. 이것은 콩단백질을 효소에 의해 적당히 분해할수 있다는 실머리를 주었다. 흰쌀단백의 분자구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을것이다. 아득한 옛시절의 조상때부터 써오던 식료가공법이였다.

강좌에서는 인차 장연순이 어린이영양연구소에 나가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었다.

연구소의 아래층 구석방을 차지하고 밤에 낮을 이어 실험을 계속했다. 흰쌀단백과 콩단백질을 적당히 분해할수 있는 효소를 찾아내야 했다. 과연 어떤 미생물이 그러한 효소를 만들어내는가?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을 배양하여 얻어낸 각이한 효소로 흰쌀단백과 콩단백질분해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했다. 미생물배양은 복잡한 공정이였다. 온습도조건, 배양사료조성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종균들이 죽어버렸다. 한시도 실험실을 뜰수가 없었다. 한달나마 집에 가보지 못하고 실험실에 붙박혀있었다. 한달이상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흰쌀단백을 적당히 분해하는 효소를 발견했다. 분해과정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장연순은 환성을 질렀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은 순간이였다. 그 효소에는 애기들의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었다. 손맥이 풀리고 눈앞이 아뜩했다. 실험에만 몰두하다보니 아침저녁으로 남편이 밥을 날라왔다. 올 때마다 남편은 4살난 딸애를 데리고왔다. 딸애는 애타게 엄마를 찾고있었으나 그는 집으로 함께 갈수 없었다.

남편은 올 때마다 집걱정은 말고 연구사업을 다그쳐 성공을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는 자기의 비밀을 깊숙이 감추고있었다. 매일 오랜 시간 현미경속을 들여다보는 과정에 시력이 떨어졌다. 수면부족으로 몸도 쇠약해졌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연구과제를 내세웠던것이 아니였을가?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머리속에 깃들기도 하였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연구소와 공장에서도 못미더워하는것만 같았다. 실험기구와 시약들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대학에 적을 두고 연구소에 동원되다보니 어느 정도 손님대접을 받는것은 응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장연순의 연구과제는 국가계획에 맞물린것이 아니여서 어차피 연구소에서는 관심이 적었다. 대학은 대학대로 이따금 불러들이였다. 적이 대학에 있으니 대학일에 참가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생물을 다루며 지속적으로 벌려야 하는 실험에서 한곗을 중단하면 며칠을 걸려야 보충할수 있었다. 성공의 앞길은 묘연한데 여러가지 장애가 겹치였다. 이제라도 포기하고 대학으로 돌아가야 하는것이 아닐가? 이러한 망설임에 다몰리우며 실험실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나이지숙한 연구소장이 실험실에 나타났다.

《연순선생, 공장당위원회에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지금 급히 나와 함께 공장회관으로 오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장연순은 자리를 뜬 사이 해야 할 일을 조수에게 간단히 알려주고 연구소장을 따라나섰다. 복도에 나서서야 위생복차림이라는것을 깨닫고 위생복을 벗어서 포개여들었다. 연구소와 공장은 울타리를 접하고있었다. 회관에 이르고보니 공장의 부서책임자들과 직장장들이 이미 모여와있었다. 참가자들로 미루어보아 자못 중요한 모임이라는것이 알리였다. 장연순은 맨 뒤자리에 앉았다. 어쩌면 자기가 참가할 자리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하여 공장당비서 리선복의 안내를 받으며 김연희부총리가 주석단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며칠전 만났던 일이 있어서 부총리를 알아보았다. 높은 직급에 비해서는 언제보나 친절한 이웃집할머니를 련상시키는 소박한 부총리였다. 좌중을 둘러보는 부

총리의 얼굴에는 격동된 빛이 흘렀다.
리선복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공장에 주신 말씀을 부총리동지가 전달하겠습니다.》
순간 장내에 숲의 설레임과 같은 파동이 스쳤다.
부총리가 정중한 몸가짐으로 연단에 나섰다. 도수높은 돋보기로 안경을 바꾸어끼고 수첩을 펼치더니 흥분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아이들에게 콩우유공급이 정상화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알아보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청중은 숨을 죽이고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이 누구보다 크신 장군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콩우유공급에 그토록 크나큰 관심을 돌리신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던것이다. 누구의 입에선가 흐느낌소리가 터지는듯 했다.
부총리는 억양을 돋구며 계속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콩우유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히 원료를 사올 조치를 취해줄터이니 이미 보장된 원료를 가지고 오늘부터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라고 하시였습니다.》
장내에서 갑자기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끓어오르던 감사의 정이 더는 억제할수 없이 폭발했던것이다. 원료와 자재의 부족으로 일부 기대를 멈추어야 했던 안타까움이 가셔지면서 누구의 가슴에서나 불같은 생산의욕이 끓어번지였다. 동시에 고뿌가 넘치게 따끈한 콩우유를 받아안고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들이 눈앞에 어려왔다. 모두의 눈시울은 순간에 젖어들었다.
박수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연단에 서있던 부총리가 장내를 둘러보며 물었다.
《애기젖가루를 연구하는 연구사선생님이 왔습니까?》
장연순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리가 멀었지만 부총리의 기대어린 시선이 몸가까이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기젖가루에 대해서도 크나큰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긴 사업수첩에는 애기젖가루

문제를 두고 걱정하신 기록이 여러군데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연구사선생의 연구정형을 보고받은 장군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학술적인 착상과 연구의도를 적극 지지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젖먹이들이 배고파우는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를 기어이 개발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사업을 잘 도와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연순은 꿈속에 잠긴듯싶었다. 그이께서 자기 연구사업에 그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커다란 기대와 고무를 보내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이의 말씀의 구절구절이 귀로 흘러드는것이 아니라 가슴에 마쳐오며 심장에 새겨지는듯싶었다. 극도의 흥분으로 온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듯 한 환각을 느끼였다. 눈앞이 뿌잇하니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구사선생, 연구사업에서 애로되는것이 없습니까?》

부총리가 물었으나 가려듣지 못했다. 두번다시 물었을 때에야 얼마간 진정을 하고 대답할수 있었다.

《배률이 높은 현미경 한대와 미생물을 배양할수 있는 실험기구를 20개정도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쓰고있는 현미경은 성능이 낮은 구식이여서 균들의 형태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웠다. 필요한 효소를 분비하는 미생물을 찾아내자면 여러가지 미생물을 배양해보아야 하는데 지금은 용기가 적었다. 그러한 사정을 덧붙여 설명을 하였더니 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다.

이로써 모임은 끝났다.

다른 사람들은 장내에서 물러갔으나 장연순은 못박힌듯 홀로 그자리에 서있었다. 갑자기 사지가 강직되여버린듯 움직이지 않았다. 좀처럼 흥분과 격동이 숙어들줄 몰랐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줄지어 흐르던 감격의 눈물이 회오의 눈물로 뒤바뀌였다. 일시적인 애로와 난관에 부딪치자 연구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을 돌이켜보았던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연구과제를 포기하려 했던것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였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배고파우는 갓난애기들의 정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

프다고 하시였다! 그 심정의 몇천분의 일이라도 따랐다면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배은망덕할번 했던 저를 용서하여주십시오.》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그러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질번 한 아슬아슬하던 순간에 문득 장군님께서 따뜻한 손길을 뻗치여 광명의 기슭으로 끌어올려주시는듯 한 환영을 느끼였다. 그 환영에 뒤따르는 생각은 자기의 생애에서 오늘을 계기로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리라는 확신이였다.

10

장연순은 도무지 진정할수가 없었다. 연구소장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받은 연구사들과 조수들은 저마끔 찾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연구성과를 축원했다. 남들의 눈에 뜨이지 않던 자기의 존재가 갑자기 돋보이게 되고보니 어리둥절했다.

이날 저녁은 퇴근시간이 되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자신이 받아안은 영광과 기쁨을 남편과 딸애에게 터놓고싶었다. 여태까지 가정적부담을 도맡아안고 안해의 연구사업을 성의껏 도와준 고마운 남편이였다. 다른 남자들이라면 밤낮 실험실에만 붙어있는 안해에게 불만을 터뜨렸을것이다. 그러나 최성호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동자질을 하고 아이를 탁아소에서 찾아오고 아침저녁으로 실험실에 밥을 날라오면서도 안해에게 정겨운 미소와 따뜻한 고무를 보내주군 하였다.

꿈많던 대학시절의 처녀들속에서는 과학연구를 지향한 녀자들에게는 가정이냐 과학이냐라는 두가지 선택중에서 하나만을 택할수 있다는 견해들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량자를 대치시키는 그릇된 견해이다. 그러나 직접 체험해보니 그러한 견해에 일리는 있었다. 과학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달리 고도의 정신적집중과 순간도 자리를 뜰수 없는 련속되는 실험을 해야 하는것이다. 남들과 같이 가정생활의 행복을 마음껏 향유하면서는 불가능하다고 할수도

있는 일이였다. 세상에 이름을 날린 녀성과학자들중에는 독신으로 산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이다. 결코 까닭없는 일이 아니였다. 오늘에 와서 장연순은 이렇게 주장하고싶었다. 과학을 지향하는 녀성들이여, 과학연구와 가정생활의 행복을 대치시키지 말라.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생활이며 인륜에 대한 저촉이다. 녀자들도 사랑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과학연구사업을 할수 있다. 문제는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과학연구사업을 리해할줄 아는 남편이 손수 지어준 밥을 실험대우에 펼쳐놓고 먹을 때 그 맛은 류별한것이다. 자기가 지은 밥을 자기 집 아래목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먹일 때와는 또 다른 감미로움을 느낀다. 실험관속에서 그 어떤 새로운것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순간의 황홀감은 남편을 가진 녀성과학자만이 체험할수 있는 행복이다. 녀성과학자에게 있어서 남편과 가정은 연구사업에 지장을 주는것이 아니라 커다란 힘과 고무를 준다. 흔히 사랑은 모든 일에 힘과 정열을 준다고 한다. 고도로 긴장된 탐구와 사색으로 이어지는 앙양된 정신활동인 과학연구사업이야말로 힘과 정열을 부여해주는 열렬한 사랑이 필요한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장연순의 눈앞에는 달게 밥을 먹는 자기를 지켜보며 부드러운 눈웃음을 보내주던 남편의 모습과 실험실의 걸상에서 쪽잠에 든 자기에게 외투를 덮어주던 그의 애무어린 손길이 방불히 그려졌다.

지금에 와서 그는 자기가 과학적성공을 한다면 그 절반은 남편의 몫이라고 말하고싶었다. 안해의 연구사업을 그처럼 깊이 리해하여주고 사랑과 가정생활에 성실한 남편을 만난것은 자기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였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깊은 인연과 오랜 생활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합이였다. 장연순과 최성호는 유치원시절부터 알게 되였다. 그들은 유치원의 같은 반에서 자라났다. 두 어린이는 유치원시절에 총명하기로 소문이 났다. 셈세기와 우리 말 공부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앞섰다. 게다가 예술적인 소질도 남달리 뛰여났다. 그들은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소조경연에서도 입선을 했다. 장연순은 노래를 잘

불렀고 최성호는 동화극의 주인공역을 훌륭히 수행했다. 뛰여난 두 어린이는 남달리 친하였다. 어깨동무시절의 그 순진한 친근감이 먼 후날 열렬한 사랑으로 이어지리라고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소학교에서도 처음은 한학급에서 공부하면서 1, 2등을 다투었다. 3학년때였다. 장연순의 아버지가 다른 직무로 조동되면서 집도 다른 구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장연순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그는 최성호와 헤여지는것이 서운했다. 그래서 연필 한자루를 작별의 기념으로 주었다. 그랬더니 최성호는 연순의 손에 자기가 쓰던 고무지우개를 쥐여주었다.

여러해가 흘렀다. 서로 다른 구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다. 서로 소식도 몰랐다.

그들이 서로 다시 만나게 된것은 중학교졸업반때였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수학경연대회가 열리였다.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평양시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중에는 최성호와 장연순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여러해만에 만났다. 첫 순간에 서로 얼굴을 알아보았으나 몰라보게 성장한 상대의 모습에 어느쪽이나 어리둥절했다. 머리속에는 소년단넥타이를 날리는 어린 학생으로 표상되여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상대는 청년기의 첫시기에 이른 총각이였고 처녀였다. 바야흐로 사춘기를 맞이한 다감하고 꿈많은 시절에 살고있었다. 다만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뜻으로 눈을 깜박이며 약간 고개를 숙여보이였다. 그마저 다른 학생들이 눈치를 차릴가봐 겁나했다. 경연기간에는 내처 초조와 불안, 성공의 기대에 시달리며 공부에만 전심하다보니 다른 그 무엇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경연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였다. 최성호는 1등을 하였고 장연순은 3등을 하였다. 표창장을 수여받은 그날에야 그들은 상대의 성과를 축하하여 서로 손을 잡았다. 학교의 선생들과 학생들이 달려와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는것이여서 입선자들인 최성호와 장연순이 손을 잡는것은 남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장연순과 최성호는 이날 저녁 대동강반을 거닐었다. 푸른 잎새를 무수히 달고 실실이 드리운 버드나무가지들이 머리와 어깨를 스치였다. 기슭을 때리며 철썩이는 물결소리는 귀전에 정다웠고 화단을

스치며 불어오는 바람은 피부에 부드럽고 코끝에 향기로왔다. 다만 유난히 밝은 달이 나무가지사이로 자기들의 모습을 엿보는것이 야속스러웠다.

그들은 수학경연에 제출되였던 문제들을 각기 어떻게 풀었는가를 이야기했다. 장연순은 최성호가 자기의 문제풀이방법을 말할 때마다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예리하고 문제풀이의 착상이 기발했다. 장연순은 그의 뛰여난 지능에 매혹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는 앞으로 이름있는 과학자가 될거예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서 공부하겠어요?》

성호는 침묵했다. 망연히 허공중의 둥근달을 바라보고있었다. 졸업을 한달 앞둔 이때까지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지 못했단 말인가? 전국수학경연에서 1등을 한 그는 지망하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이든 입학할수 있을것이다. 남들은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속을 태우지만 그에게는 대학입학시험쯤은 땅짚고 헤염치기일것이다.

《왜 대답이 없어요?》

두눈을 올롱하니 뜨고 따지고들었다.

그제서야 성호는 머리를 돌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순동무, 난 이미 졸업을 하면 대학이 아니라 군대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소.》

《이번에 심사원선생님들모두가 동무는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나요.》

《과학자로 되려는 나의 포부에는 변함이 없소. 군대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도 다니고 과학연구사업도 하겠소.》

성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가 군대로 나가는 날이 왔다.

장연순은 그전날 밤 부모와 동생의 눈을 속여가며 꽃목걸이를 만들었다. 이튿날 평양역으로 달려온 그는 새 군복을 입고 최전연초소로 떠나는 성호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편지도 군복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렬차의 승강대에 오르던 성호는 슬며시 돌아서며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동무는 이제 어느 대학으로 가겠소?》
《경공업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그럼 내 몫까지 공부를 잘해주오. 우리는 오늘 헤여지지만 과학의 한길에서 수학경연때처럼 다시 만나게 될는지도 모르지.》
장연순은 서둘러 그의 말을 시정했다.
《다시 만나게 될는지도 모르는게 아니라 꼭 다시 만나게 될거예요. 그때에도 동무는 1등을 하고 나는 3등밖에 못할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거요. 그때에는 동무가 1등을 하게 되고 내가 3등쯤 하게 될거요.》
장연순은 이번에도 그의 말을 반박했다.
《그때 우리 둘의 점수는 두사람의 점수를 합해서 2등분한 공통점수를 가지게 될거예요.》
처녀의 말을 새겨본 성호의 얼굴이 행복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나도 동무의 말을 믿겠소.》
최성호와 장연순사이에 편지가 오고가는 사이에 여러해가 흘렀다.
대학을 졸업한 장연순은 그 대학 교원으로 배치되였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 최성호는 건설건재대학(당시)에 입학을 하였다.
인생의 출발계선은 같았으나 생활의 흐름속에 오늘에 이른 그들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듯 했다. 녀자쪽은 어엿한 대학교원이 되였는데 남자쪽은 대학생이였던것이다. 하지만 장연순은 그 차이를 무시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을 때 어머니와 일부 친척들은 펄쩍 뛰였다.
《처녀로 대학교원을 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냐. 이왕이면 좀더 나은 대상을 고를수 없단 말이냐.》
《그 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든지 대학에 갈수 있었어요. 조국보위를 먼저 생각했기에 대학이 아니라 군대로 갔던거예요. 지금도 그 동무는 1등생이고 나는 여전히 3등생이예요.》
장연순의 립장은 확고했다. 전국중학교학생수학경연때를 두고 성호는 1등생이고 자기는 3등생이라고 하였지만 오늘도 지적능력을 두고는 그러한 등차가 존재한다고 여기였다. 성호는 건축공학부적으

로 뛰여난 학생이였다.

결혼식때 장연순은 대학시절의 녀동무들을 몇명 초청하였다. 거의나 그들은 이미 결혼을 한 녀자들이였다. 남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였다. 가정생활을 하는 녀자들의 지체는 남편들의 명성에 크게 좌우되는 법이다. 초청을 받은 동창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그래 남자는 뭘하는 사람이냐?》

《건설건재대학 학생이야.》

장연순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동창생들의 얼굴에 의혹과 실망의 빛이 떠오르는것을 보았을 때 서운한 감정이 없지 않았다. 기왕 늦어진바치고는 이삼년 더 기다려서 성호동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결혼하는것이 아니였을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장연순은 초례청에 오를 때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을 했다. 자기보다 남자를 돋보이게 하려는 속심이였다. 실은 그렇게 왼심을 쓰지 않아도 좋았을것이다. 성호는 훤칠한 키에 름름한 체격을 가진 미남자였다.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신랑신부가 나타나자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남자와 녀자의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이였던것이다. 남자로서는 지나치다고 하리만치 우아한 용모의 신랑에 비해 신부는 차림도 용모도 수수했다.

장내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리였다.

《연순이가 미남자한테 시집을 가누나. 신랑은 영화배우를 해도 손색이 없겠다.》

《신랑은 외양뿐만아니라 머리도 뛰여나대. 일찌기 중학시절에 전국수학경연에서 1등을 하였다지 않니.》

《역시 수재가 수재를 알아보았구나. 연순이도 우리 학급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지 않았니.》

장연순은 흥분된 가운데서도 그러한 속삭임들을 가려듣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가슴속에서는 좌중을 향해 긍지높이 웨치고싶은 말이 울리고있었다.

(나의 남편이 오늘은 비록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모두가 알게 될 과학자로 될것입니다.)

결혼식은 하였지만 장연순은 시집살이를 할 형편이 못되였다. 시집은 두칸짜리 아빠트였는데 시동생들이 여럿이였다. 신혼생활을 할만 한 방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친정살이를 하였다. 생활은 한사코 결혼을 반대하던 친정어머니조차 자기의 사위가 얼마나 례절있고 교양높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였다. 어머니는 한아빠트의 아낙네들을 만나면 사위자랑이였다.

최성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사업소에 현장기사로 배치되였다. 대학에서는 건축연구원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현장체험을 쌓아야겠다면서 건설사업소로 갔다. 사업소에서는 새로 지은 아빠트를 배정해주었다. 드디여 부모들의 슬하에서 벗어난 독자적살림이 시작되였다. 화목한 젊은부부의 생활은 행복하게 흘러갔다. 딸애도 탈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집으로 향하는 장연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돌이켜볼수록 자기가 결심한 사랑의 선택은 잘한 일이였다고 생각되였다. 남편의 뒤받침이 없다면 이미전에 애기젖가루에 대한 연구를 포기했을는지 모른다.

집이 가까와올수록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애의 모습이 번갈아 눈앞에 떠올랐다. 오늘 저녁은 오래간만에 가정적온기에 취해볼수있다. 그는 탁아소에 들리였다. 딸애의 손목을 잡고 퇴근길을 걷는 즐거움을 누리고싶었다. 탁아소의 현관에 들어서 계단을 오르는 사이에 여러명의 낯익은 보모들을 만났다.

《순애 어머니, 오래간만이군요. 애기젖가루를 연구한다는데 기어이 성공해주세요.》

보모들마다 이런 인사말을 보내여왔다. 그들이야말로 애기젖가루의 절박성을 매일 매 시각 페부로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대어린 눈빛을 가슴후덥게 새겨안으며 순애를 맡겨두는 교양반으로 갔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안은 텅 비여있었다. 벌써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찾아갔을가? 창너머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였다. 방안을 꿰질러 창가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베란다의 란간에 조롱조롱 붙어서서 목이 빠지게 운동장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저기 우리 엄마가 온다!》

기쁨에 넘친 사내애의 목소리에 울먹한 녀자애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우리 엄만 왜 아직 안 올가?》

그 목소리가 예리하게 가슴을 찔렀다. 매일 저녁 베란다의 란간에 붙어서서 이 엄마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지었을 순애의 모습이 련상되였다. 아릿해오는 가슴을 부여안고 아이들의 뒤모습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순애야.》

놀란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중에 순애는 없었다.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던 사내애가 말했다.

《순애는 얼마전에 아버지가 데려갔어요.》

장연순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출입문에 자물쇠가 잠긴채로 있었다. 남편과 딸애는 어데로 갔을가? 알수 없었다. 상심한 기색으로 공동으로 열쇠를 보관하는 비밀장소에 손을 넣어보았다. 열쇠가 손에 잡히였다. 자물쇠를 열고 전실에 들어섰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흐르던 정든 집이였다. 하지만 전등을 켜고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을 때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다. 방안에도 옷가지들이 널려있었고 부엌에는 설겆이를 하지 않은 식기들이 가시대에 쌓여있었다. 남편이 혼자서 끼식을 끓이고 실험실에 식사를 날라오다보니 집을 거둘 겨를이 없었을것이다. 서둘러 방안을 정돈하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자기의 손으로 저녁밥을 지어서 남편과 딸애를 먹이고싶었다.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며 밥을 짓고 식기들을 가셔놓았다. 그래도 남편과 딸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실에서는 너무도 빨리 흐르는 시간이 안타까왔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딸애를 기다리는 지금은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이를데없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세사람의 밥그릇을 정성담아 상우에 챙겨놓고 잠시 휴식을 할 때에야 출입문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 출입문자물쇠가 없어진것을 보고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장연순은 튕겨나듯 일어나서 전실로 달려나갔다. 와락 출입문을

열어제끼며 《여보!》하고 소리쳤다. 아침에 실험실로 밥을 날라온 남편을 만났댔지만 반가움이 북받쳤다. 가방을 들지 않은 남편의 다른 손에는 비닐구럭이 들려있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의 손에서 가방과 비닐구럭을 넘겨받았다.

《탁아소에서 순애를 찾아간지는 오랬다는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오늘이 순애생일이 아니요. 그래서 상점들에 들려서 뭘 좀 사오느라고 늦어졌소.》

아참, 오늘이 딸애의 생일이지! 나는 그것도 감감 잊고있었다. 그 애의 얼굴을 두번다시 바라볼 면목이 없었다. 고개를 떨구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뒤를 따르던 남편은 밥상을 띄여보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미 저녁을 차려놓았구만. 순애가 좋아하는 닭알과 물고기를 사왔는데…》

장연순은 비닐구럭을 열어보았다. 가재미와 닭알이 들어있었다.

《잠간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꺽 가재미를 튀기고 닭알을 삶아오겠어요.》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앉아있소. 그 일은 내가 하지. 나도 무슨 음식이든지 제 손으로 만들줄 아오. 순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오? 인제는 엄마가 지은 밥보다 아빠가 지은 밥이 더 맛이 있다고 하오.》

장연순은 웃음진 남편의 얼굴에서 자기의 손이 간 반찬을 딸애의 생일상에 올려주고싶어하는 간절한 심정을 읽었다. 그래서 순애를 품에 안고 방안에 눌러앉았다. 이윽하여 부엌에서 물고기를 씻어서 기름에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를 달게 들이키며 딸애의 야드드한 머리카락을 턱으로 쓰다듬었다.

《순애야, 이 엄마가 보고싶었니?》

고개를 까딱이던 아이는 고개를 젖히고 물었다.

《엄만 내 생일이여서 집에 왔나?》

대답을 기다리는 까만 눈동자가 광채를 뿌리며 겨누어왔다. 그처럼 맑고 순진한 눈동자앞에 거짓말을 할수는 없었다.

《아니다, 엄마는 오늘이 네 생일이란것마저 잊고있었다. 순애야, 이 엄마를 용서해라.》

말을 번지고보니 눈물이 솟구쳤다. 엄마의 눈물을 보는 딸애의 눈동자는 더욱 올롱해졌다.

부엌에서 남편의 성난듯 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보, 지속적으로 정신적집중을 요구하는것이 과학연구사업이 아니요. 순애도 앞으로 과학자로 키우겠다면서 그런 일을 가지고 너무 마음쓰지 마오.》

장연순은 가슴이 뭉클하였다. 얼른 눈물을 씻었다. 딸애앞에 죄스럽던 생각이 순간에 사라졌다. 순애야, 아버지말대로 먼 후날에 네가 과학자가 된다면 오늘의 이 엄마를 리해할거다.

어느새 남편이 가재미튀기와 삶은 닭알을 커다란 두개의 접시에 담아들고 방안으로 올라왔다.

세식구는 두리반에 오붓이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성호는 의혹이 실린 시선을 안해에게 보냈다.

《내 아까부터 묻자고 했는데 오늘 저녁 어떻게 집에 나타났소? 당신 혹시 연구사업을 포기한게 아니요?》

이틀전 실험실에 온 남편에게 여러가지로 애로와 난관이 있어서 연구사업을 그만둘 생각도 없지 않다고 얼핏 비쳤더니 그렇게 묻는것이다.

《아니예요, 오늘 나에게는 일생을 두고도 잊을수 없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그늘이 가셔지고 호기심어린 밝은빛이 떠올랐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소?》

장연순은 흥분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저의 연구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어요.》

계속하여 부총리가 전달한 그이의 말씀내용을 설명했다. 돌이켜볼수록 뜨거운 감격이 치밀어서 도간도간 말끝을 삼켰다.

주의깊게 듣고난 최성호는 덥석 안해의 손목을 더듬어잡았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만! 애기젖가루연구사업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일이기에 어버이장군님께서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

리시는구려. 기어이 성공을 해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겠소.》
그는 흥분으로 들레며 순애를 그러당겨 몇번 흔들어주고나서 다시 안해의 품에 안겨주었다.
《순애야, 네 생일에 엄마는 커다란 기쁨을 가져왔구나. 엄마는 아버지장군님의 직접적인 관심속에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과학자다. 너의 엄마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는 엄마는 드물게다.》
순애는 말귀를 다 알아듣지 못했으련만 제법 이런 말을 했다.
《엄마, 꼭 애기젖가루를 만들어내야 해요.》
《알겠다, 꼭 성공을 하겠다.》
장연순은 딸애를 껴안은 팔에 힘을 주면서 그 애의 볼을 부비였다. 불쑥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딸애의 볼을 적시였다. 그것을 깨닫자 팔을 풀고 딸애의 볼에서 눈물의 흔적을 씻어주었다.
최성호는 뜨거운 눈물속에 행복한 미소를 그리는 안해를 신뢰어린 눈길로 지켜보고있었다.

11

만수대창작사에서 간단한 모임이 열리였다. 몇몇 창작단 단장들과 보장부서 책임자들이 사장실에 모이였다. 예상치 않았던 모임이였다. 벽밑으로 놓인 걸상들에 둘러앉은 그들은 궁금한 낯색으로 서로 얼굴들을 마주보며 수군거렸다. 무슨 문제를 토론하는가? 출근하자바람으로 불리워온 사람들중에는 누구도 모임의 취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튼 긴급히 모임이 열리는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였다는것만은 명백했다. 집행석이라고 할수 있는 앞탁의 첫자리에는 사장과 부비서가 마주앉았다. 초급당비서가 출장갔기때문에 부비서가 그를 대신했다. 좌중은 그들 두사람의 표정을 살피였다. 어델가 전화를 걸고있는 사장은 전에없이 엄숙하고 긴장된 낯빛이였다. 출석정형을 알아보는 부비서의 갱핏한 얼굴에도 알수 없는 흥분이 비끼였다. 사장이 전화를 끝내자 부비서가 일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창작사에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그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론하기 위해 이 모임을 시급히 조직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직접 과업을 받은 사장동지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좌중은 의혹의 빛을 가시고 사장에게 빛나는 시선들을 모았다. 내용은 알수 없지만 그이께서 직접 과업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들을 흥분시켰다.

리수환사장이 두툼한 수첩을 펼쳐들고 일어섰다. 그는 수첩이 아니라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건설을 위해 우리 창작사에 특별히 중요한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리수환은 어떤 과업인가를 말하고나서 좌중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이 과업의 영예로움과 성스러운 의의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이 과업을 놓고 여러 동지들이 생각되는바를 기탄없이 토론해주시오.》

조각창작단 단장이 서슴없이 일어섰다. 이마가 넓고 아래턱이 빠른한 그의 얼굴에 혈조가 번지였다. 흥분된 표정처럼 열띤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우리 창작단에 맡겨주십시오. 우리 창작단에는 능력있는 조각가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리석원석인데 원석만 보장된다면 집중창작전투를 벌려서 몇달내에 완성할수 있습니다.》

리수환은 그의 불같은 결의를 믿었다. 조각창작단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만 한 재능있는 조각가들이 있었다. 단장자신도 기념비들의 조각상을 창조하는데서 뛰여난 재능을 보인 인민예술가였다. 그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다른 창작단의 단장들도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여느때없이 비등된 열의가 방안에 굽이쳤다.

《형성안창작과 제작과정은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 창작사에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로 되는것은 대리석원석입니다. 아까 조각창작단

단장동무는 원석이 보장되는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는 원석을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화강석석재가 풍부한 대신 대리석석재는 적습니다. 내 이미 대리석광산들에 알아보았는데 그 광산들에서 생산되는 원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색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광산들에서는 크지 않은 장식돌이나 판석을 생산하고있습니다. 100톤이 넘는 통돌을 캐여본 일이 여태껏 없었다고 합니다.

적합한 원석을 어떻게 보장할수 있겠는지 의견들을 말해보십시오.》

사장의 말에 방안의 흥분된 열기가 순간에 가라앉았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안타까운 모색의 침묵만이 한동안 흘렀다.

맨 구석에 앉았던 로태심이 바투 깎은 반백을 쓰다듬으며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공반장인 그로서는 오늘 협의회에 참가할 대상이 아니였다. 단지 영산의 대리석을 채취해본 경험이 있기때문에 사장이 그를 참가시키였다. 당시 20여명의 로동자들이 동원되였는데 아직 창작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하나뿐이였다. 그도 년로보장나이가 넘었지만 연공기술이 높기때문에 그 자리에 눌러있었다. 다부진 몸매에 아직 원기가 좋았다. 명절때마다 벌어지는 씨름경기에도 빠지지 않았다. 힘도 좋지만 중량물을 다루는 묘기가 있어서 체통이 곱절이나 큰 젊은이들도 허궁 들어서 쓰러뜨리군 하였다.

그는 담찬 기개가 엿보이는 작은 눈을 몇번 꺼벅거리더니 말했다.

《그때 원석으로 쓴 돌은 열댓톤가량밖에 안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캐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기껏 캐여놓고보니 실금이 갔더란 말입니다. 네개나 랑패를 보았습니다. 모두 손맥이 풀려서 돌아가자고들 했지요. 헌데 책임을 지고 나갔던 로동과장동무가 그냥은 물러설수 없다면서 도에 가서 지질탐사대의 기사 한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지질기사가 광맥을 보더니 좀더 겉을 뜯어내고 캐여보면 금이 안 간 돌이 나타날수 있다고 했습니다. 풍화작용과 지각변동이 지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이 미친다는 리치를 설명하는데 나는 듣고도 모르겠습디다. 아무튼 로동과장이 휘동을 해서 다시 접어들었는데 겉면을 수태 뜯어내고 속에것을 캐여보니 아닌게아니라 석재가 나왔습니다. 그때의 로동과장이 살아있으면 좋았을텐데…》

로동과장은 그후 년로보장을 받고 지내다가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를 두고 아쉬운 생각을 하던 리수환이 로태심에게 물었다.

《그래 로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더 깊이 파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원석을 캘수 있을것 같습니까?》

《내야 땅속문세를 모르니 함부로 이렇다저렇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그는 캘수 있다고 장담을 했을겁니다. 나도 말하고싶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나라의 산천이 정기를 모아 받들어올리신분입니다. 그럴진대 그 산천에 어찌 그이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쓰일 대리석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충정이 산천에 미치면 필요한 대리석원석을 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에 숙연한 분위기가 휩쓸었다. 누구나 로태심의 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리수환은 알수 없는 충동에 떠밀리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무들, 우리의 충정이 조국산천에 미친다면 영산에서 필요한 원석을 캘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돌격대를 무어서 거기에 파견하자는 의견인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열렬한 호응의 목소리가 터져올랐다.

×

여러 단위에서 선발된 100여명의 성원들로 차광수돌격대가 무어졌다. 돌격대의 명칭에 차광수동지의 이름을 단것은 그 의미가 깊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그가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이어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각오가 돌격대의 기치로 된다는 뜻이였다.

대다수의 성원이 펄펄한 청년들이였지만 연공작업반의 12명은 나이가 지숙했다. 덩지가 큰 돌을 다루어야 하는것만큼 돌격대에 그들이 필요했다.

선발대로 40여명이 먼저 떠나기로 하였다. 불의에 조직된 사업이

여서 기술수단과 후방물자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 후에 떠나는 성원들이 그것을 가져가기로 하였다. 현지의 실정을 알고있는 로태심이 선발대책임자로 임명되였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창작사의 문화회관앞에 대형뻐스와 화물자동차가 서있었다. 화물자동차에는 삽과 곡괭이, 천막과 모포, 식량과 화식기재가 실려있었다. 뻐스옆에는 선발대성원들이 정렬했다. 창작사의 책임일군들이 그들에게 고무적인 인사를 보내였다. 외진 산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시련과 고난을 뚫고나가야 할 돌격대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었다. 리수환은 인사를 보내지 않고 대렬과 조금 떨어져 서있었다. 그는 선발대와 함께 떠나기로 하였다. 직접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차후 실무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뜨거운 작별이 끝나자 돌격대원들이 뻐스에 올랐다.

리수환과 로태심은 앞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손저어주는 많은 사람들의 배웅속에 뻐스와 화물차가 떠났다. 정문을 벗어나서 큰길에 들어서려는찰나였다. 손에 보퉁이를 든 녀인이 급히 마주오며 손을 흔들었다. 운전사가 경적을 울렸으나 아랑곳없이 길을 막아섰다.

《저 로친이…!》

로태심이 눈을 휘둥그래 떴다. 그의 놀란 부르짖음에 앞창으로 시선을 돌린 리수환도 녀인을 알아보았다. 회색치마에 흰 적삼을 입은 녀인은 로태심의 마누라였다.

《운전사동무, 차를 세우시오.》

운전사는 뭐라고 투덜거리며 차를 세웠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다른 젊은이들도 녀인을 향해 곱지 않은 눈길들을 보냈다.

《로동무, 어서 만나보시오.》

리수환이 로태심에게 깨우쳤다. 로태심은 난색을 지으며 벌겋게 달아오른 덜미를 문지르더니 차에서 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 부부에게 쏠렸다.

《왜 나타나서 망신을 시키는거야!》

거칠게 부르짖으며 성큼성큼 다가서는 로태심의 기상을 보아서는

당장 마누라에게 주먹이라도 안길상싶었다.

《누구보구 성을 내시우. 차가 떠나기 전에 오느라고 발톱이 빠질번 했는데.》

마누라는 의젓한 자세로 맞받아나왔다. 그러자 로태심은 대바람에 성이 풀렸는지 표정이 달라졌다.

《왜 수고스럽게 찾아왔소?》

그 물음에는 벌써 마누라의 수고를 알아주는 살뜰한 정이 울리였다.

《집에서 당신을 떠나보낸 다음에야 이걸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수다.》

령감에게 보퉁이를 넘겨주는 마누라의 눈에도 애틋한 념려가 흘렀다. 로태심은 말없이 보퉁이를 받았다. 그가 급히 돌아서려는데 마누라가 팔굽을 잡았다. 긴히 할말이 있다는 눈치였다. 피끗 뻐스에 시선을 준 마누라는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귀속말로 속삭였다. 그들 부부는 모습이 대조적이였다. 남자는 작은 눈에 몸매가 다부졌으나 녀자는 억실억실한 눈에 체구가 풍만했다.

《그럴 나이도 훨씬 지났는데 무슨 잔사정이 긴지 모르겠구만.》

《늙을수록 정이 더 깊어진다는 소릴 못 들었나?》

차실안의 젊은이들이 떠들었다. 그들중에는 갓 결혼을 한 안해를 두고 떠나는 사람도 여럿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안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귀밑머리가 희여버린 녀인이 불의에 차를 세우고 령감과 속삭임을 나누고있으니 젊은이들의 눈길을 끌만도 하였다.

《아바이, 빨리 오르라요!》

운전사가 차실문을 열고 소리쳤다.

정신이 번쩍 든 로태심이 급히 돌아서려는데 마누라가 다시 팔굽을 잡았다.

리수환이 다시 소리를 치려는 운전사를 만류했다.

《조금 기다려주기요. 저 아바이가 로친한테는 꼼짝 못하오. 로친이 엎드려 기라면 길수도 있는 령감이요.》

《그래요?》

모두가 놀랐다. 로태심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기로 소문이 났다. 한번 고집을 세우면 누구도 그것을 꺾지 못했다. 그 지나친

성미때문에 상급으로부터 추궁도 받고 조직의 비판도 받아오지만 좀처럼 고치지 못했다. 그러한 그가 마누라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였다.

리수환은 의혹이 짙은 청년들을 둘러보며 빙긋이 웃었다.

《내 하나의 일화를 말하겠소. 재작년에 어느 공장에서 대형강철트라스를 조립하는 작업이 제기되였소. 그 공장 지배인이 우리한테 와서 로태심동무를 좀 보내달라고 했소. 그의 남다른 연공기술이 필요했지. 그래서 보내주었는데 이튿날에 로동무가 잔뜩 볼이 부어서 돌아오질 않았겠소. 작업과정에 로동무의 방법이 위험천만하다고 그 공장 사람들이 의견이 많았다는거요. 그래서 로동무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할바에야 무엇때문에 청해왔는가, 당신들 마음대로 실컷 해보라. 이렇게 역증을 부리고 뿌리쳤다는거요. 그 공장 지배인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로동무의 성미를 모르고 그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나 그를 설복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소. 그래서 로동무를 불러서 노여움을 삭이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도무지 이가 들지 않았소. 그 공장 지배인이 속이 타서 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왔소. 트라스조립이 걸려서 다음공정이 막히게 되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지. 다른데서 유능한 연공의 손을 빌려볼 생각도 했지만 로태심동무밖에는 그 일을 제낄만 한 다른 사람이 없다고들 했다는거요. 딱한 사정을 거듭 말해오길래 나는 로동무네 집을 찾아갔소. 일요일이였는데 집에 가보니 로동무는 없고 부인만 있었소. 내가 창작사의 아무개라고 하며 찾아온 사연을 말했더니 펄쩍 놀라질 않겠소. 그렇게 코대를 세우면서 사장선생의 지시도 듣지 않는줄을 몰랐다면서 령감이 나타나면 드잡이라도 할상싶었소. 알고보니 부인역시 보통녀자가 아닌것 같더군. 여차하면 부부싸움이 벌어질것 같아서 공장사람들이 로동무의 솜씨를 믿지 않고 지나치게 간참을 했기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루루이 설명을 했소. 부인은 령감을 래일 그 공장으로 당장 보내겠다고 했소. 결연한 표정으로 장담을 하고는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하더군. 나는 돌아오면서도 미타한 생각이 없지 않았소. 그런데 웬걸… 이튿날 출근하자바람으로 로동무가 나를 찾아와서 공장일을 잘 도와주고 오겠다고 하지 않겠소. 무슨 수

로 부인이 어떻게 그를 휘여냈는지는 알수 없었소.》
이야기를 듣고난 청년들의 얼굴에 유쾌한 웃음이 번지였다. 너무도 놀라와서 무릎을 치며 떠들기 시작했다.
《하, 그런 일이 있었구만. 로아바이가 로친님한테 그렇게 꼼짝을 못한다니 세상 모를 일이 그게 아니겠소.》
《밖에 나와서는 범같던 사나이도 녀편네앞에서는 양처럼 순하게 처신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네.》
《그런 가정이 대체로 행복하다누만.》
한참 입담을 부리는데 차실문이 벌컥 열리였다. 로태심의 얼굴이 나타나자 청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로태심은 헌헌한 낯빛으로 사장열의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만 로친성화에… 이거 시간을 지체시켜서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방금 로친과 나눈 살뜰한 이야기의 여운에 내처 사로잡혀있는듯 했다.
운전사가 발동을 걸면서 그를 피끗 돌아보았다.
《떠나는 찰 세우고 무슨 잔사정이 그리 길었나요?》
《그럴 사정이 있었네.》
뻐스가 떠났다. 지체했던 시간을 앞당기려고 운전사는 쾌속으로 차를 몰았다.
뒤좌석에 앉은 고수머리청년이 눈을 찡긋해보이며 로태심에게 말을 걸었다.
《아바이가 로친님앞에선 꼼짝 못한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그렇다, 그런데는 어쨌다는거냐?》
로태심은 싱긋이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고수머리는 입술을 반쯤 벌리며 두눈을 익살스럽게 꺼벅거렸다. 누가 그따위 소릴 하느냐고 반박할줄 알았는데 순순히 수긍을 하니 시까슬러볼 언터구가 없었다.
《어쩌기야 뭐 어쩌겠나요. 아바이성미에 그런다는것이 놀라워서 하는 말이지요.》
맥풀린 소리로 응수를 하자 로태심은 점잖게 훈계를 했다.

《네녀석도 녀편네를 귀히 여길줄 알아야 해. 옳은 말이면 공손히 받아들일줄도 알고.》

《아바이같은 남편을 섬겨오는 부인님은 참 행복한 녀성이군요.》

(모르는 소리, 우리 로친네같은 녀자를 만난 내가 행복한 사내지.)

여차했으면 이런 솔직한 심정을 입밖으로 번질번 하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로태심의 가슴속에는 청춘시절에 서분옥을 사랑하게 된것이 참으로 행운이였다는 생각이 깊어갔다.

로태심은 서분옥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나라 공민이 아니였다.

독립군으로 싸우던 그의 부모들이 망명생활의 닻을 내린 곳은 이전 쏘련의 아무르강변이였다. 어머니는 로태심을 낳고 한달도 못되여 사망했다. 산후탈에 오래전에 당했던 부상의 후과가 겹쳤던것이다. 독립군 취사병이였던 어머니는 지엔다오(간도)에서 벌어진 어느 전투에서 왜놈의 총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임신을 하면 그 부상자리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세대에 갚지 못한 원쑤를 아들대에라도 갚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신을 했었다. 그랬기때문에 아들애에게 생을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나니 조금도 여한이 없다는 유언을 최후의 순간에 남기였다. 졸지에 홀아비가 된 아버지는 안해가 자기의 생명과 바꾸다싶이 한 아들애였지만 키울수 없었다. 하는수없이 육아원에 보냈다. 그러다보니 로태심은 로씨야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모국어보다 로어를 먼저 배웠다.

아버지가 홀로 사는 중국인녀성과 새가정을 이루고 로태심을 집으로 데려온것은 그가 4살때였다. 아버지와 계모는 화목했다. 비록 서로 다른 민족이였지만 망명객의 공통된 불우한 처지가 서로의 동정을 불러냈다. 계모는 태심에게도 살뜰했다. 태심이 여섯살나던 해에 이복동생이 태여났다. 형제는 의좋게 자랐다. 류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형제는 어려서부터 조선어와 중어, 로어를 배웠다. 아버지의 총명한 머리를 물려받은 형제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였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로씨야족아이들이나 나나이족아이들과 대비도 안

되리만큼 모든 학과목에서 월등했다. 하지만 태심은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으로 갈수 없었다. 일할 나이가 지난 부모들을 모시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다. 건설기업소에 취직을 한 로태심은 연공으로 일하였다. 남다른 담력과 날렵한 솜씨를 가진 그에게는 연공직업이 몸에 붙고 마음에 들었다. 몇해어간에 기업소적으로 손꼽히는 연공으로 자라났다. 스물다섯살 나던 해였다.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간곡히 말했다.

《태심아, 날로 병세가 중해가니 나는 살아서 조국땅을 밟아볼것 같지 않구나. 신문을 보니 지금 조국에서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이 다그쳐진다고 하더라. 너라도 휴가를 받고 나를 대신해서 조국을 한번 다녀오거라. 조국에서 보고 느낀바를 전해다오. 그리고 꼭 잊지 말것은 올적에 조국땅의 흙을 몇삽 잘되게 가져오너라. 내가 죽어서 묘에 묻힐 때 네가 그 흙을 내 몸에 뿌려라. 그러면 조국의 흙냄새를 저승에서라도 마음껏 즐기면서 고이 잠들게 아니냐. 몸은 비록 이역에 묻히여도 조국의 흙속에 묻히고싶어서 하는 말이다.》

유언과도 같이 비장한 의미가 담긴 아버지의 당부였다.

쏘련에서 나서자란 태심에게는 조국에 대한 아무런 추억도 없었다. 그만큼 그리움의 감정도 희미했다. 아버지의 그 당부에서 비로소 조국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죽어서도 그 흙에 묻히고싶어할가 하고 생각하였다. 로태심은 한달동안의 휴가를 받고 조국으로 나왔다. 평생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아보는 감개는 이를데없이 무량했다. 어데서나 눈부신 창조와 건설이 벌어지는 조국의 현실과 서로 돕고 이끄는 인민들의 화목하고 후더운 인정에 현혹되였다.

평양을 돌아보던 어느날 그는 화력발전소건설장으로 갔다. 건물의 기둥들을 세우고 강철트라스를 올리는 작업이 한창이였다. 허리에 손을 얹고 한동안 지켜보니 연공작업이 서툴렀다. 여차하면 트라스를 올리다가 떨어뜨릴수 있었다. 그냥 구경만 할수 없었다. 작업장에 뛰여들었다. 쉽게 들어올릴수 있는 묘득을 설명하고 쇠바줄을 트라스의 가장 적중한 위치들에 걸어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연공기술이 보통이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과연 그가 내놓은 방법대로 하였

더니 수십톤되는 트라스를 어렵지 않게 기둥끝에 얹었다.
《야, 이거 어데서 이런 보배덩이가 굴러왔어!》
사람들은 환성을 지르며 그를 목마에 태웠다. 박수갈채와 경탄의 시선들을 한몸에 받으며 작업장을 한바퀴 돌았다. 목마에서 내려서니 이번에는 목에 호각을 걸고 빨간 수건을 쓴 처녀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로태심은 그가 기중기운전공처녀라는것을 알았다. 트라스를 올릴 때 기중기운전실의 그 처녀에게 신호를 보내며 얼굴을 익혔던것이다.
《동무의 기술이 여간 아니군요. 트라스를 다 올릴 때까지 며칠간 더 우릴 도와주지 않겠어요?》
처녀가 정겨운 눈으로 마주보며 물었다. 그 눈빛에 가슴이 후더워오는것을 느끼며 기꺼이 응대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휴가기간은 20여일이나 남아있었다. 그 기간 자기의 기술을 조국의 발전소건설에 아낌없이 바치고싶었다. 한없이 즐겁고 보람찬 로동의 나날이 흘렀다. 매일이다싶이 그를 축하하는 속보가 나붙었다. 어떤 때는 그의 이름과 서분옥의 이름이 나란히 올랐다. 그럴만도 하였다. 오래동안 기중기운전공과 손발을 맞추며 연공일을 하여왔지만 서분옥이처럼 이쪽의 속생각을 꿰뚫어보듯이 기중기를 움직여주는 운전공은 없었다. 긴장한 순간들에는 심장의 고동과 호흡까지 일치하는듯 한 느낌이였다. 쉴참에 북소리장단이 울리고 춤판이 벌어질 때에는 서분옥이와 짝을 지었다. 손에 손을 맞잡고 눈빛을 마주치며 춤을 추는 황홀한 행복감은 이를데가 없었다. 어느 일요일에는 보통강반을 거닐며 함께 사진도 찍었다. 건설장에서는 로태심을 평범한 지원자들의 한사람으로 알고있었다. 전국의 관심속에 벌어지는 건설이여서 지원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주소나 직장은 흔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 누가 물어도 사실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달려와 일을 한 사실이 자기 직장에 알려지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그들이였다. 당시의 그러한 풍조를 따라서 로태심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자주 산보길에 오르는 서분옥조차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 굳이 캐여보려

고도 하지 않았다. 따져묻는다면 로태심의 자존심을 건드릴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언젠가 만났을적에 애인이 있는가를 물었을뿐이다. 로태심은 스물다섯, 한창나이가 될 때까지 어느 처녀와도 교제를 하여본 일이 없었다. 이성을 느끼기 시작한 때부터 매일같이 신칙을 하는 아버지의 지엄한 훈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태심아, 너는 우리 가문의 장손이다. 문중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가야 한다. 그러니 다른 족 처녀와 사귀는 일은 삼가해라. 흔치는 않지만 원동지역에도 우리 겨레의 후손들이 없지 않다. 내 여러 가닥으로 줄을 놓아서 맞춤한 조선족처녀를 물색해줄테니 그리 알아라.》

이역땅에서도 조선사람의 얼을 지키려는 완강한 모지름이였다. 그 훈계가 유언과도 같이 엄숙하다보니 서뿔리 어길수 없었다. 어머니도 없이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의 뜻이여서 더구나 그러했다.

로태심은 서분옥의 스미는듯 한 정다운 눈빛을 받아들이며 행복감에 도취될 때면 부지중 생각했다. 이 처녀가 우리 집에 나타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가! 그러한 생각은 짜릿한 아픔을 주는 애달픈 공상에 불과했다. 저절로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제라도 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쏘련공민이라는것을 밝혀야 하지 않을가? 하지만 그럴수 없었다. 처녀에게 실망을 주고싶지 않았다. 그보다도 진실을 터놓은 다음에 자기가 겪어야 할 괴로움을 이겨낼것 같지 못했다. 미루었다가 작별의 전날에 말해주자. 헤여져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가슴에 남았던 상처도 아물어버릴것이다. 흔연한 기색으로 처녀와 걸음을 맞추었다. 가볍게 활개를 젓는 서로의 손등이 스치였다. 분명 처녀는 자기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것 같았다. 하지만 태심은 자신을 억제했다. 자기의 손에 처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조금 비켜서군 했다. 덥석 잡고싶은 불같은 욕망을 누르는 그의 숨결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들은 여태껏 서로의 가슴속에 싹트는 사랑을 의식했을뿐이지 터놓고 고백한 일이 없었다. 만일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무언의 고백으로 될수 있었다.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랑을 고백한다면 처녀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될것이다.

아쉽게도 작별을 하루 앞둔 전날 밤이 왔다.
건설장에서는 휴가기간이 끝나버린 로태심을 위해 소박한 연회를 차려주었다.
연회가 끝났을 때 로태심은 서분옥을 조용히 만났다.
《지난 20여일이 꿈같이 흘렀소. 무엇보다 동무를 알게 된것이 기쁜 일이였소.》
《나도 그랬어요. 인젠 나에게만이라도 주소와 직장을 알려주겠지요?》
처녀는 상긋이 웃으며 물었다. 한껏 희망과 기대가 어린 처녀의 눈빛이 교교히 흐르는 푸른 달빛에 실려왔다. 로태심은 어차피 이 순간에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선뜻 입이 열리지 않았다. 가슴이 찢기는듯 했다. 차마 처녀를 마주볼수가 없어서 지그시 감아버리는 눈시울짬으로 눈물이 슴새여나왔다.
《태심동무, 왜 그러세요?》
이쪽의 느닷없는 눈물에 당황한 처녀가 팔굽을 잡고 흔들었다.
《분옥동무, 용서하오.》
목메인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아니, 무얼 잘못했길래?!…》
듣고보니 그렇기도 했다. 따져보면 처녀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을 저지른것이야 없지 않은가. 다소 용기를 가지고 눈물에 젖은 눈으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난 조선사람이지만 쏘련공민이요. 진작 동무에게만은 그걸 말했어야 하는건데…》
분옥은 삽시에 굳어져버렸다.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사이로 새된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거짓말?》
《사실이요.》
로태심은 높뛰는 심장의 아픔을 느끼며 응대했다. 방금전의 용기는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씻을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것처럼 생각되였다. 처녀의 발밑에 끓어앉아 용서를 빌고싶었다.
《내가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것은…》

허턱 고개를 떨구었다. 정이 깊어질수록 이루어질수 없는 사랑의 고민에 시달린 자신을 고백했다.
《그랬댔군요!》
탄식을 터친 처녀의 눈에 핑하니 물기가 어렸다.
태심은 처녀의 고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자 자기 심장의 피가 흐르는것처럼 가슴이 찢겼다. 자신의 괴로움은 사라져버렸다. 처녀의 아픈 마음을 달랠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싶었다. 하지만 어리둥절한 가운데 입밖으로 터져나온 말은 너무도 평범했다.
《울지 마오. 동무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힐줄 알았다면…》
《그만하세요. 나는 자신이 괴로워서 우는게 아니예요. 동무의 가슴에 남게 될 마음의 상처가 애달파서 우는거예요!》
처녀는 울부짖으며 한걸음 다가섰다.
로태심은 분옥이도 진심으로 사랑의 감정을 품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다가선 처녀의 체취와 함께 뜨거운 열풍이 가슴에 확 배여들어 전신에 퍼지는듯 했다.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자신을 통채로 이 고마운 처녀에게 맡겨버리고싶은 욕망을 강렬하게 느꼈다. 그리도 잡아보기를 서슴어하던 처녀의 손을 얼결에 덥석 잡았다.
《고맙소, 분옥동무.》
《래일 몇시에 떠나나요?》
어느새 분옥은 눈물을 거두었다.
《오전 10시 두만강행 국제렬차로 떠나오.》
《바래워드리겠어요.》
약속대로 이튿날 서분옥은 평양역두에 나와있었다. 간밤에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은 부석부석해보이였다. 그러나 내처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로태심도 애써 웃는 얼굴이였다.
서분옥은 로태심의 트렁크를 들고 홈에까지 따라나왔다. 정녕 헤여지고싶지 않는 작별의 순간이 다가왔다. 렬차에 오르기 전에 로태심은 트렁크를 받아들고 처녀를 마주보았다. 입가에는 웃음이 피여났으나 눈동자에는 물기가 어리였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그 모습을 망막에 새기듯 지켜보았다. 영원히 잊을수 없는 말을 남기고싶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쿵쿵 흉벽을 울리는 애절

한 심장의 박동소리만이 높아졌다. 처녀가 입을 열었다.
《동무의 마음을 다 알아요. 잘 가시라요.》
기적을 울리며 렬차가 떠났다. 로태심은 승강대에 올랐다. 렬차는 서서히 속도를 높이였다. 서분옥은 홈을 달리며 손저어주었다. 로태심의 시야에서 그 모습은 하나의 점으로 작아지더니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냥 손저어주며 따라오는것만 같았다.…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울리였다. 뻐스가 멈춰섰다. 그통에 로태심은 깊이 잠겼던 추억에서 깨여났다. 차창밖을 바라보니 도로와 철길이 교차되는 지점이였다. 려객렬차가 지나가고 차단봉이 오르자 뻐스가 다시 떠났다. 차안을 둘러보니 젊은이들은 모두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산천을 바라보고있었다. 도시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낯선 지방의 산천경개는 유혹적일것이다.
《사장동지.》
로태심은 곁에 앉은 사장을 조용히 불렀다.
리수환이 머리를 돌렸다.
《내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우.》
《뭔데요?》
《우리 로친 말이우다. 자기도 돌격대에 나와서 대리석채취에 한몫 하겠다질 않겠소. 처음은 안된다고 우겼지요. 창작사에서도 선발된 사람들만 뽑힌 돌격대에 로친따위가 섞인다는게 될법이나 한 일인가고 했지요. 헌데 로친이 쉬이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그 싱갱이질에 창작사를 떠날 때 그만 시간을 지체시켰수다. 내 그럴수 없다고 정 잡아떼니까 제쪽에서 하는 말이 사장동지에게 자기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질 않겠소. 로친이 차에 올라서 사장동지에게 그런 청을 드린다면 이 젊은이들앞에서 내 꼴이 뭐가 되겠소.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보겠으니 그리 알라고 했수다. 돌격대의 기본부대가 나올 때 우리 로친도 묻어오도록 해주시우.》
《열의는 높습니다만 그동안 집살림은 누가 하겠습니까?》
《며늘애가 있으니 일없습니다.》
《헐치 않은 나이에 부인님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중기를 다루지요. 아니할 말루 처녀시절부터 익힌 솜씨가 있어서 기중기운전에는 우리 로친을 따를 사람이 별로 없수다.》
은근한 말로 여쭈는데 고수머리청년이 끼여들었다.
《로아바이, 자기 부인 자랑하는걸 뭐라는지 알아요?》
로태심은 화가 나서 청년에게 삿대질을 했다.
《이 덜된 녀석아, 내가 그래 바보짓을 한다는거냐? 녀편네 자랑도 할건 해야 한다. 사타구니에 찬것이 있다고 해서 녀편네를 턱없이 숙보는 사내야말로 바보중의 바보다.》
처녀들이 공감했다.
《아바이말씀이 옳아요. 안해의 인격을 존중할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바보예요.》
한 처녀가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자 뒤좌석에 앉은 처녀는 사장에게 간청하듯 말했다.
《사장동지, 아바이부탁대로 어머님도 우리 돌격대에 데려오자요.》
《어째서?》
리수환은 싱긋이 웃으며 뒤로 머리를 돌렸다.
《그러면 화목한 부부의 좋은 모범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줄게 아니나요.》
《그럴상싶군. 사에 돌아가면 토론해보겠소.》
로태심의 마누라를 돌격대에 받아들이는것은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그를 통해 창작사의 직원들뿐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사실을 눈앞에 보는듯 했다.
어느덧 뻐스는 영산의 채석장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제 2 장

1

계속되던 장마가 걷히였다. 립추가 지났으니 계절은 가을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대지에 뜨거운 볕발을 쏟아붓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달리는 승용차의 차창밖을 바라보시였다. 가열된 대기가 아지랑이같이 새물거리는 들판에 논발이 아득히 펼쳐졌다. 시야에 안겨오는 논발의 작황은 좋은편이였다.

(수해만 없었다면 전국의 농사형편이 좋았을텐데.)

부지중 마음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서해안의 수해지역을 돌아보고 오시는 길이였다. 가셨던 곳은 무더기비로 홍수와 사태의 피해를 적지 않게 입었다. 여러날 물에 잠겼던 논벼들은 낫을 걸어볼 형편이 못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슬픔에 잠긴 우리 인민이 식량난마저 겪어야 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리시였다. 이번 걸음에 몇개의 공장들도 돌아보셨는데 어느곳이나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다가오는 경제적난관이 자신의 어깨우에 무거운 중하로 실리는것을 의식하시였다. 서방세계는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하자면 《개혁》과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떠들고있다. 《개혁》과 《개편》은 붉은기를 내리우고 그 색갈이 선명치 않은 다른 기발을 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를 절대로 내리울수 없다. 조성되는 경제적난관은 우리 당이 경제관리에서 견지하여온 사회주의원칙에 그 무슨 잘못이 있기때문이 아니다. 원인은 미제의 고립압살책동과 자연재해에 있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진리이다. 우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해야 하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경제적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이미 세계를 향해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생각할수록 그 결심이 정당하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지난 시기도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엄혹한 위기가 많았다.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오직 우리 인민을 믿고 그의 사상정신적잠재력을 동원하여 위기를 타개하군 하시였다. 자랑스러운 이 불패의 전통은 끊임없이 계승되여야 한다.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락관은 간고한 투쟁을 통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확고부동한것으로 굳어졌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가질 때 우리 인민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난국도 뚫고나갈것이다!

깊은 사색을 거듭하시는 사이에 승용차는 평양에 이르렀다.

집무실로 돌아온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총참모장을 부르시였다. 송수화기를 제자리에 놓고 머리를 드는데 며칠전에 새로 집무실에 걸어놓은 풍경화가 시야에 안겨오시였다.

산비탈을 끼고 들어가는 작은 오솔길, 그것을 감돌아흐르는 맑은 시내물, 방금이라도 설레임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올상싶은 잡관목숲을 그린 그림이였다. 얼핏 보면 산간지대 어데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산골풍경이였다. 하지만 알고보면 그 의미가 심장한 풍경화였다. 야오잉거우(요영구)골안을 그린 그림이였던것이다. 야오잉거우는 준엄했던 1930년대 전반기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이다. 당시 일제는 갓 창건된 항일무장대오를 압살하려고 발악적으로 날뛰였다. 놈들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유격근거지를 겹겹이 포위하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쌀 한줌, 소금 한줌도 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망을 조이면서 근거지곡식밭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하여 최악의 기아와 결핍이 근거지를 휩쓸었다. 게다가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일제의 모략에 넘어간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혁명대오안에 살벌한 분위기까지 조성되였다. 우리 혁명이 질식되여 붕괴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 싸우느냐? 하는 선택이 가로놓인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판가름의 시

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야오잉거우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방어전략으로부터 전략적공세로 넘어가 일제의 《토벌》과 봉쇄를 단호히 짓부실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참으로 야오잉거우는 최악의 역경앞에서도 주저와 좌절을 모르고 맞받아나아가 적들을 쳐부신 조선혁명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어떤것인지를 말해주는 유서깊은 곳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야오잉거우에서 보여준 그 신념과 의지, 그 배짱과 담력으로 싸워야 할 때이라고 생각하며 그 풍경화를 집무실에 걸어놓으신것이였다.

이윽하여 최광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사를 올리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고 벽밑에 놓인 쏘파로 이끄시였다.

《최광동지,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쩐지 최광은 전보다 더 수척해진듯싶으시였다. 년로한 몸으로 이즈막에는 적들의 준동이 심한 때이고보면 그로서는 한순간도 마음의 긴장을 늦출수 없을것이다.

《저는 일없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디 건강에 류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은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고맙습니다. 나야 젊은 몸이니까 몇밤을 패도 일없지만 년로한 최광동지는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됩니다. 나에게는 항일투사들이 곁에 생존해있는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최광은 뜨거운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며 뒤를 잇지 못했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목이 메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서해안 수해지역을 돌아보고 오는 길입니다. 현지에 가보니 인민군장병들이 수해지역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헌신적으로 구원했습니다. 어데를 가나 군인들의 희생적인 투쟁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인민들은 한결같이 나를 붙잡고 최고사령관의 전사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할수 없다고 하면서 나

에게 감사를 보냈습니다. 그 감사는 곧 우리 군대에 보내는 인민들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최광동지, 피해복구사업은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해구제사업에 동원되였던 군인들이 수해복구사업까지 끝내고 철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광은 명령을 받은 전사의 자세로 힘있게 대답을 올렸다. 그리고는 자책어린 어조로 덧붙였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총참모부에서는 수해지역에 나갔던 일부 부대들에 이미 철수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현지로 보내겠습니다. 수해복구준비를 잘하여가지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군민일치에서 주도적역할을 군대가 하여야 합니다. 정세가 긴장하니까 총참모부에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순 생각에 잠기였다가 물으시였다.

《요즘 적들의 준동은 어떻습니까?》

최광은 미국본토와 태평양, 일본과 남조선에 배비된 미군부대들과 괴뢰군부대들의 심상치 않은 기동상태를 낱낱이 보고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이 보지 않고도 적들의 륙해공군부대명과 주요전투기술기재의 수량, 기동하는 작전적기도를 구체적으로 꿰들고있는데 놀라시였다. 나이에 비해서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이였다. 참말로 최광은 충실할뿐더러 능력있는 군사지휘관이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그를 미더웁게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현단계에서 가장 첨예한 전선은 반제전선입니다. 인민군대의 총대에 우리 혁명의 운명이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살피면서 감히 놈들이 접어든다면 섬멸적타격을 가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총참모부에서 전군에 해당한 명령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광은 또다시 엄숙한 낯빛으로 대답을 올리였다. 잠시후에 집무실을 나서려던 그는 벽에 걸린 새로운 풍경화가 눈에 뜨이자 걸음을 멈추었다. 너무도 낯익은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길을 뗄수가 없었다.

그의 행동을 지켜보던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풍경화에 그려진 고장이 어덴지 알아보겠습니까?》

《혹시 야오잉거우가 아닙니까?》

《최광동지는 야오잉거우와 인연이 깊었댔으니까 첫눈에 알아보는군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시였다. 최광의 지나온 경력을 잘 알고계시였다. 최광은 16살 어린 나이에 청년의용군 소대장이 되였다. 1933년 일제의 《토벌》에 온 가족을 잃은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일제를 증오하였고 혁명을 열렬히 사랑했다. 10대의 나이에 비해서는 조숙한편이였고 용감하고 지혜롭기도 하였다. 일찌기 아동단생활을 거치면서 일정하게 투쟁경험도 쌓았고 군사도 배웠다. 그의 원래이름은 최명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대로 나라와 민족을 빛내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최광으로 고쳐주시였다. 이리하여 총대와 함께 한생을 살게 될 최광의 운명이 이날에 결정된셈이였다. 그는 그후 라오허이산(로흑산)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용감히 싸웠다. 조묘태전투때에는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해 소대를 이끌고 야오잉거우 서쪽산으로 달려가 밤새껏 원쑤들과 격전을 벌리였다.

1935년 야오잉거우를 떠난 후에는 북만에서 김책, 허형식과 함께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는것이 못 견디게 아쉬웠던 그는 작별의 그날에 걸음걸음 야오잉거우를 되돌아보았다.

그러한 고장을 잊을리 없었다. 이윽토록 풍경화를 바라보던 최광은 생각깊은 낯빛으로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어찌하여 집무실에 야오잉거우풍경화를 새로 걸어놓으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로투사인 최광동지는 누구보다 내 심정을 깊이 리해할것입니다. 그 풍경화에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적들의 침략과 봉쇄를 짓부셔버리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려는 나의 의지와 결심이 어려있습니다. 나는 최광동지도 사령부를 보위하여 야오잉거우에서 원쑤들과 결전을 벌리던 그때처럼 싸우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대와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이날 사무실로 돌아온 최광은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다.

2

문명자는 위대한 수령님 서거 100일중앙추모회까지 참가하고 평양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조국인민들과 함께 추모의 전기간을 함께 보내고싶었다. 순탄치 않은 경위를 거쳐서 평양에 온 걸음인것만큼 쉽게 떠날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가 지난 7월 9일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들은것은 일본에서였다. 그때 문명자네 부부는 일본의 어느 피서지에서 여름철휴양을 하고있었다. 점심식사를 하다가 비보를 듣게 된 문명자는 지체없이 워싱톤으로 날아갔다. 조의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수속을 서둘러야 했다. 그랬으나 미국당국은 그의 평양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과 국교가 없는데다가 평양에서는 일체 외국인조객은 받지 않는다고 공포했기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문명자는 조선과 국교가 없지만 베이징을 거쳐서 평양을 방문했던 전례가 있으며 자기는 비록 미국시민이지만 분명히 조선사람이기때문에 평양은 입국을 승인할것이라고 들이댔다. 했지만 미국당국은 출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명자가 좌익계친북인물이기때문이였다. 문명자는 면식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 대통령까지 만나게 되였고 이튿날 베이징으로 날아갈수 있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문명자는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을 찾아갔다. 대사관에서는 즉시 평양에 문명자의 청원을 전하였다. 그의 청원내용을 보고받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체류기간 문명자의 생활과 취재조건을 잘 보장해주라고 하시였다. 문명자는 그날로 평양에 날아와서 해외동포조문단의 한 성원으로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조의를 드릴수 있었다.

평양에 머무르는 기간 그는 거의 매일과 같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꽃송이를 정히 드리고 눈물을 뿌

리였다. 주석님의 접견을 받던 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무쳐오는 그리움을 금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세계정치정세에 민감한 언론인으로서 조선의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하려고 하였다.

랭전이 종식된 후 오늘의 세계정치구도의 특징은 조미대결이였다.

미국인들자신도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정면으로 저항해오는 가장 무서운 실체는 조선이라고 말한다. 조선으로서는 참으로 힘겨운 대결을 하고있는셈이다. 미국은 세계《최강》을 뽐내는 나라이고 거기에 제국주의세력들이 합세하고있다. 그런데 조선은 봉쇄를 당하고 자연재해까지 입다보니 참으로 어려운 경제적난국을 겪고있다. 보통상식으로 보면 열번도 더 무너졌을것이다.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면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것은 세계의 수수께끼이고 력사의 기적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그 수수께끼를 풀고싶었다.

요즈음 평양의 신문들과 텔레비죤은 서해안 일부 지역의 수해상황을 전하고있다. 살림집들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그런 재난까지 당하였으니 과연 피해지역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있을가? 문명자는 가장 혹심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수해지역으로 취재를 떠났다. 진상을 사실그대로 세상에 알려서 국제인도주의단체들로부터 지원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려고 했다. 평양을 떠나 몇시간 달려서 현지에 이른것은 오후 3시경이였다. 해외동포영접국의 안내원 최길호가 동행을 했다. 눈앞에 펼쳐진 전경은 참혹했다. 홍수와 해일이 겹쳐서 마을을 통채로 쓸어갔다. 남아있는 집은 한채도 없었다. 물이 쩌버린 논과 밭들의 곡식들은 시꺼멓게 감탕을 뒤집어썼다. 수확은 고사하고 그 짚은 소도 못 먹일것이다. 그처럼 참담한 피해를 당했으나 천막을 치면서 새 살림을 꾸려가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다. 저켠 산기슭에는 군인들이 동원되여 농민들의 살림집을 짓기 시작했다. 여러곳에서 지원물자와 건설자재를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도착했다. 흔적만 남아있는 마을복판의 느티나무곁에 서있는 방송차에서는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혁명가요가 우렁차게 울려나왔다.

문명자는 장화를 신은 발로 감탕을 밟으며 여러곳을 돌아보고나서 작업반장을 만났다. 볕에 그을려서인지 얼굴색이 거무스름한 중년녀인이였다.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살림집들을 몽땅 쓸어간것으로 봐서 얼마나 무서운 홍수가 들이닥쳤는지 짐작이 갑니다.》

《지금은 물이 다 졌지만 그저께 당일에는 온 벌판이 물바다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재난을 당했습니다.》

작업반장녀인은 감탕이 말라붙은 손으로 이마에 드리운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담담한 어조로 응대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깨를 떨었다.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모양이다.

《인명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마을의 성원중에 몇명이 희생되였습니까?》

문명자는 취재수첩을 펼치고 원주필을 꼬나들었다. 짐작컨대 많은 사람이 희생되였을것이다.

그런데 작업반장녀인의 대답은 뜻밖이였다.

《수해 당시 우리 마을의 인구는 두명이 불어났습니다.》

문명자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녀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놀라움보다 놀림을 받는듯 한 노여움이 북받쳤다. 저도 모르게 노기어린 목소리가 튀여나갔다.

《이미 소개했지만 나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뭣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선생은 우리 동포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바 있는 기자라는것을 진작 알고있습니다. 선생도 같은 조선사람으로서 우리 조선사람들은 거짓이나 꾸밈을 모른다는걸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녀인의 말에 머리가 숙어졌다. 노기를 풀고 온화한 표정으로 물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아닌게아니라 홍수가 밀려들 때 우리 동네사람들은 몽땅 수장되는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승기들이 날아오고 수륙량용장갑차들이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부대들을 구조대로 급히 파견해주셨던것입니다. 아이들과 로인들, 병약자들이 먼저 구원되

고 그다음 청장년들이 구원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의 등을 떠밀면서 비행기나 수륙량용장갑차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우리 작업반원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줄을 모르고있었는데 이번에 재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진속을 알게 되였습니다. 작업장에 조금 늦어나왔거나 얼마간 리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추궁을 했던 일을 후회했습니다. 참으로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명피해문제에 대한 선생의 질문에서 이야기가 잠시 빗나갔는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직승기안에서 두 녀자가 몸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한 녀인은 오누이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셋이 태여났는데 왜 인구가 두명 불었다고 했습니까?》

《아참, 우리 작업반에서 한명은 수해때 실종되였습니다.》

작업반장녀인은 비로소 기억을 떠올린듯 한 기색을 지어보이며 천천히 뒤를 이었다.

《마을의 맨 끝집에 박두칠이라는 로인이 살고있었는데 그 로인이 그만 실종되였습니다. 인민군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집은 지붕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바다로부터 해일이 밀려들었거던요. 군인동무들이 잠수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보았는데 그때에는 로인이 집에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직은 알길이 없습니다. 아들은 일하러 나가고 해산을 앞둔 며느리는 리인민병원에 입원을 하고있었기때문에 로인은 집에 혼자 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문명자는 부지중 한숨이 터졌다. 필경 로인은 방안에 물이 쓸어드는 순간에 밖으로 나갔다가 해일에 휩싸여 수장되였을것이다. 그처럼 혹심한 재난속에서 인명피해가 없을리 없었을것이다. 젊은이나 어린이가 아니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로인이 잘못되였다는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 아닌가? 아니다. 젊으나 늙으나 삶은 아름다운것이고 생은 귀중한것이다. 늙어가는 사람일수록 생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고들 한다. 로인의 최후는 과연 어떠했을가?

침통한 침묵이 흘렀다.

문명자는 잠시후에 수재민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다

시한번 한숨을 앞세우고 말문을 열려는데 느닷없는 부름소리가 들리였다.

《반장어머니!》

소리나는쪽으로 반장녀인과 함께 머리를 돌렸다.

빨간 머리수건을 쓰고 비닐장화를 신은 처녀가 경황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하는 품으로 보아 보통 다급한 일이 아닌상싶었다.

반장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명자도 따라일어섰다.

반장녀인은 급히 처녀를 마중가며 물었다.

《옥실아, 무슨 일이냐?》

《반장어머니, 박두칠할아버지가 살아계셔요!》

다가선 처녀는 숨가쁘게 말을 번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 비꼈다.

《뭐,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구?》

반장녀인은 얼없이 반문했다.

《살림집건설을 하던 군인동무들이 박두칠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래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데 계시느냐?》

반장이 물었다.

《버드나무에 있어요. 홍수가 터질 때 나무에 오른 모양이래요. 군인동무가 나무우에 올라가서 내려가자고 했으나 말도 못하고 손발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더래요. 군대동무들이 사다리를 구해다가 뻗쳐놓고 할아버지를 끌어내리자고 의논하는걸 보고왔어요.》

《어서 그리로 가보자.》

반장녀인은 처녀를 앞세우고 반달음을 놓았다.

문명자도 황황히 뒤따랐다. 어느새 버드나무주위에 이르렀다. 버드나무는 몇백년이나 자란것인데 밑둥에는 구새가 먹고 층층으로 아지가 뻗쳐서 로인이나 아이들도 쉽게 오를수 있는것이였다. 아래부분에는 감탕이 게발렸으나 중간부분부터는 물길이 닿지 않아서 푸른 잎새가 풍만한 가지들을 사방으로 뻗치고있었다. 잎새들사이로 나무가지에 걸터앉아서 그 무엇인가를 가슴에 부여안은 로인의 모습이 보이였다. 나무밑에는 군인들과 마을사람들 여럿이 웅성거리고있었다.

군인들이 살림집건설에 리용하던 키높은 덕대를 날라왔다. 덕대우

에 성큼 뛰여오른 세명의 병사가 로인의 몸을 흔들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정신차리세요!》
그랬으나 로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군인들은 힘을 모아 로인의 다리를 나무가지에서 벗겨서 덕대우에 내려놓았다.
《박두칠할아버지가 살아계셔요?》
반장녀인이 군인들에게 큰소리로 물었다.
《체온도 있고 숨도 쉬십니다.》
긴장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군인동무들, 빨리 땅우에 내려놓으시오. 땅김을 쐬여야 의식을 차립니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군인들이 로인을 덕대에서 내려놓았다. 누구인가가 멍석을 가져다가 자리를 마련해놓았다. 로인을 멍석우에 편히 눕히였다. 그사이 언제 련락을 받았는지 위생복을 입은 녀의사가 나타났다. 로인은 번듯이 누워서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여전히 가슴에는 보자기에 소중히 싼것을 부여안고있었다. 팔이 강직되여서 풀수가 없었다. 녀의사가 두루 살펴보더니 포도당주사액암풀을 깨여 고뿌에 쏟아서 로인의 입에 넣어주었다. 절반은 입귀로 흘러내렸지만 얼마간은 목으로 넘기는것 같았다. 로인의 숨결소리가 높아지면서 곁에 사람에게도 들리였다. 하더니 물을 찾는 로인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사흘동안이나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나무우에 있었으니 제일 참기 어려운것이 갈증일것이다. 녀의사가 다시 포도당액을 고뿌에 따라서 로인의 입술에 가져갔다. 이번에는 로인이 달게 마셨다.
문명자는 로인의 소생과정을 주의깊게 살피고있었다. 년로한 몸으로 사흘동안이나 나무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살아있다는것자체가 하나의 기적이였다. 로인은 여전히 가슴에 보자기를 부여안은채 누워있었다. 강직되여버린 팔과 손은 누구도 풀지 못했다. 그 보자기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가? 분명 로인으로서는 목숨으로 지켜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는 가보일것이다.
이윽하여 로인이 눈을 떴다. 의식을 차렸던것이다.
《아버지!》

젊은 사나이가 로인의 가슴우에 엎드리며 소리쳤다. 분명 로인의 아들일것이다.

로인은 점차 생기가 도는 눈으로 아들을 마주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애야, 네 처는 무사하냐?》

《무사합니다. 그 사람은 란리때 비행기안에서 몸을 풀고 그길로 평양산원에 실려갔습니다.》

《나도 안다. 내 나무우에 올랐을 때 방송소리를 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맙게도 군인구조대를 보내주셨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나도 살아날수 있겠구나 하는 강심을 먹고 실망하지 않았댔다. 사람이 마음을 모질게 먹으면 명도 질긴 법이란다.》

로인의 눈에 핑하니 눈물이 고이였다.

반장녀인은 로인에게 깨우쳤다.

《두칠할아버지, 할아버지 며느리는 오누이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평양산원에서 관리위원회로 전화가 왔는데 산모도 애기들도 모두 건강하답니다.》

《그렇단 말이지. 이런 경사라구야!》

로인은 강력한 강심제주사라도 맞은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그리도 필사적으로 소중히 가슴속에 품고있던 보자기를 풀었다. 물이 슴새여들지 못하도록 꼼꼼히 둘러싼 비닐박막을 펼쳤을 때 사람들은 두눈을 커다랗게 뜨며 경탄에 잠기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였다!

로인은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가정에 모셨던 두분의 초상화를 정히 싸서 가슴에 품고 나무에 올랐던것이다.

문명자는 충격적인 감동에 잠기였다. 가슴속에서 소리없는 부르짖음이 터져올랐다. **김일성**민족의 공민만이 이렇게 할수 있다. 눈앞에는 지칠대로 지친 초췌한 로인이 아니라 자기의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할줄 아는 영웅적인 한 공민이 있었다. 서둘러 사진기를 꺼내여 렌즈에 로인을 포착하려 하였다. 그런데 도무지 초점을 맞출수 없었다. 로인의 모습이 자꾸만 흐려졌다. 잠시후에야 자기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는것을 깨닫고 눈시울을 닦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오래동안 기자생활을 하여오지만 지금처럼 감동적인 사실을 취재하여보기는 처음이다. 이 하나의 사실에 조국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함축되여있다. 이 사실을 널리 선전함으로써 조선의 현실을 두고 의혹을 품고있는 세상사람들의 수수께끼에 해답을 주게 될것이다.

3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른아침에 의사당으로 나오시였다.

리을설과 의사당책임일군들이 그이를 맞이했다.

《빠른 시일내에 형성안을 완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이께서 김구선에게 하시는 말씀이였다.

김구선은 형성안이 진렬된 곳으로 그이를 안내해드렸다.

복도에 세개의 설계도면이 나란히 세워져있었다.

그앞에 걸음을 멈춘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에 두팔을 엇걸어얹고 주의깊게 바라보시였다. 형성안을 보아준 그이께서는 마지막으로 대계단형성안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계단폭을 표시한 수자를 보며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계단폭이 좁습니다. 같은 폭으로 마지막까지 계단이 뻗어오르게 한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물으시였다.

《누구한테 종이가 한장 없습니까?》

김구선은 들고있던 큼직한 수첩에서 정히 한장을 떼여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형성도안들을 세워놓은 탁앞에 종이를 펼치고 원주필로 힘주어 계단륜곽을 그리시였다. 밑면은 넓고 층계가 높아지면서 폭이 좁아든 륜곽이였다.

《대계단은 이런 식으로 형성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집무를 보다가 인민들이 찾아오면 반가움에 넘쳐 두팔을 벌리고 이 계단을 내려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려고 넓게 벌리신 수령님의 두팔을 련상하도록 계단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로 오는 인민들이 생전

의 수령님을 찾아뵙던 그때처럼 변함없는 수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순간 일군들의 얼굴마다에 격동의 빛이 어리였다. 너무도 놀라움과 감동이 커서 서로 얼굴을 마주볼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잠시후에야 리을설이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저도 수령님께서 찾아오는 손님을 향해 두팔을 벌리고 저 계단을 내리시던 모습을 여러번 뵈워왔지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 참말로 뜻깊은 명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김구선은 그이께서 계단륜곽을 그리신 종이를 자기의 수첩갈피에 소중히 간수했다. 그리고는 열띤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오늘 가르쳐주신대로 다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이 영원히 빛을 뿌리는 성지입니다. 이것은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는 사랑의 성지라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기념궁전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였다.

그이를 바래워드린 김구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 시간은 한시간정도밖에 안되였다. 하지만 한생을 두고 깨칠수 없었던것을 배운듯싶었다. 건축가로서 자기 성장의 비약을 의식하는 행복감에 가슴이 설레였다.

4

꿈결에도 뵙고싶은 어버이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누구보다 슬픔이 크신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자고보니 슬픔부터 앞서는것이여서 몇번이나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해남도 농민들의 심정이 하도 간절하여서 오늘은 마음을 다잡고 펜을 들었습니다.

아시다싶이 지난해 8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도의 연백벌 여러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습니다. 그때 저는 수령님을

모시고 현지지도로정을 수행하는 영광을 지녔댔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렬차로 배천역에 도착하신 수령님께서는 새벽부터 해종일 포전길을 걸으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쏟아지는 불볕에 땀을 흘리며 벼포기당 알수를 손수 세여보고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치하하시던 일을 우리 농민들이 어찌 잊을수가 있겠습니까.

8월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은 그날의 수령님 모습이 자나깨나 떠올라서 그리움에 목메여 울고있습니다. 더구나 사무쳐오는것은 수령님께서 떠나실 때의 사연입니다. 인제는 저희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농사를 잘 지을테니 년로한 몸으로 포전길을 더는 걷지 마시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자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하자면 포전길을 더 걸어야 한다시며 명년에 농사를 잘 지으면 연백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 도의 농민들은 수령님께서 남기신 그 약속을 생각하며 올해 농사를 전에없이 열심히 지었습니다. 얼마간 수해를 입었지만 전반적인 농사작황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습니다. 수령님 가르치심대로 올해에는 수천정보의 논과 밭에 두벌농사를 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정당수확고가 10톤이 훨씬 넘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협동농장들에 자주 나가봅니다. 그곳 농민들은 풍작을 이루면 수령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남기시였지만 수령님을 다시는 모시지 못하게 되였으니 이렇게 안타깝고 절통한 일이 어데 있느냐면서 저를 붙안고 통곡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수령님과 꼭같으신 장군님께서 오시면 한이 없겠으니 장군님께 청을 드려달라고 눈물로 저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

인제는 천만가지 국사가 장군님 한분의 어깨우에 실리고있으니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리라는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심정이 하도 간절하고보니 거기에 저의 심정까지 합쳐서 삼가 청원의 편지를 올립니다.

조의식때 평양에 올라가 수척해지신 장군님을 뵈옵고 못 견디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디 건강에 류의해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덕복 올림

편지를 읽은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슴 뭉클한 충격을 느끼시였다. 황해남도농민들의 심정이 사무쳐왔던것이다. 동시에 소박한 농촌녀인의 모습인 허덕복의 외양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그의 래력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다.

어린시절의 허덕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하나의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4년 4월 허덕복의 고향마을인 평양시 력포구역 소삼정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만민의 축원을 받으며 편히 쉬셔야 할 자신의 탄생일이였다. 하지만 갓 조직된 협동조합사업을 추켜세우고 농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셨던것이다. 어른들로부터 그 사연을 전해들은 허덕복은 어린 가슴에도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끓어올랐다.

소학교와 중학교를 거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한학급의 동무들 10여명과 함께 협동조합으로 진출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진 협동조합에서 청춘의 삶을 빛내이려는 각오가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굳어진 그였다. 조합벌에 나간 첫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였다. 조합에서는 몇달 안되여 그에게 분조장사업을 맡기였다. 비록 농사경험이 없는 나어린 처녀였지만 분조농사를 잘하려는 진심과 진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샘틀논에 암거를 하여 찬물을 뽑고 거름을 듬뿍 내여 척박하던 땅을 옥답으로 만들었고 집집마다 집짐승을 많이 길러서 그가 분조장일을 시작한지 몇년후에는 조합적으로 분배몫이 제일 많은 분조로 되였다. 제일 마지막자리를 차지했던 분조가 단연 첫자리를 차지했다.

1968년 전국농업일군대회가 열렸을 때였다.

허덕복의 토론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처녀분조장이 우리 사회에서 교양을 받은 일군답게 다른 분조보다 못한 땅, 못한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우리의 의도에 맞게 일을 잘했다, 앞으로 잘 도와주어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다고 분에 넘친 치하와 믿음을 주시였다.

그후 허덕복은 더욱 분발하였다. 협동농장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분조를 맡아서 한해사이에 추켜세웠다. 그는 벌써 헌신적인 실천으로 농장원들의 본보기가 되고 따뜻한 진심과 진정으로 그들과의 사

업을 능숙하게 할줄 아는 로숙한 분조장이 되였다.

그후 그는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살밖에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그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1972년 2월에 있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 참가한 허덕복은 대회의 연단에서 관리위원장으로서 한 일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땅을 사랑하고 영농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며 농기계를 알뜰히 관리하고 축산과 파수업을 적극 장려하여 조합원들의 수입을 높이고 재산관리를 잘한 내용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기념촬영을 할 때 허덕복을 자신의 옆자리에 세워주시였다. 허덕복은 흐르는 감격의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수령님께서는 자꾸 울면 사진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일을 잘해서 농촌테제를 관철하는데 앞장에 서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듬해에 그를 평양시 락랑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시였다.

허덕복은 그 직무에서도 일을 잘하였다.

그가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여 토론을 했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좋고 우월한가, 단발머리처녀분조장이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돼서 토론하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우리 시대에 세상에 태여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일군을 제일 사랑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기쁨이 그대로 자신의 가슴에 젖어드는것을 느끼며 허덕복을 미더웁게 바라보시였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 흘렀다.

당중앙위원회 농업부문을 보는 일군들중 한자리가 비게 되였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것인가를 두고 생각을 거듭하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덕복을 머리에 떠올리시였다. 그래서 어버이수령님께 자신의 생각을 터놓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가 적임자를 골랐습니다. 허덕복동무

라면 그 직무도 책임적으로 잘할거요.》라고 하며 적극 찬성하시였다.

이리하여 허덕복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88년 1월 중순 금수산의사당에서 농업일군협의회를 조직하시였다.

지난해에 농사가 잘 안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시기 위해서였다.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에서 농업부문을 책임진 몇몇 일군들이 협의회에 참가했다.

그들은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한데 대하여 심각히 총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맨뒤에 앉은 허덕복을 띄여보시였다.

《허덕복동무가 지난해 농사가 왜 잘 안되였는지 말해보시오.》

허덕복은 조심히 일어나서 평소에 안타까와하던바를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농사가 잘 안된것은 영농연료와 자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비닐박막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군들이 아래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짜고들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그의 토론은 아래실정을 꿰뚫고있는 오랜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알수 없는 엄연한 현실의 반영이였다. 동시에 그것은 농업부문 책임일군들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였다. 참가자들의 시선들이 그에게 쏠리였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토론을 적극 지지하시였다.

《허덕복동무와 같이 솔직해야 하고 고지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에 맞는 옳은 정책을 세우고 옳은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저 동무가 제기한 문제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회의에서는 영농자재와 연료보장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였다.

참으로 허덕복은 당의 신임에 진정을 바쳐 보답할줄 아는 녀성일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앞에서는 외교를 모르고 진실만을 터놓았다.

회의가 끝난 후 수령님과 장군님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

《**김정일**동지가 참으로 적임자를 천거했소.》
《그 동무야 수령님께서 분조장때부터 키우신 일군이 아닙니까.》
2년후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덕복을 당중앙위원회에서 농업부문을 보는 책임일군으로 임명하면서 어느 한 책임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천리마시대에는 길확실, 리신자와 같은 선구자녀성들과 같이 일하였다면 지금은 관리위원장도 하고 현실속에서 일한 허덕복이와 같은 솔직하고 진실한 녀성일군들과 함께 일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 수령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진실하고 이악한 녀성일군을 알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해갑문이 완공된 후 황해남도의 물문제를 풀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해갑문—신천, 강령, 옹진물길공사, 서해갑문—장수호, 례성강물길공사, 서해갑문—은률, 과일군물길공사를 설계하고 그 일을 틀어쥐고 내밀어야 할 주인인 도농촌경리위원장을 물색하시였다. 그러다가 이악한 녀성일군인 허덕복을 내려보내면 물길공사도 할수 있고 황해남도농사도 추켜세울수 있다고 생각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수령님의 생각을 적극 지지하시였다.
이리하여 허덕복은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장으로 조동되였다. 무거운 과업을 받아안고 생소한 고장에 내려가서 낯선 일군들과 일하게 된 그는 처음부터 드세게 사업을 내밀었다.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 시, 군당책임비서, 인민위원회 위원장, 경영위원장들과 함께 허덕복을 금수산의사당으로 부르시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황해남도에서 농사를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연백벌도 잘하지 못합니다. 황해남도농사를 추켜세우기 위해 이번에 물길공사를 세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에 있던 허덕복이를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런줄 알고 모두 합심해서 일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후 도내 일군들은 합심을 해서 탈곡이 끝나는 즉시로 수만명을 물길공사에 동원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과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들을 물길공사에 동원시켜주고 정무원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지체없이 보내주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4월 15일까지 세개의 물길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이 기간 허덕복은 하루도 쉼없이 물길공사장에서 침식을 하며 현장지휘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보내면서 교시하시였다.

《황해남도에서 진행한 물길공사가 기본물길에다 가지물길까지 합치면 거의 2천리나 됩니다. 참으로 방대합니다. 이것을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해낸다는것은 기적입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돈을 주고도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물문제가 완전히 풀린 황해남도의 농사에서는 전변이 일어났다. 지난해 도의 농사작황은 전례없이 좋은편이였다. 그리하여 8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지방의 현지지도에서 쌓인 피로도 풀 사이없이 평양에 도착한 그날 밤에 황해남도로 떠나셨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연백벌의 여러 협동농장들을 돌아보면서 커다란 기쁨속에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명년에 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 와보겠다는 약속도 남기시였다.

허덕복이 편지에 쓴바이지만 수령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며 황해남도농민들이 올해농사를 얼마나 알심있게 지었으리라는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덕복의 래력을 상기한 끝에 그의 이름과 관련된 사연도 떠올리시였다.

그의 이름은 원래 복덕이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지만 늘 복덕이가 아니라 덕복이라고 부르시였다. 언젠가 허복덕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수령님께 말씀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 제 원래이름은 복덕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덕복이라고 부르십니까?》

수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라와 인민에게 덕을 주는 복덩이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지.》
허복덕은 말씀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였다. 나라와 인민에게 참으로 덕을 주는 일군으로 살려는 불타는 각오와 함께 자기의 이름을 덕복이로 고쳐불리우고싶은 갈망이 끓어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본인의 심정을 수령님께 보고드리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전국의 농업일군들을 데리고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과학자들이 새로 육종한 키낮은벼와 새로운 콩을 일군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날 복덕이가 황해남도농사형편을 수령님께 보고드린 뒤에 수령님의 책임서기가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복덕동무가 이름을 허덕복이라고 고쳤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허복덕을 바라보며 《좋아, 복덕이보다야 덕복이가 더 좋지. 덕이 있어야 복이 있는 법이야. 좋아, 오늘부터 모두 덕복이라고 부르게 하자. 오늘부터는 허덕복이야.》하고 장천벌이 떠들썩하게 웃으시였다.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고유의 징표이다.
허덕복은 이날을 계기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그처럼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보내주시는 혁명전사로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는듯한 감격을 느꼈다고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적 손에 들고있던 편지를 집무탁에 놓고 빙그레 웃으며 입속으로 뇌이시였다.
《허덕복.》
생각할수록 어버이수령님께서 훌륭히 키우신 녀성일군이다.
지금도 어느 농장벌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머금고있을 그의 모습이 방불히 그려지셨다. 수령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앞두고 그때를 추억하며 그리움에 사무친 연백벌농민들의 심정이 가슴뭉클하게 헤아려지셨다.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연백벌로 달려가고싶으시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무거운 력사의 중하가 자신의 어깨우에 실려있었다. 아무리 생각을 굴려보아도 자신께서는 시간을 낼수가 없으시였다. 책임서기를 부르시였다. 지체없이 책임서기가 집무실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임서기에게 말씀하시였다.

《황해남도농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앞두고 수령님을 그리워하던 나머지 나더러 연백벌에 내려와달라는 청원을 하여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올해농사를 잘 지으면 다시 가시겠다고 그들과 약속을 남기셨던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도 아다싶이 나는 이즈막에 도무지 몸을 뺄수가 없습니다. 나대신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연백벌에 나가 농민들을 고무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령님께서 그리하셨던것처럼 일군들이 밤차로 떠나서 31일 새벽 배천역에 도착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약속을 지켜드리고 념원을 실현하는것은 수령님의 전사들인 우리의 도리이고 의리입니다.

황해남도당에도 미리 련락을 하시오. 그리고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허덕복동무에게는 내가 편지를 감사히 받았다고 전하시오.》

《알았습니다.》

책임서기가 돌아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는 념원을 안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여 농사일을 돌보신 수령님의 로고를 오래도록 생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을 내놓으면서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첫자리에 놓으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이 유훈을 실현해야 한다!

5

배천역구내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사위는 아직 어스름에 잠기였다. 신선한 새벽기류가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였다. 동터오는 려명에 시각마다 사위가 밝아지는듯싶었다. 역사앞에 서있는

10여대의 뻐스들이 점차 륜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역홈에는 황해남도의 책임일군들이 허덕복과 함께 서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평양으로 뻗은 철길을 따라 북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파견하시는 중앙기관일군들이 이 새벽에 배천역에 도착하기로 되여있었다.

허덕복은 눈과 귀에 총기를 모으고 아득히 뻗어간 철길을 바라보고있었으나 렬차도 보이지 않고 기적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현듯 지난해 이날 새벽 바로 이 역두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이로부터 황해남도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들은것은 지난해 8월 24일이였다. 평양에 올라와서 중요한 회의에 참가했던 허덕복은 어느 한 일군으로부터 북방지대를 현지지도하고계시는 수령님께서 전화로 찾으신다는 전달을 받았다. 급히 휴계실로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다.

《어버이수령님,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장 허덕복이 전화를 받습니다.》

《덕복이야? 그동안 잘 있었나? 황해남도농사형편을 알고싶어서 전화를 걸었소. 그래 올해농사형편이 어떤가?》

얼마나 우리 도의 농사가 걱정되였으면 멀리 북방에서도 전화를 거시랴! 허덕복은 이런 생각과 함께 그이의 정다운 음성이 가슴에 흘러드는것을 의식하며 힘주어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도의 물문제를 풀어주고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셔서 올해에는 최고수확이 날것 같습니다.》

《황해남도농사가 잘되였다니 기쁘오. 동무네 도는 우리 나라 알곡생산량의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지 않나.》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주요작물의 정당 수확고는 얼마나 되는가? 연안군, 배천군, 청단군, 신천군, 안악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의 작황은 어떤가? 올해 비료는 얼마나 쳤는가? 뜨락또르와 자동차의 가동실태는 어떠한가? 하는것을 일일이 물으시였다. 그리고는 농촌테제관철에서 황해남도가 앞장서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허덕복의 신심에 넘친 대답을 대견히 여기신듯 수령님께서는 정겨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고맙소. 이제 인차 황해남도에 가서 농장원들도 만나보고 농사작황도 돌아보겠소. 후에 다시 만나자구.》

전화가 끝났다. 하지만 눈앞에는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언제면 우리 도에 다시 오실가?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황해남도를 향해 떠나실줄은 몰랐다. 연백벌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자던 8월 31일 새벽 2시였다. 다급히 전화종이 울리였다. 잠에서 깨여나 송수화기를 들어보니 수령님을 수행하는 한 일군이 걸어온 전화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 황해남도로 가는 도중에 계십니다. 새벽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허덕복은 놀라움에 사로잡히였다. 수령님께서 북방의 현지지도에서 쌓인 피로도 풀 사이없이 이밤으로 우리 도를 향해 떠나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그것도 모르고 간밤에 깊은 잠에 들었던 자신이 죄스럽게 여겨졌다. 부랴부랴 도의 다른 책임일군들과 함께 배천역으로 갔다.

그날 새벽 5시 30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렬차가 배천역에 도착했다.

허덕복은 차에서 내리시는 어버이수령님을 향해 달려가서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전보다 퍼그나 년로해보이는 수령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우러르는 두눈이 소리없이 젖어들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언제부터 덕복이가 있는 여기에 찾아오자고 하였는데 일이 하도 바빠서 이제야 찾아왔다. 연백벌농사가 잘되였다는데 이제 거기부터 가보자.》

허덕복은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 먼길을 오셨는데 배천려관에 가서 잠시 피로를 푸십시오. 려관옆에는 온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햇쌀로 지은 아침식사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걱정말라구. 나는 일없어. 아침식사전에 두세개 농장을 돌아봐야지. 왔던김에 되도록이면 여러 농장들을 돌아보아야지. 그냥 지나가면 농민들이 섭섭해할것 아닌가. 덕복이, 동무가 주인인데 어서 길안내를 하라구.》

그리하여 수령님께서는 배천역에 내리는 길로 농장을 향해 떠나시였다.

허덕복은 그때를 추억하며 짜릿한 아픔을 느끼였다. 그이께서 굳이 사양하신다 하더라도 그날 아침에 우리 도에서 지은 햇쌀로 아침식사를 대접해드리지 못한것이 지울수 없는 한으로 남아있다. 수령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을것이다. 마치도 정성이 부족한 자기의 불찰로 햇쌀밥을 대접해드리지 못한것처럼 생각되였다. 풀길없는 여한이 저도 모르게 눈물로 솟구쳤다.

아득히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울리였다. 눈물을 씻고 북쪽을 바라보았다. 벌판의 한끝에서 려객렬차의 머리가 보이였다. 가슴속에서 반가움의 파동이 일었다. 마치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해 오늘에 남긴 약속을 지켜서 저 렬차를 타고 오시는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점차 크게 들리는 렬차바퀴의 동음은 수령님께서 영생하신다고 속삭여주는듯싶었다.

마침내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섰다.

중앙기관일군들이 차에서 내리였다.

허덕복은 도내 책임일군들과 함께 평양에서 온 손님들을 반겨맞이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온 일군들이였다. 그들중 태반은 여러 기회에 이미 낯을 익힌 사람들이였다.

도에서는 배천려관에 아침식사를 준비해놓았으나 중앙기관일군들은 사양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해 오늘 아침식사를 하기 전에 농장부터 돌아보신것만큼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손님들은 여러대의 뻐스에 올랐다. 선두차에는 총리와 최광, 리을설과 양석을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올랐다. 허덕복은 그 차에 올라 길안내를 하였다.

뻐스행렬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연백벌을 달리고있었다. 어느새 배천군 수원리에 이르렀다. 그이께서 농사작황

을 돌아보셨던 뜻깊은 장소에 뻐스들이 멈춰섰다.
허덕복은 차에서 내린 일군들에게 설명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벌을 돌아보려고 하시자 한 일군이 지팽이를 가져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내가 지팽이를 잡은것을 보면 농민들이 눈물이 나서 할말도 못할수 있으니 깊숙이 건사하라고 하시였습니다.》
허덕복은 말을 번지고보니 그때의 기억이 방불히 떠오르며 눈굽이 젖어들었다. 중앙기관일군들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려고 했지만 북받치는 오열을 어찌할수 없었다. 리을설이 그를 대신하여 뒤를 이었다. 그는 지난해 여기에 오신 수령님을 수행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아침마다 금수산의사당 정원을 산책할 때 그 지팽이를 종종 사용하시였습니다. 년로하다보니 걷기를 힘겨워하셨던것입니다. 하지만 험한 포전길을 걸을 때에는 지팽이를 짚지 않으셨습니다. 농민들이 가슴아파할것을 생각하시여서였습니다. 한평생 인민들앞에서는 자신의 로고나 헌신을 숨겨온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강냉이이삭과 벼이삭의 알수를 손수 세여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수 있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한 농민이 물길공사를 완성해주신 수령님덕이라고 말씀올리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내 덕이 아니라 동무들이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일을 잘한 덕이지, 물길공사도 동무들이 하지 않았나, 물길공사도 하면서 농사를 이렇게 잘 짓자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소, 장알이 지고 마디가 굵어진 동무의 손이 모든걸 다 말해주고있소라고 하며 그 농민의 손을 오래도록 쓸어주시였습니다.》
저켠 논밭에서 일을 하던 농민들이 멈춰선 뻐스들을 띄여보고 모여왔다. 키가 큰편인 중년녀인이 밀짚모자를 벗어들고 총리를 비롯한 일군들에게 인사를 했다.
《먼길을 오시기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어제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저희들을 생각하여 일군들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농장이 고마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허덕복이 일군들에게 그를 소개했다.

《수원리 리당비서동무입니다.》
《리당비서동무가 이른아침부터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구만.》
총리가 리당비서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허덕복은 리당비서와 관련한 하나의 사연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신 날 리당비서동무는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달려오고보니 맨발로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채 수령님앞에 나섰습니다. 나는 보기가 민망해서 저 동무의 바지가랭이를 내리워주려고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리당비서가 이른아침부터 바지가랭이를 걷어붙이고 농민들의 앞장에서 일을 하니까 농사가 이렇게 잘되지 않았나고 하면서 그냥 두라고 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리당비서의 차림을 훑어보았다. 지금은 신발도 신었고 바지가랭이도 걷어붙이지 않았다. 다만 바지에 흙물이 몇방울 튕겼을뿐이다.
《이 협동농장에서 올해 정보당 몇톤이나 수확할것 같습니까?》
총리가 리당비서에게 물었다.
《평균 10톤은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이모작을 한 논이나 밭에서는 정보당 12톤정도를 예견하고있습니다.》
《12톤이라!》
총리가 눈을 휘둥그래 떴다.
일군들은 논과 밭들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몇달전에 수확을 한 보리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풍작을 이룬 보리밭이 선명히 머리속에 그려졌다.
리을설이 나이지숙한 한 농민을 일군들앞으로 이끌어왔다.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날 이 동무의 장알진 손을 오래도록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애써 농사를 지었는가를 이 손이 다 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일군들의 시선이 농민의 순박한 얼굴에서 류달리 크고 투박한 손으로 옮겨졌다. 총리는 그의 손을 한번 잡아주려고 한걸음 다가섰으나 량손에 벼이삭과 강냉이이삭이 쥐여져있었다. 농민은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그 이삭들을 내여밀며 역시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총리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빠서 오시지 못하였는데 이

이삭들을 올려주십시오. 이 이삭들의 알수를 세여보면 올해 연백벌 농사가 어찌되였는지 잘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특별히 고른 이삭들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대로 따고 꺾어온 이삭들입니다.》

총리는 이삭들을 정히 받았다. 거기에는 올해농사작황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은 이곳 농민들의 심정이 알알이 열매로 영글어있었다.

이윽하여 일행은 수령님께서 돌아보신 문화주택마을에 이르렀다.

허덕복은 일군들에게 설명했다.

《몇해전만 하여도 우리 황해남도에는 해방후나 전후에 지은 기와집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도농촌경리위원장으로 부임되여온지 며칠후였습니다. 하루는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도에 내려와 영화를 찍겠으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영화에 나온다는 생각이 앞서서 기뻐하며 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이 지난 후에야 왜 하필이면 우리 도에 내려와 영화를 찍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촬영소의 대답인즉 우리 도에 낡은 집들이 남아있어서 해방후나 전후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그릴수 있는 적당한 곳이기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료해하여보니 그런 집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집들을 헐어버리고 문화주택을 짓는다는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도당과 토의해보았는데 도내 힘만으로는 당장 하기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제일 풀기 어려운것은 목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군이 해주에 내려온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중앙당에서 일할 때 잘 아는 사이였고 같은 녀성일군이다보니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농촌문화주택건설과 관련한 저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의깊게 들은 그는 평양에 올라가는 즉시로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목재생산기지인 자강도와 량강도에서 황해남도의 농민들이 지은 쌀을 가져다 먹는데 농민들의 집을 지을 목재를 보장해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세멘트공장과 유리공장에도 그렇게 호소하시였습니다.

그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따라서 벽지와 장판지를 비

룻한 자재와 가구들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걸린것은 로력문제였습니다. 물길공사를 벌리면서 문화주택도 짓다나니 로력이 긴장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도에 주둔하고있는 군인들을 주택건설에 동원시켜주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두해사이에 낡은 집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마을을 돌아보면서 전에 왔을 때에는 낡은 기와집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희한한 기와집들을 일떠세웠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산기슭을 따라서 번듯한 기와집들이 렬을 지어 들어앉은 마을의 전경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선경이였다. 복판에는 키높이 자란 느티나무그늘밑에 붉은색비닐지붕을 얹은 탁아소와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더욱 마을의 운치를 돋구었다.

그 마을을 돌아본 일행은 뻐스들을 타고 다시 떠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그대로 따랐다. 배천군의 금성협동농장, 연안군의 오현협동농장과 천태협동농장, 청단군의 청전협동농장. 그 농장들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헌신과 로고의 자취가 뜨겁게 어려있었다. 일군들은 옷자락을 땀으로 적시였다. 뜨거운 뙤약별아래 포전길을 걸으시던 수령님이 그리워 울음부터 앞세우는 농민들과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혹은 밭머리에서, 혹은 농가의 퇴지에서 일군들과 농민들사이에 허심하고 진정어린 담화들이 무수히 오고갔다. 농민들은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을 잘 보좌해드려달라고 당부하였고 농사를 더 잘 지으려는 자기들의 결심을 그이께 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6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의깊게 문건을 보시였다. 거기에는 국상을 당한 이후에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가 반영되여있었다. 슬픔과 눈물을 힘과 용기로 바꾼 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서 흘린 눈물과 터뜨린 통곡은 그대로 단결이였고 분발이였다. 유훈을 받들고 도처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적들은 입을 모아서 국상을 당한 후 우리 내부에서 사상적와해가 기필코 일어날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적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번져지고있었다. 글줄을 빠른 시선으로 읽어가시는 그이께서는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격동된 부르짖음이 소리없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은 얼마나 훌륭한가!

문건을 다 읽은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나의 사실을 되새기시였다.

언젠가 수령님께서는 서방신문의 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어느 나라의 국가수반도 누려보지 못한 두가지 큰 복을 누리고있습니다. 그 하나는 후계자복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복입니다. 이것은 정치가가 누릴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10대의 소년시절에 혁명투쟁에 나서서 80고령이 되는 오늘까지 특별히 어렵고 다난스러운 조선혁명을 령도해오다보니 누구보다 한평생 고생이 많은 국가수반이라고 했는데 나자신은 누구보다 복받은 국가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후계자를 두고 자기가 개척한 위업의 미래를 락관하면서 그리고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겪는 정치가의 시련과 난관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정치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사람들의 관계를 념두에 둔것이지만 정치가와 인민들사이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마련입니다.》

크게 공감을 한 기자는 자기네 신문에 쓴 접견기에 수령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였다. 접견기의 제목은 《동방정치원로의 행복관과 정치철학》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그러한 정치철학으로 훌륭한 인민을 키워 넘겨주셨기때문에 오늘의 시련도 락관의 웃음속에 헤쳐간다는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일순 사색에 잠겼던 그이께서는

전화로 조인규를 부르시였다.
10분도 못되여 집무실에 조인규가 나타났다. 다부진 체구에 얼굴의 피부색이 거무스름한 그는 급히 달려와서인지 다소 긴장한 낯빛이였다.
《동무가 좋은 자료를 올려보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서 나는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그를 집무탁앞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씀하시였다. 방금 보신 문건은 그가 종합한것이였다.
치하의 말씀을 받았지만 조인규는 여전히 정중한 낯빛이였다. 그는 좀처럼 자기 감정을 드러낼줄 몰랐다. 워낙 말이 적던 사람이 국상을 당한 후부터 더욱 과묵해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해방직후 면당지도원으로부터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으로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한 당일군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첩을 펼쳐드는 그를 미더웁게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조동무, 당조직들에서 일시 직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지난날을 묻지 말고 따뜻이 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후 자기 직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조직들에서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 서거를 계기로 우리 인민이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를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거나 일시적인 잘못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들이 덤벼든다면 그들은 조국수호의 성전에 떨쳐나설것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운명적인 사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한 대국상은 매 사람들의 근본립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였습니다. 당조직들이 생전의 어버이수령님께서 정치철학으로 삼으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수령님께서 키우신 우리 인민의 개별적성원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관료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수령님의 유훈에 대한 배신으로 될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을 작성하시오. 그

러면 내가 검토하고 각급 당조직들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의식이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에도 몇번씩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에 깊이 머리숙이면서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보내군 합니다. 이제 100일중앙추모회까지 끝나면 쌓이고쌓인 그 심정을 담아서 전체 인민에게 감사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소리가 갈리시였다. 우리 인민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정이 북받치면서 목이 잠기시였다.

《알았습니다!》

조인규는 힘주어 대답을 올리려고 했으나 실상 목소리는 입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했다. 목이 메였던것이다. 격렬한 감정이 가슴을 들부셨다. 뿌잇하게 흐려드는 시야에 그이의 모습이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으로 보이였다. 어쩌면 두분은 인민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열도와 깊이가 그리도 꼭같으신가. 수령님이시자 곧 장군님이시라는 우리 인민의 신념의 의미를 새삼스레 깨닫는듯싶었다. 수령님은 돌아가셨으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철학은 장군님에 의해 그대로 구현되고있다.

집무실을 나선 조인규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푸르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그이의 앞에서는 터치지 못했던 격정을 홀로 터치였다.

(이 나라 인민들이여,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매일같이 당신들에게 마음속의 감사를 보내주고계시는줄을 알고있는가!)

×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간소하게 점심을 치르시였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이께서는 록음기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음악감상으로 점심시간에 짧은 휴식을 하군 하시였다. 언젠가 자신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말씀한바가 있지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였고 음악에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하지만 지금 들으시려는 가요는 휴식의 즐거움이나 정서적욕구만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어제 선전선동부에서 새로 창작된 세편의 수령영생가요를 록음으로 형상하여 올려보

내였다. 수령영생구호가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정치적기치라면 수령영생가요는 그 기치를 따라 전진하는 진군가로 될것이다. 커다란 기대를 안고 록음기의 스위치를 넣으시였다. 비장한 선률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다. 어떤 곡은 두세번 반복하여 들으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기대와는 달리 실망에 잠기시였다. 처음 두곡은 인민의 슬픔을 담으려는 의도를 앞세우다나니 노래의 양상이 지나치게 어두웠다. 나머지 한곡은 그와 반대로 용기와 신심만을 강조하면서 양상이 정도이상으로 밝은 행진곡으로 되였다.

한순간 생각에 잠겼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찾으시였다.

《내 방금 제기된 가요들을 들었습니다. 창작가들이 짧은 기간에 노래를 짓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령영생가요들은 어느것이나 기념비적대작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부족점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매 가요들의 부족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다 듣고난 비서가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말씀드렸다.

《기대에 어긋난 작품을 올리여서 미안합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다나니 그렇게 되였습니다.》

《뭐 비서동무의탓이겠습니까. 창작가들의 생각에 편향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람하지는 마시오. 첫술에 배부를수야 없지 않습니까. 나는 창작가들이 짧은 기간에 창작전투를 벌려서 그만한 가요들을 지어낸것만도 대견스레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수령영생가요들에는 어버이수령님을 흠모하는 열렬한 감정이 있어야 하고 장중한 감정도 있어야 하며 수령님의 뜻을 끝까지 꽃피워가려는 신념과 맹세의 감정이 노래마다 특색있게 담겨져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중한 자세로 전화를 받고있는 비서의 모습을 선명히 그려보시였다. 그는 아무리 긴급한 무거운 과업을 주어도 성근히 접수하고 침착하게 수행할줄 알았다.

《비서동무.》

믿음이 흐르는 친근한 어조로 부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를 거는김에 반드시 알아볼 문제가 있다는것을 상기하시였다.

《말씀하십시오. 듣고있습니다.》

어음이 부드럽고 발음이 뚜렷한 비서의 목소리가 수화구의 진동판을 울리였다.

《100일중앙추모회준비를 시작했습니까?》

《**김일성**광장에서 열고 10만명정도 참가시킬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김일성**광장이 아니라 금수산의사당구내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응답이 없었다. 놀라움에 휩싸인 높아진 숨결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려왔다. 비서로서는 전혀 뜻밖인 모양이다. 지금까지 중요한 정치행사들을 **김일성**광장에서 하여온것만큼 그로서는 그럴수밖에 없을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모든 국가적인 행사들을 진행하여왔습니다. 지금 수령님께서는 금수산의사당에 계십니다. 그런것만큼 거기서 이번 행사도 진행하는것이 응당할것 같습니다. 참가자들도 수령님 가까이에 오면 수령님에 대한 추억도 깊어지고 흠모의 정도 더욱 깊어질게 아닙니까.》

《장군님, 저희들의 생각이 미처 거기에 닿지 못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감격에 떨리였다.

《그런데 의사당앞에 10만군중이 들어설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가인원은 내가 현지에 나가보고 결론을 주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으로 나가시였다. 그곳 책임일군들이 그이를 영접했다. 그이께서는 나올 때마다 그러하였지만 이날도 사업에 앞서 어버이수령님부터 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단정한 양복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조용히 누워계시였다. 수령님은 생전의 모습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머리카락 몇오리가 더 희여지신듯 한 느낌이 다를뿐이였다.

《**김정일**동지가 왔구만.》

금시라도 잠에서 깨여나 반겨맞을것만 같은 환영이 눈앞을 스치시였다.

《제가 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뇌이며 인사를 드리시였다. 깊이 머리숙인 귀가에 수령님의 추억깊은 음성이 흘러드는것 같으시였다.

《마침 잘 왔소. 저 당기를 보니 **김정일**동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이 새삼스레 갈마드누만.

우리가 조선혁명의 붉은기를 추켜든것은 1926년 후이파하(휘발하)강기슭에서였지. 그때 우리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사회를 세울것을 〈ㅌ.ㄷ〉의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그 실현을 위해 싸울것을 붉은기앞에 맹세다졌소. 그리고는 그 붉은기를 들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소. 우리는 인민에게서 배워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던거요.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과정에 나는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고귀한 진리를 깨닫고 조선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소. 나는 이 붉은기를 나붓기면서 우리의 앞길을 밝혔고 늘 이 붉은기를 바라보며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처럼 마음의 안정을 느끼군 했소.

해방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혁명의 성격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인데 사회주의혁명의 표대인 붉은기를 현단계에서는 내리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소. 그때 나는 우리 혁명의 종국적목적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고 혁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다른 나라사람들과 달리 저 붉은기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의 상징으로 여겨왔기때문에 절대로 내리울수 없다고 했소.

붉은기와 함께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해왔소. 그러나 후이파하강기슭에 휘날렸던 〈ㅌ.ㄷ〉의 붉은기앞에서 인민에게 다진 맹세를 나는 아직 다 실현하지 못했소. 아직은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도 앞에 놓여있고 인민들의 최고리상사회건설도 앞에 놓여있소.

나는 **김정일**동지가 당중앙청사에 나붓기는 저 당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후이파하강기슭에서 우리가 다졌던 맹세를 대를 이어 훌륭히 실현하리라고 믿소!》

깊은 회억에 잠겨 지나온 생애를 총화하시는듯 한 수령님의 모습이 눈앞에 방불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금 떠오른 그 환영이 잊지 못할 사실의 재현

이였다는것을 깨달으시였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돌이켜보시니 재작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당중앙청사앞의 정원에서 만나뵈옵게 되였을 때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청사의 지붕에 나붓기는 당기를 바라보며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수령님앞에 서고보니 그날의 기억이 현실처럼 되살아났던것이다. 마음속에 여전히 수령님께서 계시기때문에 환영과 추억이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때가 여러번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서히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평생 붉은기와 함께 계셨습니다. 수령님께 붉은기를 덮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기폭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구선이 숙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데리고 맨 웃층 로대에 오르시였다.

《내가 오늘 여기에 나온것은 의사당앞에서 100일중앙추모회를 가질수 있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고 앞정원을 바라보시였다. 일군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 마주보았다.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앞정원에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는 주차장과 구내길이 있을뿐이다. 나머지 공지에는 잔디밭과 꽃밭이 펼쳐져있었다.

《장군님.》

김구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앞정원에서 행사를 하면 잔디밭과 꽃나무들이 상할수 있습니다.》

정원을 애지중지 가꾸어온 그로서는 그럴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잔디나 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인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 지금 의사당에 계시는것만큼 여기서 추모회를 가져야 합니다. 방금 둘러보니 정원부지가 **김일성**광장보다 못지 않습니다. 10만여명이 넉근히 들어설수 있습니다.

관리처장동무, 정원이 손상될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나는 이미 여기에 대광장을 꾸릴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수령님을 모시고 국가적인 행사를 벌려온 전례를 우리는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금수산의사당앞에 광장을 꾸려야 합니다.》

김구선의 얼굴에 경탄의 빛이 떠올랐다.

정원쪽으로 다시 돌아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대의 턱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거기에 설치된 포대경을 띄여보셨던것이다. 포대경은 대성산혁명렬사릉쪽을 향하고있었다. 그이의 시선을 따르던 김구선이 말씀드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 포대경으로 혁명렬사들의 모습을 바라보군 하시였습니다.》

굳이 설명이 없이도 그이께서는 포대경의 사연을 잘 알고계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옛전사들의 모습을 일일이 보고싶어 이 로대에 포대경을 설치하시였다. 배률이 높은 렌즈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선명히 바라보면서 잊을수 없는 감회속에 마음속의 추억담을 나누군 하시였다. 과연 마지막으로 회포를 나누신 렬사는 누구였을가?

《수령님께서 맞추신 포대경의 초점을 흔들지 않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사이 누구도 이 로대에 올라와본 일이 없었습니다.》

김구선이 대답을 올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리를 약간 굽히고 포대경의 렌즈에 눈을 가져가시였다. 지척인듯 시야에 안겨드는 렬사의 모습에 부지중 마음속 탄성을 터치시였다.

(아, 어머님이시였구나!)

물론 수령님께서는 렬사릉의 맨 앞줄에 안치된 김혁, 차광수로부터 맨 웃단의 렬사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빠짐없이 바라보군 하시였을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추억의 대화를 나누신 상대는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을가? 두분이 마지막으로 나누신 마음속의 대화는 무엇이였을가? 깊어지는 생각이 여러 갈래로 뻗으며 가슴이 후더워오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대리석 붉은 기폭속에 계시는 어머님앞에는 생신한 꽃송이들이 놓여 있었다. 붉은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 동상주변을 깨끗이 거두고 있었다. 머리에 성긴 백발을 얹은 로파가 어머님앞에 꿇어앉아 움직일줄 몰랐다. 이윽하여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쪽으로 돌아섰다.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는 로파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대경렌즈에 비끼였다. 김옥순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 어머님생각이 더욱 사무쳐오는것이여서 자주 동상을 찾아오군 하였을것이다. 어린시절부터 어머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김옥순이였다.

어머님께서 일찌기 아동단사업을 지도하실 때 김옥순은 아동단 연예대원이였다. 처음으로 김옥순에게 혁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신분도 어머님이였고 후날 원동훈련기지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차려주신분도 어머님이였다.

김옥순은 어머님동상앞을 물러나면서 몇번이고 되돌아보군 하였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걸음은 몹시도 무거웠다. 얼마후에 그가 포대경렌즈에서 사라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포대경에서 시선을 떼고 일군들에게 돌아서시였다.

《우리가 금수산의사당앞에서 100일중앙추모회를 가지면 어머님을 비롯한 렬사들도 함께 참가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옳았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는 그이의 눈앞에는 하나의 화폭이 그려지시였다.

혁명렬사들이 일제히 릉에서 떨쳐일어나 금수산의사당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향해 달려온다.

수령님께서는 반가움에 넘쳐 두팔 벌려 그들을 맞이하신다.…

7

100일중앙추모회가 있은 후의 첫 일요일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에 무드기 쌓인 문건들을 보기 시작하시

였다. 처음으로 손에 잡힌것은 지난 100일기간에 남조선인민들이 표시한 추모정형을 종합한 자료였다. 김영삼역도의 반인민적인 폭압을 무릅쓰고 남조선의 각계인민들은 곳곳에서 추모행사를 가지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가진 추도모임에서 한 신부는 이렇게 추모사를 하였다.

《**김일성**주석이시여, 당신께서는 결코 가신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쌓으신 공적이 그토록 찬연할진대 어찌 당신께서 가셨다 하겠습니까.

김일성주석이시여, 당신께서는 오늘 또 한분의 자신을 두고 가심으로 하여 영생하고계십니다. 당신은 그대로 **김정일**령도자님이십니다. **김정일**령도자님은 다름아닌 당신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정녕 **김정일**령도자님으로 환생하셨거늘 당신께서는 그 하나의 심장속에서 생전그대로 계시는것입니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주석님을 대신하여 이북의 국가수반직에 오르게 된다는것은 터럭만한 여지도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계승의 경사가 언제 있게 될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김주석님으로 불리우고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너무도 친근해진 존칭입니다. 두분은 정녕 한분이시기에 **김정일**령도자님도 앞으로 그렇게 부르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오늘도 찬연히 빛나는것이고 7천만겨레가 조국통일과 민족의 장래에 대해 락관하는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진정이 후덥게 안겨오는것을 느끼며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결심을 가다듬으시였다.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영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였다.

다음문건을 보시였다. 새로 창작된 가요《높이 들자 붉은기》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록음카세트가 들어있는 문건이였다. 설명문을 본 후에 카세트를 록음기에 끼우시였다. 장중한 선률이 흐르면서 노래가 울리였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다
높이 들자 붉은기 신념의 이 기발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이 기발 들고서 당을 받들고
이 기발 지키며 내 조국 빛내리
높이 들자 붉은기 주체의 한길에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김정일동지께서는 노래에 깊이 심취되시였다. 창작가들이 당의 의도를 잘 반영하였다. 가사의 구절구절에 크게 공감하며 《붉은기!…》하고 입속으로 조용히 뇌이시였다. 그러자 불현듯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를 금수산의사당에 정중히 안치하던 그날 밤이 머리속에 그려지시였다.

수령님의 령구앞에서 점도록 서있다가 준비한 붉은 기폭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붉은기는 화디엔(화전)의 언덕에서 높이 추켜들었던 그날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난을 헤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휘날려오신 혁명의 기치이다. 그 붉은기를 수령님을 따라 한생을 총대와 함께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항일의 로투사들이 령구에 덮어드리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자리에는 오진우, 최광, 리을설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볼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오진우가 그들의 심정을 대표하여 말씀드리였다.

《이 붉은기는 주체위업의 상징입니다. 그런것만큼 그 위업을 계승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구에 덮어드

려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념원입니다.》
자못 절절한 어조였다.
《그러면 우리 함께 덮어드립시다.》
마침내 로투사들의 얼굴에 수궁의 빛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로투사들과 함께 붉은 기폭을 수령님께 덮어드리시였다.
노래에는 그때의 심정이 잘 반영되였다. 참으로 좋은 노래가 창작되였다. 두번다시 감상하려다가 최광의 얼굴이 떠올라서 록음기의 스위치를 끄시였다. 지난번 100일중앙추모회에서 추모사를 그가 하였다. 추모사에 흐르는 사상감정이 노래에 그대로 형상되였다. 총참모장실에 전화를 거시였다. 마침 최광은 사무실에 있었다.
《일요일인데도 사무실에 계시는군요. 이제 곧 나한테로 오십시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알았습니다!》
최광은 엄숙한 어조였다. 중요한 전투명령을 예상하는듯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좋은 노래가 나왔는데 최광동지와 함께 들어보고싶어서 그럽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일투사들은 누구보다 이 노래를 좋아할것이다. 최광은 말할것도 없고 김옥순도 좋아할것이다. 전화를 끝낸 그이께서는 그들의 집에 록음카세트를 하나 보내주고싶은 생각에 록음기에 빈 카세트를 끼우고 복사하시였다. 복사가 끝났을 때 최광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반가이 맞으시였다. 그와 나란히 쏘파에 앉아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였다. 노래의 1절이 끝났을 때 최광의 낯색을 살피시였다. 그의 얼굴에 흥분된 빛이 떠오르고있었다. 무릎우에 놓인 손바닥을 다독이며 노래의 선률에 박자를 맞추기도 하였다. 최광은 잔사정을 모르는 과묵한 성미여서 음악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 노래만은 감명이 큰 모양이다. 노래가 다 끝났을 때 그는 저으기 상기된 얼굴을 들며 경탄조로 입을 열었다.
《듣고보니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중 어느 대목이 좋습니까?》
《후렴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라는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듭니다.》

《나는 가사에서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발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여있다〉와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다〉는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주체의 붉은기는 이 세상에 나붓겼던 다른 붉은기와 달리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면서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순간 붉은기를 두고 생각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색갈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반영한다. 민족별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나 공통적이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정의감과 열정, 리상과 랑만을 표현했다. 그래서 프랑스로동계급이 빠리콤뮨의 전투에 추켜든 기발도 붉은기였고 로씨야10월혁명이 휘날린 기발도 붉은기였다. 그러나 그 기발들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리워졌다. 빠리콤뮨의 붉은 기발은 단명으로 빛을 잃었다. 10월혁명의 붉은기는 수십년간 크레믈리지붕우에 나붓겨왔으나 현대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빛이 점차 바래여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붉은색을 상실했다. 동유럽나라들은 들었던 붉은기를 집어던졌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에서 추켜드신 주체의 붉은기는 불멸의 기치로 날을 따라 그 붉은색이 더욱 선명해지고있다. 그것은 주체의 붉은기가 자기의 색갈에 담고있는 사상의 진리성과 불패성을 증명해보이고있다. 참으로 우리의 붉은기는 인류의 최고리상인 인간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기치로, 가장 성공한 혁명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그 기발은 력사의 고비마다에서 적들의 도전이 심해질수록 더욱 기세차게 휘날려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에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혁명의 붉은기를 절대로 내리우지 않을것이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고 조국을 통일하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입니다.

인민군대는 붉은기를 높이 추켜드는데서도, 붉은기를 지켜나가는데서도 앞장에 서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내처 격동된 심정에 사로잡혔던 최광은 부지중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도로 자리에 앉히시였다.

《내 이제 총정치국책임일군들에게 군대에서부터 이 노래를 널리

보급하고 붉은기를 높이 들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미 준비한 록음카세트를 손에 들고 친근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최광동지는 오늘 일찌기 돌아가서 김옥순동지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며 회포를 나누십시오. 나는 수령님 서거후에 최광동지가 여적 한번도 집에 들리지 못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인제는 100일중앙추모회도 치르었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쉬십시오. 김옥순동지도 그동안 절통한 심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몸이 퍽 축가셨더군요. 머리칼도 전보다 더 희여졌습니다.》
말씀을 듣고난 최광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우리 로친을 언제 만나셨댔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시였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전 금수산의사당 로대에서 포대경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바라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옥순동지는 우리 어머님동상에 인사를 드리고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님과 김옥순동지가 나눈 마음속 회포가 무엇이였는가를 짐작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최광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숙동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사무쳐왔을 로친의 심중이 짐작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감회깊은 안색으로 다시 말씀하시였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건강에 류의하기 바란다는 나의 심정을 김옥순동지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님을 대신하여 나와 나의 동생을 극진히 돌보아주던 황순희동지나 김옥순동지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김옥순동지는 음악에 조예가 깊습니다. 아동단연예대 대원이였고 후에 산에서 싸울 때도 노래를 잘 불러서 전우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를 들으면 특별히 좋아할것입니다. 그 노래가 수록된 록음카세트입니다. 받으십시오.》
록음카세트를 최광에게 주시였다.

《고맙습니다.》

최광은 감격한 낯빛으로 카세트를 받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물러나려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였다.

《내가 쓰던 이 록음기를 집에 가져다 들으십시오. 음질이 좋습니다.》

최광은 당황한 기색으로 사양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애용하시는 록음기를 제가 어찌…》

《나야 다른것을 구하면 되지요. 어서 받으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저희들은 오늘 저녁 우리네 록음기에 이 카세트를 끼우고 듣겠습니다.》

최광은 고집스러운데가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김옥순동지는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데 음질이 좋은 록음기로 다른 노래도 종종 들으면 적적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록음기는 내가 김옥순동지에게 주는것이니 최광동지는 그에게 전달만 해주십시오. 그 부탁이야 들어주시겠지요?》

최광은 눈을 슴벅이며 떨리는 손으로 록음기를 받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올리고 집무실을 나서는 최광은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다리가 휘청거렸다. 록음기가 무거워서가 아니였다. 뜨겁게 가슴속으로 치밀어오르는 감사의 정에 온몸이 떠밀리우고있었던것이다.

8

최광은 자기 집 현관앞에 이르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마치 남의 집에 온것처럼 서먹한 느낌이 들었다. 석달반만에 들어서는 집이였다. 고개를 들어 문패를 보고서야 성큼 현관안으로 들어갔다. 출입문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집이 빈게 아닐가? 이럴줄 알았으면 사무실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보고

떠나는것인데 인제는 나이탓으로 생활에서 놓치거나 망각하는 일이 드문하다. 장군님께서 몸소 쓰시던 록음기를 놓고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오붓이 둘러앉아 노래를 감상하려던 기대가 허물어지니 마음이 허전했다. 그냥 돌아서려다가 주먹으로 문짝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애 선희야, 방안에 누가 없느냐?》

그제서야 방안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귀익은 로친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밖에 누가 왔어요?》

《내가 왔소.》

《내라는게 누군데요?》

로친은 의심쩍은 어조로 반문했다. 아니 이 로친 봐라, 제 령감의 목소리도 가려듣지 못한단 말인가? 다소 역증스럽게 소리쳤다.

《최광이 왔소! 최광이…》

《아니, 당신이 어떻게…》

로친의 놀란 목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리였다. 성난 어조로 다우쳐물었다.

《집안에 있으면서 초인종소리도 못 듣고 제 령감의 목소리도 가리지 못하오?》

《수령님 돌아가신 후에 어찌된셈인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뿌예져가요.》

김옥순은 미안한 기색으로 애설은 미소를 보내여왔다. 최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뼈를 깎는듯 한 상실의 아픔이 계속되면서 로둔해지는 감각기관의 로화를 촉진시켰을것이다. 새삼스러운 눈으로 로친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수척해진 얼굴에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칼도 더 희여졌다. 조화롭게 둘러맺힌 얼굴의 륜곽과 단정한 입술만이 젊은 시절의 아름답던 흔적을 간직하고있는듯싶었다. 참으로 오랜 작별끝에 다시 만난듯 한 느낌이였다.

《어째 그냥 서서 쳐다만 보시우? 어서 들어오지 않구!》

로친이 팔굽을 잡고 이끌었다.

《선희는 어데 갔소?》

《공장에 나갔는데 점심시간에는 집에 올거우다. 오늘은 오

전에 로농적위대훈련을 한대요.》

최광은 손에 들고서있던 록음기를 앞탁에 내려놓고 쏘파에 앉았다.

《록음기는 웬거예요?》

김옥순이 맞은편 쏘파에 앉으며 물었다.

《집으로 오기 전에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고 집무실에 갔댔소.》

최광은 김옥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구체적인 사연을 말했다.

《어쩌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그토록 뜨거운 은정을…》

다 듣고난 김옥순의 눈시울은 삽시에 젖어들었다. 감사의 정에 목이 메여 말끝을 잇지 못하고 록음기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윽하여 잠긴 목소리로 계속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애용하시던 이 록음기를 받고보니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한가지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이미 당신에게 말했지만 내가 북만으로 떠날 때 어머님께서는 자신께서 애용하던 얼레와 참빗이 들어있는 빗접을 주시였어요. 〈옥순이, 아무리 배낭속을 뒤져보아도 헤여지면서 뭘 줄것이 있어야지. 비록 쓰던것이지만 작별의 기념으로 받아요.〉

그때 빨찌산녀대원들에게 있어서 얼레와 참빗은 참으로 귀중한 소지품이였지요. 어머님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절실히 필요한것이였구요. 나는 받을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북만에 가서 배낭을 정리하는데 그 빗접이 들어있는게 아니겠어요. 나는 강가에 나가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으면서 울었어요, 김정숙어머님께서 계시는 동만쪽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어머님과 장군님은 그 성품이 꼭 같으실가요.》

그때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이 하나로 겹치는것을 의식하며 최광은 김옥순에게 말했다.

《여보 로친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변함없는 신임과 사랑에 기어이 보답을 해야 하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산에서 싸울 때처럼 붉은기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높이 추

켜들어야 한단 말이요.》

《집구석에만 처박혀있는 로친네라고 내가 뭐 당신보다 사상적각오가 못한줄 아시우.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김옥순은 다소 못마땅해하는듯 한 낯빛으로 응대를 하더니 록음기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표정을 바꾸며 다시 말했다.

《어서 록음기를 켜세요. 노래를 들어봐야지요.》

김옥순은 벽시계를 보더니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그 애가 집에 오겠다던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안 올가?》

최광은 입을 다물고있다가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 찰나에 초인종이 울리였다. 김옥순은 이번에도 초인종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할머니, 내가 왔어요.》

그래도 김옥순은 그냥 앉아있었다. 전실을 지나서 출입문이 있다보니 목소리가 약하게 들려오기도 하였다.

로친의 눈치를 살피던 최광은 담배를 갑에 도로 넣고 성큼 일어섰다. 손녀를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었다. 모든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하듯이 최광도 손녀를 끔찍이 사랑하였다. 《선희야.》 부름을 앞세우며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할아버지 오셨군요.》

선희는 첫순간 놀라는듯 하더니 무너지듯 할아버지의 가슴에 쓸어안기였다.

《네가 보고싶어서 오늘은 할아버지가 집에 왔다.》

최광은 손녀의 잔등을 쓸어주었다. 상봉의 기쁨을 진정한 후에야 손녀의 손을 잡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채광이 좋은 방안에서 서로 상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네가 그렇게 차림을 하니 전에없이 예뻐보이는구나.》

그러자 선희는 생긋 웃어보이더니 차렷자세를 취하며 거수경례를 하였다.

《총참모장동지, 소대는 오늘 훈련에서 우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소대장 최선희.》

《장하오. 훈련성과를 축하하오.》

최광은 정중한 표정을 꾸며보이며 응대했다.
선희는 그 칭찬이 그리도 기쁜지 소리내여 웃어댔다.
《너 언제 소대장이 되였니?》
《한달전에 임명되였어요.》
록음기를 띄여본 선희가 물었다.
《저 록음기는 웬거예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주신거다.》
김옥순이 저간의 사정을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난 선희는 애무하듯 록음기를 쓸어보았다.
《어서 록음기를 돌리려무나.》
최광이 독촉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참이다. 자, 어서.》
선희가 록음기에 전원을 련결하고 카세트를 끼웠다.
김옥순은 경대빼람에서 보청기를 가져다가 귀에 걸었다. 얼마전에 손녀가 구해준것이였다.
록음기가 돌기 시작하자 최광은 그냥 서있는 손녀를 자기의 옆자리에 앉히였다.
언제나 고적이 흐르던 집안이 활기를 띠였다. 가정의 단란한 화기속에 장중한 노래가 울리였다. 노래의 사상감정에 도취되는 그들은 누구나 엄숙한 표정이였다. 노래가 끝나자 김옥순은 선희에게 일렀다.
《노래를 다시한번 듣자. 그리고 네가 가사를 써라.》
종이와 원주필을 갖춘 선희가 록음기를 다시 돌렸다. 두번 듣고난 김옥순은 선희가 쓴 가사를 보며 노래를 불렀다. 곡을 정확히 살리였다. 노래를 잘 부르고 좋아하는것만큼 음에 대한 감각도 빠른편이였다. 노래를 끝내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최광을 마주보았다.
《노래를 듣고보니 몸은 비록 늙었지만 나도 마음속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시력이나 청각도 회복될거예요.》
《좋은 생각을 했소.》

선희가 부엌에 내려가서 점심을 차려왔다. 세식구는 오붓이 두리반에 둘러앉았다. 상우에 놓인것은 별다른것이 없었지만 전에없이 즐겁게 식사를 했다. 모두가 수저를 놓고 밥상에서 물러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선희가 냉큼 일어나서 출입문쪽으로 달려갔다.

《아니!…》

《넌 그새 몰라보게 되였구나.》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손녀의 반가움에 넘친 목소리가 울리고 역시 반가움에 넘친 남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최광과 김옥순은 출입문쪽에 시선을 보냈다. 선희가 40대의 인민군상좌를 데리고 방안에 들어섰다. 상좌의 두손에는 큼직한 지함이 무겁게 들려있었다. 그를 알아본 최광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영길이로구나!》

상좌는 들고온것을 방바닥에 놓더니 거수경례를 하였다.

《총참모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최광은 말없이 상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슴벅이는것으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상좌는 김옥순에게도 인사를 했다. 최광에게 인사를 할 때와는 달랐다. 군모를 벗고 큰절을 하였다.

《어머님, 종종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직급높은 군관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아들로서 인사를 드리고싶었던 모양이다.

《절은 무슨… 나도 마음속으로는 아직 총을 잡은 군인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이게 얼마만이냐.》

김옥순은 반가움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지방에서 만난 후로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최광은 고개를 드는 박영길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에는 젊음이 넘치는 중좌였다. 헌데 지금은 령감티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좌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만났다.

최광에게 있어서 박영길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는 잊지 못할 전우의 아들이였다. 박영길의 아버지 박용남은 전쟁시기 최광이 사단장으로 싸울 때 그 사단의 작전참모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였다. 사단지휘부는 뜻하지 않게 적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박용남은 부상당한 최광을 업고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가 아니였다면 그때 희생되였을것이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나갈무렵 사단은 적들에 대한 반타격전을 벌리였다. 한개 보병련대의 공격으로 적의 방어선을 뚫고 사단의 돌격로를 열기로 결심한 최광은 그 련대에 박용남을 내려보내였다. 작전적두뇌가 남다른 작전참모였다. 련대에 내려간 그는 그곳 지휘관들에게 요긴한 조언을 주고 사단에서 배속시킨 사단의 포병과 공병을 비롯한 전문병들의 협동을 능숙히 보장하면서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아쉽게도 박용남은 전사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최광은 그의 가족들을 찾아갔다. 그런데 박용남의 안해는 파괴된 다리를 복구하는데 나갔다가 놈들의 폭격에 사망했다. 희생된 날자를 알아보니 남편이 전사하기 두달전이였다. 그러니 박용남은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전사하기 전에 안해의 희생을 알고있었을것이다. 안해의 복수를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전투를 지휘했을것이다. 다행히 어린 영길이는 살아남았다. 희생된 어머니의 잔등에 업혔던 그 애를 애육원에 보냈다. 최광은 애육원에 찾아가서 영길이를 품에 안았다. 어린것의 모습이 어쩌면 그리도 제 아버지를 닮았는지 전우의 모습을 보는듯 한 느낌이였다. 집에 데려온 영길이를 김옥순은 친아들이상으로 애지중지 길렀다. 영길이는 김옥순을 친어머니로 알았다. 말을 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김옥순을 《엄마》라는 정다운 부름으로 불렀다. 만경대혁명학원으로 갈 나이가 되자 최광은 영길이를 학원으로 보내자고 하였다. 김옥순은 여태껏 기른 정이 있어서 절대로 아이를 제 품에서 떼여놓지 않겠다고 하였다. 최광은 심중하게 말했다.

《나도 영길이를 우리 집에서 그냥 기르고싶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응석받이로 자랄수 있소. 그 애는 학원에 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으로 자라야 하오. 눈무딘 정에 사로잡혀서는 안되오. 그 애도 인제는 어지간히 철이 들었소. 내 학원으로 떠나보내기 전날 저녁 영길이한테 친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김옥순은 하는수없이 수긍했다. 영길이를 학원으로 보내기 전날 저녁이 왔다.

최광은 이미 생각했던대로 그 애한테 친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날 밤만은 영길이를 자기 방에서 재웠다. 최광과 김옥순은 자기들의 침대복판에 그를 눕히고 량쪽에서 어린것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다. 김옥순은 잠에 든 영길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였고 최광은 그 애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모두숨을 내불군 했다. 그밤의 착잡하고 애모쁘던 감정은 일생을 두고 잊을수가 없었다.

박영길은 학원을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병사로 복무하다가 군관학교를 다니였다. 후날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련대장으로 되였다.

최광과 김옥순은 그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그러니 오늘 그가 나타난것이 반갑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어 참으로 고맙다.》

《제가 어떻게 이 집을 잊을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라니요? 모레가 어머님생일이 아닙니까.》

영길은 최광의 물음에 섭섭한 기색을 지어보이며 응대했다. 반대로 최광의 얼굴에는 불만의 기색이 떠올랐다. 자기도 생각밖이였던 로친의 생일을 잊지 않고 찾아준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이길래 련대장이 사사로운 일에 며칠씩 부대를 떠난단 말인가.

《그래, 모레까지 있을 작정을 했느냐?》

《하루이틀 먼저 올라와서 생일준비를 갖출 생각이였습니다.》

영길은 제 할바를 다하고있다는 태도였다.

《처가 기른 돼지를 한마리 수매해가지고 왔습니다.》

《무스거? 군관가족들이 기른 돼지야 응당 부대식당들에 기증을 해야지.》

최광이 뚝한 기색으로 핀잔을 하였다.

《한마리는 부대에 들여놓았습니다. 처는 자기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저더러 어머님께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사드리라고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김옥순이 감심한 낯빛으로 화제에 끼여들었다.

《애어미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그러나 그 돈은 그냥 간수했다가 도로 가져가거라. 나때문에는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애들한테 필요한걸 갖추어주어라.》

《어머님은 달포전에도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소포로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이번에 우리도 어머님께 보답을 하고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보답과 효도로 말하면 부모잃은 너를 련대장으로까지 키워준 어머니당의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할줄 알아야지.》

《어머님, 그것은 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아니, 모르고있어!》 하고 최광은 약간 어성을 높이며 따져물었다.

《너도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군이 전투태세로 들어갈데 대한 총참모부명령을 접수하였겠지?》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련대 주둔지야 후방이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현대전이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는것을 련대장을 하는 네가 모르고있단 말이냐? 이왕 온 걸음이니 오늘 저녁 한잔 붓고 래일 아침에 부대로 돌아가거라.》

다급히 전화종이 울리였다.

최광은 서둘러 송수화기를 들었다. 총참모부 작전직일관이 걸어온 전화였다. 긴장한 음성이였다.

《총참모장동지, 30분전에 군사분계선 서부지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적들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급히 나오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소.》

최광은 송수화기를 놓고 급히 군복을 입었다.

벌써 현관밖에서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리였다. 직일관이 집에 전화를 걸기 전에 승용차부터 출발시킨 모양이다.

서둘러 방안을 나서려던 최광은 박영길에게 돌아섰다. 차수복을 떨쳐입은 최광의 낯빛은 범접하기 어려울만치 엄엄했다.

《상좌동무, 오늘 밤 이 집에서 잘것이 아니라 이제 곧 부대로 돌아가시오. 이것은 명령이요.》

박영길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총참모장동지, 알았습니다.》

제 3 장

1

집무탁우에는 널다란 군용지도가 펼쳐져있었다. 군사분계선 서부지역에 대한 지도였다. 지도에는 적아간의 무력배치정형과 지형지물이 상세하게 표시되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도를 주의깊게 바라보며 최광의 설명을 듣고계시였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사흘전부터 적들은 비무장지대안에 90미리무반동포와 12.7미리 대구경기관총을 끌어들이고 우리측에 대고 사격태세를 취하였습니다. 어제는 100여명 무장악당들을 은밀히 비무장지대안에 끌어들여서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적들의 준동을 주야로 예리하게 감시하던 우리측에서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 지역 전연을 지키고있던 우리측 대대장이 각성도 높았고 전술적방안도 잘 세웠습니다.》

최광은 붉은색연필끝으로 지도를 짚으며 계속했다.

《이 파란 선이 우리측에서 적측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적들은 이 강바닥을 이미전에 파내고 군사분계선 철조망을 극복할수 있는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대대장은 우리측 강바닥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오래동안 물에 잠기여도 폭발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한 지뢰였습니다. 보시다싶이 우리측 강좌안에는 량쪽에 높지 않은 산이 있고 그 산들의 뒤에 아군병영이 있습니다. 대대장은 그 량쪽산에 중대들과 박격포를 배치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예견해서 적들의 무반동포와 대구경기관총을 소멸할 파괴조도 적당한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이 모든것은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했기때문에 코앞에 있는 적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되자 적들은 우리가 들으라는듯이 떠들어댔답니다. 휴식일의 점심이여서 진수성찬이 기다린다고 말입니다. 여느때없이 흥겨워하며 식당으로 몰려가는 놈들을 보고 우리 대대장은 더욱 각성을 했답니다. 매복한 병사들에게 점심식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무장악당들이 우리측으로 돌격해왔습니다. 우리 대대장이 예견했던대로 진행된 전투여서 적들은 일망타진되였습니다. 살아서 도망친 놈은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강을 따라 적들은 100여메터나 기여들었댔는데 가족소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도망치는 놈들을 소멸했습니다. 적들은 백여명이 죽고 장교 한놈과 사병 십여명이 포로되였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보복전이였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손실이 없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대대장동무가 부상을 당하고 그때 순찰근무를 서던 민경 2명이 전사했습니다. 살상된 적들에 비하면 매우 적은 손실이였습니다.》

《적은 손실이라니? 큰 손실입니다. 우리 전사들이 어떤 전사들입니까? 일당백전사들입니다. 적병과 우리 병사들을 일 대 일로 대치시켜서는 안됩니다. 한명의 희생자도 없어야 하는것이였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을 생각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침통하신 표정이시였다.

최광은 우리 전사 한사람한사람을 친자식처럼 여기시는 그이의 심중에 깊이 감동하며 다시 말씀드리였다.

《대대장은 전투가 끝나갈 때 비무장지대안에 있는 민경병사들의 시신을 끌어내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지들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서는 돌아설수 없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듣고보니 그 대대장은 정말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그 동무의 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였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총참모부에서 전과보고를 받을 때 그 무슨 전과수자보다도 우리 장병들의 생사여부에 더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적들의 도발을 호되게 징벌한것은 잘한 일이고 정치적의의도 큽니다. 적들은 국상을 당한 후에 우리 군대의 대응상태를 알아보려고 직접 무력정찰을 한셈입니다.》
최광은 그이의 현명한 판단에 놀라며 서둘러 응대를 했다.
《포로된 적장교의 실토에 의하면 이번 도발은 괴뢰군 합동참모본부가 그러한 의도에서 직접 조직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미합의문 채택이 성사되여가지만 적들의 침략기도에는 조금도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번 강조했지만 인민군대는 적들이 침공하면 단매에 쳐부실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태세를 항상 갖추고있어야 하겠습니다. 적들이 이번처럼 백두산총대의 보복타격이 어떤것인지를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안정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안광에 단호하고도 결연한 빛이 섬광처럼 번쩍이였다.
최광은 부지중 긴장감에 사로잡히며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을 겪은 현지의 군인들은 보다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허락해줄것을 총참모부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여느때라면 몰라도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모진 마음의 상처를 안고있는 우리들에게 도발을 걸어온 놈들을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의 낯색을 주의깊게 살피시였다. 최광 역시 내심으로는 분별없이 날뛰는 놈들에게 다시금 된매를 안겼으면 하는 기색이였다.
그이께서는 심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총대는 적들에게 무자비하지만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총대입니다. 놈들이 침범을 하였다고 해서 우리 군대가 적들의 진지에 보복타격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적들을 담판장에 끌어내서 호되게 다불러대야 하겠습니다. 무장악당들의 시체가 우리측 지역에 있고 적장교놈도 포로된것만큼 놈들은 우리측 지역에 대한 침범행위를

도저히 변명할 길이 없을것입니다. 놈들로 하여금 우리측에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담판에 나갈 우리측 단장에게 과업을 주겠습니다.

최광동지는 지체없이 현지에 내려가보십시오. 적들에 대한 이번의 징벌은 여러가지로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서거후 우리 군대는 더욱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다는것을 적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침범자들을 한놈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은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입니다. 이번의 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낸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전달해주시오. 전사한 병사 두명의 장례도 잘 치르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대대장동무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대책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광은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이 물러간 후 생각에 잠기시였다. 방금 들으신 적들의 도발사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군대의 전투준비정형을 타진해보려는 적들의 공개적인 무력정찰이였다. 이번에 톡톡히 된맛을 보았겠지만 적들의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오늘의 도발사건은 괴뢰군 합동참모본부가 꾸민것이라고 하지만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의 지시밑에 감행되였을것이다. 작전통제권을 상실한 괴뢰군이 자의대로 어벌이 크게 100여명의 무장인원을 우리측 진지에 침입시킬수는 없을것이다. 미제는 지금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것만큼 직접 선불질을 하지 않고 괴뢰군을 내세웠을것이다. 이번의 사건은 대화의 막뒤에 숨겨진 미제의 속심을 명백히 드러내보이였다. 놈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함이 없다.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을 지키고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첨예한 대결의 현실이 보여주고있다. 대국상을 당한 후에 군사를 더욱 중시하려는 자신의 정치적결단이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전화종이 울리였다.

사색에서 깨여난 **김정일**동지께서 전화를 받으시였다. 김연희부총리가 걸어온 전화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콩우유생산정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뒤를 재촉하시였다. 콩우유생산은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문제였다.

《먼저번에 장군님께서 주신 은정어린 말씀을 전달받은 어린이식료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없이 감격했습니다. 이튿날 궐기모임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콩우유공급량이 모든 아이들에게 정확히 공급되고있습니다.

어제는 원료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햇곡식이 나면 콩우유생산에 필요한 콩과 흰쌀이 최우선 보장되도록 대책을 세워주겠습니다. 콩우유생산에서 더 걸린것이 없습니까?》

부총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다. 무엇인가 애로되는것이 있으나 말하기를 주저하는것 같았다.

《지금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긴장한 전기사정으로 애를 먹고있는데 어린이식료품공장형편은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부총리는 용기를 내여 입을 열었다.

《사실 그 공장에서도 자주 정전이 되여서 기대를 멈추군 합니다. 그리고 증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사공장에 나가는 증기관에서 얻어쓰다보니 좀처럼 증기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두 공장사이에 생산용증기때문에 빈번이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증기관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제사공장입니다.》

《알만 합니다. 제사공장은 생산용증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므로 여간해서는 어린이식료품공장에 우선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부총리동무, 어린이식료품공장에 전기와 증기단독선을 끌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형편에서 그 공장에 전기와 증기단독선을 끌어준단 말입니까?!》

부총리는 다소 놀라는 모양이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그 공장에 특별한 조건을 보장해준다는것이 상상밖이였을것이다.

《나라의 전기사정이 아무리 긴장하고 어려워도 어린이식료품공장만은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장이 어린이들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때문입니다. 공장일군들과 협의해서 전기와 증기단독선을 부설할데 대한 대책안을 나한테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부총리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불현듯 **김정일**동지께서는 몇해전 그 공장 공업용수문제를 해결해주던 때를 상기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수질이 좋은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있었다. 공장을 처음 건설할 때에는 수질이 좋았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공장주변에 살림집들과 다른 공장들이 들어서다보니 물의 오염도가 허용수치를 넘었다. 물론 콩우유나 다른 식료품들이 생산과정에 높은 열처리공정을 거치기때문에 철저히 살균은 되였다. 그래서 공장의 일군들조차 심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일**동지께서는 깨끗이 정화된 물을 공업용수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였다. 살균은 된다 하더라도 물에 포함된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조금이라도 어린이들의 식료품에 포함되여서는 안되였다. 그리하여 공장까지 단독선을 놓아서 정제된 음료수를 공업용수로 쓰도록 하시였다.

이제 전기와 증기단독선까지 늘이면 어린이식료품공장에 3개의 단독선이 놓이는셈이다. 나라의 왕들이 먹는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답게 최상의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하여 또 한가지 보람있는 일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흐뭇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적극 지지하면서 기뻐하실것이다.

《**김정일**동지가 어린이들을 위해 또 하나 좋은 발기를 하였소!》

수령님의 음성이 금시 귀가에 울려오는듯 하시였다. 어린이식료품공장에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공업용수를 보내주기 위한 단독수도관 건설을 발기하셨을 때에도 바로 그렇게 치하해주시였다.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령님께서 계시였다. 크고작은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펼치실 때이면 언제나 수령님과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2

최광은 총참모부에 잠시 들려서 부총참모장에게 몇가지 지시를 주고 지체없이 최전연으로 떠났다. 사건이 일어난 대대지휘부에 도착한것은 오후 5시였다.

직일관완장을 낀 애젊은 군관이 황급히 달려나와 보고를 하였다. 처음은 남자인줄 알았는데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보니 처녀였다. 대대위생소장이였다. 철갑모를 쓰고 위장망을 잔등에 걸친 중위는 눈에 피발이 섰다. 그 피발은 수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투후의 열기때문이였다. 지나온 생애에 수많은 싸움을 겪어본 최광은 전투의 특이한 후유증을 잘 알고있었다.

《위생소장인 동무도 오늘 점심시간에 있은 전투에 참가했구만.》

최광은 처녀중위를 신뢰의 눈길로 바라보며 싱긋이 웃었다.

《차수동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처녀중위는 놀라서 반문했다.

《동무의 피발선 눈이 말해주고있소. 장하오.》

《가족소대원들도 전투에 참가했는데 저야 현역군관이 아닙니까.》

비록 위생소장이지만 전투에 참가한것이 너무도 응당하다는 뜻이였다.

《직일관동무, 대대지휘관들을 이 마당에 모이도록 하시오.》

《다른 군관동지들은 현재 대대지휘부에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어데 갔소?》

《대대장감시소에 올라갔습니다. 모두 내려오도록 하랍니까?》

《아니, 내가 올라가보겠소. 감시소에 올라가봐야 동무네 대대가

오늘 전투를 어떻게 치렀는가를 잘 알수 있지.》
《년로하신 몸으로는 오르지 못합니다. 자동차길도 없고 오솔길인데 가파롭습니다.》
《늙기는 했지만 나도 군인이요. 군대란 누구나 고지에 오를줄 알아야지. 길안내를 할 동무나 한명 붙여주오.》
《정 그러시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중위는 부직일관을 불러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길안내를 하였다. 감시소는 대대지휘부건물이 자리잡은 뒤산에 있었다. 폭이 좁은 오솔길은 물매가 급하였다. 처녀중위는 앞서걸으면서 자주 최광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었다. 보기와는 달리 처녀의 손은 나무뿌리같이 거칠고 아귀찼다.
최광은 중턱쯤 올랐을 때 숨이 차서 바위우에 걸터앉았다.
한숨 돌린 후에 앞에 서있는 처녀에게 말했다.
《동무 군의가 아니라 권투선수가 됐으면 제격이겠어.》
《어째서 말입니까?》
《그 손을 두고 하는 말이요. 꼭 권투선수의 손이거던.》
처녀는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두손을 등뒤로 가져갔다.
《허허, 부끄러워할거야 없지. 녀자의 손이라고 연약해서는 안되오. 더구나 군복을 입은 녀자의 손은 동무처럼 억세야 하오.》
그러자 처녀는 등뒤로 가져갔던 손을 앞으로 내여밀며 주먹을 쥐여보이였다.
《차수동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오늘 이 주먹맛을 괴뢰군장교놈한테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적장교놈을 쳐갈겼나?》
최광은 흥미를 가지고 흔들어보이는 처녀의 주먹을 바라보며 물었다.
처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전투때 저는 가족소대와 함께 놈들의 퇴로를 차단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갈무렵에 제가 엎드려있는 풀숲으로 적장교놈이 달려오는게 아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며 〈손들엇.〉하고 웨치자 그놈은 갑자기 닥친 일이라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

간에 히물거리면서 손을 내리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여 반갑습니다.〉라는 잡소리를 치며 권총을 뽑는것이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처음 전투에 참가하다나니 손을 들라고 소리칠 때 권총을 내대야 하는건데 그렇게 못했거던요. 이제 권총을 뽑으려면 그놈보다 늦는판입니다. 그래서 달려들면서 권총을 든 그놈의 손을 발길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낯짝을 후려쳤습니다. 놈은 밑둥 잘린 나무처럼 나자빠졌습니다. 그놈의 덜미를 들어 일으켰습니다. 그놈의 눈두덩에 주먹만 한 멍이 시퍼렇게 부풀어올랐습니다. 낯짝을 찡그리고 그 멍을 눌러보는 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나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라 무쇠주먹을 가진 인민군군관이다!〉 그다음부터는 공손히 앞서걸었습니다.》

듣고보니 놀라왔다. 최광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중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군의대학을 다녔겠는데 언제 격술훈련을 받았나?》

《중학교때 태권도선수였습니다. 그때 익힌 장끼를 버리고싶지 않아서 군대에 입대한 후에도 짬짬이 벽돌장도 깨여보고 나무줄기 걷어차기도 해보군 하였습니다.》

《그랬댔군!》

최광은 내심 감탄을 했다.

다시 길을 떠났다. 고지의 정점으로 오르면서 경사는 더욱 급하였다.

중위는 최광의 손을 이끌어주며 근심스레 물었다.

《힘드시지요?》

《동무의 손덕에 과히 힘들지 않소.》

마침내 정점에 이르렀다.

최광은 잔디를 입힌 참호턱에 팔굽을 짚고 땀을 씻으며 감시소를 둘러보았다. 위장망을 덮은 감시소안에는 완전전투복장을 한 여러명의 군관들이 모여있었다. 그중에는 대대급지휘관이 아닌 두명의 상좌가 있었다. 한발 먼저 감시소안으로 들어간 처녀중위가 나이지숙한 상좌에게 보고했다.

《상좌동지, 총참모장동지가 오셨습니다.》

군관들의 긴장한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최광은 천천히 감시소안으로 들어갔다.
《차렷.》
구령을 내린 련대장이 몇걸음 다가와 멈춰서며 보고했다.
《49련대 1대대 지휘관들은 전투방안을 토론하고있습니다. 련대장 상좌 김철무.》
《쉬엿하시오.》
그들이 무엇을 토론하고있는지 짐작이 갔으나 최광은 련대장에게 따져물었다.
《어떤 전투방안이요?》
련대장은 힘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이미 상급참모부들에 보고되였지만 오늘 점심시간에 적들의 무장악당 100여명이 대대전연으로 습격해왔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우리측 지역에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광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반문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적진지를 습격하겠단 말이지?》
근엄한 어조였다.
《그렇습니다.》
련대장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래, 련대공격을 시도하고있소?》
《아닙니다. 기습을 당한 1대대가 복수전을 벌리는데 련대에서는 방사포를 비롯한 포병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광은 다른 상좌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동무는 누구요?》
《사단 작전과장입니다.》
《사단에서도 그 무엇을 지원하려고 하오?》
《아닙니다. 저는 대대의 기습전투에 전술적대책을 의논해주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대대장동무가 부상을 당했기때문입니다.》
《아무튼 판을 크게 벌릴 잡도리로군.》
그러자 련대장이 기세를 돋구며 최광에게 간청했다.
《총참모장동지가 승인만 하면 련대를 총동원해서 서울까지 밀고

나가 괴뢰군 합동참모본부까지 짓뭉개버릴 생각입니다. 이번에 있은 우리 전연에 대한 기습은 놈들의 합동참모본부가 직접 조직한것이였습니다.》

《알고있소. 그래서 전투로 과열된 동무들의 머리를 진정시켜주자는거요.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한 구분대들을 철수시키고 동무들도 모두 감시소에서 내려갑시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당돌하게 나서는 젊은 군관이 있었다.

《대대참모장입니다.》

그는 자기 소개를 하고나서 자못 결연한 어조로 계속했다.

《이번 전투에서 대대장동지는 중상을 당했고 2명의 우리 병사가 희생되였습니다. 우리는 천백배로 그들의 피값을 받아내야 합니다.》

《진정하오.》

마주선 대위는 응대가 없었으나 그의 뒤에 섰던 다른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대대정치지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절절한 어조로 간청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가슴에 총질을 하며 덤벼드는 놈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은 한두명의 전우가 희생된것보다 놈들의 처사가 괘씸해서 더 분격하고있습니다. 중대와 소대들에서는 이미 복수결의모임을 가졌는데 누구나 눈물을 뿌리며 복수를 다짐하고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몽상기간의 상제를 존중하고 동정하는것을 미덕으로 알고있습니다. 초보적인 인륜과 도덕도 모르는 놈들은…》

뒤를 잇지 못하는 정치지도원의 눈굽에서 격분의 눈물이 끓고있었다. 그 눈물이 반영하는 감정으로 대대의 병사들은 이번 전투에서 용맹을 떨쳤을것이다.

최광은 자기로서는 그들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것을 느끼며 정중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이 치른 전투상황과 동무들이 품고있는 복수전의 욕망

에 대해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내가 직접 보고를 올리였소.》

모두의 시선들이 숭엄한 빛을 띠고 최광의 입에 쏠리였다.

최광은 여전한 어조로 계속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고 우리의 총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진지를 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엄격히 지적하시였소. 동무들이 즉흥적인 충동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다린것은 잘한 일이요.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인 령군체계가 확립된 그이의 군대요.

련대장, 대대를 공격출발진지에서 철수시키시오. 지원에 동원되였다는 련대의 포병들도 포함해서 말이요.》

《알았습니다.》

련대장은 경건한 표정으로 해당한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을 받은 군관들이 감시소를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을 둘러보던 최광은 대대참모장에게 말했다.

《동무는 좀 남소. 여기서 오늘 있은 전투실태를 설명하시오.》

《알았습니다. 먼저 전방을 료해하십시오.》

최광은 참모장이 주는 쌍안경을 눈가에 가져가며 전방을 바라보았다. 배률이 높은 쌍안경렌즈에는 적들의 진지와 병영이 선명하게 비끼였다. 놈들은 쥐죽은듯이 조용했다. 제법 으시대며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을 오고가야 할 헌병들도 보이지 않았고 병영밖으로 싸다니는 사병들도 보이지 않았다. 함부로 어슬렁거리다가는 인민군의 복수탄에 개죽음을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오늘 전투에서 놈들이 혼쭐이 난것만은 분명했다. 한놈도 살아서 돌아간 놈이 없다니 그럴수밖에 없을것이다.

최광이 우리측 지형지물까지 살피였을 때 대대참모장이 전연을 가리키며 설명을 했다. 적들의 기습을 예견하고 구분대들을 어떻게 배치했으며 전투당시 어떻게 싸웠는가를 말했다. 울분이 풍기는 설명이였으나 매우 조리가 있었다. 이미 총참모부에서 전투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체험담을 듣고보니 지형지물을 옳게 리용한 전술적방안도 좋았고 전투진행과정도 령활하고 빈틈이 없었다. 가족소

대를 동원하여 놈들의 퇴로를 미리 차단한것도 예견성있는 전투조법이였다. 대대참모장은 개별적군인들의 무훈담도 이야기하였다. 그중에서도 적장교놈을 포로한 처녀위생소장의 무훈담을 구체적인 세부까지 흥취있게 펼치였다. 최광은 모르는체 하며 들어주었다. 마감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심문을 할 때 적장교놈은 처녀군관에게 포로된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다행 녀자의 주먹에 맞았기에 눈두덩에 멍이 들 정도였지 남자의 주먹에 맞았다면 머리가 박산났을게라는겁니다. 인민군대 녀자의 주먹이 돌덩이같은데 남자들 주먹이야 철퇴이상이리라는겁니다.》

《비록 적의 말이지만 비교적 옳은 판단이요.》

《위생소장동무는 본신사업에도 성실하고 타고난 싸움군인데 이제 곧 제대되게 됩니다. 나이가 찼습니다. 필경 그가 제대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온 대대가 서운해할것입니다.》

《그럼 제대되여 대대의 어느 총각군관과 결혼하면 되지 않을가. 그렇게 되면 대대에 그냥 남아있는거나 같지. 대대에 총각군관이 없나?》

《대대지휘부에서는 대대장동지가 총각이긴 한데 본인의 의사가 어떻겠는지?…》

《참모장이 나서보게나.》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투의 조직과 과정을 놓고보아도 동무네 대대장은 전술적인 지혜가 있는 나무랄데 없는 지휘관이야!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나도 기쁘겠소.》

《총참모장동지의 뜻을 대대장동지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도 수긍할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절을 하겠습니까.》

최광은 훈훈한 감정에 잠기였지만 정색을 하고 대위를 꾸짖었다.

《참모장, 사랑의 권리와 자유는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속하는것이야. 누구도 직권을 가지고 사랑을 강요할수 없소!》

《강요할수는 없지만 년장자로서 권고할수야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야 있겠지. 나도 젊은이들의 사랑을 성사시켜주고 아껴주고싶소. 그런데 위생소장은 대대장을 마음에 두고있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눈치를 보면 왼심을 쓰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들은 감시소에서 물러나 비탈길을 내리였다. 오를 때처럼 힘겹지는 않으나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다. 젊은 대위가 최광을 부축하고 걸었다. 대대지휘부에 내려와보니 공격출발진지에서 철수한 군인들이 전투준비를 갖춘 그대로 군인회관에 모여들고있었다. 위생소장이 언제 창밖을 띄여보았는지 직일관실에서 달려나와 보고를 하였다.

《총참모장동지, 대대는 군인회관에 모이고있습니다. 대대직일관 중위 김옥순.》

최광은 처녀직일관의 이름에 류의했다.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보고를 하는 그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때에는 새겨듣지 않았다. 다시 듣고보니 로친의 이름과 같았다. 옥순이란 이름은 우리 나라 녀자들속에 흔히 있는 이름이다. 20명쯤 세워놓으면 그중의 한명은 옥순일것이다. 하지만 성조차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을것이다.

《김옥순이라!…》

입속으로 외워보며 청춘시절 로친의 모습을 찾아보려는듯 처녀중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럴사하게 보아서 그런지 아름다운 눈매며 단정한 입술이며가 청춘시절의 로친과 비슷한데가 있는것 같았다. 중위는 상글상글 웃으며 정겹게 말했다.

《년로한 몸에 감시소까지 다녀오느라고 힘드셨겠습니다.》

《괜찮소.》

《어서 지휘부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최광은 대대참모장과 위생소장을 거느리고 지휘부건물안으로 들어갔다.

《동무네는 여느때도 위생소장을 직일근무에 세우오?》

대대참모장에게 물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워낙 대대참모가 직일관이였는데 전투조직과 관련해서 그가 감시소에 올라가야 하기때문에 대리로 위

생소장을 세웠습니다.》
최광은 위생소장에게 물었다.
《동무네 대대장의 부상은 어느 정도요?》
《복부와 다리에 여러군데 총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련대군의소에 입원했는데 경과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최광은 처녀의 얼굴에 근심과 련민의 정이 비끼는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직일근무를 인차 교대하고 련대군의소에 가보시오. 련대군의소의 군의들이 어련하겠지만 동무만큼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기는 어려울거요.》
최광은 직일관실을 지나서 참모장의 안내를 받으며 대대장실로 들어갔다. 대대장실에는 련대장과 사단작전과장, 대대정치지도원이 앉아있었다. 최광은 튕겨나듯 일어서는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 빈의자에 앉았다.
《전사한 병사 두명의 장례식준비는 어떻게 하고있소?》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세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했다. 잠시후에야 대대정치지도원이 입을 열었다.
《장례준비에는 아직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대대에 소속되지 않은 민경동무들이여서 그랬소?》
최광은 다소 노기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우리 대대장동지가 피를 흘리며 날라온 동무들이기때문에 그들의 시신이 지금 대대구역안에 있습니다. 적진을 쳐부시고 그들의 복수를 한 다음에 민경동무들과 합심을 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전사한 병사들의 장례를 잘해주어야 하겠소. 고향이 어데인지 부모들도 참가할수 있도록 차를 보내야 하겠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사한 병사들의 장례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소.》
직일관교대를 한 대대참모가 나타나서 군인회관에 대대가 다 모였다고 전달했다.
최광은 군관들과 함께 군인회관으로 갔다. 회관에는 전투복장에 무기와 장구류들을 휴대한 군인들과 역시 군복차림인 군관가족들이

모여있었다. 대대지휘부 군관들이 앉은 앞줄에는 위생소장의 얼굴도 보이였다.

최광이 나타나자 련대장이 힘있게 구령을 치며 보고했다. 전체 군인들과 가족들의 긴장한 시선이 최광에게 쏠렸다.

최광은 천천히 연탁앞으로 나갔다.

《오늘 점심시간에 동무들이 치른 전투정형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보고되였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측 지역에 침범한 적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않고 섬멸한것은 매우 장한 일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또한 이번 전투는 정치적의의도 크다고 하시였습니다. 놈들은 국상을 당한 후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준비상태를 타진해보려고 무력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놈들에게 된매를 안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을 삼키는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강유력한 보복타격을 할수 있다는것을 놈들에게 보여준것으로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조국의 최전연을 믿음직하게 지켜싸운 대대의 전체 군인들과 가족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열렬한 감사를 보내주시였습니다!》

군인들과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최광은 그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장내를 둘러보았다. 끓어번지는 감격과 흠모의 정으로 누구의 눈에서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목메여 웨치는 만세의 환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최전연의 산발들을 뒤흔들었다.

3

대대에서 병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최광은 련대군의소에 가려고 했다. 련대군의소는 대대로부터 10여리가량 후방에 있다고 하였다. 최광은 승용차의 앞좌석에 타고 뒤좌석에는 부관과 대대위생소장이 앉았다.

《옥순동무, 동무는 련대군의소로 가는 길을 잘 알겠지?》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자리를 바꾸어야 하겠소.》
《그냥 앉아계십시오. 제가 어떻게 차수동지의 좌석에 앉겠습니까?》
김옥순은 가볍게 낯을 붉히며 사양했다.
《치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수나 장령도 군의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서야 하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운전사에게 길을 대주라는거요.》
그제서야 위생소장이 자리를 바꾸었다.
승용차가 떠났다.
련대군의소에 이른 최광은 승용차를 정문밖에 세우게 하고 김옥순만을 데리고 조용히 구내로 들어갔다. 환자들이 입원한 군의소에는 정숙이 필요했다. 구내에는 이미 땅거미가 깃을 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군의소건물안에 들어갔을 때 김옥순이 흰 위생복 두벌을 얻어왔다. 최광은 위생복을 걸치고 차수모자를 벗어들었다. 령장이 보이지 않도록 위생복깃을 여미였다. 불빛이 밝은 복도를 지났지만 오가는 군의나 환자들이 무심히 그의 곁을 스쳐지났다.
김옥순이 자기네 대대장이 입원한 곳을 찾아서 그를 안내했다. 입원실에 들어서니 대대장은 점적을 받고있었다. 방안에는 다른 환자가 없었다. 중상자이기때문에 독방에 있게 했을것이다. 김옥순이 환자를 지켜보는 녀군의에게 자기가 누구라는것을 소개했다. 반겨 인사를 나눈 녀군의는 전등빛에 성긴 백발이 반짝이는 최광을 띄여보았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군대는 없을것이라고 여겼는지 대뜸 이렇게 물었다.
《대대장의 아버님입니까?》
《그렇소.》
최광은 건성 대답하고 환자의 침대곁으로 다가갔다. 녀군의가 쪽걸상 두개를 가져왔다. 최광과 대대위생소장은 그 걸상에 나란히 앉았다. 눈을 감고있는 환자는 잠에 든듯싶었다. 창백한 환자의 얼굴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녀군의가 환자에게 허리를 굽히고 말했다.

《환자동무, 정신차리세요. 동무의 아버님이 오셨어요.》

속삭이는듯 한 목소리였으나 환자는 잠에서 깨여났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식은 잠결에도 예리한 자극을 주는지 모른다. 천천히 눈을 뜨고 최광을 마주보는 환자의 눈이 서서히 밝아졌다. 동시에 입술사이로 가는 목소리가 새여나왔다.

《총참모장동지!… 대대장 강철수…》

환자는 일어나려고 가까스로 모지름을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최광은 그를 만류하며 가만 누워있으라고 하였다. 곁에 서있던 녀군의는 김옥순에게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였다. 총참모장을 진작 알려주지 않은데 대한 원망이였다. 그는 차렷자세를 취하고 최광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총참모장동지, 미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군의소장동지에게 알리겠습니다.》

최광이 녀군의에게 눈길을 돌렸다.

《알리지 마시오. 나는 지금 총참모장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를 면회하러 온 사람으로 여기에 나타났소.》

녀군의는 차렷자세를 한채 그냥 서있다가 최광이 손짓을 하여서야 긴장을 풀었다.

최광은 환자를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대대장 강철수는 그 눈길을 공손히 받아들이며 초들초들해진 입술을 열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무들이 치른 전투정형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의 감사를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나를 내려보내시였소. 그래서 동무네 대대에 감사를 전달하고 여기에 왔소.》

강철수의 얼굴에 갑자기 홍조가 떠올랐다. 입술이 벙긋거리는것으로 보아 격정을 터치고싶은 충동에 떠밀리우는듯 했다. 최광은 다시금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쓰는 그의 어깨를 눌렀다.

《그냥 누워있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가 용감하고 령활하게 전투지휘를 잘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부상당한 몸을 잘 치료해주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소.》

《최고사령관동지!》

강철수는 목메여 부르더니 어깨를 떨며 흐느끼였다. 좀처럼 진정할줄 몰랐다.

최광은 미안스러운 기색으로 녀군의에게 물었다.

《이거참, 때아닌 때에 환자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게 아닐가? 안정이 필요한 환자를 흥분시켰으니 말이요.》

《아닙니다. 기쁠 때의 흥분은 환자의 치료에 리로울 때도 있습니다.》

녀군의의 응대였다. 그의 말을 확증하듯 얼마후에 다시 입을 여는 강철수의 목소리는 방금전과 달리 힘이 있었다. 얼굴에도 전에없이 혈색이 돌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겠습니다. 우리 대대장병들의 이 심정을 그이께 꼭 말씀드려주십시오.》

《알겠소. 나는 동무들이 그이께 다진 결의대로 앞으로도 더 잘 싸우리라고 믿소.

최근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것만큼 인민군대는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소.》

방안에 일순 침묵이 흘렀다. 그 틈을 타서 대대위생소장이 녀군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체온, 맥박, 혈압을 알아보고나서 총상자리들이 어떤가를 물었다. 녀군의는 근심스레 대답했다.

《복부의 총상자리들은 화농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벅다리총상이 더 위험합니다. 총탄에 뼈가 상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겠는데 련대군의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체없이 상급병원으로 후송해야 하지 않을가요?》

위생소장이 초조하고 불안한 낯빛으로 물었다.

《우리는 래일 사단군의소로 후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상이 심한것만큼 사단군의소나 군단병원에서도 치료하기가 헐치 않을것입니다. 좋기는 중앙병원에 빨리 후송하는것인데…》

최광이 그들의 대화에 끼여들었다.

《사단군의소나 군단병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병원에 입원시키는것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소.》

《고맙습니다, 총참모장동지.》

그렇게 말한것은 위생소장이였다. 최광은 처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그는 녀군의와 위생소장을 번갈아보며 말했다.

《대대위생소장동무는 오늘 밤 여기 남아서 군의동무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게 좋겠소.》

위생소장은 응대가 없었으나 은근히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강철수가 불쑥 입을 열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련대군의소에서 저를 잘 돌봐줍니다. 우리 위생소장동무는 돌아가서 대대병사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힘겨운 전투를 겪었기때문에 병사들의 몸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최광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위생소장을 데리고 입원실을 나섰다. 녀군의가 현관까지 바래워주었다.

정문밖에 서있는 승용차에 오른 최광은 위생소장을 그의 대대에 데려다주었다.

이날 밤 최광은 강철수대대장의 사무실에서 잤다. 이튿날 아침 그는 병사들과 한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후방부대대장이 총참모장을 위해 따로 마련한 식사를 위생소에 감기로 누워있는 병사에게 보냈다. 식사를 끝내고 대대장실로 돌아온 최광은 전화로 중앙병원 원장을 찾았다. 환자의 상태가 중하기때문에 미처 군단병원의 파송증을 갖추지 못했지만 대대장을 입원시켜서 잘 치료해주라는 지시를 주었다.

이날 오후에 보병대대와 민경중대가 합동하여 희생된 병사들의 장례식을 하였다. 병사의 부모들도 참가했다. 그들은 아들의 령구를 부여안고 울지를 않았다. 다만 복수자의 결연한 빛이 얼굴에 흐를뿐이였다. 장례식은 적진이 바라보이는 대대장감시소가 있는 고지의 남쪽경사면에서 진행되였다.

민경중대장은 애도사에서 이렇게 피력했다.

《…살아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던 동무들은 죽어서도 적진을 노려보고있습니다. 몸은 비록 땅속에 묻히지만 동무들은 우

리와 함께 조국의 최전방초소를 지키고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동무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을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모진 마음의 상처를 안고있는 우리에게 놈들이 또다시 접어든다면 지난번보다 몇배로 더 무서운 징벌을 안길것입니다. 우리 민경병사들은 수령님께서 남기신 사회주의조국의 전초선에 서있습니다. 적들이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하여 남먼저 한목숨바쳐 싸우겠습니다!

우리곁을 떠나는 사랑하는 전우들이여, 우리모두 희생된 동무들의 몫까지 합쳐서 복수자의 총검을 벼리고있으니 조국방선은 념려말고 고이 잠드시라.》

사단군악대의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고 뒤이어 총성이 뒤따랐다. 한동안 계속되는 조총소리는 전우들을 잃은 상실의 비애와 복수자들의 비장한 감정이 터치는 폭발음이였다. 그 총성에 질겁하여 적진에서 어슬렁거리던 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숨어버렸다.

제 4 장

1

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당, 행정일군 협의회가 열리였다. 주석단에는 김연희부총리와 지배인, 공장초급당비서, 기사장, 부지배인이 올랐다. 객석에는 부서책임자들과 직장장, 부문당비서들이 앉았다. 공장의 핵심적인 기술자들과 오랜 로동자들도 20여명 참가했다.

《참가해야 할 대상들이 다 왔습니다.》

지배인이 좌중을 둘러보고나서 부총리에게 귀띔했다.

부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언제나 어린이식료품생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제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시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바이지만 장군님의 은덕으로 흰쌀과 콩, 사탕가루를 비롯한 원자재가 해결되여 생산이 앙양되자 전기와 증기의 사정이 전에없이 긴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신 장군님께서는 전기와 증기의 단독선을 공장에 끌어오도록 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라의 전기사정이 어렵더라도 어린이식료품공장에는 24시간 생산용전기를 중단없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제사공장에 공급되는 증기를 뽑아쓴다는데 어린이식료품공장이 남의 더부살이를 하는 식으로 증기를 쓰게 해서는 절대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나라의 왕들인 어린이들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격에 맞게 마땅히 증기도 단독선으로 끌어다 써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부총리가 뒤를 이으려는데 그보다 먼저 《야!》하는 탄성이 느닷없이 울리고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사랑에 접한 청중의 감격이 어쩔수없이 폭발했던것이다.
좌중의 흥분이 저으기 진정되기를 기다리던 부총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전기와 증기단독선공사를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안을 토론해서 자신께 보고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기탄없이 의견들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나이지숙한 지배인이 짧게 깎은 머리를 한번 쓸어올리더니 부총리에게 얼굴을 돌리였다.
《증기관과 고압까벨선은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공장자체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벽돌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부총리는 머리를 끄덕이며 부지런히 수첩에 적었다.
이번에는 기사장이 지배인의 의견을 보충했다.
《증기관과 까벨선을 늘이는 기술지도는 어차피 다른 기업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장에는 그 부문 기술자들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소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가 물었다.
《제 생각에는 증기관부설을 위해서는 시열난방건설사업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부총리는 기사장의 의견도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더 제기할것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로동과장이 일어섰다.
《공사에 필요한 로력도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주었으면 합니다. 부총리동지도 아시다싶이 우리 공장은 종업원이 천명도 안되는데다가 절대다수가 가정부인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증기관과 까벨선을 늘이기 위한 토목공사는 어렵습니다.》
초급당비서 리선복이 명백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로력문제까지 손을 내밀수는 없습니다. 나라에 부담을 끼친다는것은 곧 위대한 장군님께 부담을 끼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돌려주는 관심이 크신것을 등에 대고 모든 것을 남들이 하여줄것을 바라는것은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어깨에 실리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것은 그이의 전사들인 우리의 도리입니다. 필요한 자재와 기술적지도는 우리자체로 해결할수 없기때문에 장군님께 보고드려서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로력문제까지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부총리는 일순 생각에 잠기더니 객석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자리에는 녀성동무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솔직한 심정을 말하세요. 과연 공사에 필요한 로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힘있게 대답하며 압가루직장 직장장이 성큼 일어섰다. 무용수처럼 호리호리한 몸매에 새물새물 웃음을 담고있는듯 한 눈매가 유난히 아름다운 중년녀인이였다.

그는 로동과장을 피끗 바라보더니 챙챙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방금 로동과장동무는 녀성로동자들의 손으로는 토목공사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녀성들의 힘과 강의성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5.1절때 벌린 바줄당기기경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직장 녀성로동자 10명과 공무직장 남성로동자 10명이 바줄당기기경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는 직장과 직장의 경기인 동시에 남성과 녀성의 대항경기였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공무직장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결과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우리 직장이 이겼습니다. 그날 심판을 섰던 지배인동지는 공무직장 남자들에게 오늘부터 바지를 벗고 치마를 두르라고 롱담을 했습니다.》

장내에 가벼운 웃음이 번지였다.

또 다른 녀성의 엄숙한 목소리가 그 웃음을 지워버렸다. 그는 콩우유 1직장 부문당비서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고무된 우리 어머니들의 힘은 무섭습니다. 바로 한주일전에 흰쌀과 콩, 사탕가루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천여톤이 훨씬 넘는 물동량이였는데 흰쌀과 콩은 한마대의 무게가 50키로나 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녀성

로동자들은 하루밤사이에 자동차에 실어서 공장까지 모두 날라왔습니다. 물자를 싣고왔던 선장아바이는 깜짝 놀라면서 모두 애기어머니들인데 어데서 그런 무서운 힘이 생기는가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심정을 비추어서 바로 어머니들이기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열렬한 모성애를 지닌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아이들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에 다른 사람들보다 몇배로 더 감격하며 고무적힘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쌀마대와 콩마대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메여날랐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전기단독선과 증기단독선을 늘여주신다는것을 알면 모든 녀성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입니다.

부총리동지, 위대한 장군님께 로력문제는 념려마시라고 꼭 보고드려주십시오.》

《참으로 좋은 제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으기 감격한 표정으로 수긍을 한 부총리는 계속 협의회를 이끌어갔다.

《이제 남은것은 기간문제입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느 기간에 공사를 벌릴것인가? 모두들 심중히 생각했다. 무슨 일이나 시간의 선택은 성과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법이다.

이윽하여 공장당비서 리선복이 지배인의 낯색을 살피며 몸가짐을 다시 했다. 그로서는 지배인이 견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내놓는것이 어려운듯 조심히 입을 열었다.

《생산을 중단하고 공사를 벌릴수는 없습니다. 년말까지는 콩우유생산을 정상화해서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들에 공급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겨울방학기간에 공사를 벌리는것이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설계를 앞세우고 자재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실상 증기관이나 까벨로선설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는것만큼 그 과정도 일정한 시일이 걸릴것입니다.

방학기간에는 생산을 절반이상 줄일수 있기때문에 공사에 절대다

수의 종업원을 동원시킬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에 필요한 로력을 자체로 보장하기로 결정한것만큼 방학기간이 적합합니다.》

부총리는 지배인과 당비서의 낯빛을 살피고 객석에 머리를 돌리였다. 객석은 일치하게 당비서의 의견을 지지했다. 그것이 옳고 정확하기때문이였다.

부총리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리선복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에서나 명백한 론리와 뚜렷한 주견을 가진 당비서였다. 전에도 종종 체험한 일이지만 그는 공장의 생산실태를 행정일군들보다 더 환히 알고있었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통신으로 졸업한 그는 기술실무에도 밝았다. 생산기술문제에서조차 당비서의 견해가 통하다보니 얼핏 보면 당조직이 행정대행을 하는듯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 행정일군들조차 그러했다.

언젠가 지배인은 이렇게 말했다.

《당비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낯모를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정기술문제에 합리적으로 옳은 의견을 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실무문제에 좋은 의견을 주는것과 행정대행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당비서를 만나서 일하기 쉽습니다. 내가 알기엔 우리 당비서는 소학교와 중학교과정에 전과목 최우등생이였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학을 통신으로 졸업했는데 그 대학교원들이 하는 말이 주간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 당비서를 자랑하는 지배인도 그만큼 수양된 사람이였다. 지배인과 당비서는 나이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은 당비서를 존중했다. 당비서는 그대로 지배인을 년장자로 존경하였고 주석단에 오르거나 무슨 경사로운 일에 나설 때에는 그를 앞세웠다.

당과 행정이 합심되고 종업원들이 단합된 이 공장은 앞으로 벌어질 공사를 원만히 해낼것이다.

부총리는 협의회를 결속하면서 말했다.

《오늘 토론된 내용을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였습니다. 콩우유생산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증기, 전기단독선공사는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한 고리입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 공장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고계십니다.

동무들은 어느때나 이것을 명심하고 어린이식료품생산을 늘이고 앞으로 벌어질 두가지 단독선공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후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이식료품공장의 증기와 전기단독선공사와 관련된 문건을 친히 보아주시였다.

2

리선복은 문건을 들고 한없는 흥분속에 글자를 한자한자 망막에 새기듯 더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주고 비준하여주신 문건이였다. 거기에는 어린이식료품공장의 전기와 증기단독선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었다. 문건의 마지막페지에는 그이께서 친히 쓰신 이런 글발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공사인것만큼 성과적으로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 장군님께서는 문건을 보시면서 어린이들에게 맛좋은 식료품을 먹이려고 그리도 마음쓰시던 수령님을 생각하시였을것이다. 정녕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리선복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상했다. 지체없이 공장당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분공을 조직해야 했다. 뒤이어 며칠내로 종업원궐기모임을 가져야 했다. 머리속으로 앞으로 벌리게 될 사업을 설계하여보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색을 중단하고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시오.》

문이 조심히 열리며 처녀가 들어섰다. 낯익은 콩우유직장 처녀였다.

《연금동무가 어떻게?…》
리선복은 다소 의아한 기색으로 책상옆으로 다가오는 연금이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되똑한 이마와 오목한 눈이 록록치 않은 인상을 주던 연금이가 지금은 더욱 엄숙하고 결연한 낯빛이였다.
《무슨 일로 왔나?》
일순 바재이던 처녀는 재차 물어서야 입을 열었다.
《비서동지, 저는 어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농촌에 진출할것을 결심했습니다. 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신 금당협동농장에 뿌리를 내리고싶습니다. 그곳으로 가도록 힘써주십시오.》
그 심정이 리해되였다. 최근에 수많은 청년들이 탄광과 광산, 발전소와 농촌진출을 자원해나섰다. 중앙기관에서 사업하던 일군들도 가족을 데리고 농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제일 관심하신 농사문제를 풀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연금이도 그러한 심정일것이다. 그는 이왕이면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영광의 땅에 진출하려고 한다. 그 마음도 기특했다.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의논했어요?》
《했습니다. 어머니도 결심을 잘했다면서 찬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께름해하는것이 있었습니다.》
《뭐게요?》
연금은 거북한 기색으로 주밋거리더니 방금전과는 달리 짓눌린 어조로 응대했다.
《비서동지도 아시다싶이 저의 어머니는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자 퇴직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공장을 떠나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도 제 어미처럼 제 살 구멍만 판다는 뒤소리를 할수 있다는거지요.》
《그렇게 속단할 사람이 우리 공장에는 없어요. 그리고 동무의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을 잘하던 로동자였는데 일시적인 생활상난관을 이겨내지 못해 그런거예요.》

리선복은 연금의 어머니 강순녀의 지난날을 생각했다.

그는 단발머리처녀시절 어린이식료품공장이 창립되던 초창기부터 오래동안 다시마가공직장에서 일하였다. 그러다가 증기배관 관리공으로 조동되였다. 제사공장과 증기분배문제가 제기되여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되자 로동과에서는 그를 적임자로 짚었다. 책임성도 높았지만 론리가 명백한 강순녀라면 제사공장 증기배관 관리공을 설득시킬수 있다고 여겼던것이다. 그를 새로 임명한 초기에는 어린이식료품공장에 증기가 넉넉히 들어왔다. 예견했던바대로 제사공장관리공을 설득시켰던것이다. 그러나 증기사정이 어려워지자 제사공장에서는 손탁과 입심이 센 녀성로동자를 증기분배장에 배치하였다. 그와 강순녀사이에는 자주 다툼이 벌어졌다. 그 다툼은 강순녀의 가정불화에로 이어졌다. 제사공장 공무직장에 남편이 있었던것이다. 남편은 안해가 증기문제로 하여 자기 얼굴에 흙칠을 한다고 꾸짖었다. 가정불화에 생활상어려움이 겹치기 시작하자 강순녀는 자주 결근을 하면서 장사를 하였다. 강선에 나가 농토산물을 손달구지로 날라다 팔군하였는데 령리한 녀성인지라 남다른 솜씨를 보이였다. 당조직과 행정에서 알아들을만큼 타일렀으나 강순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여서 공장에서는 하는수없이 퇴직수속을 하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공장을 버리고 떠나는 그를 원망했다. 그가 작별인사를 나누려고 공장에 나타났을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한 그를 리선복이 따뜻이 바래워주며 말하였다.

《나는 어느때든지 순녀동무가 우리 공장에 다시 오리라고 믿어요.》

그것이 1년전 일이였다.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김연금은 어머니와 달랐다. 연금은 어머니가 공장에 끼친 수치를 자기가 씻기라도 하려는듯 열심히 공장일을 하였다. 사로청(당시)초급일군으로 조직생활에도 모범이였다. 공장에서 내여놓기가 아까운 처녀였다.

《연금동무, 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앞장에 설 생각으로 금당협동농장에 나가겠다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김연금은 활기롭게 대답했다.
《농사문제도 그렇지만 어린이들의 식료품문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던 문제예요. 나는 동무가 우리 공장에서 유훈관철의 앞장에 섰으면 해요.
동무는 이제 우리 공장에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전기, 증기 단독선공사가 벌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 공장의 책임일군들만이 알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공장의 생산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주시려고 두개의 단독선공사를 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취해주시였어요. 나도 방금 받아보는데 이게 그 문건이예요.》
리선복은 문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페지를 펼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드는 공사인것만큼 성과적으로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장군님께서 친히 쓰신 그 글발이 연금의 망막에 새겨졌다.
리선복은 연금의 두눈이 빛나는것을 보았다. 방싯거리는 처녀의 입에서는 금시 탄성이라도 터질상싶었다. 연금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도 이 소식을 알면 기뻐할거예요.》
그럴수 있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증기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강순녀가 증기단독선공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기뻐할는지도 모른다.
《연금동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안겨주셨어요. 할일이 정말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장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에서 맨 앞장에 서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힘있게 응대했다.
문에서 손기척소리가 났다.
방안에서 나가는 연금이와 길을 어기며 중년녀인이 들어섰다. 다시마가공직장 1작업반 세포비서 차련실이였다.
《지금 돌광산에서 돌아오는 길이예요?》
리선복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겨물었다.
《그렇습니다.》

차련실은 웃음진 얼굴로 대답했다.

그가 100여리 떨어진 화강석광산으로 달려간것은 한주일전의 일이였다. 화강석광산의 직맹위원장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차련실이 화강석광산 직맹위원장을 알게 된것은 얼마전이였다. 모란봉구역에 집이 있는 차련실은 매일 저녁 공장에서 퇴근을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갔다. 하루는 수령님동상에 정히 마련해온 꽃다발을 드리고 흐느껴울다가 혼절한 녀인을 발견했다. 차련실은 그 녀인을 둘쳐업고 위생소를 찾아갔다. 영결식이 있은지도 여러날이 되지만 수령님동상앞에 서고보니 절통한 마음을 누를길 없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그리하여 주변에 전개된 위생소들은 밤낮으로 구급대책에 분주했다. 위생소에서는 녀인에게 강심제주사를 놓고 혈압하강제를 먹이였다.

녀인이 의식을 차렸을 때 의사는 차련실에게 당부했다.

《빨리 집에 데리고가서 더운물로 손발을 씻어주고 식사를 시키시오.》

의사는 녀인을 차련실과 한가정식구로 여기는 모양이였다. 생면부지라 하더라도 조의기간에 우리 인민은 누구나 혈육의 뉴대를 느끼였다. 어버이를 잃은 자식의 공통된 슬픔과 눈물이 그러한 감정을 불러냈다. 차련실은 녀인을 집에 데려다가 의사가 시켜주는대로 간호를 했다. 저녁상을 물리고났을 때 녀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터놓았다. 그는 화강석광산 직맹위원장이였다. 직총중앙위원회에 볼일이 있어서 출장을 왔는데 려관에 려장을 풀기도 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부터 찾았다. 동상을 우러러 큰절을 드리는 순간 잊을수 없는 추억이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서 전사자, 피살자, 유자녀들에게 처음으로 남먼저 학생교복을 공급하던 때였다. 당시 중학교 졸업반에 다니던 직맹위원장도 교복을 타입었다. 그의 부모들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놈들에게 피살되였던것이다.

학교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새 교복을 타입은 유자녀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에게 타이르시였다.

《울지들 말아라. 너희들은 부모없는 고아들이 아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로동당의 품은 너희들의 집이다.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사진을 찍은 후에 아이들의 옷차림을 다시금 보아주며 옷깃을 펴주시던 수령님께서는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였다.

《새 교복을 타입은 너희들을 보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구나.》

그러자 아이들은 수령님의 옷자락에 매여달리며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쏟았다. 그것은 가장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신 어린 넋들의 행복과 기쁨의 분출이였다.

그 추억에 절통한 감정이 뒤따랐다. 그처럼 자애롭던 어버이를 다시는 뵈올수 없단 말인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대돌을 두드리다가 기절했던것이다.

눈물속에 자기 이야기를 번지던 직맹위원장은 차련실의 손을 잡고 계속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영원히 떠나셨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령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렇지요?》

《그래요. 우리모두의 그 마음을 담아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영생구호를 제시해주셨지요.》

《우리 광산에서는 그 신념의 구호가 나오자 전체 종업원들이 궐기해서 화강석으로 정문우에 그 구호를 정으로 새겼어요.》

차련실은 화강석광산에서 화강석에 새겼다는 구호의 글발이 부러웠다. 공장에서도 화강석판석에 구호의 글발을 새길수는 있지 않을가?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당조직에 보고하고 지체없이 화강석광산으로 떠났던것이다.

《그래 화강석판석을 다 마련해왔어요?》

리선복은 초조히 물었다.

《구호의 글자는 22자이지만 판석은 25장 가져왔습니다. 여유로 석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차련실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정말 수고했어요. 화강석판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아니라 광산직맹위원장동무가 수고를 했습니다. 지내보니 직맹위원장은 보통녀자가 아니였습니다. 광산은 절대다수가 남성로동자들이지만 직맹위원장의 말이면 어데나 다 통했습니다. 그 녀자의 손탁이 얼마나 센지 굳기로 소문난 화강석을 다루는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 동무가 힘써주어서 기계로 판석을 거울처럼 연마까지 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서 나가봅시다.》

리선복은 차련실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한시바삐 현품을 보고싶었다. 4층에서 급히 계단을 내려 구내길에 나섰다. 콩우유차들이 꼬리를 물고 공장을 떠나가고있었다. 그 차들과 길을 어기며 차련실이 이끄는대로 창고쪽으로 갔다. 창고앞에 멈춰선 소형화물자동차에서 녀성로동자들이 판석을 부리우고있었다. 차련실의 당세포 당원들이였다. 판석마다에는 천으로 두텁게 만든 주머니가 씌워져있었다. 운반도중에 서로 부딪쳐서 긁히거나 모서리가 조금이라도 상할세라 그렇게 하였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다듬고 날라왔는가가 확연히 알리였다.

《이 보호주머니도 광산에서 해결해주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작업반에 있다가 나간 강순녀동무가 광산에 왔다가 그런 주머니를 지어보냈습니다.》

리선복은 깜짝 놀랐다. 차련실작업반원이라면 모른다. 공장에서 나간 강순녀의 소행이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돌광산에는 어찌하여 나가게 되였는가?

《그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차련실에게 다급히 물었다. 다른 로동자들도 일손을 멈추고 차련실에게 시선을 모았다.

차련실은 숨김없이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만수대언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곁에서 보내던 어느날 밤이였다. 맞은편에 서있는 사람들속에 강순녀도 있었다. 차련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밤 12시에 새로 나타난 사람들과 교대를 하고 초저녁부터 서있던 차련실네는 집으로 돌아갔다. 앞에서 걷고있던 강순녀를 발견하고 물었다.

《강순녀동무가 아니예요?》

돌아선 강순녀는 이쪽을 알아보고 반기였다.

《세포비서동무로구만요. 며칠전에 나는 먼발치에서 알아봤댔어요.》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순녀동무도 여러날째 왔댔나요?》

차련실은 놀라움을 가지고 물었다. 그 놀라움이 강순녀를 대바람에 격분시켰다.

《왜 나같은 사람은 만수대에 오면 안되나요?》

만일 이쪽에서 한마디라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면 강순녀는 당장 일을 칠 기색이였다.

차련실은 미소를 그리며 공손히 응대했다.

《진작 만나지 못한게 아쉬워서 하는 말이예요. 며칠전에 나를 알아보았다는데 왜 찾지 않았나요?》

그제서야 강순녀는 성난 기색을 가시고 고개를 숙였다.

《난 사실 우리 공장사람들을 만날가봐 겁났댔어요.》

《어째서요?》

강순녀는 머리를 번쩍 드는데 두눈에서는 갑자기 예리한 빛이 떠올랐다.

《내가 어떤 녀자인가를 알고있으니까 그랬지요. 우리 공장사람들은 나와같이 어버이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지 못한 애꾸러기들때문에 그이께서 돌아가셨다고 의분을 가질것 아니나요.》

차련실은 그렇게 부르짖는 강순녀의 얼굴에 심한 자책의 빛이 떠오르는것을 보았다. 그리고 말끝마다 우리 공장이라고 했다. 그것은 은연중 그의 가슴에 공장에 대한 옛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건 동무 생각이예요. 작업반원들은 동무를 잊지 않고있어요. 나도 그렇고.》

《세포비서동무야 그렇겠지, 동무야 나때문에 무던히 애를 썼으

니까. 나는 우리 공장에서 퇴직을 한 후에도 세포비서동무 생각을 늘 하군 했어요.》

차련실은 전에없이 강순녀가 살뜰하게 느껴지는것을 의식했다. 그래서 작업반원들의 소식도 전하고 그간의 공장소식도 전했다.

차련실이 화강석광산에 나간지 며칠후였다.

강순녀가 방수포로 지은 큼직한 배낭을 지고 광산에 나타났다. 참으로 뜻밖이였다.

《어떻게 왔어요?》

그의 잔등에서 묵직한 배낭을 벗겨주며 차련실은 놀라서 물었다.

《광산에 온 세포비서동무를 도와주려고 왔지. 판석을 마련해주는 광산로동자들에게 후방사업을 좀 하려고 왔어. 이게 빵이야.》

강순녀는 불룩한 배낭을 툭툭 두드리며 히뭇이 웃었다.

《순녀동무, 고마워요.》

차련실은 삽시에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는 빈손으로 광산에 오다싶이 하였는데 강순녀가 빵을 한배낭 지고왔다. 그도 그렇지만 보다 기쁜것은 그의 인생전환을 보는것이였다.

강순녀가 차련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짐을 놓듯이 말했다.

《이 강순녀도 인간이라는걸 알아두라구.》

공손히 고개를 끄덕인 차련실이 물었다.

《그래 이 무거운걸 지고 평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다니… 이쪽으로 오는 자동차를 잡아타는것쯤은 손바닥 뒤집기네. 차잡이를 할줄 모르고야 돌아다닐수 있나.》

빵은 광산직맹위원장의 손을 거쳐서 판석을 가공하는 로동자들에게 전해지였다.

광산에는 영생구호를 새길 판석을 구하러 온 다른 기업소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나를 때 상하지 않도록 판석주머니를 마련해가지고 왔다. 차련실은 그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그가 안타까와하는것을 본 강순녀는 념려말라고 당부를 하고 평양으로 올라갔다. 사흘후에는 두툼히 천을 누빈 주머니들을 지어가지고 광산에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안전하게 판석을 날라올수 있었다.…

차련실의 이야기를 듣고난 작업반원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

다. 그들에게는 누구나 공장을 떠나는 강순녀를 원망했던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조직과 동지들의 권고를 듣지 않던 녀자가 그렇게 달라질수 있을가? 의혹을 가지는 녀자들도 더러 있었다.

리선복은 그들에게 명백히 말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후에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어요. 생전에 지지리 속을 태우던 자식들도 부모를 잃고는 철이 드는 법이예요.》

누가 소식을 전하였는지 직관원이 큼직한 붓과 빨간색칠감통을 들고 나타났다.

그가 화강석판석우에 정성스레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리선복은 공무직장장을 불러서 급히 22개의 정대와 망치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이날 밤 공장에서는 화강석판석에 글자를 새기는 전투가 벌어졌다. 차련실네 작업반원들과 공장지배인, 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이 참가했다. 정문에 걸려있던 천에 쓴 구호를 내리우고 화강석판석에 새긴 구호를 게시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화강석판석에 새겨진 이 신념의 구호는 세월의 눈비에도 변색을 모르고 공장로동자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이튿날 아침 출근을 하던 사람들은 잠시 정문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구호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입속으로 외워보느라면 자기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공명의 메아리가 울려나오는것을 경건한 감정으로 의식하게 되는것이였다.

정문의 맞은편 아빠트골목에 몸을 숨기고 오래도록 구호를 바라보는 녀인이 있었다. 그는 강순녀였다.

3

연구소에 최신형 현미경과 미생물배양용기들이 도착했다.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실험설비들이였다.

장연순은 그 설비들을 쓸어보며 눈물을 머금었다. 현미경과 유리용기들이 마치 생명과 넋을 가진 귀중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우리 함께 기어이 애기젖가루를 만들어내자.)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정녕 현미경과 미생물배양용기들이 연구소조의 성원들처럼 느껴졌다.

장연순은 며칠전에 대학으로부터 연구소로 완전히 적을 옮기였다.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 이동수속을 끝내고 강좌의 교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눌 때였다.

강좌장이 두툼한 책보자기를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내가 애기젖가루를 연구할 때 작성한 실험일지요. 비록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연구과정이였지만 선생에게 참고가 될거요. 나도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시도했던것만큼 착상에서는 선생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수 있소. 내가 이미 실험을 한 과정을 참고하면 선생이 그만큼 시간을 앞당길수 있을거요.》

《강좌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장연순은 감격했다. 과학자가 자기 연구결과를 남에게 넘겨준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한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고심어린 탐구의 노력이 깃들어있고 자기만이 발견한 소중한 결과가 담겨져있는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발효공학의 다른 주제를 연구할 때에도 강좌장선생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는 도로 찾아다가 보지. 아닌게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귀중한것도 없지 않소. 그러나 선생이야 내 제자가 아니요. 선생이 연구사업에서 성공하면 나는 교육자의 보람

과 긍지를 느끼게 될거요. 어서 가져다 참고하시오.》
장연순은 책보자기를 들고 강좌실을 나서며 되돌아보았다. 강좌장의 눈에 성공을 축원하는 간절한 빛이 어리여있었다.
선물설비를 전달받은 날 저녁 장연순은 집으로 갔다. 남편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싶었고 그에게 부탁할 일도 있었다. 탁아소에 들려서 딸애를 찾아가지고 집에 이르니 남편이 이미 와있었다.
책상에 마주앉은 최성호는 얼마나 자기 생각에 깊이 빠졌는지 방안에 안해와 딸애가 들어서는줄도 몰랐다. 어깨너머로 기웃해보니 수식이 복잡한 외국문도서를 펼쳐놓고있었다. 눈길을 벽쪽으로 겨눈것으로 보아 책의 내용에 심취된것이 아니라 자기 상념에 골똘하고있었다.
장연순은 살그머니 등뒤로 다가가서 두손으로 남편의 눈을 감쌌다.
그제서야 최성호는 흠칫 놀랐다.
순애가 까르르 웃음을 터치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누군지 맞혀봐요?》
《누구긴 누구겠니, 너의 엄마지.》
《어떻게 알아맞혔나?》
《아빠는 뒤머리에도 네 엄말 알아보는 눈이 있단다.》
순애는 무엇이 기쁜지 손벽을 치며 또다시 웃어댔다. 그 웃음이 단란하고 애틋한 감정을 불러왔다. 어른들도 마주보며 정겹게 웃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신형 현미경과 미생물배양용기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소?!》
놀라움과 경탄을 터친 성호는 사뭇 격동된 어조로 뒤를 이었다.
《당신은 참 행복한 과학자요. 어떻게 하나 그 은혜에 꼭 보답해야겠소.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선 내가 용서하지 않겠소.》
《좋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당신의 가혹한 처분을 받기 전에 나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거예요. 그런데 당신한테 한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요.》

연순은 말머리를 돌리며 남편의 낯색을 살폈다. 성호는 그 어떤 부탁이나 요구도 흔연히 받아들일 표정이였다. 연순은 서슴없이 말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단계에서 실험을 하겠어요. 그러자면 실험실구조를 좀 변경시켜야 하겠어요. 균배양장소도 새로 꾸리고 실험기구 세척장도 만들어야 하겠어요. 당신이 직접 설계를 하고 축조를 해주었으면 해요. 우리 연구소에는 그런 일을 할만 한 사람이 없어요.》

《벽돌과 세멘트는 있소?》

《그것도 없어요. 당신네 건설사업소에야 벽돌과 세멘트가 흔하지 않나요. 많은 량도 아닌데 당신이 노력해서 자재도 보장해주세요.》

《알겠소. 애기젖가루연구에 필요하다면 우리 일군들도 도와줄거요, 젖먹이손자들이 있는 할아버지들이니까.》

연순은 새삼스레 정겨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처럼 언제나 안해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살뜰한 남편이 또 어데 있을가?

《그런데 당신 어떻게 일찌기 집에 돌아왔어요?》

때늦게 그것이 생각나서 물었다.

《과학원 건설건재분원에 들렸다가 직장에 전화를 걸고 직방 집으로 왔소.》

《분원에는 왜 들렸댔나요?》

성호는 헌헌한 낯빛으로 대답했다.

《인제는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넘지 않소. 여태껏 현장기사로만 성실히 일을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래서 나도 나라에 유익한것을 한가지 연구하려고 결심했소.》

《언제부터 그런 결심을 했나요?》

연순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지금까지 남편이 연구사업에 몰두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당신이 애기젖가루연구에 착수한 후부터였소. 학교시절에 당신과 1, 2등을 다투던 경쟁심이 되살아나더란 말이요. 장연순이가 그처럼 중요한 연구사업을 하는데 이 최성호가 뒤져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소. 참, 생활의 타성이란 검질긴거요. 당신은 나의 안해이지만 어린시절처럼 여전히 나의 학술적경쟁자요.》

《그랬댔군요.》

연순은 조용히 뇌이였다. 부지중에 공부에서 성호를 따라앞서려고 애를 쓰던 학교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성호는 모든 학과목에서 한걸음 앞선 대상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쪽이 앞섰다고 할수 있다. 앞으로 자기네 부부의 남모르는 경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가? 두사람이 다 과학연구에 몰두한다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 남편의 과학연구사업이 나의 연구사업에 저애로 될지, 아니면 힘으로 될지 알수 없었다. 뜻밖의 남편의 고백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그래, 어떤 연구주제를 잡았나요?》

《지진을 고려한 고층건물의 기초와 골격구조에 대한 연구요. 지진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따금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요. 우리는 강한 지진피해에도 끄떡없는 초고층건물을 세워야 하오. 최근년간에 새롭게 해명된 충격론의 원리와 정보기술의 도움으로 그 어떤 구조물도 수학적모형화와 력학적계산이 가능하게 되였소. 나는 이에 토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초고층건축물설계리론을 창조하려고 하오.》

성호는 열기띤 음성으로 말했다. 남달리 우아한 얼굴에는 창조적열정이 번지였다. 연순은 내심 공감했다. 학술분야가 다르다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지향하는 연구과제의 륜곽은 짐작되였다. 참으로 의의가 큰 연구사업이다. 지진이 인류에게 끼치는 혹심한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의 파괴로부터 빚어지는것이다. 심한 지각의 흔들림에도 굳건히 서있는 건축물설계리론이 밝혀진다면 무서운 재난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잘 모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뜻깊은 연구주제를 잡은것 같군요. 그래, 건설건재분원에서는 어떤 립장인가요?》

《적극 지지했소. 내 연구과제가 실현되면 지진피해를 방지하는데서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요새화를 위해서도 의의가 크다고 했소. 말하자면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는데서도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는거요.》

《앞으로 그 연구과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과학원 건설건재분원에서는 자기네한테 와서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을 하라는거요. 그러나 나야 당장 그렇게 할수가 없지 않소.》
《어째서요?》
성호는 안해의 그 물음이 어처구니가 없는지 이마를 찌프리며 침묵했다.
《건설사업소에서 당신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나요?》
연순은 다시 따져물었다. 그러자 성호는 다소 역증스럽게 응대했다.
《사업소일군들은 설득시킬 자신이 있소. 그러나 우리 집 가정형편이 내 발목을 잡고있지 않소. 당신이 늘 실험실에 붙어있는데 나까지 집을 떠나 과학원분원에 나가있으면 순애는 어떻게 하겠소.》
듣고보니 사정은 참으로 딱했다.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것이 안해의 본분이라는 세태를 따라야 한다면 연순이가 연구사업을 포기하여야 했다. 그러나 그럴수는 없었다. 응당 자기가 맡아야 할 가정사를 남편에게 떠맡기는 자기의 처사가 한없이 괴롭고 죄스러웠다. 가정사정으로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할수 없는 남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울가? 과학자는 불타오르는 창조적사색과 탐구의 열정이 억제당할 때 형언못할 괴로움을 느낀다.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욕망이 거부될 때와는 대비가 안된다. 과학자의 그 류다른 체험세계를 연순은 잘 알고있었다.
《순애 아버지, 미안해요. 나같은 녀자와 가정을 이루다보니…》
연순은 목이 메여 뒤말을 번질수 없었다.
남편의 성난 음성이 울리였다.
《도대체 무슨 당치 않은 말을 하자는거요. 나는 당신과 같은 과학자를 안해로 맞은것을 언제나 자랑으로 여기고있소. 당신이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때까지 나는 집일과 순애를 돌보면서 착실히 문헌조사를 하겠소. 당신이 성공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겠소.》
《고마워요, 순애 아버지.》

연순은 북받치는 애정의 충동을 느끼였다. 만일 순애가 없다면 남편의 목을 담쑥 껴안고 애무의 열정을 퍼붓고싶었다. 이렇게 안해의 연구사업을 리해하여주고 뒤받침해주는 남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상싶었다.

복도에서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녀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이 집이 장연순선생 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연순은 큰소리로 대답하며 급히 전실로 나가서 문을 열었다.

이게 누군가? 열려진 문으로 들어서는 녀인은 어린이식료품공장 당비서 리선복이였다.

공장과 연구소는 울타리를 접하고있지만 소속이 다른 기관이였다. 리선복이 공장초급당소속 당원도 아닌 장연순의 집에 나타난것은 뜻밖이였다.

《비서동지가 어떻게 이 저녁에 우리 집에 왔습니까?》

연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나는 연구사선생의 연구사업과 가정생활에 관심을 가지면 안됩니까?》

《아니, 우리 집을 방문한것이 뜻밖이고 반가워서 하는 말입니다.》

장연순은 리선복을 방안으로 안내했다.

성호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리선복에게 인사를 했다.

《마침 순애 아버지도 계셨군요.》

리선복은 처음 인사를 나누지만 성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

《앉으십시오.》

장연순이 리선복에게 초물방석을 권했다.

세사람은 방안에 마주앉았다.

리선복은 손에 들고온 과자봉지를 순애한테 쥐여주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순애는 리선복을 《할머니.》라고 불렀다.

장연순은 저으기 당황한 낯빛이였다. 리선복은 영채로운 눈매며 주름 한점 없는 얼굴이며가 할머니로 불리운다면 섭섭해할 모습이였다.

《할머니가 아니라 큰어머니시다. 다시 인사를 올려라.》
장연순이 순애에게 깨우쳤다.
《둬두세요. 한달전에 맏딸을 시집보냈으니까 나도 명년쯤에는 할머니가 된답니다.》
리선복이 웃음진 얼굴로 말했다. 보기에는 중년녀인 같지만 실은 50대의 장년기에 살고있었다. 용모가 보기좋은 녀성들은 흔히 나이보다 젊어보이는 법이다.
《진작 연순선생네 집엘 한번 와보려고 했는데 걸음이 늦어졌습니다.》
장연순은 당비서의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들은바에 의하면 리선복은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의 생활에 관심이 크고 그들을 내세울줄 아는 당일군이였다. 인재를 귀중히 여기는것을 당일군의 의무로, 공민적자각으로 알고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시당에서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서 얻은 당사업경험을 가지고 토론도 하였다고 한다. 공장사람들은 리선복을 두고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시대의 당일군이라고 자랑을 한다.
《저는 공장종업원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돌려주어 고맙습니다.》
장연순은 진정을 말했다.
《전혀 련관이 없다 하더라도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도와주어야 해요. 더구나 어린이영양연구소의 연구사업이야 우리 공장의 래일을 위한 사업이 아니나요. 그래서 머지않아 공장에 전기, 증기단독선이 들어오면 연구소에서도 그 혜택을 받도록 하자고 해요.
연순선생, 우리 공장에서 선생의 연구사업을 위해 뭘 도와줄게 없겠어요?》
장연순은 머리를 소곳이 숙이며 침묵했다. 그 심정은 고맙지만 다른 기관의 당비서에게 그 무슨 도움을 청한다는것이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생각되였다.
머리우에서 리선복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나는 앞으로 연순선생에게서 식료공학과 관련된 학습을 방조받

으려고 해요. 내가 통신수업을 받을 때 등교를 하면 대학선생님들은 연순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자랑삼아 들려주군 했어요. 물론 주간생과 통신생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태도와 방법에서는 공통점이 있지요. 우리 통신생들은 녀대학생 장연순을 본보기로 알고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대학시절을 놓고보면 우리는 선후배관계예요. 선배인 선생은 후배인 나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비서동지의 과학기술학습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품앗이를 하는셈치고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는지 어서 말하세요.》

리선복은 상대가 자기의 속심을 헤쳐보이도록 대화를 이끌어갈줄 알았다. 다년간 사람과의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능력일것이다.

마침내 장연순은 기탄없이 말했다.

《연구실구조를 좀 변경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공장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벽돌축조로력이 한두명 필요합니다.》

《여보, 그거야 내가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성호가 화제에 끼여들었다.

연순은 당비서에게 사연을 설명했다.

《사실 처음은 나도 순애 아버지가 그 일을 해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순애 아버지는 건축공학분야의 중요한 학술적과제를 내세웠더군요.》

리선복은 알만 하다는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말했다.

《중요한 연구과제를 내세운 사람에게 누구나 할수 있는 벽돌축조를 맡겨서야 안되지요.

순애 아버지는 자기 연구사업에 전심하세요. 실험실구조변경은 우리 공장 건물보수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되자 장연순은 리선복을 친언니처럼 여기면서 가정의 리면사를 숨김없이 헤쳐보이였다. 가정사정에 발목이 잡혀서 남편이 과학원 건설건재분원에 나가서 연구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정도 이야기했다. 그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리

해가 깊은 당일군과 마주앉고보니 속에 품었던 심정을 기탄없이 터놓고싶었다.
조용히 들으며 일순 생각에 잠겼던 리선복이 머리를 들었다.
《듣고보니 과학연구에 몰두하는 부부의 생활에는 남모르는 고충이 있군요.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그는 량주의 얼굴을 번갈아보며 계속했다.
《순애는 동탁아소에서 우리 공장탁아소로 옮겨오세요. 공장탁아소는 밤에도 근무를 서는 보모들이 있기때문에 순애를 봐줄수 있어요. 탁아소가 연구소의 곁에 있기때문에 연순선생이 보고싶을 때면 언제든지 순애를 볼수 있을거예요. 순애 아버지가 연구사업에 동원되면 연순선생 식사문제가 걸리겠는데 내가 공장식당에서 세끼식사를 보장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가요?》
《그렇게만 해주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최성호가 벙글거리며 환성을 질렀다. 자기도 연구사업에 전심을 할수 있게 된것이 더없이 기뻤던것이다.
연순은 남편에게 눈을 흘기였다.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기뻐하기만 하는 그가 무례한것 같이 생각되였다.
《어째, 연순선생생각엔 그렇게 하면 불편할것 같애요?》
리선복이 물었다.
《아닙니다. 비서동지에게 너무 많은 수고를 끼치는것 같아서…》
《수고야 연구사업을 하는 선생들이 많지요. 앞으로 연순선생은 나의 식료공학학습이나 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은 딱딱한 실험대우에서 밤마다 눈을 붙이군 한다더군요. 이번에 실험실구조변경을 하면서 긴쏘파도 내 방에 있는걸 가져다놓도록 하겠어요.》
《비서동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방에 자주 출입하는 공장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자기네 당비서 쏘파까지 뺏아가는 렴치없는 녀자로 비난할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도 나처럼 선생의 연구사업을 도와주어야 하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거예요. 나같이 과학자, 기술자가 못된 사람들이 우리 당의 과학중시정책을 받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깨우쳐줄거란 말이예요.》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감동된 최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인사를 했다.

리선복도 따라일어서며 그의 손을 잡았다.

《연순선생뿐만아니라 순애 아버지도 연구사업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날이면 내가 도수높은걸 한병 들고와서 축배를 들겠어요.》

《기어이 성공하겠습니다.》

최성호는 목메여 응대했다.

장연순이 저녁식사를 하고가라고 하였으나 리선복은 그예 사양하고 집을 나섰다.

주인내외는 순애의 손목을 잡고 아빠트현관앞까지 따라나왔다. 밖에는 달빛이 휘황했다. 둥근달이 동녘하늘에 높이 솟았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세요. 시간이 귀중한 선생들인데…》

리선복이 돌아섰다.

장연순이 순애에게 깨우쳤다.

《큰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인사를 올려라.》

순애는 두팔을 치마혼솔에 얌전히 드리우고 리선복에게 허리를 굽혔다.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큰어머님이라고 부르라는데 또 할머니니?…》

장연순이 순애를 꾸짖었다.

《우리 반 애들이 모두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고 했어.》

순애는 뾰로통해서 항변했다.

리선복이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머니가 더 좋지. 순애야, 이제 할머니네 공장 탁아소로 오너라. 그러면 이 할머니도 너를 종종 보러 가겠다.》

순애는 방글거리며 손벽을 쳤다. 어린것의 박수소리가 어른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흔들며 달빛푸른 공간으로 울리여갔다.

4

며칠전에 100일중앙추모회가 열리였다. 그 행사까지 참가한 문명자는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석달동안이나 평양에 머물러있었다. 그동안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터뜨렸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낱낱이 꿰뚫어보았다.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공장들과 농촌들,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문화예술기관들도 돌아보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00일중앙추모회가 열린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이것은 이제부터 조국이 나아갈 정치좌표를 세계에 공포한 정치강령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주석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를 감회깊이 회고하고 이렇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문명자는 이 구절을 몇번이나 곱씹어 읽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로 조국의 현실에 커다란 공백이 생길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예상이 빗나간것이였다는것을 심각히 깨달았다. 그것이 좀체로 리해되지 않았다. 령도자가 교체되면 어차피 정치적변화가 있기 마련이라는 기존의 력사와 정치상식이 조국에서는 부정되고있었다. 이것은 세계정치사에 류례가 없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렇게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

성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생존하였을 때나 서거하신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석님의 전사라고 생각하고계신다. 그 숭고하신 도덕의리심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진다. 참으로 주석님께 조금의 사심도 없이 량심과 의리를 다해 충직하여오신 장군님께서만이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자신의 정치강령으로 내세울수 있는것이다. 조국인민들은 **김정일**장군님을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분이라고 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듯싶었다.

문명자는 이번 방문기간에 **김정일**장군님과 조국현실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게 되였다. 하면서도 그는 북에 사는 동포들의 정신세계의 깊이를 알수 없었다. 생활은 어렵고 좀처럼 펴이지 않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거나 없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는가. 그런데도 누구 하나 주눅이 들지 않고있다.

그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김일성**주석님의 령전과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에 하직인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무슨 사정때문인지 안내원은 김정숙어머님동상부터 찾아뵙자고 하였다. 그래서 정히 꽃다발을 준비한 문명자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았다. 주작봉마루에 모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 서고보니 생각이 깊었다. 전에도 찾아뵈운적이 있었지만 주석님서거후에는 처음이다.

문명자는 몇해전 조국에 왔을 때 항일의 녀투사 몇명을 취재한 일이 있었다. 그들에게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회고록을 읽으면서 녀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 그처럼 고생스레 성장하였고 그처럼 항일의 혈전장에서 갖은 난관을 다 겪었지만 해방후 몇년밖에 생존하지 못하고 너무나 일찌기 돌아가신 어머님이시였다. 고생만 하시다가 락을 보지 못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절통함을 금할수 없었다. 문명자는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였다.

문명자는 경건한 표정으로 오래도록 서있다가 자리를 떴다.

그는 그길로 금수산의사당으로 갔다. 그곳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

며 주석님이 계시는 방으로 올라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붉은기를 덮고 조용히 누워계시였다.

얼핏 방안을 둘러보니 두해전에 주석님을 만나뵙던 바로 그 방이였다. 문명자는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솟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고 정중히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였다.

방을 나섰을 때 문명자는 오열을 터치였다. 비행기에 올라서도 내처 눈물을 쏟았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것은 그 다음날 오후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점잖게 차려입은 사나이들이 귀빈이라도 맞이하듯 례절있게 옹위하여 이렇게 말했다.

《클린톤대통령각하께서 문녀사가 도착하는 즉시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문명자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다. 전에도 이따금 출입을 한바있는 백악관이였다. 여러 검문소를 거쳐서 대통령의 방으로 안내되였다. 커다란 책상을 마주하고 무엇인가를 분주히 쓰고 있던 클린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인사를 나눈 다음 그들은 원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금발머리 녀서기가 커피를 날라다놓고 물러갔다. 문명자는 자기앞에 놓인 커피잔을 들고나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러자 클린톤이 문명자에게 물음을 던졌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평양에 오래 체류했습니까?》

《100일중앙추모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쉽게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각하도 아다싶이 저야 조선사람이 아닙니까.》

《오래동안 체류한것만큼 조선의 형편을 여러모로 깊이 파악했겠습니다?》

클린톤의 파란 눈동자에 기대어린 빛이 가해졌다.

《나는 이번에 조선이 어떤 나라이고 조선인민이 어떤 인민인지를 다소나마 알게 된듯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는 북조선의 실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절박하기때문에 문녀사가 려장도 풀기 전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회담소식은 알고있습니까?》

《알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서거로 제3단계조미회담은 일시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의 핵문제를 놓고 조미간의 외교적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이 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회담은 평양에서 영결식이 있은 후 제네바에서 재개되였다. 외교부 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측은 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는 흑연감속로들을 페쇄하고 담보협정에 조인할 용의를 보이면서 미국측에 경수로건설과 그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전력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대용에네르기를 제공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누구에게나 응당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제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었다.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조차 이렇게 썼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있는 제3단계 미조고관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흑연감속로로부터 경수로에로 전면전환제안을 한것은 핵문제해결을 위해 대담하게 선손을 쓴것으로서 교섭의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새 체계에로의 이행기에 있는 북조선의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것을 노린 주도세밀한 전술인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흑연감속로의 페기만을 주장해오던 미국측으로서는 평양의 새로운 제안이 전혀 예상밖이여서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측은 조선의 핵시설들에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위협도 해보고 자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로 끌고가서 제재결의를 채택하겠다고 을러메기도 하였지만 평양은 그럴수록 강경한 자세로 나왔다. 그 어떤 위협과 공갈도 조선에는 통하지 않았다. 두뇌가 명석한 조선사람들에게 외교적권모술수는 더욱 통하지 않았다. 마침내 조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그런데 조선은 그 합의문이 실행의 법적담보가 없다는것을 꿰뚫어보고 미국대통령의 담보서를 요구해왔다. 담보서를 쓴다는것이 세계《유일초대국》 대통령으로서는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미핵대결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는 항복서와 같은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클린톤은 대조선정책에서 두가지선택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하나는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켜서 군사적으로 북조선을 제압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붕괴시키는것이다. 두

가지 선택중에서 어느것이 합리적이고 가능할것인가?

클린톤은 문명자에게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김일성**주석서거후에 평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도 평양으로 떠날 때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위인을 잃게 되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는것만큼 조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백이 있을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지에 가보니 아무런 공백도 없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주석님생존시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다만 주석님을 잃은 슬픔으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있었을뿐이였습니다.

평양에서 100일중앙추모회가 있은 그날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였습니다. 이 담화의 제명이 말해주다싶이 조선은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가려고 합니다.》

《조선의 민심은 어떻소? 당신이 보고 느낀바대로 솔직히 말해보시오.》

클린톤은 생활이 어려운것만큼 인민들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문명자는 그의 내심을 꿰뚫어보면서 대답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주석서거후에 조선사람들은 **김정일**장군님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치고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발하고있습니다. 나는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았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직장을 일시 떠났던 사람들도 주석님서거후에 다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대통령각하도 주석님서거후에 평양에서 벌어진 추도행사들을 텔레비죤으로 보셨겠지요?》

《우리 씨엔엔이 직접 생방을 했으니까 나도 보았소.》

《그 화폭들이 조선민중의 정신도덕상태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화폭들을 보고 놀랐소. 력사에 그 어느 국가수반이 돌아갔을 때에도 조선사람들처럼 한사람같이 눈물을 쏟고 통곡을 터뜨린적은 없었소.》

《그렇더군요. 조선민중처럼 자기 수령과 자기 령도자를 진심으로 흠모하면서 그 두리에 굳게 뭉친 민중은 이 세상에 없는줄로 압니다. 나는 수해지역에 나갔다가 감동적인 하나의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집안에 홍수가 쓸어들기 시작하자 한 로인은 방안에 모셨던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를 비닐보자기에 정히 싸서 가슴에 품고 나무우에 올랐습니다. 그는 사흘동안이나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면서도 초상화를 지켜냈습니다.》

《사실이요?》

클린톤은 놀라움과 의혹에 잠기였다.

《저에게는 그 로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요.》

《조선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클린톤은 일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나는 조선의 경제사정이 심히 악화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실상은 어떻소?》

《식량사정도 어렵고 공장, 기업소들도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건 군수공장들이요?》

《제가 직접 돌아본것은 어린이식료품공장이였습니다.》

문명자는 그 공장에 가서 보고 들은대로 **김정일**장군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하여 콩우유생산이 정상화되여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매일같이 공급되는데 대해 알리고 계속했다.

《평양거리에는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로 달리는 콩우유차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차체에 〈콩우유〉라고 써붙인 그 차들은 네거리교차점도 남먼저 통과하고 차량통과가 제한된 도로로도 통과합니다.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학생들과 어린이들만은 배불리 먹으면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습니다.》

《조선은 리해할수 없는 신비로운 나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재임기간엔 제일 큰 골치거리거던.》

클린톤은 맥없이 중얼거렸다.

×

대통령의 방에 부대통령,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안보담당보좌관 등이 모였다. 이를테면 북미합중국정계의 최고위급인물들이 모인셈이다.

클린톤은 좌중을 둘러보며 자못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을 모이라고 한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대조선전략을 론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랭전종식후 우리 미국의 대외전략실현에서 가장 저애로 되는 실체는 조선이며 가장 위험한 도전자도 조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사회주의체계를 붕괴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최대의 고심을 경주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3단계 미조고위급회담에서 평양은 새로운 경수로제안을 내놓고 그 제안실현의 담보를 요구하여왔습니다. 말하자면 경수로건설과 에네르기보상을 위한 자금을 우리의 동맹국들인 일본이나 한국이 분담하는것을 미덥지 못한것으로 여기면서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을 나의 명의로 담보하라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를 의논하려고 합니다. 의견들을 말해주시오.》

부대통령이 일어나서 격노한 어조로 말했다.

《세계유일초대국인 우리가 조선의 요구에 순종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경수로건설과 대용에네르기제공에 필요한 자금도 엄청나지만 대통령각하의 이름으로 그 무슨 담보를 한다는것은 세계면전에서 심히 부끄러운 일로 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체면에 커다란 손상을 주는것으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켜서 조선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현정세로 보아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여있습니다.

대통령각하, 제네바에 가있는 갈루치에게 급히 지시하십시오. 조선측이 지금처럼 나오면 전쟁으로 대답하겠다고 위협을 하도록 말입

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로 하여 정치적안정이 흔들릴수 있는 조선과 전쟁을 하자면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클린톤은 난색을 지어보이며 응대했다.

《갈루치는 바보가 아니라 유능한 외교관입니다. 그는 이미 회담과정에 그러한 위협도 하여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조선측은 전쟁을 할테면 하자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전쟁은 승산이 있을 때에만 할수 있는 마지막선택입니다. 서뿔리 결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신예무장장비를 갖춘 우리 미군이 조선군을 타승할수 없다는것입니까?》

부대통령은 어림없다는 식으로 나왔다.

클린톤은 국방장관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설명해보시오.》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부대통령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스쳐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군부의 두뇌진은 얼마전에 콤퓨터에 의한 조선과의 모의전쟁을 실험하였습니다. 물론 미군뿐아니라 동맹국들의 군대까지 합세한 력량으로 타격할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인적 및 물적손실이 상상할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분야에 힘을 기울여온 조선의 국방력은 최강으로 치닫고있습니다.》

클린톤이 그의 말에 발을 달았다.

《군사적제압은 가슴후련할 선택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펜타곤의 콤퓨터모의전쟁에는 조선의 위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입력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그 내막을 깊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신비의 나라입니다. 참으로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리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클린톤은 말끝을 맺으며 한숨을 쉬였다. 그로서도 조선을 마음내키는대로 전쟁으로 붕괴시킬수 없는것이 안타깝고 한스러웠다.

장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치며 정보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쏘련과 동유럽공산권나라들의 체계를 허물어버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그 경험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주석서거이후에 조선민중은 자기 수뇌부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생활난을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은 조금도 없이 더욱 깊이 신뢰하고있습니다.》

부대통령은 국방장관과 정보국장을 번갈아보더니 심기가 불편한듯 신경질적으로 좌중에 반문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도대체 조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겁니까?》

클린톤이 그늘진 낯색으로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다면 나는 대통령을 해먹기가 쉽겠습니다.》

모두가 고심어린 침울한 낯색이였다.

이윽하여 국방장관이 조심스레 침묵을 깨쳤다.

《제네바에 가있는 갈루치도 조선측과 마주앉은 지금이 자기의 외교활동에서 가장 난감하고 불행스러운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담을 그만두고 나앉으면 조선의 핵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는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과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측이 흑연감속로가동을 중지할 의향을 표시한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경수로건설과 대용에네르기제공부담을 짊어지는것도 아닙니다. 그중 많은 몫을 한국과 일본에 분담시킬수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순진하게도 **김일성**주석서거로 조선이 예상밖으로 빨리 무너질수 있다고 여기고있습니다. 그는 경수로건설이 끝나기 전에 흡수통일이 가능하다고 여기는것만큼 많은 부담을 지워도 군소리가 없을것입니다. 일본도 조선의 핵위협을 심히 두려워하기때문에 자금분담을 받아물것입니다.

우리 국방성은 현시점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조선측에 담보를 주는 것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봅니다.》

클린톤은 다소 놀란듯 한 기색으로 국방장관을 피끗 바라보았으나 자신으로서도 어쩔수 없는듯 눈시울을 내려깔았다.

또다시 방안에 침울한 공기가 서리였다.

《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클린톤은 국회 상하원 의장들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국회에서도 국방성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의장들은 서로 마주볼뿐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오늘모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클린톤은 그날밤 잠들지 못하고 고심했다. 이튿날 아침 백악관에 출근을 한 그는 어쩔수없이 펜을 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건설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1994년 10월 20일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5

만수대창작사는 환희로 설레였다. 지방에 나간 돌격대가 마침내 원석을 채취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왔던것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며칠 앞둔 이즈막이였다. 리수환사장은 이해안으로 원석을 날라올 결심이였다. 대형견인차와 기중기차들이 보장되자 지체없이 현지로 떠났다. 리수환은 승용차로 먼저 달려갔다. 한시바삐 돌격대원들을 축하해주고싶었다. 지나온 나날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난관은 헤아릴 길이 없었다. 무인지경의 산중에 천막을 치고 겨울을 맞이한 그들은 어느 하루도 따뜻한 잠자리에 들어보지 못했다. 온기를 잡아두지 못하는 천막안은 바깥날씨가 하자는대로 실내온도가 령도이하로 떨어졌다. 그속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잤다. 채석장까지 전기선을 늘이고 도로를 닦는 나날에 돌격대원들은 참으로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박토를 하고 원석을 캐는 과정은 또 얼마나 간고했던가. 돌격대원들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듯이 원석으로 될만 한 대리석은 지심깊이 정체를 감추고있었다. 이번에야! 하고 품을 들여서 캐여냈지만 번번이 실패였다. 참담한 실패의 소식이 전해져올 때마다 리수환은 조바심에 모대겼다. 늦어도 한달이내에 원석을 캐지 못한다면?… 섬찍한 충격이 가슴을 쳤다. 이미 8번이나 실패를 했다. 다음이나 그 다음에 성공하리라는 담보는 없다.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었다. 피할길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선 자신을 의식하며 리수환은 말했다.

《내 다시한번 현지에 가보고 와서 결심합시다.》

그날로 채석장에 달려나갔다. 떠날 때에는 여러번의 실패에 돌격대원들이 떡심이 풀려서 손맥을 놓고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락관에 넘쳐있었다.

로태심은 말했다.

《사장선생, 너무 걱정하지 마시우. 우리는 기어이 여기서 필요

한 원석을 캐여내겠수다. 조국산천의 정기를 한몸에 지니신 우리 수령님이신데 어찌 그 산천에 금수산기념궁전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리석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부족해서 쉬이 드러나지 않을뿐이지요.》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다. 돌격대가 여기에 도착한 첫날에 그가 이미 말하였다. 현실적으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사실도 발견했다. 점점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덩지가 크고 질이 좋은 대리석이 나왔다. 돌격대원들은 이제 한두번만 더 캐느라면 필요한 규격과 재질을 가진 대리석이 나온다고 확신했다.

리수환은 그들의 확신을 긍정하고 창작사로 돌아왔다. 그것이 20일전의 일이였다. 그 나날은 하루가 열흘맞잡이였다. 어찌될것인가? 운명적인 기대와 불안속에 흘러간 나날이였다. 그런데 드디여 성공을 하였다니 가슴이 터질듯이 기뻤다.

《운전사동무, 좀 빨리 갑시다.》

젊은 운전사를 독촉했다. 제 눈으로 원석을 한시바삐 보고싶은 욕망이 불같이 치밀었다.

길바닥에는 엷게 눈이 깔렸다. 그러나 여러번 오고간 낯익은 길이여서 운전사는 쾌속으로 차를 몰았다.

채석장에 이르자 돌격대원들이 반겨맞이했다. 리수환은 그들과 함께 캐여놓은 원석을 돌아보았다. 집채같은 대리석바위가 은근한 회백색을 뿜으며 눈앞에 솟았다. 터슬터슬한 너설을 애무하듯 쓰다듬었다. 크기와 색갈로 보아 원석으로 나무랄데가 없었다. 마음같아서는 두팔 벌려 부여안고 번쩍 들어올리며 환성을 터치고싶었다.

《우린 어제께 이 돌을 캐여놓고 만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곁에 선 돌격대장의 말이였다. 그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리수환도 같은 심정이다. 참말이지 울고싶다. 지금의 기쁨을 눈물의 언어가 아니고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것 같았다. 젖어드는 눈시울을 슴벅이며 돌격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싶었으나 물기어린 음성은 목밑으로 잠겨버렸다.

×

그날 저녁이였다.

돌격대원들은 여느날보다 일찌기 잠자리에 들었다. 래일의 긴장한 작업을 위해 잠을 푹 자야 했다. 100여톤이 넘는 돌을 평양까지 날라가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창작사의 정수만부사장이 래일 아침 현지에 도착하기로 되여있었다. 군당책임비서도 온다는 련락이 왔다. 그만큼 돌을 실어나르는 일은 커다란 관심사였다.

돌격대원들은 인차 잠에 들었다. 푸짐한 돼지고기국에 저녁식사를 했었다. 그러니 포만감에 단잠을 청할수밖에 없었다. 밖에서는 윙— 윙— 바람소리가 울리였다. 거기에 화답하듯 천막안에서는 드렁드렁 코고는 소리가 높아갔다.

하지만 리수환은 잠들수 없었다. 래일 모든 일이 무사히 되겠는지… 책임일군으로 의례히 품게 되는 근심이 잠을 앗아갔다. 그의 곁에 나란히 누운 로태심도 잠들지 못했다. 원석을 추레라에 싣는 작업은 그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 평생 연공으로 살아오지만 여적 그렇게 큰 돌을 다루어본 일은 없었다.

《사장선생.》

귀속말로 조용히 불렀다.

리수환이 그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없는 눈길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래일 돌머리를 드는 1번기중기는 우리 로친이 타게 해줄수 없을가요?》

《그렇게 합시다.》

리수환은 선선히 수긍했다. 이미 실패한 돌들을 옮길 때에도 1번기중기는 서분옥이 운전을 했다고 한다. 애젊은 처녀운전공은 기능이 어렸다. 그도 그렇지만 서분옥은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순간에 남편의 의도를 륙감으로 알아맞힌다고 한다.

로태심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로친한테 가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겠수다.》

리수환은 천막밖으로 나가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그리였다.

먼저번에 내려왔을 때 로태심은 기탄없이 자기 생활의 지나온 경위를 들려주었다. 특별히 극적인것은 평양역에서 서분옥과 눈물겨운 작별을 한 후의 생활이였다.

…로태심은 원동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조국을 잊을수 없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애달픔이 가슴을 찢었다. 평양역에서 손저어바래주던 처녀의 모습이 한시도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간이 마르고 살이 내리였다. 병석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갔다. 장례를 치르고난 로태심은 다시 조국으로 갈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국적을 바꾼다는것이 보통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였다. 언제까지 앉아서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서분옥의 얼굴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우선 조국으로 가고보자.

려권수속을 하고난 로태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자기의 결심을 피력했다. 계모와 동생의 눈물겨운 바래움을 받으며 그처럼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평양화력발전소건설장에 다시 나타난 그를 보는 서분옥의 놀라움과 기쁨은 말할수없이 컸다. 잃어진 첫사랑의 애달픔에 가슴을 태우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전처럼 함께 일을 했다. 연공총각과 기중기운전공처녀의 기이한 사랑의 이야기는 온 건설장에 퍼졌다. 하루는 소문을 듣고 내무원이 로태심을 찾아왔다.

《동무는 어디까지나 쏘련공민이요. 동무의 심정을 리해할수는 있지만 허용할수는 없습니다. 사증기일이 되면 쏘련으로 돌아가시오. 여차하면 동무때문에 두나라관계에 영향이 미칠수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처녀와 다시 리별을 한다면 미쳐버릴것 같았다. 나중에야 어찌되든 서분옥과 시선을 맞추며 연공작업을 하는 황홀한 즐거움을 잃고싶지 않았다. 계속 건설장에 남아있었다. 비극적인 결렬을 예감할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열렬하게 불타올랐다. 설명할 길없는 비장한 감정이 두 청춘의 가슴을 지배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건설장에 나오시였다.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로태심과 서분옥이 함께 일을 하는 작업장에도 들리시였다. 그들은 천정트라스를 마지막단계에서 조립하고있었다. 대견스레 그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연공과 기중기운전공이 어쩌면 그렇게 손발을 잘 맞추는지 놀랍다고 하시였다. 건설장의 책임일군이 그들의 남다른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로태심과 서분옥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였다.

《국적을 무시한 동무들의 사랑을 어쩌면 좋을가?》

두 청춘남녀를 번갈아보며 빙긋이 웃으시였다. 총각은 죄라도 지은듯이 머리를 숙이였으나 처녀는 주저없이 말씀드렸다.

《수령님, 이 동무를 조국에 남아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어째, 헤여져서는 못살것 같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처녀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 용기에 놀라듯 총각은 피끗 처녀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이런 처녀를 평양에 두고 갔으니까 총각이 다시 국경을 넘어 조국으로 왔구만.》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헌헌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 연공동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건설장책임일군의 말이였다.

《조국은 진정 어머니품이요. 마음같아서는 해외에 흩어져사는 동포들을 모두 데려다 함께 살고싶소.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말해주지.》

수령님께서 여전히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한주일후였다. 로태심에게 국적바꿈이 허용되였다는 소식이 왔다. 그날로 공민증수속을 하였다.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두번다시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었다. 처음으로 수여받는 조국의 공민증에 결혼등록도 하였다.

그날밤 로태심과 서분옥은 감격의 눈물속에 보통강반을 거닐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마와서 하염없이 울었다. 인차 가

정을 이룬 그들부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았다. 사랑의 행복속에 전보다 더 일을 잘했다. 화력발전소건설이 완공되였을 때 그들부부는 높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로태심이 만수대창작사로 소환되여온것은 1970년대초였다. 창작사에 유능한 연공이 필요했던것이다. 지나친 고집때문에 종종 비판도 받았지만 그의 재능과 헌신성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었다.

지난 7월의 비통하던 나날에 그들량주는 련사흘 만수대언덕의 동상앞을 떠나지 않고 통곡을 터뜨렸다. 동상을 우러러 수령님을 부르며 그들이 뿌린 피눈물에는 남다른 추억이 실려있었다.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여러날 동상앞을 떠나지 않았던 그들량주는 그만 졸도해버렸다. 그들은 주변에 전개된 구급치료소로 실려갔다. 급히 작성된 병력서에는 《무길남151》, 《무길녀211》로 그들이 올라있었다. 구급치료소에 동원되였던 어느 의사의 지혜인지는 알수 없었다. 당시의 다급한 정황이 그런 지혜를 낳았을것이다.…

리수환은 이런 과거를 가지고있는 그들량주가 대리석원석을 채취하는 이번 일에 어떤 심정으로 참가하고있는지를 알고있다.

그런데 로친을 찾아간 로태심이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가? 그가 천막을 나선지도 한시간이 넘었다. 서분옥이 채석장에 온 후로 그들은 매일 만날것이다. 이 저녁에 특별히 정깊은 이야기를 길게 나눌것도 없을것이다. 아무튼 그들부부처럼 다정한 사이는 흔치 않을것이다. 입가에 따뜻한 웃음이 저절로 번지였다. 또다시 퍼그나 기다려서야 로태심이 나타났다.

《로친을 만나서 무슨 잔사정이 그리 길었습니까?》

리수환은 웃음진 얼굴로 물었다.

《함께 원석을 돌아보면서 래일 일을 어떻게 꾸밀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로태심은 솜옷을 벗고 자리에 눕더니 속삭이듯 계속했다.

《로친이 래일 일을 벌릴 때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할수는 없다면서 그리로 끌고갔지요. 미리 깨우쳐줄것을 말해주겠다는거지요. 아니할 말로 우리 로친은 나보다 궁냥이 트인 작업방법을 내놓는 때가 있수다. 내 여태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 한 기념비적

탑을 올릴 때에도 로친이 뒤에서 남모르게 한몫 했수다. 그 사람이 현지에 나와 보고 여러가지로 귀띔을 하여주었기때문에 내가 수월히 탑을 들어올릴수 있었지요.》

리수환은 그에게로 돌아누웠다. 느슨한 미소가 흐르는 로태심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 탑을 들어올린 공법은 국제기술전시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 공법의 발명자로 로태심만을 알고있었다. 거기에 서분옥의 지혜가 안받침되여있다는것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그때 받은 발명권증서에 로동무만이 아니라 부인의 이름도 함께 올려야 하는걸 그랬습니다.》

《나는 진작 그럴 생각이였수다. 그런데 로친이 한사코 반대를 하는통에 일이 좀 공정치 못하게 됐수다.》

로태심은 시뭇이 웃었다. 그 웃음에 마누라에 대한 애틋한 정과 은근한 자랑이 비꼈다.

《그래, 래일일은 의논이 잘되였습니까?》

《글쎄요. 의논은 했지만 하도 덩지가 큰 돌이다보니 상차를 할 때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로태심의 얼굴에 어느새 웃음이 가셔지고 긴장한 빛이 떠올랐다. 그로서도 평생 처음 다루어보는 중량물이다보니 장담을 할수가 없는 모양이다. 그들은 동시에 집채같은 대리석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래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었다.

밖에서는 칼바람에 뒤채는 나무가지의 새된 울음소리가 아츠럽게 울리였다.

6

넉대의 기중기가 원석두리에 서있었다. 두대는 자동차기중기였다. 기중기의 쇠바줄끝에 매달린 갈구리들이 흐느적이며 서로 부딪쳤다. 무언의 약속이라도 하는듯싶었다. 어느 한대의 기중기라도 작업을 할 때 힘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수 있었다. 운

전공들의 얼굴에 긴장이 흘렀다. 1번기중기에는 처녀운전공을 대신하여 서분옥이 올랐다. 그는 줄곧 남편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로태심은 연공들에게 원석의 어디어디에 쇠바줄을 걸라고 지시했다. 젊은 연공은 오래동안 신고를 하면서도 쇠바줄을 자기 위치에 걸지 못했다.

《시라소니같은 녀석, 비켜라!》

로태심은 욕설을 퍼부으며 청년의 일손을 자기가 잡았다. 역시 오랜 연공의 솜씨는 놀라왔다. 어떻게 조화를 부리는지 팔뚝같은 쇠바줄이 나긋나긋하게 바위에 감겼다. 손을 털고 일어선 그는 다른 연공들이 건 쇠바줄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로동무, 한번 들어보지 않겠소?》

리수환이 물었다.

로태심은 숨을 몰아쉴뿐 대답이 없었다.

모여선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며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했다. 초조와 불안이 무겁게 실린 침묵이 흘렀다. 모두는 로태심에게 눈길을 모았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바위옆에 굳어져버린듯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결심을 내리기가 주저되는 모양이다. 원석을 들었다가 떨구어버리는 날이면 크게 손상을 입을수 있었다. 여차하면 깨여져버릴수도 있다. 그 후과를 만회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듯 미타한 기색이였다. 언제 기중기에서 내려왔는지 서분옥이 그의 곁에 나타났다. 말없는 시선이 마주쳤다. 하더니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버럭더미뒤로 사라졌다. 단 대목에 와서 이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사라진쪽을 바라보며 눈을 슴벅이였다.

긴장이 흐르던 작업장에 때아닌 웃음이 번지였다.

《조용들 하시오. 로동무는 로친의 조언을 듣기 위해 자리를 피한거요.》

리수환은 들은 소리가 있었던지라 나름대로 그렇게 두둔했다.

로태심은 로친과 함께 인차 돌아왔다. 약간 붉어진듯 한 그의 얼굴에 엄숙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자기에게 쏠리는 의아한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위세계를 망각하고 자감상태에라도 빠져버린듯싶었다. 기중기들의 위치와 원석에 걸린 쇠바줄을 다시한번 가

늠해보더니 허리에 손을 짚고 입을 열었다.

《2번기중기는 20센치, 3번기중기는 30센치 각각 뒤로 물러서시오. 그리고 원석 오른쪽쇠바줄은 다시 걸어야겠소. 지금보다 50센치 앞으로 당겨주시오.》

전에없이 담차고 결연한 어조였다. 작은 두눈에서는 예리한 빛이 뿜어졌다. 로친과 밀담을 나눈 후에 딴사람이라도 된듯 했다. 아무튼 그의 지시에 따라 기중기들이 움직이고 연공들이 쇠바줄을 다시 걸었다.

로태심은 원석우에 넝큼 뛰여올랐다. 그는 기중기갈구리들을 원석을 묶은 쇠바줄에 끼웠다. 이로써 상차작업의 준비는 끝난셈이다.

《기중기!》

로태심은 원석우에서 허리를 펴며 소리쳤다. 기중기운전공들이 그를 주시했다. 지휘자의 구령과 손짓에 따라 네명의 운전공이 동작과 호흡을 맞추어야 했다.

로태심은 높이 들어올렸던 오른팔로 허공을 후리며 구령을 내렸다.

《들어올렷!》

우렁찬 동음이 골짜기를 진감했다. 바싹 켕기운 쇠바줄들에서 현악기의 울림과도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중기들의 동체가 움씰거렸다. 땅밑에서도 그 무슨 소리가 나는듯 했다. 둘러선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숨을 멈추었다. 땅에서 거대한 원석이 자리를 떴다. 로태심은 그 상태에서 기중기들을 멈춰세우고 운전공들에게 주의사항을 말해주었다. 깨우침이 아니라 절반은 욕설이였다. 하지만 운전공들은 탓하지 않았다.

리수환은 로태심더러 돌우에서 내려와 지휘를 하라고 이르고싶었다. 위태로운 그의 모습이 가슴을 조였다. 하지만 그의 기상을 보고는 입을 열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면 용서치 않을상싶었다. 그는 원석과 함께 생사를 판가름할 결심을 가진것이 분명했다. 돌우에 높이 올라서면 운전공들과 시선을 마주치며 지휘를 더 잘할수 있을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땅우에 내려설 그가 아니였다.

로태심의 손짓에 따라 기중기들이 다시 쇠바줄을 감았다. 원석이

점점 높이 들리였다. 밑에서 바라보는 긴장한 시선들이 원석에 박혔다. 워낙 체소한 로태심은 허공에 떠오르며 더 작아져보이였다. 그러나 구령소리는 여전히 우렁찼다.

《추레라!》

견인차 두대가 끄는 대형추레라가 원석밑으로 들어왔다.

로태심은 서서히 손을 저었다. 조심스레 기중기들의 쇠바줄을 풀어달라는 뜻이였다. 조츰조츰 내려오던 원석의 밑굽이 마침내 추레라에 닿았다. 그 순간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사람들은 성공의 기쁨에 설레였다. 기중기운전공들이 땅우에 내려섰다.

그러나 로태심은 원석우에 풀썩 주저앉은채 움직일줄 몰랐다. 넋을 잃었는지 설레이는 사람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리수환은 급히 원석우로 올라갔다. 젊은 연공이 그의 뒤를 따랐다.

《로동무, 어찌된 일이요?》

《갑자기 자개바람이 일었는지 손발이 놀려지질 않수다.》

스스로도 이상스러운지 로태심은 의혹짙은 표정이였다. 그의 얼굴과 목에서는 줄줄이 땀이 흘렀다. 솜저고리의 앞가슴과 잔등에도 흥건히 땀발이 내뱄다. 그 땀발이 그가 겪은 마음의 긴장도를 말해주었다. 성공의 기쁨에 마음의 탕개가 풀리자 허탈에 빠져버린것이 분명했다.

리수환과 젊은이는 그를 부축하여 땅우에 내려놓았다.

서분옥이 다가왔다.

로태심은 겹질린 로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일없네. 마실걸 좀…》

서분옥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더니 머리를 저었다.

《없어요.》

그 대화에는 그들량주만이 아는 은밀한 뜻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찾는줄로 알았다. 누군가가 더운물을 가져왔다. 로태심은 목이 갈리기도 하여 물을 달게 마셨다. 그리고는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지간히 원기가 회복된 모양이다.

이날은 때이르게 푸짐한 점심을 치르었다.

정각 12시에 원석을 실은 일행이 평양을 향해 채석장을 떠났다.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견인차들이 끄는 추레라가 앞에 섰다. 그뒤로 한대의 뻐스와 두대의 승용차가 뒤따랐다.

로태심은 추레라에 올라 정황을 살피며 지휘를 했다. 채석장에서 20여리가량은 길이 험했다. 구배도 심하고 폭도 좁았다. 조금만 자칫하면 뒤집히던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질수 있었다. 한치한치 가슴을 조이며 전진했다. 어떤곳에서는 길바닥을 다시 닦아야 했다. 수십개에 달하는 추레라의 바퀴가 골고루 힘을 받지 못하면 터져나갈수 있었다. 마침내 포장도로가 멀리 보이였다.

그런데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끝내 사달이 났다. 구간이 10여메터가량 되는 다리가 있었다. 추레라의 앞머리가 다리에 들어서자 콩크리트바닥이 깨여지는 소리가 들렸다.

로태심은 자지러지게 호각을 불었다.

견인차들이 멈춰섰다. 모두가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원석의 무게를 감당할수 없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했다. 누구도 예견치 못했던 정황에 부닥쳤다. 이 길로 몇번 오간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다리가 있다는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구간이 좁은 다리여서 자동차로 지나간 사람들의 눈에는 잘 뜨이지 않았다.

어찌할것인가? 암담한 생각에 누구나 눈앞이 아뜩했다. 우회로를 닦자면 산탁을 까내야 하는 큰 공사를 벌려야 했다. 차라리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것이 나을수 있었다. 어느쪽이나 한달이상의 기일이 걸려야 했다. 그 무슨 다른 방도는 없을가? 의논들이 많았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어느새 다리밑을 깐깐히 살펴본 로태심이 나타났다.

《사장선생, 동발목을 촘촘히 세우면 될것 같수다.》

《가능할가요?》

리수환은 다급히 물었다. 캄캄하던 눈앞에 한가닥 희망의 빛발이 비껴오는듯 했다.

《다리로반은 다행 철근콩크리트로 되여있수다. 밑에서 잘 받쳐주기만 하면 견디여냅니다.》

묘안은 아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창

황중에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리수환은 새삼스레 미더운 눈길로 로태심을 바라보았다.

《동발목이 몇개나 있으면 될것 같습니까?》

《푼푼히 잡아서 직경 150미리짜리 20개정도 필요합니다.》

로태심은 나무의 받침힘이 얼마인지를 알고있었다.

리수환은 승용차를 타고 소재지로 떠나갔다. 군에서는 긴히 쓰려던 원목을 지체없이 화물차에 실어보냈다.

다리밑에 동발을 들이는 작업이 벌어졌다. 로태심이 위치를 정해주었다. 연공들이 얼음을 까고 물속에 들어서서 일을 했다. 갑자기 고무장화가 있을리 없었다. 솜신에 스며드는 찬물은 뼈속까지 얼구었다. 잠시후에는 감각을 잃었다. 밖에서 우등불을 피웠다. 일을 끝낸 연공들이 우등불두리에 모여앉아 발을 녹이였다. 젖어버린 신발을 신은채로 불을 쪼이던 로태심이 리수환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원석이 다리를 건늘 때 우리가 동발목을 붙잡고있어야 하겠수다. 로반이 움직이면서 동발목이 한대라도 자빠지면 랑패지요.》

리수환은 망설였다. 이 모험적인 제기를 승인해야 하는가? 원석에 눌리워 로반이 꺼지는 날이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그의 내심을 엿본 로태심이 다시 말했다.

《내 다 회계를 때려보고 동발을 들였수다. 동발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리가 무너질 걱정은 없어요.》

곁에서 듣고있던 연공들이 벌떡벌떡 일어섰다.

《우리 반장아바이 말대로 하도록 승인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것은 키가 꺽두룩한 부반장이다. 하지만 연공들 모두의 엄숙한 눈빛들이 그 목소리를 합치는듯 했다.

리수환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승인했다.

로태심은 로친한테 눈짓을 하더니 슬며시 강냉이짚무지뒤로 사라졌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변을 보러 가는줄로 알았다. 그런데 얼른 뻐스에 다녀온 서분옥이 다급히 그리로 갔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둘 때마다 남의 눈을 피해 만나는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기 그지없었다. 이번에는 로태심이 인차 돌아왔다.

《로친과 무슨 공론을 했소?》
리수환이 따져물었다.
《뭐 별로…》
로태심은 붉어진 덜미를 쓰다듬으며 돌아서버렸다. 그는 연공들을 데리고 다리밑으로 갔다. 맨 복판에 세운 동발 두개를 량팔에 껴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연공들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
《한사람이라도 겁에 질려서 동발목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겠네!》
돌격구령을 내리는 지휘관처럼 엄숙히 말했다.
《알았습니다!》
전투장에 나서는 병사의 웨침처럼 비장한 화답이 일제히 울리였다.
《건느라!》
로태심이 다리우를 향해 소리쳤다.
견인차들의 발동소리가 요란스레 들리였다. 다리로반이 움씰거렸다. 우적우적 부서지는 콩크리트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연공들의 눈앞을 가리웠다. 그 무엇이 끊어져나가는듯 한 굉음이 귀전을 때렸다. 동발목들이 강바닥에 박히며 로반이 낮아졌다. 금시 짓눌러버릴것같은 공포에 누군가가 비명을 터쳤다. 로태심은 그쪽으로 눈길을 날렸다. 자리를 피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에는 밖에서 다급한 웨침이 울렸다.
《멈춰세우고 다리밑에서 모두 나오라!》
로태심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연공들이 동발목에서 물러난다면 위불없이 로반이 꺼져내린다.
《거 어떤 놈이야! 계속 건너가라!》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었다.
멈칫했던 견인차들이 다시 움직였다. 무시무시한 파렬음이 계속되였다. 어쩌면 10여메터밖에 안되는 다리를 그리도 오래 건느는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순간순간은 10년맞잡이였다.
《속도를 높이라!》
로태심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견인차들의 동음이 높아졌다. 로반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콩크리트부스레기들이 연공들의 머리를 때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육체가 그대로 기둥이 되여 로반을 떠받들고있는 심정이였다.

마침내 추레라가 다리를 건넜다.

밖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그러나 연공들은 다리밑에서 나오지 않았다.

리수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급히 달려갔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다급히 물었다. 누구도 대답이 없었다. 극도의 긴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던 그들의 몸에 마비가 왔다는것을 깨달았다. 땀과 먼지에 읏죄여진 얼굴들, 깨문 아래입술에서 흐르는 피, 동발목을 껴안은채 굳어진 팔… 10여명의 그 군상은 그대로 헌신과 희생의 각오를 구가하는 생동한 조각상이였다. 그 어떤 예술가도 그처럼 처절하고 비장한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격적인 감동이 전신에 줄달음을 쳤다. 목이 메고 눈물이 솟았다.

뒤따라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다. 영문을 알게 된 그들이 연공들의 몸을 주무르고 안마를 했다. 그리고 동발목에서 팔을 풀었다. 수고들 하였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 범상한 치하는 오히려 무색하다는것을 알았다. 말없이 연공들을 부축하고 모두가 다리밑에서 나왔다.

모닥불두리에 둘러앉아 잠시 휴식을 했다. 연공들의 발에서 얼음물에 젖은 신발을 벗겨주었다. 평소라면 그들의 발에 동상이 올수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동상을 입지 않았다. 피부가 약간 불그스름했을뿐이다. 발이 시리다는 느낌을 모르리만큼 긴장했던 정신력이 동상을 물리쳤을것이다. 서분옥과 다른 젊은 녀자가 더운물과 빵을 연공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간단히 요기를 한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아까 다리밑에서 나오라고 어느 겁쟁이가 소리쳤소?》

로태심이 성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상대가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잡도리였다.

《이 겁쟁이가 너무 속이 떨려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소.》
맞은편에 앉은 리수환이 서슴없이 대답했다.
《사장선생이?…》
《난 틀림없는 겁쟁이였소.》
리수환은 진정을 고백하듯 숙연한 낯빛이였다.
로태심의 성난 표정이 송구스러움으로 바뀌였다.
《사장선생, 이거 안됐수다… 우리 창작사에서 사장선생에게 욕설을 퍼부은건 정 버릇이 없는 이 로태심뿐일거우다.》
《그래, 로동무가 버릇이야 없지.》
서로 마주보는 눈빛이 정겹게 얽히였다.
좌중에서 통쾌한 웃음이 터졌다. 오고간 대화로 보면 별로 우스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허리를 꺾으며 웃어댔다. 무사히 큰일을 치르고난 통쾌한 감정이 두사람의 대화를 계기로 웃음으로 북받쳤던것이다.
점점 높아가는 웃음소리가 눈덮인 들판으로 메아리쳐갔다.

×

이윽하여 행렬은 다리목을 떠났다. 포장도로에 들어서면서 로태심은 굳이 행군지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리수환은 그들부부를 자기의 승용차에 태웠다.
순탄한 도로를 달리지만 추레라의 속도는 빠르지 못했다. 마력수가 높은 견인차들이였지만 힘에 부쳤다.
오가던 사람들이 놀라운 눈길로 추레라에 실린 원석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큰 돌을 캐여서 나른다는것이 엄청나게 생각되였을것이다. 마주오던 자동차의 운전사들도 바위산이 통채로 움직이는듯 한 위용에 압도되여 조심스레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은 물론 그 대리석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몰랐다. 만일 알았더라면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일행을 바래웠을것이다.
리수환이 뒤좌석에 나란히 앉은 로태심부부에게 머리를 돌렸다.
《로동무.》

조용히 불렀다. 로태심은 피곤이 실려서 지그시 감았던 눈을 떴다.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동무는 남들의 눈을 피해 로친과 밀담을 하던데 거기에 무슨 쪼간이 있는게 아니요?》
로태심은 시뭇이 웃으며 로친과 시선을 마주쳤다. 서분옥은 정색해서 눈을 슬쩍 감았다 떴다. 절대로 발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신호였다.
《도대체 한순간씩 만나서 뭘했소?》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물었다.
《비밀에 붙여주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로태심에게 서분옥은 눈을 흘겼다.
《여보, 내가 상욕을 퍼부어도 나무람없는 사장선생한테야 무슨 일인들 숨기겠소.》
《내 언제까지나 비밀에 붙여주지요.》
리수환은 그들을 일별하며 선선히 수긍했다.
로태심은 건기침 한토막을 앞세우고 실토하기 시작했다.
《실은 로친이 담근 물약을 한고뿌씩 얻어마시군 했수다. 보통 일을 할 때와는 달리 어렵고 아슬아슬한 일을 할 때에 말이우다. 그게 한고뿌 들어가야 전에없던 담도 생기고 궁냥도 트이거던요. 헌데 남의 눈에 뜨이면 어찌되겠습니까. 남의 속내는 모르고 그처럼 중한 일에 무언가 처마시고 나선다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보니 그럴상싶었다.
《워낙 로동무야 술을 멀리 하는줄로 알고있는데…》
《그렇수다. 솔직한 말로 맥주는 좀 마셔도… 대신 그저 위험천만한 일에 부닥칠 때마다 로친이 만든 약을 조금 마시는 습관이 있어놔서…》
로태심의 말에 서분옥이 발을 달았다.
《별난 체질이다보니… 그 약은 심장을 보하는건데 약한 알콜에 푼것입니다. 령감이 술을 못하다나니 그걸 조금 마셔도 인차 담이 커지군 해요. 집에서도 어쩌다 심장이 뿌듯하면 쓰군 하댔습니다.》
서분옥은 부끄럼을 타며 조심히 말했다.
리수환은 저절로 웃음이 나갔다. 로태심에게 그런 체질적특성과

습관이 있을줄이야!

그들은 밤이 이슥해서야 창작사에 도착했다. 그때까지 적지 않은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원석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대형견인차들이 지축을 울리며 정문으로 들어서자 방마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촉수높은 야외등들이 대낮같이 사위를 밝혔다. 언제 준비를 하였는지 이름있는 미술가들이 차에서 내리는 돌격대원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금수산기념궁전형성도안창작에 망라된 미술가들이였다. 그 집단은 정수만부사장이 책임지고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리고있었다.

환영분위기가 집짓해지자 리수환이 정수만에게 말했다.

《나는 이번에 많은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로동자들의 충정과 헌신성이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따라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래일 시간을 내서 도안창작집단에 나가서 돌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크게 고무가 될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흩어져갔다.

정수만은 홀로 원석을 쓸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리수환은 그를 남겨두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원석을 성과적으로 날라왔다는 보고를 하여야 했다.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그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7

이해의 마지막밤이 깊어가고있었다. 집무실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탁상시계의 초침소리만이 가볍게 울리였다.

책상에 마주앉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방안의 공간을 응시하고계시였다. 묵은해와 새해의 계선은 력사의 흐름에서 하나의 리정표이다. 그 리정표에서 지난해를 돌이켜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지난해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불행한 해였고 그 무엇으로써도 만회할수 없는 상실의 해였다.

《차라리 1994년이 없었더라면…》

자신도 모르게 입속으로 뇌이시였다. 참말이지 그 불행의 해, 상실의 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7월 8일의 새벽으로부터 흘러간 피눈물의 나날들이 되새겨지셨다. 조의식과 영결식, 추도대회, 가슴찢기던 비애의 기억이 어제인듯싶으셨다. 불시로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의식하시였다. 뿌잇하니 흐려드는 시야에 땅을 치며 통곡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어리여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기고가신 우리 인민이 얼마나 훌륭하고 충실한가! 눈물의 바다를 건너온 그들은 지금 산악같이 일떠서고있다. 자신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어떤것인지를 세상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있다. 우리는 새해에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가?

래일 아침 세상에 공포될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에 그것이 밝혀져있다. 우리 인민은 새해의 첫아침이면 크나큰 희망속에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군 했었다. 하지만 새해는 그럴수가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새해를 맞으며 의례히 있기마련인 신년사나 년두교서는 국가수반이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국가수반직이 공백으로 남아있다. 12월초에 양석의장은 신년사문제를 위해서도 국가주석추대를 년내로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왔다. 수뇌외교문제를 중요한 론거로 삼던 그에게 또 하나의 좋은 론거가 생긴셈이다. 그때 나는 그에게 다시금 명백히 말해주었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라고!

며칠전에 어떤 일군들은 나더러 신년사를 하여달라고 간청해왔다. 그들은 국가수반직은 없어도 우리 인민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령도자로 모시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물론 우리 인민의 신임과 기대가 얼마나 순결하고 절대적인가를 잘 알고있다. 하지만 나는 어데까지나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이다. 우리 인민의 관념에는 여태껏 신년사를 수령님께서만 하신다는 생각이 굳어져있다. 결코 수령님을 대신하여 신년사를 할수 없다는것은 어쩔수 없는 도덕의리적감정이다. 사연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깜짝 놀랄수도 있을것이다. 세계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동사설에서 새해에 당중앙이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의도하

는지를 알게 될것이다.
깊은 추억과 사색속에 이해의 마지막밤이 깊어가고있었다. 집무실에서 나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으로 가시였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새해의 첫날 정각 0시.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전에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깊이 머리를 숙이신 자세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계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던 두분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무렵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였던가. 새해에 당과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두고 의논을 거듭하시면서 가장 정당한 합의를 보시군 하시였다. 이 시각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전의 수령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듯 한 생각에 잠기시며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어버이수령님, 저는 새해에 군사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더 강하게 내세울 결심을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켜오신 그 로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처한 안팎의 정세와 력사적경험을 깊이 고려한 끝에 그러한 결심에 도달하였습니다.)
(적극 찬동하오. 시대와 력사가 요구하는 가장 정당한 결심이요. 총대가 굳세면 이 세상에 두려울것이 없소. 나는 **김정일**동지가 우리 당과 인민을 옳게 이끌고있기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놓소.)
잠시후에 수령님의 음성이 다시 귀가에 울리여왔다.
(새해에 부디 건강하기를 바라오. **김정일**동지가 건강해야 사회주의조국을 끗끗이 지켜내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소.)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령전에 다시금 인사를 올리고 그 자리를 물러나시였다.
얼마후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에 마주앉으시였다. 밤은 깊어가고있으나 잠드실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뵈옵고 돌아오시니 국상을 당한 슬픔을 함께 나누며 시련의 지난해를 함께 보낸 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왔다. 그들도 이밤따라 사무쳐오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잠들지 못하고있을것이다. 공동사설에는 새해의 과업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하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인민들에게 보내고싶은 자신의 고무적인사는 담겨져있지 않았다. 인민들에게로 달리는 절절한 심정을 누를길 없으시여서 종이우에 펜을 달리시였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갑시다.

1995. 1. 1
김 정 일》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렇게 쓰시였다. 이 순간 가슴에 넘치는 심정을 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도 요약된듯싶으시였다. 하기야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산악같이 일떠서서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에 대한 신뢰와 축원의 감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지만 우리 인민은 리해할것이다. 인민과 나는 언제나 한마음한뜻이다. 사상과 의지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까지도 하나임을 의식하시였다.

깊은 사색속에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8

1995년 1월 1일 아침.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며 그이의 신년사를 기다렸다. 그이께서 인민들과 함께 지난해의 슬픔을 나누고 새해의 시정을 밝히시리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안고 텔레비죤앞에 모여앉았다. 그런데 화면에는 지난해 신년사를 하시던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졌다. 동시에 우리 인민에게 그리도 친근하게 들리던 수령님의 음성이 울리였다. 순간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일어서며 목놓아불렀다.

《아, 어버이수령님!》

그이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했다. 누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사람들은 이날 아침 지난해 수령님의 신년사를 다시 방영하도록 하신 장군님의 심정을 다는 알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인민들은 수령님 생각이 더욱 깊어질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신년사를 하시는 수령님의 모습과 육성그대로를 내보내자고 하셨던것이다. 우리모두의 가슴에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뜨겁게 새겨주려는 장군님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를 맞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하고싶은 자신의 구상과 결심을 다박솔초소를 찾아가는것으로 보여주시였다. 새해에 해당 나라의 령도자가 무슨 사업부터 착수하며 어데를 찾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의 새해정치리념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세상사람들모두가 명절을 즐기는 아침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군부대를 찾아 떠나시였다. 최광과 리을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 몇명이 수행했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수도의 거리를 바라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궁전안에서는 설맞이공연준비를 끝낸 아이들이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될 시간을 기다릴것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벌어지는 설맞이공연을 관례로 알고있는 아이들이였다. 일군들은 수령님을 잃은 아이들이여서 장군님을 더욱 그리며 공연장에 나오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이들의 그 심정을 모르지 않으셨다. 자신께서 공연을 보아주지 못한다면 더없이 서운해할 아이들의 마음도 잘알고계시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지키고 너희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군부대를 찾아간다, 너희들이 커서 철이 들면 오늘의 이 심정을 리해할것이다, 부디 건강한 몸으로 공부도 잘하고 예술적재능도 마음껏 꽃피워라. 공연을 보면서 직접 보내고싶던 축복을 전선길에서 마음속으로 보내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갈림길을 바라보며 가슴을 울려주는 깊은 충격을 저도 모르게 받으시였다.

만경대를 떠나 백두산에서 벌리신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리라!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

과 봉쇄정책, 혹심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난관과 중중첩첩한 시련을 뚫고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야 할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내려야 하셨다. 돌이켜보건대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처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두고 그처럼 뼈아프게 모대겨본적이 없었고 그처럼 고심어린 사색을 거듭한적이 없는것 같으셨다. 겹쌓이는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 타협하는가 아니면 쓰러지는가. 세상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두가지 선택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들과 절대로 타협하지도 않을것이며 대결전에서 쓰러지지도 않을것이다! 이 불굴의 의지와 결단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박솔초소로 향하신것이다. 우리는 선군의 보검을 더욱 높이 들고 원쑤들을 쳐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지킬것이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이 땅우에 영원히 흐르도록 할것이다.

승용차들은 다박솔초소를 향해 달렸다.

높지 않은 고지는 정갈한 흰눈을 소복소복 들쓴 다박솔들로 한벌 덮이여있었다. 포진지들에는 멸적의 기상을 장탄한 포신들이 건듯 머리를 쳐들고 아침해빛에 반짝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설날 아침 자기들의 초소에 모신 중대 병사들은 고지가 떠나갈듯 한 만세의 함성을 올리였다. 더없는 영광과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만세!》의 함성을 터치는 병사들에게 손을 높이 들어 답례를 보내시는 **김정일**동지의 심중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오르시였다. 고지를 덮은 정갈한 흰눈은 병사들의 깨끗한 충정을 보여주는것 같았고 눈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다박솔포기들은 오직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믿고 따르는 군인들의 신념과 의지를 상징하는것 같았다.

한 군인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새해의 첫 꽃다발을 드리였다. 겨울철이였으나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은 이슬이 흐르고 향기가 풍기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꽃다발을 받으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1995년을 맞는 우리 당에 충실한 조선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곳 다박솔초소의 병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시는 새해의 축하였다. 그에 화답하여 또다시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포진지 흉장우에 올라서시였다.

중대의 화력복무훈련이 시작되였다. 지휘관들의 구령소리, 포병들의 화답소리에 뒤이어 신속정확한 훈련동작들이 펼쳐졌다. 만일 적들이 덤벼든다면 멸적의 명중탄이 포신마다에서 터질듯 했다. 실전맛이 나게 화력복무훈련은 나무랄데없이 벌어졌다. 동작이 서툴거나 서슴는듯 한 병사는 한명도 없었다. 잘 정비된 포들도 그 육중한 몸체를 병사들의 뜻대로 재빠르게 움직이였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훈련을 잘 한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가 전투적기백이 있다고, 모든 중대들이 이 중대와 같이 전투훈련을 싸움맛이 나게 잘한다면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무적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확신에 넘쳐 계속하시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확정적입니다.》

이날 **김정일**동지께서는 훈련을 지도한 다음 중대교양실과 병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중대에서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 문화생활, 후방사업정형을 료해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중대교양실을 돌아보실 때 그이께서는 한상의 사진앞에서 오래동안 걸음을 멈추시였다. 20여년전 이곳 포실탄사격을 지도하고 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모습이 모셔진 사진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사진을 우러르며 우리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생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군부대들과 구분대들마다에는 수령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새겨져있다. 그이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이제 나는 수령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선군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담보이고 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는 무적의 보검이다. 안팎에 조성된 오늘의 준엄

한 정세속에서 선군의 길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임을 승리의 래일이 명백히 증명해보일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를 떠나기에 앞서 중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양력설날의 이 아침 어찌하여 **김정일**동지께서 여기 다박솔초소를 찾으셨는지 그 심장한 의미는 중대군인들도 몰랐고 그 화폭들을 신문과 텔레비죤에서 보는 인민들도 몰랐다. 지어 수행한 최광이나 리을설도 그 뜻을 다는 몰랐다.

이날 저녁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절대로 적들에게 양보할수 없다, 적들과의 대결에서는 단 한번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단호히 언명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그 어떤 세계적인 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나라를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최광과 리을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시선을 주며 뒤를 이으시였다.

《나는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끝까지 밀고나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주력군이 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만 강하면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일군들은 빛나는 시선으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자신들의 가슴이 세찬 충격으로 고동치는것을 의식했다. 그들은 비로소 그이께서 이 아침 다박솔초소부터 찾으신 깊은 뜻을 새기게 되였다. 그것은 선군혁명의 기둥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 조국앞에 드리운 준엄한 난국을 멸적의 총대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실현하시려는 **김정일**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의 선언이였다.

제 5 장

1

1월 2일.

양력설은 오늘까지 계속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은 설을 즐기며 휴식을 하고있었다.

하지만 **김정일**동지께서는 휴식을 모르시였다. 어제도 분망한 하루를 보내였고 오늘은 당, 국가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였다. 이미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서한도 보내고 공동사설도 발표하도록 하였지만 올해 인민생활문제를 풀데 대한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일군들에게 전하고 그 방도를 의논하시기 위해서였다.

대국상을 당한 후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가를 새롭게 실감하시였다. 그러한 인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기여서 도무지 잠을 이루실수 없었다. 인민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설날의 어제밤도 지새우시였다. 그리도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줄수 있을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길외에 다른 길은 없다. 수령님께서는 농사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와 함께 인민경제선행부문의 발전을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으로 규정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리에 모인 책임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모두가 낯익은 얼굴들이다.

어제 그들과 설인사를 나누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라는 강령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설날의 휴식도 못하게 어제 이어서 오늘 또다시 그들을 부르신것이 내심 미안하시였다. 하지만 남들처럼 휴식을 못하고 밤잠을 못

자더라도 인민들이 잘살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것인가.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일군들도 리해하리라고 믿으시였다.

《나는 인민생활문제가 특별히 마음에 걸려서 동무들과 이야기하고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해서 올해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훌륭하고 강의한 우리 인민은 좀처럼 생활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불만이나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기 어려운 생활상불편과 결핍을 느끼면서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러한 인민들일수록 당은 그들의 어려운 생활실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는 도시와 농촌들을 돌아보면서 내색하지 않는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꿰뚫어보고 눈물을 머금은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툭 터놓고 쌀이나 필수품을 달라고 제기를 한다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들은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내가 줴기밥을 먹으며 전선길을 걷는것을 걱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인민이기에 나는 그들을 위해 이 한몸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집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어려운 인민생활의 실상을 조금의 분식도 없이 현실그대로 낱낱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숙연히 머리 숙이고 눈물을 흘리였다. 어쩌면 자기들도 미처 모르는 인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그이께서 그리도 구체적으로 알고계실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속에서 그 누가 어려운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그이처럼 가슴아파하고 마음쓰는 일군이 있을가?

일군들은 심각히 자신들을 돌이켜보았다. 만일 일군들이 그이의 심정의 몇백분의 일이라도 따른다면 인민들의 생활이 오늘처럼 어렵지는 않을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책에 잠긴 일군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사를 잘 짓는것입니다. 농사제일주의는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혁명적경제전

략의 첫째가는 내용입니다. 최근년간에 농사가 잘되지 않아서 나라의 식량사정이 전례없이 긴장해지고있습니다. 긴장해진 식량사정으로 처처에서 가슴아픈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농사가 잘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은 우리 일군들이 현실적조건에 맞게 농사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 매 포전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경공업제일주의방침, 무역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경제선행부문도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문부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절절한 음성으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잘살도록 하는것이 평생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생의 마지막까지 폭양이 내려쪼이는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들인 우리는 수령님의 이 유훈을 지켜 올해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담화를 끝낸 후에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내처 마음쓰시였다.

저녁녘에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마침 허덕복은 사무실에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부디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허덕복의 음성은 감격에 젖어있었다.

《동무도 새해에 건강하시오. 그런데 왜 설날에 사무실에 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제 보내주신 서한을 받아안은 도내 농민들의 결의가 대단합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 보내온 결의내용을 종합하던중입니다.》

《그래 황해남도에서 올해 알곡을 얼마나 생산할수 있습니까?》

《결의내용을 다 종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같이 올해농사를 두고 걱정을 하고있는셈이구만. 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황해남도에서는 농사를 괜찮게 하였지만 다른 도들에서는 농사를 잘 짓지 못했습니다. 올해농사문제를 두고 마음을 쓰다가 수령님께서 키우신 농업지도일군의 한사람인 덕복동무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농사문제를 동무와 의논하고싶었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니…》

말끝을 맺지 못하는 허덕복은 목이 메는 모양이다.

《무슨 말을… 지난해 나를 대신해서 황해남도 연백벌에 내려갔던 일군들로부터 그곳 형편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영농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사실도 잘 알고있습니다.

덕복동무, 올해에 농사를 더 잘 지어주시오. 나는 그처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배를 곯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잠을 깨고 전선길에서 줴기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것만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한홉의 미시가루를 대원들과 함께 나누시였습니다. 나는 한덩이의 줴기밥을 온 나라 인민들과 나누고싶은 심정입니다. 덕복동무, 나를 도와주시오. 아픈 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농사를 잘 지어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음성이 점차 갈리는것을 의식하시였다. 풀죽으로 끼니를 굼때는 인민들을 두고 여러번 느껴오신 아픈 심정이 응어리가 되여 목밑으로 치미는듯 하시였다.

수화기의 진동판에서 오열을 삼키는 흐느낌소리가 울리였다. 허덕복은 울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장군님께서도 걷잡을수없이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한순간이 지난 후에 수화기에서 물기에 젖은 허덕복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서 장군님의 가

슴아픈 심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량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인민은 오늘의 시련을 굳세게 이겨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령님께서 안계시는데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을 하겠소!》

다소 격해지신 음성이였다. 인민을 위한 헌신적사명감이 부지중 폭발하셨던것이다. 허덕복은 조심히 말씀올리였다.

《너무 애를 태우시면서 건강을 놓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소, 덕복동무.》

저으기 진정을 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친절히 물으시였다.

《지난해 황해남도에서는 이모작을 많이 했지요?》

《그렇습니다.》

《이모작을 한 논밭에서는 정보당 10톤이상 냈다고 하는데 올해는 이모작면적을 더 늘이는것이 좋겠습니다. 부침땅면적이 적은 우리 나라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모작을 해야 합니다. 황해남도는 기후가 온화하기때문에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모작농사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이모작을 만정보가량 해보시오. 그것은 정보당수확고를 높이는데서도 의의가 있지만 올해 예견되는 여름철의 긴장한 식량사정을 풀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어이 이모작면적 만정보를 보장하겠습니다!》

힘있는 음성이였다. 새로운 결의에 불타는 허덕복의 소박한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시였다.

2

황해남도에서 도내 농업일군협의회가 열리였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이상의 일군들이 참가했다. 농기계작업소, 농기계수리공장, 관개관리소를 비롯한 농업생산과 관련된 공장, 기업소일군

들도 참가했다. 도내 농촌들에 파견되여온 중앙기관일군들이 뒤좌석에 앉았다.

집행석에는 도당책임비서와 도인민위원장, 허덕복이 나왔다.

도농촌경리위원회 농산국장이 허덕복에게 참가인원을 보고했다. 참가해야 할 사람은 한사람도 빠지지 않았다.

허덕복이 연단에 나섰다. 술렁이던 장내가 조용해졌다.

《지난 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오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긴장한 식량사정을 풀기 위해 우리 도에서 올해에 이모작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만정보의 이모작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오늘 이렇게 모이였습니다.》

회의의 취지를 설명한 허덕복은 장내를 둘러보았다. 누구의 얼굴에나 긴장이 어리였다. 만정보의 이모작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있는 그들이였다. 예로부터 부지깽이도 펄펄 뛴다고 하리만치 씨붙임계절의 농촌로력은 긴장했다. 여차하면 전작의 수확때문에 후작파종의 적기를 놓칠수 있었다. 전작의 수확기가 모내기계절과 겹치기때문에 그 시기의 로력사정은 더욱 어려웠다. 잘못 타산을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전작이나 후작 어느 하나도 변변히 하지 못해서 게도 구럭도 놓치는 격이 될수 있었다. 농기계가동과 비료도 문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황해남도에서는 기후조건으로 보아 이모작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신것은 일찌기 1960년대였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지난해 수천정보의 이모작면적을 확보하는데 30여년 세월이 흐른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그 면적을 대바람에 배로 높여야 한다. 논판에 전작으로 보리를 심었다가 모내기철을 놓칠 지경이 되자 이삭이 한창 패는 보리밭을 갈아엎은 가슴아픈 일도 있었고 전작으로 심은 감자가 여물기를 기다리다가 파종이 늦어져 강냉이농사를 망친 일도 있었다. 점차 두벌농사에 신심을 잃은 어떤 협동농장에서는 종자보리를 맥주와 바꾸어 먹기도 하였다.

《만정보의 이모작?!…》

조용히 입속으로 외워보는 일부 일군들은 그 엄청난 수자에 위압되는듯 고개를 떨구기도 하였다. 무조건 만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앞서지만 실지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뒤따르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장내에 사무치듯이 절절한 허덕복의 목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식량고생을 하는 인민들을 생각하면 밥을 잡수셔도 모래를 씹는것 같고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한홉의 미시가루를 대원들과 나누신것처럼 자신께서는 전선길의 한덩이 줴기밥을 인민들과 함께 나누고싶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 도는 곡창지대이다보니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의 식량사정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민들을 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였겠습니까!》

허덕복은 목이 메여 뒤를 이을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사무치듯 절절한 말씀을 전화로 받을 때의 격정이 되살아났다.

장내에서도 녀자들의 흐느낌소리가 울리였다. 도내 농업부문일군들중에 녀성관리위원장들도 많았다. 이악하게 농사도 지을줄 알았지만 예민한 감수와 다감한 감정도 남다른 그들이였다. 남자들도 눈시울을 적시였다.

순간 장내를 둘러보던 허덕복은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그들과 하나로 일치하는것을 후덥게 느끼며 보다 열띤 음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동지들! 우리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해 연백벌을 현지지도하실 때 우리 도내 농업전사들은 한결같이 그이께 말씀올리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농사를 잘 지을테니 년로하신 몸으로 험하고 뜨거운 포전길을 더는 걷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그날에 터친 우리의 심정이 과연 어떤것인지 우리는 올해의 농사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의 맹세가 어떤것인지를 올해의 이모작농사작황이 말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심정들을 오늘회의에서 기탄없이 토론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명이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누구에게 첫 순서를 뺏길세라 사회자의 부름도 없이 연단으로 나오는 녀성이 있었다. 연안군 천태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배옥실이였다. 연단에 나선 그는 목메인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긴장한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두고 얼마나 깊이 고심하시는가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한홉의 미시가루를 대원들과 함께 나누신것처럼 자신께서는 전선길에서 드는 한덩이 줴기밥도 인민들과 나누고싶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방금 위원장동지도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어버이수령님께서 뙤약볕속에서 우리 협동농장의 포전들을 돌아보실 때 인제는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농사를 잘 지을테니 년로하신 수령님께서는 더는 포전길을 걷지 마시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것이 생전의 수령님께 올린 마지막맹세였습니다.》

배옥실은 북받치는 흐느낌을 참느라고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더니 보다 절절한 음성으로 뒤를 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 우리 도에서 이모작면적을 만정보 보장해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는데 저는 이 과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수령님께 다진 마지막맹세가 어떤것이였는가를 실증해보이겠습니다. 우리 협동농장에서는 이미 일정하게 이모작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모작은 알곡 정보당수확을 높일뿐아니라 전작으로 심은 작물의 짚을 거름으로 리용할수 있기때문에 땅의 지력도 높일수 있습니다. 봄에 땅이 녹자마자 전작파종을 다그치면 긴장한 로력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 협동농장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배이상의 이모작면적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제 협동농장에 돌아가면 광범한 농민들과 협의하여 이모작적지를 정하고 거름을 내는 등 그 준비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도가 알곡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여러번 교시하시였습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올해에 수령님의 이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는 것을 여러 동지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 협동농장에 하달된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할 결의를 굳게 다집니다.》

주석단에 앉아있던 허덕복이 그에게 말하였다.

《관리위원장동무, 내 생각에는 이모작면적 만정보를 보장하는데서 제일 걸린것이 전작으로 심을 종자라고 보는데 동무네는 그 종자가 확보되여있습니까?》

《농장창고에는 필요한 량의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호소하면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농가들에서 길금용보리를 누구나 얼마간씩 보관하고있습니다.》

허덕복은 귀가 번쩍 열리였다. 급격히 높아진 이모작면적을 두고 제일 마음을 쓴것이 종자문제였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어데서 종자를 가져올데가 없었다. 전작으로 적중한 보리는 아직 다른 지방에서 심지도 않았다. 그런데 농가들에 그 보리종자예비가 있다고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정치사업을 잘하면 우리 농민들은 길금으로 엿이나 술을 고아먹으려던 보리를 종자용으로 선뜻 내놓을것이다.

《좋습니다.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도 보리종자가 부족할수 있는데 농가들에 호소해서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절대로 종자를 얼마씩 보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내려먹이지 말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전작수확을 하면 제 수량을 반환하는 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그 보리는 우리 도의 농업과학원분원에서 오래동안 재배시험을 한 우수한 품종입니다. 생육기일이 짧고 수확고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작으로 감자도 심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감자가 한창 크기 시작할 때 강냉이를 간작으로 심는것입니다. 감자를 캔 다음에 강냉이를 심으면 그 생육기일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간작법을 도입하면 뒤그루강냉이 수확에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

려 감자섶이 밑거름이 되여 강냉이성장에 좋습니다. 이미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보여준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동무들도 토론해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련이어 토론에 참가했다.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이나 기사장들이였다.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고 합리적인 대책들을 제기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들도 토론에 참가했다. 회의의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허덕복은 전에없이 힘이 솟았다. 올해농사를 락관했다. 여러해 함께 일을 하여온 사람들이지만 딴 사람을 보는듯 한 느낌조차 들었다. 전에는 생산과제를 놓고 모여앉으면 무엇을 해결해주어야 하겠소, 무엇이 없어서 곤난하오, 우리 농장형편에서는 불가능하오 하는따위의 타발이 더러 있어 집행석을 따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의 협의회는 어느 한사람도 우에다 손을 내밀지 않고 집행석을 감동시키고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수리공장 지배인이 토론에 참가했다.

《우리 공장에서는 3월말까지 수리해야 할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들을 전부 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년도계획을 석달안에 완수하는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정보 이모작면적확보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뜨락또르동력에 의거하는 우리 식의 밀보리파종기창안을 추진시켜왔습니다. 책임기사 김용환동무가 구상한것인데 그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집단은 신심드높이 새기계개발을 다그치고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기계연구소와도 여러번 토론이 있었는데 그곳 연구사들도 기계동작원리에 대한 착상이 기발하다고 찬탄을 보내고있습니다. 참으로 김용환기사는 창조적지혜가 뛰여난 동무입니다. 기어이 성공할것입니다.》

허덕복은 토론을 듣기가 거북했다. 지배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김용환기사가 바로 그의 남편이였다. 그것을 번연히 알고있는 지배인이 무엇때문에 남편의 이름을 찍어가며 저런 토론을 하는가? 농기계수리공장은 도농촌경리위원회산하 기업소이다. 허덕복은 그 공장지배인의 직속상급이다. 혹시 지배인은 상급의 비위를 맞추려고 저런 토론을 하는것이 아닌지… 불쾌하고 면구스러워서 고개를 깊이

숙이였다. 어서 빨리 지배인이 연단에서 내려서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그런데 도당책임비서가 그의 토론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농기계수리공장에서 우리 식의 밀보리파종기를 창안하고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 기계가 도입되면 전작파종에서 긴장한 로력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 그래 언제쯤이면 완성할수 있습니까?》

지배인은 더욱 활기를 띠고 거침없이 대답했다.

《김용환기사동무는 이달말이면 시운전을 하겠다고 결의해나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종기전으로 한개 군에 한대이상씩의 파종기를 생산보장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 애로되는것은 없습니까?》

책임비서가 다시 물었다.

《있습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자재들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재상사에 필요한 명세를 제출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책임비서가 허덕복에게 머리를 돌렸다.

《위원장동무, 산하 자재상사에 지시를 해서 저 동무들이 요구하는 자재를 해결해주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허덕복은 머리를 숙인채로 대답했다.

책임비서는 뜨아해하는 그 대답이 불만스러운듯 저으기 높아진 음성으로 말했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농사일만 일이라고 하지 말고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도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의 능력있는 기술자들이 자기의 창조적지혜를 원만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문농기계공장도 아닌 수리공장에서 능률높고 구조가 간편한 새로운 농기계를 창안하고 생산한다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나도 인차 공장에 나가서 책임기사동무를 만나보고 고무해주겠지만 위원장동무도 그 동무의 연구사업을 잘 도와주시오.》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목소리는 활기롭게 울리였다. 남편에 대한 긍지가 은연중에 북받쳤던것이다.

협의회는 실무적인 대책과 분공을 구체적으로 의논하고 끝났다.

허덕복은 회의를 결속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두고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가를 농민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강조했다. 그이의 심정을 몇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린다면 누구나 새로운 결의를 안고 분발하리라고 믿었다.

3

허덕복은 저녁밥을 지어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최근에는 매일저녁 늦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남편이였다. 밀보리파종기창안에 몰두하기때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허덕복은 남편보다 먼저 밥술을 드는 법이 없었다. 당그랗게 내외가 사는 집이여서 남편이 없으면 적적하기가 이를데 없었다. 평양에서 살다가 해주로 오면서 두 아들은 언니네 집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남편과만 함께 왔다. 녀자쪽이 책임적인 간부로 있는 집안에서는 다른 가정들과는 달리 남자가 녀자를 따라다니기마련이였다. 허덕복은 온 나라가 아는 농업부문의 책임일군이였지만 김용환은 이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사회적지위로 보면 아득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디까지나 남자가 세대주였고 가장이였다. 허덕복은 집안에 들어오면 공손한 안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썼다. 두 아들도 자기보다 아버지를 더 존경하도록 교양했다. 여차하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릴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언제나 책임적이고 분망한 사업에 짓쫓기며 살지만 가정일을 남편에게 떠맡기려고 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동자질이나 빨래와 같은 일은 남편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출장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가정일을 도맡아하였다. 결혼을 한 첫날부터 이것을 가정생활의 원칙으로 여겨온 허덕복이였다. 그가 김용환을 알게 된것은 단발머리 분조장시절이였다.

분조장으로 임명되여 첫해에 벌린 일이 샘틀논에 암거를 하여 랭습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였다. 그해에 해토가 되자 분조원들을 불러일으켜서 크게 일판을 벌리였다. 그런데 분조원들의 힘만으로는 모내기전까지 일을 끝낼수 없었다. 분조원들속에서는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다.

《새말간 단발머리가 분조장을 하다보니 어벌 크게 일판을 벌려서 올해농사를 망치게 되였네.》

《샘틀논에 모를 꽂지 못하게 되였으니 책상물림분조장 휘동에 따라나선 우리가 잘못이지. 나이든 축들이 처음부터 못하게 대를 세워야 하는것이였어.》

이런 뒤소리들이 돌아갔다. 그러한 귀먹은 비난보다도 현실적으로 모내기계절을 놓쳐버릴것만 같은 우려가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다. 허덕복은 어느 하루 주변에 주둔하고있는 군부대를 찾아갔다. 나이지숙한 련대장을 만나서 암거작업을 도와달라고 애원하였다. 처녀분조장의 눈물겨운 애원은 련대장을 감동시켰다. 련대장은 한개소대를 동원시켜주었다. 김용환은 그 소대의 1분대장이였다. 논판에 도랑을 째고 돌을 처넣어서 샘물이 곬을 따라 빠지게 하는 암거작업은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였다. 하지만 군대들이 동원된 다음부터 일자리가 푹푹 나고 작업장분위기가 달라졌다. 분조원들은 끌끌한 군인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다보니 힘든줄을 몰랐다. 더구나 처녀들은 신바람이 났다. 흙과 돌을 다루는 험한 일을 하지만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병사들 못지 않게 일손도 걸쌌다. 군인들과 맞들이를 들거나 삽질을 할 때면 짝지려고 하지 않았다.

《군대들이 오더니 우리 분조처녀들이 녀장수로 되였구나.》

암거작업을 반대하던 배나무집아바이가 히뭇이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특별히 즐거운것은 작업의 쉴참에 산기슭의 풀밭에서 벌리는 오락회였다. 군인들중에는 별의별 재간둥이가 다 있었다. 예술단 배우들이 무색할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는 병사, 손기가 얼마나 날랜지 주패장으로 관중을 깜짝 놀래우는 병사, 즉흥시로 사

람들의 가슴을 들먹이게 하는 병사…
　농촌의 처녀들이라고 그들에게 뒤질소냐. 저마끔 나와서 목청을 뽑고 춤가락을 펼치는데 그들에게 언제 저런 재간이 있었던가싶었다. 뭐니뭐니해도 볼만 한것은 병사와 처녀가 짝을 지어 2중창이나 쌍무를 펼치는 모습이였다. 어쩌면 그리도 소리가 잘 어울리고 춤가락이 조화로운지, 이따금 서로의 눈길을 마주치며 웃음을 보내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었다. 분조장 덕복이도 분대장 용환이와 어깨를 붙이고 2중창을 하였는데 세번이나 재청을 받았다.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알지 못했다. 30분 정도로 예견했던 오락회가 두시간을 넘었다.
　이날은 어쩌는수없이 하루계획을 끝내지 못한채 해구멍을 막았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더니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싶었다. 덕복은 속이 상했다. 하루라도 앞당겨 암거작업을 끝내야 씨붙임을 순조롭게 할수 있었다.
　그날 저녁 덕복은 밥술을 놓기가 바쁘게 삽을 들고 작업장으로 나왔다. 계획했던 작업을 끝내지 못한 이 저녁은 자리에 누워도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마침 그날은 초저녁부터 달이 밝았다. 샘틀논에 이른 덕복은 물도랑을 파기 시작했다. 오락회때 용환이와 2중창을 하던 순간의 달콤하면서도 가슴뿌듯하던 기분이 되살아나면서 힘겨운줄 몰랐다. 크지는 않으나 담차보이는 몸에 번듯한 이마, 영채로운 눈, 고집스럽게 날이 선 코, 류창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단정한 입술, 억세여보이는 아래턱… 용환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래일 휴식시간에는 그와 무슨 노래를 함께 부를가? 어쩐지 래일에는 오늘보다 더 조화롭게 화음을 이룰것 같고 호흡을 더 잘 맞출것 같았다. 아무튼 오락회시간이 오늘처럼 한정없이 길어지지 않게 채심을 해야겠어. 삽날턱을 오른발로 힘있게 누르며 흙을 듬뿍 떠서 퍼냈다.
　《게 누구요?》
　저쪽에서 울리는 물음소리에 와뜰 놀라며 허리를 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덕복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대답을 못했다. 희미한 달빛속에 형체를 드러내는 사람은 용환이였다. 어깨에 삽을 멘

것으로 보아 그도 도랑을 파려고 오는것 같았다.

《아, 분조장동무였구만.》

용환이도 이쪽을 알아보았다.

《내 이럴줄 알았다니까.》

바투 다가선 그는 히뭇이 웃었다.

《분대장동무가 어떻게…》

덕복은 숨을 몰아쉬며 묻는듯 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자 용환은 얼핏 서운한 기색을 지어보이며 퉁명스레 응대했다.

《어떻게라니? 내 이럴줄 알았다질 않소.》

분조장이 이밤에 잠들지 못하고 작업장에 나올줄 알고 도와주러 나왔는데 그 심정을 몰라준다는 뜻이였다.

《분대장동무, 고마워요.》

덕복은 상냥하게 웃어보이였다.

그들은 함께 도랑을 팠다.

《분조장동무는 일을 시작한 시간이 퍼그나 흘렀겠는데 인젠 좀 쉬오.》

다심한 정이 배인 용환의 말이였다.

《일없어요. 우리 일을 도우러온 군대동무는 일을 계속하는데 농장의 주인인 내가 일손을 놓고 쉬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동무는 주인이고 나는 나그네란 말이요?》

저으기 성난듯 한 용환의 목소리였다.

덕복은 응답없이 삽질만 하였다.

《손님격으로 동무네 일을 돕는데 그친다면 내가 이 저녁에 여기로 나오지도 않았을거요.》

《그래요. 실상 군대동무들은 우리 농장원들보다 더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암거작업을 해왔어요.》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이상 미안해말고 좀 쉬시오. 낮에도 보니까 동무는 다른 분조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더란 말이요. 내 혼자 마저 파낼테니 삽을 놓소!》

용환이가 덕복의 삽자루를 잡았다. 하는 품이 고집을 부린다면 성을 낼상싶었다. 덕복은 하는수없이 삽을 들고 도랑에서 나왔다. 용

환이가 걱정을 하리만큼 몸이 지치기도 했다. 만일 이 저녁 혼자였다면 이미전에 쓰러졌을는지도 모른다. 땀이 흐르던 몸이 식어들면서 추위를 느끼였다. 낮에는 호듯호듯한 봄볕이 무르녹다가도 밤이면 살얼음이 질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는 이무렵이였다. 덕복은 산기슭에 가서 삭정이를 한아름 주어왔다. 그사이 용환이는 도랑을 다 팠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마주앉았다. 우릉우릉 타오르는 불길이 두 청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들은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지나온 과거와 앞으로의 희망을 터놓았다. 알고보니 용환은 동해안 산간마을태생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농사일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했다. 앞으로 제대되면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다. 다같이 협동벌에서 한생을 보내려는 공통된 지향이 두 청춘을 더욱 가깝게 하였다. 모닥불이 사위여가자 그들은 다시 일어나 일손을 잡았다. 돌을 날라다가 깊숙이 판 도랑에 처넣고 그우에 흙을 덮어야 했다.

힘이 진한 덕복은 무거운 돌을 들다가 놓쳐버리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상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지만 피부에서 피가 흘렀다. 용환이가 달려왔다.

《많이 상했소?》

용환은 덕복의 상한 손을 덥석 잡고 성냥갑의 화약종이를 찢어서 상처에 붙이고 자기의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여 싸매주었다. 덕복은 자기의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가 용환의 흰 손수건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분조장동무는 쉬시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쳤소.》

명령조로 다짐을 한 용환은 제 혼자 나머지 작업을 끝냈다.

덕복은 이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들지 못했다. 어느새 상처의 아픔은 사라져버리고 얼얼한 느낌만이 남아있을뿐이다. 그대신 손수건을 싸매주던 용환의 살뜰한 손길이 남겨준 촉감은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로부터 한주일후에 암거작업이 끝났다. 오랜 세월을 두고 랭습

피해를 받던 샘틀논이 옥답으로 되였다. 군대들이 부대로 돌아가는 날 분조에서는 그들을 위해 작별연회를 차리였다. 식사를 끝내고 헤여질 때 분조원들은 누구나 작별의 서운함을 누르지 못했다.

덕복은 네귀에 꽃수를 놓은 손수건을 용환에게 주었다. 자기의 손가락상처를 싸맸던 용환의 손수건을 대신하여 주는것이여서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피에 젖었던 손수건은 몇번을 빨아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 용환은 처녀가 준 새 손수건을 오래도록 펼쳐보더니 더듬는 어조로 말했다.

《분조장동무, 나는 제대되면 동무네 분조에 와서 농사를 짓겠소. 그때 받아주겠소?》

《받아주지 않구요. 꼭 오세요.》

덕복은 기쁨에 넘쳐 응수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사랑의 약속으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해 샘틀논에는 풍년이 들었다. 농장적으로 제일 작황이 좋았다. 분조원들은 벼가을을 하면서 암거작업을 도와준 군대들을 생각했다. 그들과 함께 벼가을을 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지만 용환이가 속한 부대는 한달전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다.

여러해가 흘렀다.

허덕복은 관리위원장을 거쳐서 락랑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였다.

산하 협동농장들의 풀베기정형을 종합하던 무더운 여름날이였다. 접수실에서 소삼정협동농장에 배치된 제대군인이 찾아왔다고 했다. 보름전에 협동농장들에 제대군인들이 배치되여왔던것이다. 그들중 몇명은 고향으로 가겠다고 찾아왔던 일이 있었다. 필경 지금도 그런 용무를 가진 제대군인이 찾아왔을것이라고 생각하며 접수원에게 로동과로 보내라고 하였다.

잠시후에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응답을 하고 머리를 수긋한채 문건을 정리했다.

《위원장동지, 만날수 있습니까?》

저으기 흥분된 목소리가 울리였다.

허덕복은 그 목소리에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이게 누구인가! 방안에 들어선 사람은 김용환이였다. 여러해가 흘렀지만 첫눈에 알아보았다. 튕겨나듯 의자에서 일어나 급히 다가갔다.
용환은 그때까지 거수경례를 한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마치도 상관의 쉬엿구령을 기다리는것 같았다.
덕복은 바지혼솔에 뻗친 그의 손을 덥석 잡고 쏘파로 이끌었다. 용환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돋은 땀발을 씻었다. 작별할 때 꽃수를 놓아주었던 그 수건이였다! 여러해가 흘렀지만 생생한채로 남아있었다. 고이 간직해온 그 손수건이 많은것을 말해주었다. 덕복은 옛시절의 추억이 눈앞에 떠오르며 짜릿한 정회에 젖어들었다. 용환은 손수건을 무릎우에 펼쳐놓은채 방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를 왜 만나지 않겠다면서 로동과로 가라고 했습니까?》
시선을 딴곳에 겨누고 묻는 물음에는 노여움이 풍기였다.
《미안해요. 동무가 찾아온줄은 몰랐어요. 우리 구역에 배치되여 올 때 왜 나한테 들리지 않았나요?》
《나는 동무가 여적 분조장으로 있는줄 알고 소삼정협동농장으로 직판 내려갔습니다. 동무를 한시바삐 만나고싶어서 구역에는 한시도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다.》
《그곳 협동농장에서 내가 여기로 옮겨왔다는걸 알았으면 진작 찾아왔어야지요.》
덕복은 때늦게 오늘에야 찾아온 그가 진심으로 야속했다.
《평범한 농장원이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동지를 만나러 온다는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보니 마지막으로 위원장동지를 만나보고싶어서 용기를 내여 오늘 찾아왔습니다.》
용환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덕복은 놀라며 다급히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훌 떠나갈 사람이 우리 구역으로 왜 자원해왔어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나는 동무가 여적 분조장을 하는줄로

알고 왔던것입니다. 헤여질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했지요, 우리 함께 농장벌에서 한생을 보내자고. 나는 지금도 농장벌에 서있는 사람이예요. 분조장시절과 조금도 다름없이 말이예요. 어서 대답해보세요. 동무의 눈에는 내가 그전과 달라진 다른 녀자로 보이는가요?》
용환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다른 녀자로 보입니다. 전날의 분조장이 아니라 오늘의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된거야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나는 동지가 그렇듯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게 되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축하의 감정보다 자신을 두고 실망했습니다. 우리들사이에 넘지 못할 장벽이 있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지요. 내가 그 장벽을 부시고 옛정을 되살리려고 한다면 동지의 립장이 딱해질것입니다. 나는 실상 자신보다 동지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것입니다.》
덕복은 애모쁘게 손수건을 구겨쥐는 용환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것을 보았다.
용환은 그동안 우리의 관계를 두고 깊이 생각을 굴리던 끝에 찾아온것이 분명했다. 그를 어떻게 리해시키고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것인가? 덕복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 말을 찾을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이 뜨거운 그 무엇이 치밀어오를뿐이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동무는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죽기라도 했어요, 딴곳으로 가기라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를 버리고 어데로 간단 말이예요!》
불이 이는듯 한 눈길로 쏘아보았다. 용환은 말없이 벌떡 일어섰다. 이쪽의 심정을 꿰뚫어보려는듯이 똑바로 마주볼뿐이였다. 그는 한동안의 침묵끝에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뭐 위원장으로서 평범한 농장원에게 하는 추궁인가요?》
《아니예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약속을 배신당한 처녀의 심정을 터놓는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소!》

부르짖음과 함께 용환은 돌발적으로 덕복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오른손에서 전날의 상처흔적을 찾기라도 하려는듯이 찬찬히 여겨보았다. 덕복은 달밝은 봄밤에 암거작업을 하다가 상처입은 그 손을 손수건으로 싸매주던 용환의 모습이 떠올랐다. 감미로운 감정으로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황홀하게 느끼였다.

얼마후에 용환은 돌아갔다.

그의 출현은 덕복의 신상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덕복은 혼기를 놓쳤다고 할수 있는 나이였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어깨우에 새롭게 실린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의 중하가 사생활에 신경을 쓸 겨를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구역관내의 농업을 추켜세울것인가? 모든 사고가 그 하나의 생각에 집착되였다. 하지만 용환의 출현으로 자기의 결혼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쩔수없이 용환에게로 끌리는 감정을 다잡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와 결혼을 한다면 그 사실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비낄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용환이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례외적인 일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를수 있었다. 혹자는 위원장이 혼기를 놓친 로처녀다보니 평범한 농장원총각한테 시집을 간다고 할수도 있었다. 물론 내막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것이다. 비록 나이는 많은편이지만 덕복에게는 시와 구역의 기관들에서 일정한 직위를 가진 대상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하루는 김옥순이 조용히 불렀다. 그도 가두녀맹원들과 함께 농장에 나와 지원사업을 하고있었다. 그래서 김옥순도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 들렸던것이다.

《위원장,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농사일만 일이라고 하지 말고 시집도 가야지. 어버이수령님께서도 동무가 농사에만 전심하면서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지낸다는걸 알면 걱정하실거야. 그래서 내 맞춤한 총각을 하나 소개해주려고 그래.》

친어머니처럼 진정으로 살뜰한 심정이 어린 김옥순의 말이였다.

덕복은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직이 응대했다.

《고맙습니다.》

《혁명박물관에 한개 부서책임자로 있는 총각인데 제대군인에 당원이고 김책공대를 졸업했지. 내 보기에는 동무와 짝이 어울릴것 같은데 본인생각은 어떤가? 내가 권고하면 그 총각은 군말없이 응할거네. 조용히 만나보지 않겠나?》

이쯤 나오고보니 덕복은 자기 심정을 헤쳐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저에게는 이미 몇해전에 장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하고 용환이와 얽혀진 사연을 이야기했다.

흥미있게 듣고난 김옥순은 감심한 표정이였다.

《그런 일이 있었군. 내 동무의 사람됨을 다시 보게 되누만. 다른 녀자라면 오늘의 동무로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그 총각의 결심을 지지했을수 있지. 동무는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땅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대지의 딸이야. 대지의 딸이 대지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는거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사랑이야 물건을 팔고사는 흥정놀음도 아닌것만큼 서로 상대의 인격에 반하면 그만이지 직위의 차이에 구애될것이 없지 않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동무들의 사랑을 소중히 아껴줄거네. 복잡하게 여러 생각말고 용환이라는 총각과 인차 결혼을 하게.》

《고맙습니다.》

덕복은 감격했다. 녀투사의 지지와 고무를 받고보니 번거롭던 상념이 깨끗이 정화되는듯싶었다. 더는 흔들림이 없이 용환이와 결혼을 하리라는 결심이 굳어졌다.

결혼후에 덕복은 농업대학 통신수업을 받았고 용환은 기계대학 농기계학과를 졸업했다.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아도 덕복은 청춘시절에 자기가 택한 사랑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성실한 남편의 방조와 고무가 없었다면 오늘의 자기가 있을수 없다고 생각했다. 모든 가정들이 대체로 그러한것처럼 그들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슬이 더 좋아졌다. 해주로 이사를 온 후로는 집안에 그들 두사람뿐이기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염없이 추억에 잠겼던 덕복은 문밖에서 나는 기침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남편의 기침소리가 분명했다. 자기가 왔다는것을 알리려

고 인기척을 내는것이다. 덕복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싱긋이 웃으며 방안에 들어선 용환은 저녁을 차려놓고 보자기를 덮어놓은 밥상을 보더니 말했다.

《내 요사이 일이 바빠서 늦어 들어오군 하는데 앞으론 저녁식사를 먼저 하오, 배고프겠는데.…》

《내 혼자서야 무슨 맛에 저녁밥을 먹겠어요.》

그들은 다정히 마주앉아 저녁을 먹었다.

덕복은 낮에 있은 협의회를 머리에 떠올리며 물었다.

《당신이 창안하는 밀보리파종기를 올해 씨붙임전으로 여러대 만들수 있다지요?》

《그런 말을 어데서 들었소?》

《오늘협의회때 당신네 지배인이 그렇게 토론을 했어요. 내가 들으라는듯이 당신의 이름을 찍어가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엉큼한데가 있거던. 며칠전부터 나를 통해 당신의 힘을 빌어서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려고 했소. 내가 들은체를 안하니까 오늘은 그런 수를 썼구만.》

《왜 들은체를 안했나요?》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이야 당신이지 내가 아니지 않소. 결혼한 첫날부터 나는 베개밑송사질을 꼬드기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여겨왔소.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왔단 말이요.》

《지내 자존심이 강하군요.》

《나도 사내가 아니요. 간부처를 데리고사는 사내가 자존심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소.》

《하긴 자존심이 없는 남자였다면 나는 실망했을거예요.》

그들은 진담인지 롱담인지 알수 없는 대화를 다정히 주고받았다.

덕복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이미 말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깊이 고심하시면서 우리 도에 올해 만정보 이모작과제를 주시였어요. 그 과제수행에서 당신이 창안하는 기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요.》

《나도 그걸 잘 알기때문에 요즘 창안을 부쩍 다그치고있소.》

그들은 밥상을 물린 후에도 만정보 이모작과제를 놓고 이야기를 밤이 깊도록 이어갔다.

농업경영학기사와 농기계기사의 의논은 좋은 방도들을 찾아냈다.

4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문건에서 시선을 드시였다. 년초이고보니 여느때없이 문건이 많았다. 방금 보신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올린 문건이였다. 거기에는 올해 9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예견하고있었다. 올해로 9기의 임기가 끝나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올해안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해야 할것인가? 대의원선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1차회의에서 국가수반추대를 하여야 할것이다.

한동안 심중한 사색에 잠겼던 그이께서는 전화로 양석의장을 찾으시였다.

《방금 문건을 보았습니다. 좀 의논할것이 있는데 내 방으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양석은 저으기 흥분된 어조였다. 그 어떤 기대로 가슴이 설레이는 모양이다. 그는 국가수반추대문제를 놓고 상면이 있은 후 두차례나 편지를 보내여왔다. 처음에 주장하던 자기의 견해에 새로운 론거들을 안받침한 편지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거기에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고 침묵하시였다. 그랬던것만큼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논을 하자고 하시니 양석은 마침내 뜻을 이룰 때가 되였다고 여기는게 분명했다.

그는 예견보다 일찌기 집무실에 나타났다.

《그래 올해안으로 대의원선거를 꼭 해야 하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9기 대의원 임기가 끝난것도 그렇지만 올해 우리는 당창건 50돐을 맞이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국가의 최고수위

에 높이 모시고 당창건 50돐을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입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온 나라 인민들과 대의원들속에서는 이러한 념원을 저희들한테 수없이 제기해오고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들이 제기될 때마다 추대행사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있는 자신을 두고 자책을 금할수 없습니다.》

양석은 간절히 말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쌓이고쌓인 소망을 다시는 터놓을수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심정을 알겠습니다. 앉으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서 앉으라고 손짓하시였다. 그러나 양석은 선채로 계속했다.

《얼마전에 어느 한 대의원은 저를 빗대고 김혁이나 차광수와 같은 충신이 없기때문에 추대행사가 아직까지 미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진행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수령님서거 3년상이 끝나기 전에는 대의원선거도 할수 없고 추대행사도 할수 없습니다!》

단호하신 음성에 놀라듯 양석은 어리둥절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표정을 바꾸며 그의 손을 잡아 옆자리에 앉히시였다.

《의장동무는 왜 내 마음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기를 거듭해올 때마다 나는 괴롭습니다.》

사무치는듯 한 절절한 목소리로 계속하시였다.

《내 마음속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여전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실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의 유훈을 성과적으로 실현할것인가?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그 심정을 담아서 설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에게 새해인사를 보냈던것입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일하자고 말입니다. 지금 보니 양의장동무는 새해인사에 담겨진 나의 뜻과 감정을 리해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더는 추대문제를 들고다니지 않기를 바

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양석은 얼굴을 붉히며 침묵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몽상기간에 대의원선거를 벌려놓고 춤추며 노래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곁을 떠나신 수령님앞에서 차마 하여서는 안될 일입니다. 의장동무는 세계정치사의 전례를 먼저 생각하면서 국가의 최고수위를 언제까지나 공백으로 남겨둘수 없다고 여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인민은 세계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혈연의 뉴대로 이어져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사의 전례보다 이 혈연적뉴대가 야기하는 경모심과 도덕적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자신의 결심이 몽상을 입고있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도 부합된다고 확신합니다.》
양석은 무슨 말인가를 할듯 했으나 입을 열지 못했다.
《의장동무, 내 한가지 과업을 주어도 좋겠습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농사일을 걱정하면서 생전의 마지막무렵까지 포전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지난해에도 평양시주변협동농장부터 돌아보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야 하겠습니다.
쌀이 있어야 사회주의도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는것입니다. 나는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을 농촌에 파견해서 올해농사를 잘 지을 결심입니다. 양의장동무도 황해남도에 나가 허덕복동무를 도와서 수령님의 유훈대로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양석은 일어서며 힘있게 대답했다.
김정일동지도 따라 일어서시였다.
《년세도 많은데 외지에 나가 생활하자면 불편한 점이 많을것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류의하십시오.》
양석이 집무실을 나섰다.
그를 바래운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어떻게 하나 식량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내처 떠나지 않

으시였다. 지난해에 있은 수해로 나라의 식량사정은 어렵게 되였다. 부족한 식량때문에 처처에서 가슴아픈 일들이 벌어지고있었다. 그 정상을 생각하면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으시였다. 어떻게 하면 알곡 생산을 높일수 있을가? 최근에 이르러 거듭해오던 그 생각을 이어가시였다. 세계적으로도 식량위기가 닥쳐오고있었다. 식량을 팔겠다는 나라도 거의 없고 주겠다는 나라는 더욱 없다. 자체로 해결하는 길밖에 다른 출로는 없다.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는 단위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좋은 종자를 심고 두벌농사를 해야 할것이다. 수확이 높은 감자농사를 장려해야 한다. 감자라면 대홍단군이 먼저 떠오른다. 감자를 주작으로 심는 고장이다. 그곳에서부터 감자농사혁명의 봉화를 추켜들게 하고 그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여야 하지 않을가.… 부침땅면적도 최대한으로 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전국의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토지정리사업은 어렵고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우리 인민의 식량문제를 풀기 위한 구상을 펼쳐가시였다.

5

허덕복은 방안에 들어서는 양석을 반겨 맞이했다. 여러기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고있는 그는 양석의장을 진작 잘 알고있었다.

《수고로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양석이 내려온다는 전화를 받은것은 2시간전이였다. 그런데 벌써 도착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황해남도에 나가 허덕복동무를 도와서 농사를 잘 지을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라는 과업을 주시였습니다. 식량고생을 하는 인민들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프게 생

각하시는 그이를 뵈옵고 어제 밤에는 쉬이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밥을 먹고 일찌기 떠났습니다.》

벽밑에 놓인 쏘파에 두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올해 우리 도의 농사문제와 관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년초부터 농민들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농업부문 지도일군들의 능력이 결렸습니다.》

허덕복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인사치레의 겸손이 아니라 이즈막에 품고있던 진정을 말했다. 농민들의 앙양된 기세에 일군들의 지도능력이 따라선다면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여왔다.

《농업부문은 나에게 있어서 생소한 분야입니다. 내가 덕복동무에게서 농사일을 배우면서 힘껏 일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리로 오면서도 내가 황해남도의 농사일을 어떻게 도와줄수 있을가 하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전화종이 울리였다.

허덕복은 저으기 난감한 기색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직급 높은 양석의장과 담화중인데 전화가 온것이다.

《어서 전화를 받으시오.》

양석이 깨우쳤다.

허덕복은 책상앞으로 다가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농기계수리공장 지배인에게서 온 전화였다.

《위원장동지, 밀보리파종기생산용강재를 받으러 갔던 자재상사동무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재만 보장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수 있겠는데 그게 걸려서 야단났습니다.》

순간 허덕복의 얼굴에 그늘이 덮이였다. 하지만 인차 표정을 바꾸며 지시조로 말했다.

《밀보리파종기생산은 시일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공장에 있는 파철을 용선로에 녹여서 강재로 쓰도록 하여보세요. 협동농장들에서 파철을 수집해서 수리공장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동지, 공장에 있던 쓸만한 파철은 시험용기계를 만들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철을 용선로에 녹여서는 필요한 강재의 규격과 강질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어렸다. 허덕복의 가슴도 그만 못지 않게 안타까왔다. 그러나 힘주어 말했다.
《지배인동무, 우는 소리는 그만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밀보리파종기는 지난번 협의회때 동무가 결의한대로 제기일에 생산해야 합니다!》
허덕복은 송수화기를 놓았다. 저절로 한숨이 나갔다. 내려먹이기는 했어도 강재가 없이 어떻게 기계를 만든단 말인가? 하지만 조건을 생각하면서 지도일군조차 동요를 한다면 아래사람들은 손맥을 놓고 주저앉기가 일쑤이다. 이것은 물길공사때에 찾은 심각한 경험이다. 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지도일군은 신심을 잃지 않고 어깨를 들이밀며 완강히 내밀어야 했다.
양석은 결연한 표정으로 도로 쏘파에 앉은 허덕복을 바라보며 물었다.
《밀보리파종기생산은 어찌된겁니까?》
허덕복은 그 기계의 창안과 생산의 절박성을 설명했다.
설명을 듣고난 양석은 응대했다.
《그러니 그 기계의 생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해남도에 주신 만정보 이모작면적보장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강재보장문제는 내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황철이나 강선의 지배인동무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니까 내가 부탁을 하면 풀어줄수도 있습니다.》
《의장동지, 고맙습니다.》
허덕복은 캄캄하던 눈앞이 금시 열리는듯 했다.
《해주에 오자마자 도내 농사일을 도울수 있는 일감을 찾은것이 나로서는 기쁩니다. 오후에 제철소와 제강소를 찾아가겠습니다.》
양석은 참말로 기쁜 기색이였다. 그는 히뭇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그런데 내가 나선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

획에는 물려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한 강재의 품종과 규격, 강질과 수량 등을 알려주시오.》

양석은 역시 사업에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였다. 모든 일에서 학자다운 리해를 앞세울줄 알았다.

《알겠습니다.》

허덕복은 성큼 일어서서 전화로 농기계수리공장 지배인을 찾았다.

《지배인동무예요? 허덕복입니다. 밀보리파종기생산에 필요한 강재의 품종과 규격, 강질과 수량을 알려주세요.》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배인의 목소리는 미타해하는 어조였다.

《우리 도에 내려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동지가 직접 황철이나 강선에 가서 해결해보겠다고 하였어요.》

《아, 그렇다면야!》

지배인은 탄성을 터쳤다.

《어서 내가 묻는것을 대답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강재의 구체적인 명세는 모르고있습니다. 내 책임기사 김용환동무를 바꾸어주겠습니다.》

지배인이 모를리 없었다. 이 엉큼한 사람이 딴생각이 있어서 굳이 정훈이 아버지를 바꾸어주겠다는것이다. 허덕복은 다소 어색한 감정이 치밀어서 어성을 높였다.

《지배인동무, 지배인이 강재의 구체적인 명세도 모르고 〈강재, 강재.〉하면서 우는 소리만 하였어요?》

그랬으나 응답이 없었다. 지배인은 벌써 송수화기를 놓고 책임기사를 데리러 간 모양이다. 잠시후에 수화기에서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여보, 나요. 파종기생산에 필요한 강재명세는 다음과 같소.》

허덕복은 남편이 불러주는 명세를 부지런히 옮겨썼다. 그리고 송수화기를 놓으려는데 남편이 다시 말했다.

《그런데 말이요. 국가계획에 물린 명세는 이상과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강종의 강재도 더 필요하오. 그것은 다음과 같소.》

허덕복은 저으기 역증스럽게 응대했다.

《여보세요, 계획분도 받기가 힘든데 추가분까지 어떻게 받는단 말이예요.》

《의장동지가 나서면야…》

《됐어요.》

전화를 끊고 양석에게 명세를 넘겨주었다.

양석은 명세를 서류가방에 넣더니 서둘러 말했다.

《이제 곧 황철로 떠나겠소.》

허덕복은 얼른 시계를 보았다. 12시가 넘었다.

《우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떠나십시오.》

《아무데간들 내가 점심을 굶겠소.》

《그야 그렇겠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여옵니다.》

허덕복은 양석을 눌러앉히고 전화로 농기계수리공장 지배인을 다시 찾았다.

《점심시간에 정훈이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의장동지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도록 말입니다.》

일이 바쁜 김용환은 점심식사를 공장의 구내식당에서 하군 했었다.

《알겠습니다.》

지배인은 선선히 대답했다.

허덕복은 양석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청사밖에 나오니 양석의 승용차가 서있었다. 젊은 운전사가 양석을 띄여보고 발동을 걸었다. 허덕복은 얼른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 집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차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서 내리세요. 동무도 함께 갑시다.》

운전사도 허덕복을 따라섰다. 허덕복의 집은 도농촌경리위원회 직원들의 아빠트 3층에 있었다. 살림방 두칸에 부엌과 위생실이 달린 평범한 집이였다.

손님들을 웃방으로 안내한 허덕복은 부엌에 내려가 탄불구멍을 열어놓고 잠시 머밋거리였다. 모처럼 손님들을 청해오기는 했으나 별로 대접할것이 없었다. 이웃집에 가서 말린 물고기 몇마리와 미역 한춤을 얻어왔다. 그리고는 서둘러 점심을 지었다.

운전사와 함께 웃방의 장판바닥에 초물방석을 깔고앉은 양석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가구도 변변한것이 없는 소박한 방이였다. 크지 않은 책상과 나무걸상, 텔레비죤이 전부였다. 하지만 초상화를 모신 벽에는 10여상이 넘는 기념사진이 있었다. 농업일군대회와 물길공사장, 탈곡장과 포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각이한 시기에 찍은 기념사진들이였다.

양석은 움쭉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념사진들을 주의깊게 보았다. 당에 충실한 한 녀성농업부문일군의 지나온 로정이 거기에 반영되여있었다. 젊은 운전사도 양석을 따라서 기념사진을 보았다. 그가 경탄조로 말했다.

《방안에 이렇다할 가구는 없지만 이 집에는 어느 집에서도 볼수 없는 가보가 있습니다.

의장동지네 집보다도 기념사진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그렇소. 실상 허덕복동무는 나보다 당과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 동무요.》

《남편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도농기계수리공장에서 일한다오.》

《지배인인가요?》

《아까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는걸 보니까 책임기사라는것 같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 집 량주가 너무 짝이 기운다는 뜻인지 운전사는 눈을 슴벅거렸다.

이때 김용환이 방안에 들어섰다. 그는 양석이 초면이였으나 텔레비죤에서 낯을 익혔기때문에 첫눈에 알아보았다.

《의장동지가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기쁘기 이를데 없습니다.》

《댁에 와서 폐를 끼치게 되여 미안합니다.》

양석은 인사를 하는 김용환에게 가볍게 머리숙여 답례를 보냈다.

《원, 무슨 말씀을…》

김용환은 운전사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세사람은 각각 초물방석을 깔고앉았다.

허덕복이 점심상을 차리였다. 크지 않은 두리반우에는 밥과 국,

말린 물고기구이와 김치가 올랐다. 김용환이 상을 다 차리고 옆에 앉으려는 안해에게 깨우쳤다.

《여보, 남자손님들의 밥상에 있어야 할게 빠졌구만.》

《난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허덕복은 남편을 할깃 바라보며 난색을 지었다.

《걱정마오. 내가 한병 간수해둔것이 있으니까 고뿌나 서너개 올려오우.》

김용환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벽장에서 술병을 꺼냈다. 그는 손님들에게 술병의 상표를 보이며 헌헌한 어조로 말했다.

《이게 해주특산인 〈옥계술〉입니다.》

김용환이 고뿌에 술을 치려 하자 양석이 손을 저었다.

《대접받은걸로 합시다. 나는 이제 황철과 강선을 다녀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용환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 길에 제가 따라가면 안되겠습니까?》

놀란것은 양석보다 허덕복이 더하였다. 허덕복은 팔굽으로 남편의 옆구리를 건드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김용환은 조금도 서슴는 기색이 없이 다시 말했다.

《밀보리파종기시험생산을 하여보니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특수재질의 강종이 얼마간 필요합니다. 우리 지배인은 저더러 의장동지를 따라가서 그것도 꼭 해결해오라고 과업을 주었습니다.》

허덕복은 남편에게 눈을 흘기였다. 엉큼한 지배인의 풍에 놀아나는 어리숙한짓을 탓한것이다.

하지만 양석은 선선히 수긍했다.

《그렇다면 함께 가봅시다.》

허덕복이 남편에게 귀띔을 했다.

《따라갈데가 따로 있지, 당신두 참.》

양석이 웃음진 얼굴로 허덕복에게 말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상설회의 의장을 인민의 한사람인 책임기사동무가 따라가는거야 너무도 응당하지 않소.》

이쯤되자 허덕복은 두번다시 고마운 심정이 실린 눈으로 양석을 바라보았다.

《실은 그 밀보리파종기를 우리 정훈이 아버지가 창안했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지배인이 그런 과업을 주었나봅니다.》

리해를 바라며 한 말이였으나 번지고보니 은근히 남편자랑이 되였다.

《알고보니 정훈이 아버지 역시 충실하고 재능있는 기술자이군요. 덕복동무가 청춘시절에 사람을 볼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소리없이 웃었다. 허덕복은 쑥스러운듯 고개를 숙였으나 마음은 즐거웠다.

《별로 차린것은 없지만 국이 식기 전에 어서 식사들을 하십시오.》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운전사가 승용차를 몰고 아빠트현관앞에 왔다.

양석과 김용환이 밖으로 나왔다. 허덕복이 뒤따랐다.

양석이 승용차의 뒤좌석문을 열고 차에 오르면서 김용환이더러 어서 타라고 하였다. 김용환은 정작 차에 오르자보니 고급승용차의 발판을 딛기가 어려운듯 주밋거렸다.

《어서 타시오.》

양석이 권고했다. 김용환은 어줍은 기색으로 차에 오르며 말했다.

《집사람승용차는 타본 일이 없지만 의장동지의 승용차는 이렇게 타봅니다.》

허덕복은 웃는 얼굴로 떠나는 승용차를 바래웠다.

×

이날 저녁이였다.

농기계수리공장 지배인이 허덕복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위원장동지, 기뻐하십시오.》

몹시 들뜬 목소리였다. 지배인은 숨이 차서인지 뒤를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이예요?》

재촉을 받고서야 지배인은 날숨을 길게 내여불며 응답을 했다.

《방금 강선에서 용환동무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상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동지도 그곳 소식을 초조히 기다리겠지만 위원장동지한테가 아니라 직속상급인 이 지배인한테 사업보고를 하였습니다. 갔던 일이 성과적으로 되였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강재까지 말입니다. 의장동지한테 우리 책임기사를 따라보내기를 잘하였습니다.》

허덕복은 지배인의 너스레가 비위에 거슬렸지만 그것을 탓할 경황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였다는 기쁨이 앞섰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군요. 그런데 강재는 언제쯤 공장에 들어올수 있답니까?》

《래일중으로 화물차들을 보내달랍니다. 황철에 2대, 강선에 3대. 그런데 아다싶이 우리 공장에는 화물자동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동지가 자재상사 화물차를 3대 동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동지는 래일 강재를 우리 공장에 실어보낸 다음에야 해주로 돌아오겠다고 한답니다. 래일 내가 직접 화물차들을 인솔해가지고 떠나겠습니다.》

《강재가 들어오면 즉시로 파종기생산에 착수해야겠는데 지배인동무가 자리를 떠서야 안되지요. 래일 인솔책임자는 자재상사 사장동무가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지배인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무슨 일에서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였다. 그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책임자들의 회의를 조직하면 늘 집행석밀의 첫자리에 앉군 하였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재상사 사장이 물었다고 한다.

《그 첫자리는 동무의 고정좌석인가?》

《이 첫자리에 위원장동지의 남편을 직속부하로 거느린 내가 앉지 않고 누가 앉겠나.》

물론 롱담이였다. 그랬으나 허덕복은 그 말을 전해들었을 때 불쾌했다. 언젠가는 지배인의 그 버릇을 떼여주려고 했으나 오늘도 기회를 놓쳤다. 하도 기쁜 일에 접하고보니 지배인의 너스레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허덕복은 자재상사 사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해당한 임무를 주었다. 이로써 오늘일은 끝난셈이였다.

퇴근을 하려는데 전화종이 울리였다. 송수화기를 들어보니 은률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걸어온 전화였다.

《부대로력의 로력공수평가와 그들에 대한 분배문제를 두고 문의할것이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거야 지금까지 하여온 방법대로 하면 되지요.》

허덕복은 의아했다. 부대로력이란 협동농장들에서 힘에 맞게 일을 하는 년로보장자들이나 사회보장자들을 말한다. 그들에 대한 로력공수평가와 분배량은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된 초창기부터 합리적으로 제정되여있었다. 오늘에 와서 그 문제를 새삼스레 거드는것이 리해되지 않았다.

《종전에 협동농장들에 있던 부대로력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자원한 부대로력문제입니다. 우리 군, 읍 협동농장에는 이번에 무려 200여명이 자원하여왔습니다. 처음 발기를 한것은 읍에서 사는 한 년로보장자아바이였습니다.

대대장을 하는 아들이 최전연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아들부대에 다녀왔는데 이튿날부터 년로보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들네 대대가 적들과 싸운 전투담을 들려주고 로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먹어보자고 접어드는 때에 아직 오륙을 놀릴수 있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겠는가고 하면서 올해 만정보이모작면적확보와 농사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고 했습니다. 로인들이 모두 호응했습니다. 아바이는 30여명의 로인작업반을 뭇고 군당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군당에서는 적극 지지하고 고무해주었습니다. 로인작업반에는 전쟁로병들과 제대군인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군당에서는 이왕이면 〈로인작업반〉이 아니라 〈로병작업반〉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로병작업반소식은 읍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읍내 로동자, 사무원가족들이 로병작업반의 뒤를 따라 농사일을 지원해나섰습니다. 이쯤되고보니 군내의 다른 기관의 가족들도 떨쳐나섰습니다. 그들은 물론 로력공수나 분배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동농장으로서는 거기

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는겁니다.》

《그 문제는 내 우리 동무들과 토론해보고 농업위원회에도 건의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년로보장을 받는 로인들과 부양가족들까지 농사일에 떨쳐나섰다는것은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참으로 그렇다. 우리 도의 농사를 두고 간곡히 가르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의 앙양된 모습을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는듯 했다. 허덕복은 신심과 용기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것을 의식했다. 올해는 도내농사에서 기어이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리라!

6

날로 엄혹해지는 정세를 꿰뚫어본 **김정일**동지께서는 무거운 사색에 잠기시였다.

대국상을 당한 후 우리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침략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놈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사회주의의 종말》을 요란스레 떠들면서 악랄하게 접어들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미제는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위협과 도발책동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였다. 놈들의 전략정찰기들이 군사분계선상공을 비행하면서 공화국북반부 전반적지역에 대한 정탐행위를 끊임없이 벌리였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그 어느때보다 열을 올리였다. 《을지》와 《포커스렌즈》라는 명목으로 갈라서 벌려오던 전쟁연습을 통합하여 《을지, 포커스렌즈》북침전쟁연습으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는 한차례의 전면전쟁을 치르고도 남을만 한 군대와 최신무장장비들이 동원되였다.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뿐만아니라 미태평양함대 소속 7함대와 비행대들이 참가하였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벌리기 위한 또 다른 전쟁연습이였다. 이 전쟁연습 역시 해외로부터 수많은 침략군무력이 투입되였으며 새해에는 지난 시기와 달리 그 기간이 30일로 대폭 늘어났다. 외국의 어느 한 군사잡지는 《독수리》전쟁연습의 내용과 위험성을 론평하면서 그것은 《북조선을 기습하여 상대방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한것》이며 《특수부대의 북조선침투연습을 배합한 종합전쟁연습》이라고 하였다.

미제는 군사적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시도하면서 또다시 《특별사찰》소동을 일으켰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국제반동들은 우리더러 《전면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란스레 떠들었다. 지어 미제강경보수세력들은 항공모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북조선에 대한 군사력을 행사할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해나섰다.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행위도 극도에 이르렀다.

김영삼역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에 대한 비보가 전해지자 군대에는 《특별경계령》을, 경찰에는 《갑호비상령》을, 공무원들에게는 《비상대비령》을 내리는것으로 동족상쟁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역도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비법적으로 군대를 들이미는 한편 수많은 최신군사장비들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들이였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남조선괴뢰도당의 군사정치적도발과 압력,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위험이 짙게 떠돌게 되였으며 그것이 언제 터질지 예측할수 없는 첨예한 국면이 펼쳐졌다.

정세의 엄혹성은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했다. 우리는 필요한것을 자본주의시장에서 사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이것을 기화로 경제제재와 봉쇄로 목조르기를 하려고 덤벼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킬수 있다고 타산했다. 놈들은 어리석게도 언제쯤 가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질것이라고 그 시기까지 나름대로 찍었다. 실상 남들같으면 열번도 더 무너질수 있는 엄혹한 정세에 놓여있었다. 세계는 우

리가 겪고있는 전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두고 관심을 모았다. 과연 좌절되는가, 아니면 이 난국을 뚫고 나가는가?

사회주의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닌 **김정일**동지께서는 험난한 역풍을 과감히 뚫고나가야 하였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셔야 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어깨에 실리는 력사의 중하를 무겁게 실감하며 심중한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그럴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오시였다. 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수령님과 의논하고 동의를 받으면 눈앞이 확 열리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시련많은 력사를 더듬어보시였다. 거기에는 비범한 정치적혜안과 무비의 담력을 지닌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극복할수 있었던 생사운명의 판가름이 벌어지는 준엄한 력사의 계기들이 많았다.

초기혁명활동시기 5.30폭동이후 더욱 강화된 일제의 폭압과 백색테로에 의해 품들여 꾸려놓았던 혁명조직들이 파괴되고 김혁, 최창걸을 비롯한 열혈투사들이 무수히 희생되였다. 혁명은 완전한 좌절을 당하는듯싶었다. 그러나 무비의 헌신성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신 수령님께서는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 혁명조직들을 복구하고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새싹을 무성하게 키우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또 얼마나 시련의 고비들이 많았던가.

1차북만원정에서 돌아올 때 얼마 남지 않은 대원들을 거느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험준한 산발을 넘은 수령님께서는 촉한으로 생명의 위험을 당하시였다. 백설의 광야에 묻히고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 싸우느냐 준엄한 판가름이 앞에 놓이였다. 이러한 때 수령님께서는 가물거리는 의식을 초인간적인 의지로 가다듬으며 《반일전가》를 지어 대원들과 함께 부르며 사선의 고비를 헤치시였다.

력사에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우는 시기는 말그대로 한치한치 엄혹한 시련을 헤쳐가는 피의 로정이였다. 며칠씩 끼니를 번지며 걸어가는 대오에 일제《토벌》대들이 사면팔방으로 달려들었다. 수령님께서는 령활한 전술로 적들을 쳐부시고 베이다딩쯔(북대정자)에 이르렀고 그후 혁명의 새로운 앙양기를 안아오시였다.

해방후에도 엄혹한 시련의 고비는 여러번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은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미제는 제국주의 련합세력과 남조선괴뢰도당을 거느리고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괴멸시키려고 접어들었다. 적아의 력량은 대비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원쑤격멸의 성전에로 호소하고 몸소 그 진두에서 침략자들을 멸망시키시였다. 이것은 세계를 경탄시킨 력사의 기적이였다.

전후에도 시련의 고비가 있었다. 순탄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재더미우에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데 미제의 사촉을 받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진》소동으로 열을 올리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그런가위에 이웃나라들에서는 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저들의 그릇된 로선을 내려먹이려고 우리를 압박해왔다. 여기에 장단을 맞추며 당내의 반당종파분자들은 내부로부터 우리 당을 전복하려고 꾀하였다.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수령님께서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고 지금 자신께서 믿을것은 우리 로동계급밖에 없다고 하면서 천리마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수령님께서 무수히 헤쳐온 준엄한 난국들은 심오한 력사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형세가 준엄하다하여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일떠서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인민을 하늘로 여기며 한평생 투쟁하여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비록 곁을 떠났지만 혁명의 진리와 풍부한 력사적경험으로 자신을 고무해주신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솟구치는것을 의식하시였다. 그렇다. 일심단결의 의지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수령님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붉은기를 끝까지 들고 나갈것이다!

이튿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고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싸움준비를 잘하며 혁명적군풍을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세계제국주의강적과 치렬한 대결전을 벌리고있습니

다. 이미 말했지만 나는 인민군대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오늘의 준엄한 난관을 뚫고나가려고 합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전초선에 서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인민군대가 주력군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며칠후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사업을 담당한 책임일군들에게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조국수호의 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쑤격멸의 단호한 의지와 결심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7

허덕복은 배천군의 몇개 협동농장들을 돌아보고 해주로 향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례년에 없이 앙양된 분위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잘 지어보려는 각오가 어데서나 불타오르고있었다. 농장마다 배로 늘어난 이모작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예상외로 빨리 추진되였다. 광범한 토의를 거쳐서 적지들이 확정되였다. 우려하였던 종자도 이미 전량이 확보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흘리던 피눈물이 힘과 용기로 바뀌여진 현실을 허덕복은 가슴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바로 이것을 믿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도에 이모작과제를 주시였구나! 하는 생각에 휩싸였다. 도에서 열린 협의회때는 농업지도일군들의 달라진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보았다면 오늘은 농민들의 높아진 열의와 각오를 보았다. 끊임없이 포전길을 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흙묻은 손을 서슴없이 잡아주고 뜨겁게 고무해주면서 사랑을 다해 키우신 우리 농민들이였다. 그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해낼수 있다는 신심이 북받쳤다. 이제 남은것은 자신을 포함한 농업지도일군들이 농민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영농지도사업을 짜고드는것이다.

허덕복은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두고 생각을 거듭했

다. 이제 해토가 되면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은 협동농장들에서 전작파종본보기를 창조할것이다. 그리고는 도와 군의 농업지도일군들을 협동농장들에 파견할것이다. 북받치는 사업의욕에 가슴이 설레였다. 차창밖으로는 눈덮인 들판으로 거름을 실어나르는 농민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이였다. 그들도 지금 자기와 같이 씨붙임의 봄날을 그려보며 일손을 다그칠것이다. 봄이여, 어서 오라!

봄은 아직 멀리에 있었으나 허덕복의 가슴속에서는 씨붙임의 봄날이 태동하고있었다.

승용차는 어느새 해주시내에 들어섰다.

군대행렬이 도로복판으로 노래를 부르며 행진해오고있었다. 앞에는 군관이 서고 뒤따르는 대오에는 빨간 전사령장이 달린 새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늘어섰다. 군대에 입대를 한 초모생들이 분명했다.

승용차는 서서히 군대대오와 길을 어기였다.

허덕복은 평양에 있는 두 아들을 생각했다. 맏아들 정훈이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2학년에 다니고 둘째 경훈이는 중학교 4학년에 다닌다. 정훈이도 저 청년들처럼 인민군대에 탄원하지 않았을가? 곁에 있다면 남먼저 총을 메고 위대한 장군님의 친위전사가 되여야 한다고 권고했을것이다. 해주에서도 농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엄혹해진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탄원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탄원사업이 벌어졌을것이다. 시대의 엄숙한 부름앞에서 정훈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있을가? 혹시 배움의 행복에 도취되여 총잡기를 주저하고있지나 않는지…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사람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그 진면모가 드러나는 법이다. 정훈아, 조국의 하늘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오는 이때 너는 과연 무엇을 결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있느냐?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지켜 한목숨바쳐 싸울 준비가 되여있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너를 낳아키운 이 어머니는 자신부터 용서치 않을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평양에 있는 언니네 집에 전화를 걸어서 정훈이의 태도를 알아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려서 볼일을 보

다보니 여느때없이 늦어졌다. 출입문을 열고 전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있었다. 저녁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던 참이였다. 밥상옆에는 세면도구와 목달개, 빨간 수첩과 원주필이 놓여있었다. 언젠가 펼쳐본 일이 있는 남편이 군복입은 시절에 쓰던 퇴색된 《병사수첩》도 있었다. 부피가 두툼한 그 수첩에는 병사생활의 지침으로 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내용 그리고 남편자신이 쓴 수기와 그가 즐겨외우던 전투적인 시들이 적혀있었다.

자못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깨우쳤다.

《오늘 낮에 정훈이 이모가 우리 공장에 전화를 걸어왔소. 당신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사무실이 비여있어서 나를 찾았던거요. 정훈이녀석이 군대로 나간다오. 래일 군복을 입는다오. 당신 래일 평양에 올라가봐야겠소.》

허덕복은 기뻤다. 그러면 그렇겠지. 우리 정훈이가 어떤 애라구, 원쑤들의 전쟁도발책동이 우심해지는 이때에 총잡을 궁냥을 하지 못할 애가 아니지. 장하다, 정훈아. 그런걸 모르고 이 어머니는 혹시 네가 배움의 행복에만 도취되여 총잡기를 서슴어하지 않을가 하는 우려를 했댔구나. 오래동안 떨어져있었던탓으로 순간이나마 아들을 믿지 못한 이 어머니를 용서해라!

눈앞에 방불히 떠오르는 아들의 군복입은 모습을 그려보며 마음속의 말을 보내였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래일 당신도 평양으로 함께 가자요.》

《아무래도 난 못 가겠소. 밀보리파종기창안이 단대목에 이르렀소. 도무지 몸을 뺄수가 없소. 당신이 내 병사시절의 이 수첩을 전해주면서 그녀석한테 말해주오,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 수첩에 다 적혀있다고. 그 수첩이 정훈이의 병사생활에 도움이 될거요. 내 그래서 낮에 그녀석한테 보낼걸 마련하다가 궤짝속에서 병사시절의 수첩을 찾아냈소. 내가 섰던 초소에 아들녀석이 서게 되니 마음이 대견하고 생각이 깊어지누만.》

남편은 감개가 무량한 낯빛이였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병사시절로 되돌아가는듯 한 심정일것이다.

허덕복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정훈이가 갓 태여났을 때의 사연이 머리에 떠올랐다.

정훈이가 태여날무렵에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대회가 열리였다. 허덕복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평양의학대학병원(당시)에서 몸을 풀었다.

농업대회를 몸소 지도하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덕복동무가 왜 보이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대회보고서에는 허덕복이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역내농사를 잘 지은 사실이 올라있었던것이다. 해당한 일군으로부터 그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연을 들은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덕복동무가 농사도 잘하고 아들까지 낳았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요. 그에게 몸간수를 잘하고 아들애를 훌륭히 키우라고 하시오.》

이튿날 그이께서는 병원을 찾아가는 일군을 통하여 산모를 위해서는 꿀과 닭알을, 아기를 위해서는 옷과 담요를 보내주시였다. 허덕복은 격정에 넘쳐 목메여 울었다. 친부모인들 이렇게 다심히 보살펴주시랴. 녀의사가 울면 산모의 몸에 해롭다고 몇번이나 속삭였지만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얼마후에 진정을 한 덕복은 아기에게 조심히 옷을 입히였다. 연분홍모달리천으로 지은 애기옷은 연약한 어린 생명의 몸을 포근히 감싸주었다.

덕복은 아기를 꼭 껴안고 볼을 비비며 속삭였다.

《네가 이 세상에 태여나서 처음 입은 옷이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것임을 먼 후날에도 잊지 말아라.》

물론 갓난아이였던 정훈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허덕복은 아들애의 가슴에 자기의 말이 심어지리라고 믿었다. 어머니로서 아들애의 장래를 축복하는 념원과 기대가 그 한마디에 담겨져있었다.…

이튿날이였다.

오전에 긴급한 일들을 처리한 허덕복은 오후에 평양으로 올라왔다. 보통강가에 있는 언니네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저녁녘이였다. 마침 집에는 언니와 두 아들이 있었다. 정훈이는 군복차림이였다.

오늘 새 군복을 타입은 초모생들은 집에 돌아가 하루밤 자고오라는 승인이 있었다고 했다.

허덕복은 제법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웃고있는 정훈을 와락 품에 그러안았다. 반가움과 대견스러움이 가슴에 넘치였다. 정훈이는 지난 여름방학때 해주에 내려와서 며칠간 부모들과 함께 지냈다. 그러니 헤여져있은 기간은 불과 몇달밖에 안된다.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랜만에 만나는듯 한 정회가 밀려들었다. 정훈이는 몰라보게 성장한듯싶었다. 키도 더 커보이고 몸도 더 름름해보이였다. 아마도 위엄있는 군복이 더해주는 인상때문일것이다. 군모의 오각별과 목깃의 령장을 쓸어보았다. 거기에서 뿜겨지는 빨간 빛갈이 심장한 의미를 담고 망막에 새겨졌다.

《어머니, 아버지는 안 오셨나요?》

한참만에 정훈이가 물었다.

덕복은 그를 껴안았던 팔을 풀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바빠서 못 오셨다. 그대신 아버지는 너에게 주어보낼 것들을 다 마련해서 보내셨다.》

덕복은 눈길로 자기가 들고온 가방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전날의 병사였으니까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실거예요.》

정훈은 은근히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자랑을 풍기였다.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내려갔다. 저녁밥을 지으려는것이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되여오고있었다. 겨울의 짧은 해는 어느새 지고 밖에는 어둠이 깃을 펴기 시작했다.

《큰어머니가 저녁밥을 짓는 사이에 우리는 만수대에 다녀오자.》

두 아들은 말뜻을 깨닫고 어머니를 따라 일어섰다.

허덕복은 두 아들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만수대언덕은 멀지 않았다. 뻐스를 탈것도 없이 걸었다. 군복입은 맏이를 앞세우고 걷는 어머니의 마음은 마냥 즐겁고 긍지로왔다. 실팍한 맏이의 잔등에서 줄곧 눈길을 뗄수 없었다. 어머니로서 조국앞에 할일을 한듯 한 자

부심에 가슴이 뿌듯해졌다. 길가의 꽃상점에 들려서 그중 아담해보이는 꽃송이를 사서 정훈에게 주었다.

그들은 어느덧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촉수높은 전등이 사위를 밝히였다.

정훈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송이를 드리였다. 잠시 동상을 우러르던 그들은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허덕복은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흘러간 지난날이 생생히 돌이켜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훈에게 깨우쳤다.

《정훈아, 네가 이 세상에 태여나서 처음 입었던 애기옷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셨던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이것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너에게 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낸 축복의 당부였다. 군복을 입은 지금의 너에게 이 어머니가 하고싶은 당부도 그것이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처음은 정훈이가 독사진을 찍었고 다음은 셋이 함께 찍었다. 그리고 다시 동상을 우러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으로 멀리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한손을 들어 그 길을 가리켜주고계시였다.

덕복은 불현듯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는것을 의식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손길따라 항일의 선렬들이 혈전만리를 헤쳐왔고 혁명의 다음세대가 전쟁의 포화를 뚫고 조국을 수호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왔다. 오늘은 정훈이를 포함한 혁명의 새 세대가 그 손길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가고있다. 오직 그 손길을 따라 전진하는 력사의 흐름은 영원할것이다!

제 6 장

1

야전차는 평양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갑나무중대를 현지지도하고 돌아가시는 길이였다. 지난 1월 1일 다박솔중대를 찾은데 이어 이번에도 기본전투단위인 중대를 찾으시였다. 전군강화의 중심고리를 중대를 강화하는데 두시였다.

15세기 프랑스군대에서 대대밑에 중대들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군대편제에서 중대가 생긴것은 몇백년이 되여온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중대를 군대의 기본전투단위로, 전군강화의 중심고리로 보고 중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은 실례는 세계무력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근대에 와서 군단으로부터 소대에 이르기까지 조직편제를 갖춘 많은 나라들에서는 주로 련대를 가장 중요한 전술단위로 보았다. 이 이후 쏘련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면서 사단을 강화하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대중의 생활거점을 중심에 놓고 고찰하시였다. 군인대중의 생활과 활동의 거점은 중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도 혁명군대에서 중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을 계승하여 전군강화의 기본고리를 중대강화로 보시였다.

이번에 갑나무중대를 돌아보시니 중대를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훌륭히 구현되고있었다. 그 중대는 녀성해안포중대였다. 녀성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은 나무랄데가 없었다. 그들은 누구나 녀성장수들이였다. 육중한 해안포를 능숙하게 다루었고 동작도 날래였다. 중대의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리였고 중대예술소조공연도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였다. 감나무중대는 20여년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를 하신 단위였다. 그때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린 녀전사의 딸이 오늘은 전날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초소를 지키고있었다. 너무도 대견하여 녀병사를 만나보시니 그의 아버지도 현역군관이였다. 그야말로 총대가정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가정의 래력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며 조국수호에 떨쳐나선 온 나라 가정들을 보는듯 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집집마다에 《장군님식솔》이라는 족자를 걸어놓고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가장으로 높이 모시고 식솔모두가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총대가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생각하시였다. 원쑤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감나무중대와 같이 모든 중대들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고 온 나라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일심으로 단결되여있는 이상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굳건히 수호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승용차의 경적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나시였다. 달리는 야전차앞에 바구니를 들고 지팽이를 짚은 로인이 나타났다. 뒤를 피끗 돌아보고 허둥지둥 자국을 옮기는품이 앞을 잘 못 보는것 같았다.

《어디까지 가는 로인인지 태워다드립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전사에게 이르시였다.

야전차가 멎었다.

차에서 내린 **김정일**동지께서는 길가에 비켜선 로인에게 다가가시였다.

로인은 성긴 백발과 깊이 패인 이마의 주름으로 보아 칠순이 훨씬 넘은듯싶었다. 보기에는 눈이 정상인것 같았으나 미간을 모으고 상대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것으로 보아 어지간히 시력이 약했다.

《로인님, 어디까지 가는지 차에 오르십시오.》

《고맙쉐다. 헌데 난 저 고개를 넘어서 5리쯤 가면 됩니다. 바쁠텐데 어서 가보시우.》

《년세도 많은데 어서 차에 오르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인의 팔굽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에 태워주시였다.
《고맙쉐다.》
로인은 손더듬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는 거북스러운 자기의 행동이 미안한듯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력이 약해졌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동정어린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전쟁때 2전선에서 싸웠는데 놈들의 폭탄에 시신경이 위축되였지요. 그런대로 젊었을 때에는 안경을 끼고 글자도 보군 했건만…》
전쟁로병이구나! 그이께서는 존경심이 끓어오르는것을 의식하시였다.
로인은 추연한 기색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7월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눈이 더 나빠졌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너무도 절통한 일을 당하면 눈이 감긴다고 일러왔는데 내 지내보니 그게 사실이웨다.》
로인의 마지막목소리는 목밑에 잠기는듯 했다.
야전차가 떠났다. 차체가 가볍게 흔들렸다. 로인은 차실바닥에 놓인 바구니모서리를 움켜잡았다. 그안에 담긴것이 쏟아질가봐 조심하는것 같았다. 바구니에는 크고작은 풀뿌리들이 담겨져있었다.
《그게 무슨 약초들입니까?》
친절히 물으시였다.
《약초도 몇뿌리 있지만 대부분은 둥굴레를 비롯해서 사람이 먹을수 있는 풀뿌리들이웨다. 양지바른 만삼골에는 해토가 된 곳이 있어서 식량보탬을 하려고 캐여옵니다. 막내를 앞세우고 떠났던 걸음인데 나만 먼저 집으로 갑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실감하시였다.
《년로한 몸에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군력강화에만 힘을 넣고 인민생활에 관심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로인은 못마땅해하는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며 따지듯 물었다.

《도대체 거기서는 어데서 일보는분이시요?》

《당중앙위원회에서 일을 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민생활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크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로인은 얼굴에 얼핏 떠올랐던 노기를 가시고 담담한 어조로 응대했다.

《걱정놓으시우. 우리야 뭐라나요. 혁띠고리 하나만 더 조이면 되지요. 그저 군대만 든든하면 되우다. 깨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지금과 같은 때에 인민군대의 힘이 여의치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소. 미국놈들에게 백번 먹히우고도 남았을거웨다. 그래서 이 근래에 우리 장군님께서 군대의 힘을 더 크게 키우실려구 내내 힘든 걸음을 하시는줄 우리두 잘 알고있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인의 소박한 말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으시였다. 머리를 가볍게 숙이며 마음속으로 뇌이시였다. 로인님, 고맙습니다. 로인님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의 이 난국을 헤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 인민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인민의 지상락원을 이 땅우에 펼치겠습니다.

로인이 여전한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딸년도 최전연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합니다. 지난해 가을에 적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애도 접전에 참가했답니다. 오빠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년이라 성미가 드세고 주먹 또한 사내들 못지 않아서 주먹으로 괴뢰군 장교놈을 내리쳐서 포로했답디다. 최전연에서는 적들의 도발로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나봅니다. 그러니 우리 장군님께서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인줄로 압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선서부에 있었던 적들의 도발사건에 대한 총참모부의 보고를 상기하며 급히 물으시였다.

《로인의 딸이 대대위생소장으로 복무하지 않습니까?》

《군의대학을 졸업하고 대대위생소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접전이 있은 다음에는 간호원양성중대 중대장이 되였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년의 성미는 군의로 복무하기보다 녀성구분대 지휘관으로 복무하는게 나을겁니다. 부대에서도 그걸 알고 조동시켰나봅니다. 헌데 우리 딸년을 어떻게 아시우?》

《저도 로인의 딸이 복무하던 대대가 불의에 달려드는 적들을 일망타진한 전투소식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딸을 두었습니다.》

로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자랑은 아니지만 싸움판에 들어서는 우리 옥순이가 사내들 못지 않을겁니다.

중학교시절에 태권도선수였는데 남학생들도 모두 손탁에 거머쥐군 했답니다. 맏이를 닮아서 동생들도 치마를 둘렀지만 록록치 않은 편인데 차례로 군대에 나가서 구실을 바로 한다나봅니다. 그 애들이 복무하는 부대 정치부에서 우리 집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훈련과 생활에서 여사여사하게 모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로인님가정도 총대가정이군요. 아들은 없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인과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무등 즐거우셨다.

《내가 늦게 가정을 이룬데다 로친이 재간이 없다보니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야 내리내리 딸애들만 넷을 낳았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없는것이 서운했지만 딸년들 셋이 총대를 잡은 후로는 아들을 가진 령감들보다 오히려 더 버젓한 생각이 듭니다. 막내년도 올해는 군대로 나가겠답니다. 나이가 되였거던요.》

고개를 넘은 야전차는 들판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달리였다. 마을이 나타났다.

《로인님네 집이 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운전사가 물었다.

《고개를 넘어 첫 동네면 옳쉐다. 상점 옆집이 바로 우리 집이지요.》

로인의 집은 길가에 있었다.

차가 멎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차문을 열어주시였다. 땅에 내려선 로인은 거듭

고맙다고 하더니 불쑥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이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 한가지 긴한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오. 얼른 집에 들어갔다 나오겠수다.》

로인은 허둥거리며 집으로 들어가더니 인차 나타났다. 손에는 정히 종이로 싼것이 들려있었다.

《중앙당에서 일을 보신다니 부탁을 드리는건데 이걸 우리 장군님께 올려주시오.》

《그게 뭡니까?》

김정일동지께서 친절히 물으시였다.

《산삼이웨다. 지난 가을에 만삼골에서 캔것인데 물계를 아는 사람들의 말이 여러해 실히 잘 자란것이라우.》

로인은 종이를 펼치였다. 크고 탐스러운 산삼이 드러났다. 얼마나 정성들여 캐여냈는지 잔뿌리 하나 상하지 않았다.

《로인님이 달여잡수시고 정정한 몸으로 오래 사십시오.》

《나는 앞을 좀 못 볼뿐이지 다른데는 탈이 없쉐다.》

《식량사정이 어렵겠는데 그걸 가용으로 쓰십시오.》

《좀 헐먹기는 해두 우린 일없수다. 거기서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수령님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장군님께서 마음고생이 오죽 많으시겠소. 쪽잠에 줴기밥을 들면서 현지지도를 하느라고 쌓인 피로인들 얼마나 크시겠소. 장군님께서 건강하셔야 나라의 정사도 잘 되고 우리 백성들도 마음이 기쁩니다. 촌늙은이의 소청이니 이걸 그이께 꼭 드려주시우.》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인의 진정이 가슴후덥게 안겨오는것을 느끼시였다. 하지만 선뜻 받으실수 없었다.

《제가 로인님의 그 마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산삼은 그대로 간수해두십시오.》

끝내 사양하시였다. 그러자 로인의 얼굴에 노여운 기색이 떠올랐다.

《어쩌면 그리할수가 있소. 우리 지방사람들은 요즘 텔레비에서 나오는 장군님의 축가신 모습을 뵈오면서 가슴이 아파 웁니다. 로친이 가려보고 대줍디다. 그리고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분들

을 원망하지요. 장군님을 잘 돌보아드리지 못한다고… 우리같은 촌내기들이야 마음뿐이지 장군님의 건강을 돌보아드릴수가 없지 않쉐까. 다행 귀한 약재가 생겨서 장군님께 드려달라는건데 어쩌면 그 부탁조차 들어주지 못하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로인을 뜨겁게 바라볼뿐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이쪽을 지켜보던 운전사가 차에서 내렸다.

《로인님, 그걸 이리 주십시오. 제가 장군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늙은것의 부탁을 들어주어 고맙쉐다.》

산삼을 운전사에게 넘겨준 로인은 평생의 숙원을 이룬듯 시뭇이 웃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인의 손을 포개여잡고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로인님, 부디 건강한 몸으로 오래 앉아계십시오.》

목이 메여오고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느끼시였다. 자신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는 이처럼 훌륭한 인민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못한것만 같은 자책감이 강렬하게 치미시였다. 하지만 그 심정을 알길 없는 로인은 자기 부탁을 거절하셨던 방금전의 일을 생각하며 흐뭇해하였다.

《어른이야 우리 집살림을 걱정해서 부탁을 마다하신줄 내 모르지 않수다. 부디 잘 다녀가시우.》

야전차가 떠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운전사에게서 넘겨받은 산삼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다. 사무쳐오는 로인의 진정에 가슴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이처럼 훌륭한 인민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굳세게 지켜주리라!

깨여진 둥지에 성한 알이 있을수 없다는 로인의 말이 상기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에 굴복하는 경우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것을 우리 인민은 너무도 잘 알고있다. 그러기에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분연히 일떠서고있는것이다.

평양에 돌아온 며칠후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시였다.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의 책임일군들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을 미더웁게 둘러보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도 중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중대를 강화하는데 전군강화의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중대에서 인민군대의 기본대중이 생활하고있으며 당의 군사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중대를 단위로 하여 조직진행되고있습니다.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성대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대회의 문건작성과 참가인원, 기일과 장소, 참가자들의 숙식조건보장 등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모임을 결속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나는 머지않아 있게 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를 강화하는것은 인민군대전체를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됩니다.》

《출발점!》

일군들은 입속으로 조용히 외웠다. 여기에 전군강화의 비결이 응축되여있었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으신 뜻과 구상에 깊은 충격을 받아안았다.

2

1995년 2월 16일 아침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수산의사당을 향해 떠나시였다. 차창으로 보이는 거리는 명절일색으로 단장되였다. 명절의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도를 메우며 흘러갔다. 그들의 밝은 얼굴과 거리의 장식물에서 인민이 자신에게 보내는 축원의 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시였다.

온 나라는 올해의 이날을 전과는 다른 특별한 경사로 맞이하고 있다.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함에 대한 중앙인민위원회결정이 지난 7일에 발표되였다. 그 결정으로 말하면 3년전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준하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김정일**동지의 탄생 50돐을 앞두고 그 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소식을 들은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정령의 발표를 일군들에게 간곡히 만류하시였다. 그리고 수령님께도 간절히 말씀드리시였다.

《저는 어디까지나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민족최대의 명절은 4월 15일외에 다른 날이 있을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선뜻 수긍하지 않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거듭 말씀드리였다.

마침내 수령님께서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심정이 정 그렇다면 하는수가 없구만. 그 충실성과 겸손성앞에서 내가 한걸음 물러서겠소. 정령발표를 보류합시다. 내가 비준한 정령이 발표되지 못하기는 지금이 처음이요. 그러나 언젠가는 꼭 발표되여야 하오.》

그리하여 정령원문은 발표되지 못한채 문서고속에 3년동안이나 묻혀있었다.

올해 2월에 접어들면서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념원에 따라 드디여 그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이 발표되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격정과 환희로 들끓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전의 수령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크셨던가를 새삼스레 실감하면서 거기에 보답할 새로운 결의를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리라!

몇번이고 수령님령전에서 다진 그 엄숙한 맹세가 탄생일의 이 아침에 다시금 가슴을 불태우시였다.

승용차는 어느새 금성거리에 들어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침저녁으로 다니시던 거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순간 바로 금성거리의 그 초입에, 넓은 도로를

건너지른 기초우에 높이 솟은 수령영생탑을 세울 구상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불멸의 구호는 지금 온 나라 기관과 기업소들의 청사에,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져있다. 이제 금성거리의 초입에 세워질 영생탑에도 그 구호가 새겨질것이다.

금수산의사당에 이른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시 잠에 드신듯 고요히 눈을 감고 누워계시는것만 같았다.

《**김정일**동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금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축복해주실것만 같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현듯 3년전의 2월 16일 아침에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오르시였다.

그날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많은 일감을 앞에 놓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일손을 놓고 정중히 일어서서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내 오늘을 맞으면서 송시 한수를 지었습니다. 이제 책임서기에게 주어서 보낼테니 받아주시오.》

《송시란 말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뭇 놀라시였다.

《백두산정기를 타고난 **김정일**동지는 문무충효를 겸비한 나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만민이 우러러따르는 **김정일**동지를 두고 내 평소에 품어오던 심정을 시구로 엮어보았습니다. 심정은 앞서는데 표현이 따르지 못해서 여러번 다듬었습니다. 방금전까지 드디여 완성했습니다. 탄생 50돐을 맞는 **김정일**동지에게 보내는 나의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오.》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화끈해지시였다.

《저는 아직 수령님께서 지으신 그런 송시를 받을만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송시를 받을 자격이 되고도 남습니다. 사양말고 받아주시오.》

얼마후에 위대한 수령님의 책임서기가 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가 펼친 송시를 보시였다.

수령님께서 한자로도 쓰고 우리 글로도 쓰신 송시의 활달한 글자들이 살아움직이며 종이에서 튀여나와 눈앞으로 안겨드는듯 하시였다. 한없이 고마운 심정과 송구스러운 마음이 교체되며 가슴에 넘치였다.

지금 수령님앞에 서고보니 조용히 송시를 읊어주시는 수령님의 음성이 귀가에 울려오는듯 하시였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송시는 저를 언제나 뜨겁게 고무해주고있습니다. 너무도 과분한 칭송이였습니다. 저는 그 칭송을 저에 대한 수령님의 기대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송시는 수령님 생존시와도 달리 더욱 크나큰 분발의 의지와 각오를 안겨주고있습니다!)

3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탁우에 수북이 쌓인 문건을 차례로 보시였다. 처음 펼친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 실태자료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월 중순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근 년간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주신 교시를 가지고 집중강습도 조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해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자료에는 그 가르치심을 받들고 진행된 사업정형이 상세히 기록되여있었다. 실태자료에는 자력갱생의 힘으로 숨죽은 공장들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 도처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사실이 밝혀져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아픈 마음들이 그이의 유훈을 관철하려는 분발의 의지로 폭발하고있었다. 하지만 수입원료와 자재에 의존하는 공장들의 전망은 밝지 못했다. 긴장한 자금사정으로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사올수 없었다. 지진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에게 위문금과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어야 했다. 국내인민들이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재일동포들의 재난을 가셔주어야 했다. 예견치 않았던 위문금으로 큰 몫을 떼여놓고보니 가뜩이나 어렵던 자금사정은 말할수없이 긴장했다.

경공업부문 실태자료를 보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콩우유생산문제에 생각이 미치시였다. 어린이식료품공장일과 애기젖가루연구사업에서 다른 애로가 없겠는지 걱정스러우셨다. 수령님께서 제일 마음쓰시던 일이였는데 빨리 현지에 나가 알아보고싶으시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콩우유생산은 반드시 정상화하리라 속다짐하시였다.

4

3월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그처럼 많은 인원이 참가한 대회는 드물것이다. 간호원양성중대의 중대장인 김옥순도 참가했다. 중대장으로 임명된지 두달밖에 안되는 자기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대를 떠나는 시각부터 그는 남다른 흥분에 사로잡혀있었다. 분에 넘치는 영광을 받아안았기때문이였다.

대회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참석하시였다.

그이께서 주석단으로 나오시는 순간 김옥순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튕겨나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얼마나 뵈옵고싶던 그이이신가. 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최전연대대에서 최광으로부터 그이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받은 그날부터는 꿈결에도 그리움에 사로잡히군 했었다. 김옥순은 대회장의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전과정에 김옥순은 줄곧 그이만을 우러러 바라보고있었다.

대회에서는 《중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전군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보고에 이어 여러명의 토론이 있었다. 보고와 토론들은 김옥순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새로운 직무를 받아안고 중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것인가? 모색하고 고심하던 문제의 답을 이 회의에서 찾는듯 하였다. 새로운 깨달음의 환희로 마냥 가슴이 설레였다.

첫날회의가 끝났을 때였다.

인민군대의 낯모를 한 일군이 김옥순을 찾아왔다.

《동무가 간호원양성중대 중대장이요?》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시오.》

김옥순은 일군을 따라섰다. 무슨 일로 찾을가? 아무리 생각을 굴려도 알수 없었다. 장내에서 출입구로 빠져나가는 군인들의 사품을 벗어나서 호젓한 복도에 나섰을 때 일군이 머리를 돌리며 나직이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지금 동무를 찾으십니다.》

《예?!》

김옥순은 놀라움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불시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면서 숨이 막혀왔다. 커다랗게 벌려뜬 눈으로 일군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일군은 속삭이듯 다시 말했다.

《지금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휴계실에서 모범적인 중대장들과 담화를 하고계시오. 그러다가 동무도 이번대회에 참가하였겠는데 데려오라고 하시였소. 어서 갑시다.》

다시 발길을 옮기는 김옥순은 감격의 선풍에 온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듯 하였다. 발길이 바닥에 닿는것 같지 않았다. 마치 꿈속을 걷는것 같았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리워하던 나머지 꿈을 꾸는듯싶었다. 휴계실앞에서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일군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섰다.

널직한 방안에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10여명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둘러앉아있었다.

김옥순은 거수경례를 하고 그이께로 다가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상하게도 갑자기 목이 꺽 막히면서 뒤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수경례를 한채 굳어진듯 한 김옥순의 손을 잡고 일순 바라보다가 장내를 향해 그의 손을 높이 쳐드시였다.

《동무들, 보시오. 이 손이 적장교놈을 단매에 쓸어뜨리고 포로한 그 주먹이요.》

김옥순은 환히 웃으시는 그이를 우러러 눈을 슴벅이였다. 반가움이 넘쳐서 눈물이 불쑥 솟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옥순을 이끌어 자신의 곁에 앉히시였다.

《내 동무의 아버지 소식을 들려주려고 이렇게 찾았소.》

김옥순은 놀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실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좌중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내가 군부대에 나갔다가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언덕길을 오르는 로인을 만나서 차를 세우고 타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그 로인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제2전선에서 싸운 로병이였습니다. 그때 시신경이 위축되여 점점 앞을 잘 보지 못하다나니 로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로인은 식량을 보태려고 바구니에 풀뿌리를 캐여들고 오는 길이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가슴아파서 물었습니다. 인민생활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당에서는 군대에만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로인은 우리야 뭐라나요, 허리띠만 조이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여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인민군대가 여의치 못하면 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인민은 다 잘못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민의 판단이고 각오입니다.

나는 로인의 말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처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절대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내여말길수 없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였습니다. 회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을 지키기 위해서 인민군대는 백방으로 전투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번대회에 참가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거의다 20대의 젊은 청년들인데 패기가 있고 사기가 높습니다.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서 전군의 모든 중대들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민군대에서는 상급단위의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중대에 내려가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실속있게 지도하는 사업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대가 3대혁명붉은기중대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대회를 계기로 인민군대의 모든 중대들이 쇠소리가 나는 불패의 대오로 강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옥순은 그이의 말씀의 마디마디가 정대로 쪼아박듯이 자기 심장에 새겨지는것을 의식했다.

모임이 끝나고 밖에 나오니 회의참가자들을 태운 자동차들의 마지막대렬이 떠나가고있었다. 김옥순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끝간데없이 늘어선 대렬차행렬이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숙소를 향해 달리였다. 수천수만의 시민들이 연도에 늘어서서 꽃다발을 흔들고 손을 저어주었다. 대렬차의 군데군데 끼워선 방송차에서는 수령영생가요들이 울려퍼졌다.

김옥순은 이처럼 장엄하고 장쾌한 광경을 처음 보았다. 수도시민들에게 손저어 답례를 보내는 그의 눈에는 얼핏얼핏 스쳐지나는 군중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로 바뀌여보이였다. 원쑤들의 침략

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리라는 결의가 북받쳤다.

대렬차를 타고가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모두의 눈시울은 젖어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자신들뿐아니라 온 세계가 놀라움에 사로잡혀 끓어번지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서방의 한 통신은 이 광경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썼다.

《평양에서 별안간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무엇때문인지 그 수효를 헤아릴수 없는 많은 군대트럭행렬이 방송차들을 앞세우고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시민들을 선동하고있다. 트럭마다 붉은 기발이 꽂혀있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완성하려는 군대의 변함없는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군대와 인민이 합창하는 노래들도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영원히 받들어가려는 내용이였다. 길가던 시민들은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며 군대의 사회주의고수의지에 열렬한 찬동의 뜻을 표했다.

올해 정초 **김정일**령도자의 군부대들에 대한 방문보도가 전해진데 뒤이어 펼쳐진 북조선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공세적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눈물의 피바다에서 불현듯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듯싶다. 분명히 금후 북조선의 정치동향은 군력을 배경으로 강경자세를 취할것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이 거대한 충격파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여하튼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평양에서 그 어떤 정치적변화가 있으리라던 예상은 완전히 뒤집혀졌다.

김일성주석은 북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

대회가 끝난 후의 어느날이였다.

김옥순은 부대로 내려가기 전에 대대장이 입원하고있는 병원을 찾았다. 모처럼 평양에 올라왔던김에 강철수대대장을 만나고싶었다. 원쑤들과의 접전에서 중상을 입었던 그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되였을가? 모르긴 해도 거의 완치되였을것이다. 그 병원에는 능력있는

의료진과 최신의료설비가 갖추어져있다. 군의대학시절에 그 병원에서 여러번 실습을 하였다. 그 병원의 유능한 군의들로부터 초빙강의를 받기도 했었다. 건강이 회복되여가는 대대장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불쑥 나타나면 몹시 놀랄거야!

언제부터인지 김옥순은 대대장을 은근히 마음속에 그리고있었다. 대대의 군관들도 일이 그렇게 되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철수는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 그도 총각인 이상 처녀의 마음을 모를리 없을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모르는체 하였다. 직급상의 실무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서 은근하고 살뜰하게 대해주는 일이란 없었다. 인제는 내가 그 대대를 떠났으니 상하관계를 벗어나서 두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을 스스럼없이 나눌수 있지 않을가? 아무튼 감미로운 기대로 가슴은 잔잔히 설레였다. 강철수가 입원하고있다는 호실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잠시 진정을 하고서야 출입문을 두드렸다. 사업상의 용무를 가지고 대대장방의 출입문을 두드릴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작용했다.

《들어오시오.》

방안에서 울려나오는 응답소리는 귀에 익은 옛 대대장의 음성이였다.

김옥순은 출입문이 무척 힘겹게 열려지는것같이 느껴졌다. 방안에 들어서니 책을 읽던 강철수가 머리를 돌리였다. 그는 상대를 알아보더니 튕겨나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급히 마주걸어왔다.

《아니, 이게 누구요!》

큰소리로 웨치다싶이 말을 하는 강철수의 놀란 눈과 미소가 확 번지는 얼굴에 반가움이 넘치였다.

《대대장동지!》

김옥순도 반가움에 사로잡혀 그의 손을 맞잡았다.

크지 않은 방안에는 강철수 혼자 있었다. 그는 김옥순의 손을 이끌어서 자기의 침대에 걸터앉도록 하였다.

《찾아주어 고맙소. 정말 반갑구만!》

《그럴수가 없었으니 말이지 마음은 진작 찾아오고싶었어요.》

사단군의소나 군단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면 이미전에 여러번 찾았을것이다. 거리가 멀다보니 오늘에야 찾아왔다.

서로 얼굴만 마주볼뿐 잠시 말이 없었다. 어느쪽이나 오랜 작별끝에 만난듯 한 느낌이였다. 무슨 말부터 하여야 할지 알수 없었다.

강철수가 먼저 침묵을 깨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기회가 생겼지요, 이번대회에 참가했어요.》

《위생소장동무가?!》

《올해 초에 나는 간호원양성중대 중대장으로 소환되였어요.》

《그렇게 됐구만. 대대동무들이 섭섭했겠소.》

김옥순은 새로운 직무로 조동된 후의 생활과 이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사연을 말했다.

강철수는 그의 성장과 영광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자기의 입원생활을 요약하여 말하였다.

《나는 이 병원에서 세차례나 대수술을 받았소. 동무도 잘 알다싶이 처음은 매우 위태로웠댔는데 지금은 거의 원상태로 몸이 회복되였소.》

그는 어조를 바꾸며 다시 말했다.

《얼마전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에게 산삼을 보내주시였소. 그것을 전달하는 일군에게서 들은데 의하면 그 산삼은 지방의 어느 한 농촌로인이 그이의 건강을 위해서 드린것이라오. 그런데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산삼을 나에게…》

대대장의 마지막말마디는 목밑에 잠겨버렸다. 동시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김옥순은 그 산삼이 자기 아버지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히 드리였던것이라는것을 알았다. 접견을 받을 때 그이께서는 산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였다. 그런데 그 산삼을 강철수대대장에게 보내주실줄이야! 장군님께서는 늘 이렇게 응당 자신께서 받아야 할 약재조차 고스란히 우리 전사들에게 돌려주신다. 그이의 은정에 목이 메였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이께 올린 산삼이라는것은 말하지 않았다. 만일 그런 말을 한다면 강철수는 죄스러움에 시달릴것이다.

저으기 진정을 한 대대장은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보약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내 몸은 완치되여가고있소. 며칠내로 퇴원할수 있소. 이제 돌아가면 전보다 몇배로 대대의 싸움준비를 잘할것 같소.》

《저도 이제 중대로 돌아가면 이번대회의 정신을 구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어요.》

《동무가 조동되여서 부대에 돌아가도 인제는 종종 만나기가 어렵겠구만.》

김옥순은 그 말이 이상하게 충격적으로 안겨오는것을 느끼며 천천히 반문했다.

《대대장동지도 내가 대대를 떠난것을 서운하게 생각합니까?》

《대대가 모두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제일 서운하게 생각하는건 나요.》

《어째서요?》

반문을 한 김옥순은 강철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날숨을 멈추었다.

《대대위생소장으로 동무야 얼마나 자기 사업을 잘하였소. 우리 대대가 동무와 같은 위생소장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거요.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허전하구…》

강철수는 빙긋이 웃으며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그 대답에 김옥순은 마음이 안정되여갔다. 그는 말했다.

《간호원양성중대에 가도 자주 들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가요?》

《아무때든 환영할거요. 그러나 짬을 내긴 헐치 않겠는데…》

강철수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숙이였다.

《그래도 짬을 내겠어요. 정 부득이하면 밤에라도… 어째선지 마음은 항상 우리 대대였던 그 대대에 가는걸요. 대대장동지랑 잊혀질것 같지 못합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한생을 전연초소를 떠나지 않고 대대장동지의 모범을 거울로 삼겠습니다.》

강철수는 가슴이 후더워났다. 얼마나 미덥고 훌륭한 녀성인가! 그

는 고개를 번쩍 들고 김옥순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과 부드럽게 부딪쳤다. 순간에 그 눈빛들은 무수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간호원이 약병을 들고 방안에 들어섰다.

김옥순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철수도 따라일어섰다.

《잘 다녀가시오. 후에 짬이 생기면 내 한번 꼭 찾아가지.》

작별인사를 하고 방을 나선 김옥순은 총총히 복도를 걸어갔다. 자기를 바래워주는 강철수의 시선을 등뒤에 느끼면서…

제 7 장

1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소식에 접한 국내의 반영자료입니다.》

조인규가 집무탁우에 두툼한 문건을 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건에 얼핏 시선을 주었을뿐 읽지 않으시였다. 이미 얼마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고계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사실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환희와 격정을 불러냈다. 사무치게 그리는 어버이수령님을 인제는 다시 만나뵈올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기에 다시 만나뵈올수 있었다.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이 있은 후 항일의 녀투사 김옥순의 신상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는 한해전 청천벽력같은 비보를 듣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어지간히 귀도 어두워졌다. 그래서 개관식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며칠후 령감이 틈을 낼수 있는 기회를 타서 그와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간이였다. 흐릿하던 눈앞이 확 열리면서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선명히 보이였다. 동시에 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도 분명히 들리였다. 최광동지의 환갑날에 수령님께서 하시던 자애로운 말씀이였다.

《동무들, 잘있었나? 원동훈련기지에서 동무들의 결혼식을 너무도 허술히 차려주지 않으면 안되였던 일이 늘 내 마음에 걸렸댔소. 그 마음도 풀고 최광동무의 환갑도 축하해주려고 이렇게 동무들을 불렀소.》

최광이 황해남도행정위원장으로 임명되였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에서 그의 환갑상을 차려주시고 승용차를 보내여 온 가족을 부르셨다.

김옥순은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눈과 귀가 열리는듯한 느낌이 옛추억을 떠올리는 과정에 일어난 환각이 아니였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환각이 아니였다. 그후부터 모든것이 선명히 보이고 분명히 들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옥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시였다. 절통한 심리적타격에 눈귀가 어두워지고 그와 상반되는 사실에 접하여 어둡던 눈귀가 열리는것은 있을수 있는 생리적현상이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의 불같은 마음들이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하고있다.

금수산기념궁전개관소식은 국내뿐만아니라 온 세계를 격동시키고 있었다.

로씨야의 한 좌익당 당수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피력했다.

《세상에 위인이나 명인들은 많지만 그들을 생전에 사업하던 곳에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기적은 누구도 창조하지 못했다.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생전이나 서거한 후에나 변함없이 인민의 하늘로 계시고 인류의 태양으로 빛나도록 하는 꿈같은 기적을 낳으시였다.

정말 금수산기념궁전은 천상천하에 유일무이한 궁전이며 영원한 기념비이다.》

일본사회당의 한 고위인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금수산기념궁전은 수령에 대한 후계자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보여주는 대기념비이다.

금수산기념궁전처럼 숭엄하고 만년대계로 꾸려진 성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

수령에 대한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정의와 진보를 위해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며칠전에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한 오세안주의 한 인사는 우리 일군에게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누워계시는 **김일성**동지를 뵈오니 그이의 다정한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레닌묘에도 가보고 마오주석기념당, 호지명묘에도 가보았지만 이렇게 웅장하게 꾸려진 기념궁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런 궁전을 꾸리게 한것은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뵙고싶어하는 만민의 마음을 헤아리신 매우 현명한 조치입니다.》

한순간 반영자료들을 상기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인규를 향해 눈길을 드시였다.

《이제부터 기념궁전방문사업을 잘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앞을 다투어 위대한 수령님을 뵙자고 할것입니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순서와 절차를 바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문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면 계속되는 기념궁전공사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조인규가 조심스레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하시였다. 그의 말대로 공사가 계속되고있다.

그이께서는 한순간의 침묵끝에 말씀하시였다.

《지금 당장 방문사업을 조직하면 공사에 지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을 한시바삐 뵙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미룰수는 없습니다. 나는 요즈음 언제면 수령님을 자기들도 뵈올수 있는가고 물어오는 편지를 매일처럼 받고있습니다. 다소 공사에 지장을 받더라도 우리 인민의 이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해주어야 합니다.》

×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금수산기념궁전건설이 선차적인 사업이였는데 그 사업은 일단락을 지은셈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국방력을 다지는 한편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시였다. 그런데 나라의 경제사정은 의연히 어려웠다.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을 제시하면서 농사제일주의를 첫자리에 놓으시였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농사작황은 좋지 못하였다.

황해남도에서 만정보의 이모작면적을 확보하였다. 전작으로 심은 밀보리와 감자수확은 괜찮았으나 후작으로 심은 벼와 강냉이는 적지 않게 수해를 입었다. 허덕복의 말에 의하면 수해를 입기는 했으나 이모작을 많이 한 덕으로 지난해보다는 총적인 알곡수확고가 높을것이라고 한다. 다른 도들의 농사형편은 지난해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으로 예견되였다.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자면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이 추서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 제일 걸린것이 전기와 석탄이였다. 경제의 기본동력인 전기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돌지 못했다. 석탄의 부족으로 화력발전소들이 만부하를 걸지 못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나갈것인가?

깊이 고심하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시였다.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의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미더웁게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미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들고있는데 참으로 좋은 구호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 가보았는데 우리 군인건설자들은 전례가 없는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고있습니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그 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고 건설을 발기하신 발전소입니다. 수령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려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을 보면서 나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나는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습니다. 전군, 전민이 그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운다면 오늘 우리앞에 놓인 경제적난관도 능히 타개해나갈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사정을 펼쳐보이면서 당면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은 석탄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입니다. 석탄이 있어야 전기도 나오고 공장도 돌릴수 있으며 인민들의 땔감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민군부대들을 주요탄광들에 보낼것을 결심했습니다. 인민무력부에서는 정무원과의 합의밑에 빠른 시일안으로 탄광들에 군부대들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사문제를 언급하면서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여러해째 거듭 농사가 잘 안되는데 나라의 농업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해서도 인민군대가 결정적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대에서는 농사철에 주둔지주변 농장들을 지원하여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군부대들이 농장들에 나가 숙식을 하면서 모든 영농공정을 맡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인민군대가 동원되면 경제건설의 난관도 능히 극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에 부닥칠때마다 군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심이 북받칩니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대로 인민군대가 인민경제의 주요전선에서 가까운 앞날에 전변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믿음에 보답할 결의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지였다.

그들이 돌아간 후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화로 당중앙위원회 고중환 부부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 고중환이 전화받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리였다.

《부부장동무, 〈별빛〉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물으시였다. 《별빛》계획이란 인공지구위성개발계획을 뜻하고있었다. 과학기술중시를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6기 13차전원회의가 있은 후 장군님께서는 가까운 년간에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대담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인공지구위성은 최첨단과학기술의 종합체라고 할수 있었다. 그 구상을 말씀드렸을 때 수령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만이 그런 대담한 구상을 펼칠수 있소. 내 생전에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로 날아오르는것을 본다면 한이 없겠소. 기어이 성공하기를 바라오. 우리 민족은 력사상 처음으로 우주관측기구인 첨성대를 쌓고 우주를 내다보았소. 그 후손들인 우리가 우주를 정복하는데서도 남한테 뒤져서야 안되지. 인공지구위성의 설계와 제작이 완성되면 그 이름을 〈광명성〉이라고 달아야 하겠소.》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서거하시였다. 그 일이 가슴에 맺힌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인공지구위성개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아직은 세상에 알리지 않고 연구집단을 꾸리고 소문없이 추진시켜오시였다. 고중환에게 연구사업을 당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시였던것이다. 고중환은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별빛〉계획실현에서 제일 난문제가 우주금속으로 불리우는 티탄합금가공문제였는데 그것이 성과적으로 풀리였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반가움에 넘쳐 다급히 물으시였다. 티탄합금가공은 어려운 기술적문제였다. 다른 금속제품을 가공하는것과는 그 기술적성격이 전혀 달랐다. 그래서 그 가공설비를 구입하려고 어느한 나라에 전문가들을 파견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거기서는 이른바 코콤을 코에 걸고 설비를 팔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티탄합금가공문제가 해결되였다는것이다. 고중환은 여전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티탄합금가공설비를 구입하러 갔던 금속재료연구소 양영복박사는 제국주의자들의 처사에 커다란 의분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연구사업을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초소성가공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티탄합금도 일정한 온도에서 마음대로 연장할수 있는 초소성성질을 가지는데 초소성단계에서는 필요한 형타에 넣어 복잡한 구조의 가공품도 찍어낼수 있습니다. 제가 료해한데 의하면 이 방법은 티탄합금가공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입니다. 인공위성형태와 운반로케트제작에서 큰 문제가 해결되였습니다.》

《양영복박사에게 나의 감사를 전달해주시오. 민족적자존심이 높은 우리 학자들은 우리 식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하고있습니다. 나는 〈별빛〉계획을 구상할 때 우리 학자들의 그 자존심과 남다른 실력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천성적으로 총명한 민족입니다. 〈별빛〉계획에 망라된 과학자, 기술자들, 로동자들의 연구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오.》

《알겠습니다!》

고중환은 힘차게 대답을 올리였다. 그는 당일군으로 사업하기 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으로 교편을 잡았던 금속재료학의 유능한 학자였다. 그자신의 지혜도 티탄합금가공방법개발에 기여하였을것이다. 그는 신심에 넘친 어조로 다시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무수단에 건설하기로 한 인공지구위성발사대도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충격론의 원리를 구현하여 지진피해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건축물설계에 대한 학위론문을 제출한 동무가 나타났습니다. 최성호라는 남구주택건설사

업소 기사입니다. 그 동무의 학술적견해는 인공지구위성발사대설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좋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그런 숨은 인재들을 발견하는 사업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인재를 발견하는것은 새로운 지하자원을 발견하는것보다 비할바없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중시는 곧 인재중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적자원을 중시하고 계발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인 두뇌전에서 우리는 단연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머리가 좋고 총명한 인민입니다.》

《장군님, 알고보니 최성호기사의 안해는 어린이영양연구소 연구사입니다. 그 녀성도 재능있는 학자입니다.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전통적인 우리 식의 발효법으로 만들어내는 연구사업을 하여왔는데 실험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저께 식료공학부문 학술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녀성동무의 학술적인 발견은 모두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생산에 도입하는 문제와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애기젖가루를 연구하는 그 녀성과학자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있습니다.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생산할수 있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마음쓰시던 문제가 풀린셈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고중환은 어지간히 흥분된 어조로 계속하였다.

《명년에 국제발명 및 저작권기구에서 새기술발명전시회를 여는데 우리는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기술을 들고 나가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유로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방법만을 알고있는데 낟알로 만든다면 큰 파문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기분에 잠기시였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들을 들으시였다. 우리 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것이며 우리 어린이들은 태여난 날부터 질좋은 젖가루를 먹으며 무럭무럭 자랄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할것인가? 이것은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이였다.

우리 인민은 이제 우주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될것이며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어린이들로 될것이다! 물론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여 생전의 유훈을 실현하자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하여야 할것이다. 수령님의 유훈관철은 무궁번영할 사회주의조국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한 정치신념으로 될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정치적신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였다.

2

새해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전쟁도발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 악랄해졌다. 놈들의 북침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회수에 있어서 그 전해에 비해 1.5배로 늘어났다. 정초에 핵잠수함을 진해항에 끌어들인 미제는 뒤이어 부산항에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이였다. 미7함대소속인 이 항공모함에는 82대의 최신예함재기와 각종 미싸일들이 장비되여있었다. 해외에 주둔하고있는 최신전쟁장비들로 무장한 미지상군도 대폭 증가되였다. 이미 3년전에 50만의 기동무력을 북침전쟁에 밀어넣을 계획을 짜놓은 미제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있었다.

미제호전광들과 김영삼일당은 북침전쟁모의를 벌리던끝에 모험적인 전쟁연습을 비밀리에 준비하고있었다. 작전의 1단계에서는 미군무력을 증강하고 《신속전개억제전력》을 조선반도에 배치하며 2단계에서는 전쟁발발 90일내에 《대규모미증원군》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며 3단계에서는 전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며 4단계와 5단계에서는 해상상륙과 항공륙전대투하로 새로운 조선전쟁을 결속할것이라고 하였다.

침략과 전쟁은 력사의 온갖 반동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추구하

는 마지막연명책이다.

미국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림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마련해보려고 획책했다.

남조선괴뢰들은 보다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직면하고있었다. 국회선거에서 《신한국당》이 참패를 당한데다가 김영삼역도의 부정축재죄행이 드러나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과 격분을 자아내고있었다. 역도는 북침전쟁을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충격료법》으로 써먹으려 하였다.

미제의 극우익보수세력과 김영삼역도가 처한 위기와 그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는 기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있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로만 남아있었다. 적들은 이미 전쟁격발기를 당겨놓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상태였다.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의 강경한 립장을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시였다.

외교부는 적들이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면 인민군대는 강력한 자위적조치로 놈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랬으나 적들은 끝내 극히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시험전쟁연습에 달라붙었다. 놈들은 전에없이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방대한 무력과 날자, 진행과정을 공개하였다. 그들이 기대하는것은 시험전쟁연습에서 북조선의 ×지역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특수부대의 공수작전이였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북조선의 민심을 교란할수 있다고 타산했던것이다. 놈들은 우리가 처한 경제적난관을 전쟁발발의 절호의 기회로 여기였으며 후방교란과 전면돌파의 배합으로 전쟁을 쉽게 결속할수 있다고 보았다. 놈들이 공수작전을 공개한것은 우리에 대한 위협적인 심리전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며칠전부터 최고사령부 작전실에 계시였다.

작전실에는 총참모장 최광(그는 오진우동지가 서거한 후 지난해 4월부터 인민무력부장을 겸하고있었다.)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조성원들이 함께 있었다.

오늘은 놈들의 전쟁연습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작전실에는 엄숙한 공기가 떠돌았다. 미태평양함대의 함선들과 오끼나와 괌도에서 리륙한 미공군비행대들이 조선반도를 향해 달려들고있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과 괴뢰군의 비행기들과 함선들도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지상부대들은 공격출발진지를 차지했다.

우리의 무장력도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인민군대의 각급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작전지도앞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기 초소를 지키고있었다. 이미 만단의 전투준비와 전략전술적방안이 갖추어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을 찾아와 현명하게 밝혀주신 전략전술적방안과 가르치심대로만 싸움을 벌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배심으로 명령을 기다렸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대덕산과 오성산, 351고지를 비롯한 최전연군부대들을 찾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방감시소에 올라 적정과 지형조건을 료해하고 지휘관들에게 신묘한 작전적방안을 밝혀주시였다. 군종, 병종사령부들에도 나가 령활한 지휘체계와 각이한 정황에 대처한 전략전술적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그이의 군사적예지에 감탄을 금치 못하던 그날의 흥분을 안고 각급 지휘관들과 참모부들은 전방지휘소와 감시소들에서 적정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었다. 우리의 모든 전파탐지기들과 조기경보레이다들은 만가동을 하면서 적들의 기동상태를 꿰뚫어보고있었다. 최고사령부작전실의 콤퓨터에는 그 모든것이 그대로 현시되였다. 콤퓨터앞에서 적들이 그처럼 방대한 량의 함선과 비행기들을 출동시키는데 긴장을 느낀 최광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김정일**동지께로 다가갔다. 그이께서는 앞상에 펼쳐놓은 군용지도에 시선을 박고 사색을 집중하고계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이제라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동원된 군부대들을 철수시켜서 진지를 차지하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머리를 드시였다.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동원된 력량이 얼마나 됩니까?》

최광은 그 수효를 말씀드리였다. 적지 않은 력량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순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냥 두어둡시다. 그대신 일부 부대들을 현재 차지한 계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시다. 자, 다른 동무들도 여기로 모두 오시오.》

작전지휘조성원들모두가 그이의 두리에 둘러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미더웁게 둘러보고 색연필로 작전지도의 한곳에 동그라미를 그리시였다.

《이 지역으로 몇개 부대들을 이동시킵시다. 오늘 밤중으로 은밀히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투정량이상의 포탄과 총탄, 탄두를 갖추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광이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면서도 군용지도에 다시 시선을 주며 의혹에 잠기였다. 다른 성원들도 그러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그라미를 그리신 이천지역은 전연지대가 아니라 후방 깊숙한 곳이였다. 왜 그곳으로 강력한 타격집단을 기동시키는것일가? 그 까닭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의아해하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이번전쟁연습에서 공수작전지역으로 가상한 곳은 분명히 이천분지일것입니다. 평양에서 멀지 않은 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특공대를 투하하여 신속히 전개하려고 할것입니다.

몇해전에 놈들은 녕변지구에 공수작전을 벌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천지구일것입니다. 지금 놈들은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압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놈들도 평양의 대공화력밀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모르지 않기때문에 분명히 이천지역을 선택했을것입니다.》

비로소 작전일군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날 밤 그이의 명령대로 지정된 사단과 구분대들이 은밀히 이천지역으로 기동했다. 새벽에는 부총참모장의 지휘밑에 그들이 이천분지를 둘러싼 산들에 전투진지를 차지했다.

그날 아침 9시 남조선전역이 전쟁연습에 휘말려들었다. 미군과 괴뢰군지상무력이 군사분계선을 향해 진출했으며 동해와 서해에서 각종 전함들이 기동을 개시했다. 동시에 파주군의 어느 한 지역에는 항공대의 대대적인 폭격이 있은 후 추격기들의 엄호하에 대형수송기

들이 실어온 특공대가 하늘을 덮으며 투하되였다.

같은 시각 우리의 이천지구에서도 멸적의 포성이 터져올랐다. 대공미싸일의 탄두들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기계화사단의 땅크와 장갑차들이 불줄기를 뿜으며 분지로 돌진했다. 총창을 비껴든 보병들이 그뒤를 따랐다. 이 모든것이 서울과 워싱톤에 전송되였다. 전쟁연습을 지휘하던 적들의 군부우두머리들은 대형전광막에 흘러가는 이천지구의 불소나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놈들이 가상했던 ×지역이 바로 이천지구였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번전쟁연습을 주도하는 몇명뿐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 비밀이 북조선군에 흘러갔는가? 예상대로 이천지구에 특공대가 투하되였다면 한명도 살아남지 못했을것이다. 실패한 공수작전연습이였다. 놈들은 비밀이 루설된 원인을 캐여보려고 서둘렀다. 반탐기구들이 발동되였다. 이번작전연습을 꾸민자들 호상간에 불신이 조성되였다. 처음에는 그들중에 북조선군과 내통하는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군부우두머리들이 지하고문실로 끌려가서 문초를 당했다. 그랬으나 아무런 단서도 쥐지 못했다. 귀신이 곡할노릇이였다. 때늦게야 북측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도를 정확히 추리하고 판단했으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놈들은 상대의 전략전술적구상과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북조선군 수뇌부의 신비로운 판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처럼 요란스레 떠들며 벌렸던 전쟁연습은 그후 흐지부지되고말았다. 시험전쟁연습계획자체가 심히 잘못된것으로 인정되였다. 미당국은 포웰에게 새로운 북침전쟁씨나리오를 의뢰했다. 포웰로 말하면 만전쟁과 다른 전쟁들에서 사령관으로 군사적지혜를 발휘하여 5성장군으로 된자였다. 이를테면 미국내에서는 명망이 없지 않은 군사가였다. 그는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말했다.

《나는 북조선군의 최고사령관에 대해 잘 모르고있기때문에 북침전쟁씨나리오를 짤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되돌아볼줄 아는 분별있는 처사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물론 후날의 이야기이다.

전쟁연습이 막을 내린 당시에는 놈들의 군부가 넋을 잃고 일시 새

로운 훙계를 꾸밀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언론들이 전쟁연습의 시작에 대해서는 크게 떠들어댔지만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공수작전의 내막은 점차 알려지게 되였다. 공수작전이 벌어진 파주군의 그 지역과 우리의 강력한 대응타격이 벌어진 이천지구가 지형상으로 비슷하였기때문이였다.

우리의 작전지휘성원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사적예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어쩌면 그리도 판단이 정확하실가! 참으로 신비스러울 정도였다.

최광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군사적예지가 타고난 천품이기도 하지만 군사예술에 대한 폭넓은 탐구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청년시절에 얼마나 심오하게 군사와 전쟁을 연구하셨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부문 로작들과 항일무장투쟁사와 조국해방전쟁사는 말할것도 없다. 세계전쟁사와 군사부문 책들도 폭넓게 탐독하시였다.

《미래의 전쟁》, 《전략학》, 《전쟁과 군사》, 《현대무장력과 그의 조직》, 《태평양전쟁에서의 미국의 항공모함》, 《전쟁에서의 장갑땅크무기》…

최광은 그이께서 보신 책들을 빌려다보고 함께 의견을 나눈 일이 있기때문에 그 책들의 제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었다. 그때에 벌써 최광은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예지를 알게 되였다.

그는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30여년전 일이였다.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최전연부대를 찾은적이 있었다. 지휘부에 들리여 부대의 작전지도를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어느 한 고지를 짚으시였다.

《이 고지에 왜 봉우리가 하나밖에 표시되여있지 않습니까?》

《?》

한순간 생각에 잠기였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명백한 어조로 깨우치시였다.

《이 지대는 백악기시기에 지각의 변동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

런것만큼 절대로 봉우리가 하나일수 없습니다. 분명 여러개일것입니다. 현지를 답사해보시오.》

말씀대로 현지를 답사해보니 봉우리가 세개였다.

최광은 너무도 놀라와서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가고 물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960년 8월에 105땅크사단을 다녀온 후 우리 나라 지사학과 지리를 연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군사에서 지형조건을 옳게 리용하는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특히 땅크부대인 경우는 더욱 그렇지요.》

그이의 비범한 령군술과 전략전술적지혜는 타고난 천품에 그처럼 다방면적인 탐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군사과학은 다른 어느 과학보다도 사회와 자연의 모든 리치가 작용하는 종합적인 과학이다. 젊으신 나이에 그 과학을 최고의 높이에서 정통하신 그이를 우러르며 최광은 경모의 정에 휩싸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지의 봉우리가 세개인것만큼 그에 맞게 전술방안을 다시 짜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최광은 최근년간 그이를 모시고 군부대들을 부단히 다녀오는 과정에 그이의 령군술과 작전적예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때가 많았다.

이번에도 놈들의 전쟁연습을 그이께서는 이천지구에서 단 한번의 대응으로 좌절시키고 적들을 전률케 하시였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얼마나 위대한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로부터 명장의 휘하에는 약졸이 없다고 일러왔다. 정녕 그렇다.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기에 우리 군대는 장령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될수 있고 높고낮은 조국의 산봉우리들마다가 멸적의 선군산악으로 높이 솟아있는것이다.

3

최광은 여러날만에야 집에 들어왔다. 놈들이 전쟁연습을 벌리는 며칠간을 작전실에서 밤낮으로 긴장한 나날을 보냈다.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다. 로친이 인츰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었다.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올린 후로 귀가 밝아진 로친이였다.

최광은 저녁식사를 한 후에 로친과 마주앉았다.

《여보 로친네, 이 손가락을 곧추 펼수 없을가?》

최광은 오른손을 내보이며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살이 내리고 손가락들이 안으로 구부러든 손이였다.

김옥순은 령감의 손을 바라보며 힐난조로 응대했다.

《당신취미가 별스러워졌수다. 다 늙은 몸에 손은 말쑥해서 뭘하겠소.》

《늙기야 늙었지. 위대한 령장을 모시고 한번 본때있게 적들과 싸워야 하겠는데 하루하루 기력이 쇠잔해가는게 스스로도 아쉽소.》

《손이나 매끈해진다고 젊어지겠어요? 정 젊어지고싶으면 머리에 물감도 들이고 얼굴의 주름살과 검버섯이랑 없애야지요.》

《젊어서부터 내가 치레를 모른다는거야 당신이 잘 알지 않소. 볼품없는 손을 두고 마음을 쓰는것은 다른 뜻이 있기때문이요.》

김옥순은 심중한 빛이 떠오르는 령감의 얼굴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며 그 뜻이 뭐냐고 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올 때마다 그이께 경례를 드려야겠는데 손이 이 모양이 되여서 그러오. 우리는 참으로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단 말이요. 그이께서 이번에 적들이 벌린 전쟁연습책동을 어떻게 제압하셨는지 당신은 모를거요. 군사작전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신문이나 방송에는 소개되지 않았지. 그처럼 위대한분에게 경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게 속상한 일이 아니

요. 당신 안마기술이 있는데 내 손을 좀 치료해보오.》
김옥순은 감심한 낯빛으로 령감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즉석에서 안마치료를 시작했다. 이튿날 저녁부터는 안마치료에 화장치료를 배합했다. 그렇게 한달나마 치료를 하였더니 굽어들었던 손가락도 어지간히 펴지고 손등의 피부도 윤기가 돌았다. 조금만 더 치료를 하면 손이 정상상태로 돌아갈상싶었다.
이제 며칠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이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올릴 때에는 보기 좋은 손으로 정중히 경례를 드릴수 있을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어제도 발전소건설을 제정된 6월 30일까지 끝낼수 있는가고 전화로 물으면서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전쟁연습책동을 통쾌하게 좌절시킨 조건에서 당면하게 인민군대앞에 나선 긴급한 과제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 1계단공사를 제 날자에 끝내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눈이 두번다시 뒤집혀질겁니다. 또 한번 놈들에게 통장훈을 불러봅시다. 경제건설도 최전선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광은 힘있게 대답을 올리였다.
완공보고를 올릴 그 순간을 눈앞에 그려보며 치료를 받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다급히 전화종이 울리였다.
최광은 안마치료를 하는 로친의 손을 뿌리치고 전화를 받았다. 발전소건설장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마감단계에서 커다란 난관에 부딪쳤다는 전화였다. 발전기조립을 제 날자에 할수 없다고 하였다.
최광은 다음날 지체없이 현지로 떠났다.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초조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크나큰 기대를 가지시는 발전소건설인가.
지난 6월 10일,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꿎게 내리는 비발속을 뚫고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다. 현장지휘일군으로부터 군인들

의 공사진행정형과 그 과정에 발휘한 위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그이께서는 군인들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안변청년발전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려는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과 고귀한 땀이 깃들어있는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발전소언제와 취수구를 비롯한 지상구조물들을 돌아본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형물길굴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건설을 책임진 인민군지휘일군이 그이앞을 막아나서며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물길굴안에 석수가 차있기때문에 들어가실수 없습니다.》

최광도 들어가시면 안된다고 하였다. 물길굴안에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전구간에 물이 차있었고 천정에서 석수가 떨어지는 개소도 여러군데였다. 그렇게 험한 곳에 그이를 모실수 없다고 일군들은 누구나 생각했다. 그랬으나 **김정일**동지께서는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건설한 물길굴인데 들어가봅시다. 앞으로 발전소를 조업하면 물길굴을 영영 보지 못합니다. 물길굴에 물이 차있으면 차를 타고서라도 꼭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타신 승용차가 물길굴안에 들어섰다. 야전차는 어둠과 물을 헤가르며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전조등빛에 물길굴벽면에 씌여진 글발들이 선명히 드러났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우리는 쓰러져도 붉은기는 앞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전사는 죽을 권리도 없다!》

이 물길굴을 뚫은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을 보여주는 글발들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차창밖으로 스쳐지나가는 글발들을 유심히 보시였다.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이 물길굴을 끝에서 끝까지 자세히 보자고, 우리 군인들은 맨주먹으로 이 굴을 뚫었다고 감동에 젖

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물길굴을 다 돌아보고 나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동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인들이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난을 뚫고 명령을 관철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입니다.》

최광은 저도 모르게 《혁명적군인정신!》하고 입속으로 외워보았다. 무엇인가 깊은 뜻이 가슴에 안겨오는듯 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후날에야 그것을 알았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며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다그쳐온 군인건설자들이 1계단조업을 앞둔 마감단계건설에서 곤난에 부딪쳐서 완공날자를 보장할수 없다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었다.

현지에 도착한 최광은 구체적인 사연을 알아보았다. 발전소의 심장부인 발전기의 축중심이 보장되지 못하고 발전기실의 습도가 높아서 시운전을 할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퇴치하자면 한주일도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은 6월 27일이였다. 한주일후라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신 6월 30일이 아니라 7월 초순에야 조업할수 있다는 소리였다. 그것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 일이였다.

최광은 즉시 해당 부문 책임일군긴급협의회를 열었다. 기술일군들과 전문부문 일군들은 아무리 전투를 벌려도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광은 의분에 넘쳐 책상을 주먹으로 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왜 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발전소 1계단건설을 6월 30일까지 끝내라고 하셨지 7월 초순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았소. 그리고 6월 30일까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 맹세한 날자요. 누구도 이 날자와는 흥정할수 없소! 폭풍!》

이리하여 로투사를 책임자로 하고 군인, 기술자, 로동자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돌격대는 밤에 낮을 이어 분과 초를 쪼개여가며 발전기축중심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긴장하게 벌리였다.

부관과 담당간호원은 최광이 세끼나 끼식을 번지는 바람에 울상이 되였다. 밥을 지어가지고 발전기실로 간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프링바람에 온몸에 기름칠을 한 80을 눈앞에 둔 최광이 불뭉치를 들고 군인,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발전기실의 습기를 제거하고있었다. 로투사의 얼굴에는 결사의 각오가 비껴흘렀다. 부관과 담당간호원은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갔다.

《원수동지, 식사를 하십시오.》

부관의 말이였다. 최광은 지난해에 원수로 된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없소. 우리 전사들은 사갱이 무너져 굴속에 갇히웠을 때 배관으로 밥이 아니라 압축공기를 보내달라고 했소.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구호를 웨치며 희생적으로 암반을 뚫었소. 그렇게 건설한 발전소인데 완공기일을 지키지 못해서야 안되지. 물러가오.》

최광은 불뭉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며 부관을 꾸짖었다.

《원수동지가 끼식을 번지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걱정하십니다.》

《동무는 내가 밥을 먹지 않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걱정하신다는 생각만 하고 공사를 제 기일내에 끝내지 못하면 그이께서 더 근심하신다는 생각은 왜 못하오. 어서 물러가오!》

부관과 담당간호원을 돌려보낸 최광은 돌격대원들에게 호소했다.

《동무들, 이 발전소건설장은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된 곳이요. 우리는 기어이 완공기일을 지켜 발전기의 동음이 울리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맙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발전기실에 결사관철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누구의 얼굴에나 비장한 각오가 번뜩이였다.

6월 30일 밤 10시 드디여 발전기의 시운전을 하였다. 성공이였다. 돌격대원들은 환성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최광도 울었다. 끝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였다는 기쁨이 뜨거운 눈물로 솟구쳤던것이다. 소식을 들은 온 발전소건설장이 환희로 들끓었다.

밖으로 나온 최광은 몸을 씻고 정중히 원수복차림으로 전화기앞에 섰다. 밤 12시였다. 그는 서둘러 **김정일**동지께 발전소 1계단공사가 끝났음을 보고드리였다. 전화로가 아니라 직접 그이앞에 나선듯한 느낌을 받으며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드리였다. 전에없이 쭉 펴진 손가락을 군모에 가져간 그의 손은 떨리고있었다.

보고를 받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수고를 했다고 거듭 치하를 보낸 후 계속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은 날자와 함께 시간, 초까지 지키였습니다.》

아마도 뜻깊은 이 시각에 시계를 보신듯 하였다.

부관이 가져온 저녁식사를 한 최광은 며칠만에 이밤 평온한 잠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였다. 공사를 책임진 장령의 안내를 받으며 식당으로 가던 최광은 나들이옷차림을 한 수십명의 사민들을 보았다. 그들도 식당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웬 사람들이요?》

장령에게 물었다.

《여러 지방에서 발전소의 완공을 앞두고 원호물자를 싣고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황해남도에서는 100여마리의 돼지를 비롯한 많은 원호물자를 보내왔습니다.》

《허덕복동무를 좀 찾아주오.》

《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소.》

장령이 사민들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장령은 그들에게 그 무엇을 묻는듯 하더니 식당쪽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허덕복은 먼저 식당으로 간 모양이다.

한 로인이 최광을 알아보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원수동지, 안녕하십니까. 제 전선중부에서 복무하는 대대장 강철수의 아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때 아들 보러 부대에 갔댔습니다.…》

최광은 반가운 미소를 그리며 물었다.

《그래요?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니까 아바이도 원호물자를 가지고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은률읍협동농장에서 올해 이모작농사를 잘했습니다. 우리 로병작업반에서도 비경지를 개간해서 감자를 심었는데 괜찮게 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만도 5톤의 감자를 이 발전소에 원호하게 되였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여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나란히 걸었다.

최광은 은률로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허덕복동무는 먼저 식당에 갔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노상 식당에 붙어있습니다.》

《어째서요?》

《자기가 가져온 원호물자로 자기가 지은 음식을 병사들에게 먹이고싶다는거지요.》

《그러니 밤새워 식당일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본래 그런 녀자입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탁에 앉았던 병사들이 최광을 알아보고 튕겨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광은 앉으라고 손짓을 하고 한구석의 빈 식탁에 가서 앉았다. 강철수의 아버지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주밋거리더니 다른 사민들의 좌석쪽으로 가려고 했다.

최광은 서둘러 말했다.

《기왕 이렇게 만났는데 대대장동무의 아버님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합시다.》

은률로인은 황송한 낯빛으로 맞은편의자에 앉았다.

식당직일관이 나타났다. 그는 식탁사이를 정보로 걸어서 최광앞에 멈춰섰다.

《원수동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건 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식사면 됐지 딴 준비는 마시오. 알겠소?》
식당직일관은 무슨 말인가를 할듯 했으나 최광의 시선에 부딪치자 차렷자세를 취했다.
《알았습니다.》
식당직일관이 물러갔다. 병사들에게 배식이 시작되였다.
장령이 허덕복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허덕복은 흰 취사복차림이였다. 주방에서 병사들의 밥을 짓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온것이 분명했다.
최광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반겨맞았다.
《덕복동무,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오자마자 또 쉬지도 않고 식당일을 도와나섰구만.》
《저야 병사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제 손이 간 음식을 자식들에게 먹이고싶은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심정이랍니다.》
허덕복은 싱긋이 웃었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냈습니까?》
《네, 맏이는 이미전에 군대에 나갔고 둘째녀석은 올해 봄에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실지로 병사의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자, 앉읍시다.》
세사람이 한식탁에 둘러앉았다.
식당직일관이 식사를 날라왔다. 흰쌀과 강냉이쌀이 절반씩 섞인 밥에 돼지고기국과 감자볶음, 남새볶음이였다.
최광은 병사들의 식탁을 넘겨다보았다. 그들과 똑같은 식사였다.
즐겁게 아침식사를 한 최광은 현지를 떠나면서 발전소를 몇번이고 뒤돌아보았다. 가슴은 마냥 크나큰 격동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조국은 병사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우리 시대는 발전소건설에서 그대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상징될것이다.

×

최광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관명령으로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보

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에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병사들을 다시 만나보고싶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틈을 낼수가 없습니다. 최광동지가 현지에 가서 나의 감사를 그들에게 전달해주시오.》
이리하여 최광은 또다시 안변청년발전소로 나갔다. 현지에는 많은 군인들이 모일 회관이 없었다. 발전소옆의 넓은 골짜기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모이였다.
연단에 나선 최광은 격동된 어조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감사를 받아안은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일제히 터치는 만세의 함성이 발전소지구의 산발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고무와 격려로 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려는 불타는 맹세의 폭발이였다.
최광은 가슴속깊이에서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수 없었다. 병사들과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두손을 높이 들어 오래도록 만세를 불렀다.
그는 그곳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에 보답하기 위한 대책을 의논했다. 발전소건설은 계속되고있었다.
이틀후에 현지를 떠났다. 승용차가 발전소건설지구를 거의 벗어날 때였다.
길옆에 두명의 군관이 나란히 서서 거수경례를 하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다. 한명은 상위이고 다른 한명은 중위였다. 승용차가 멉춰섰다. 최광이 차문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원수동지, 우리들이 마련한 꽃바구니를 만수대언덕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드려주실수 없겠습니까?》
매우 서슴어하는 상위의 말이였다. 중위가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인민군신문에서 들꽃중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전소지구의 산발들에 피여난 꽃들을 엮어서 꽃바구니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싶이 안변청년발전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설계하신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1계단공사가 끝난 발전소에 와보실수 없습니다. 완공보고를 받으면서 발전소지구에 피여난 꽃들을 보고 향기를 맡으시면 이 지구의 산천을 련상하면서 매우 기뻐하실것입니다.》

최광은 감동했다. 묻지 않고도 그들이 구분대장과 정치지도원임을 알수 있었다.

《동무들의 심정이 기특하오. 꽃바구니가 어데 있소?》

《저기 있습니다.》

두 군관이 급히 달려가서 가로수뒤에 놓았던 꽃바구니를 가져왔다. 껍질을 벗긴 노란 싸리나무로 엮은 꽃바구니에는 보지 않던 심산속의 꽃들이 꽂혀있었다. 생신한 꽃송이들에서는 이곳 산천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였다. 꽃바구니댕기의 한갈래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댕기의 다른 갈래에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구분대의 소속과 구분대군인일동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있는 정성을 다 기울인 꽃바구니였다.

최광은 두 군관과 함께 꽃바구니를 차에 실었다.

《이왕이면 내가 아니라 동무들이 평양에 가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이 꽃바구니를 드리는것이 좋겠소. 어서 차에 타시오.》

《우리는 자리를 뜰수가 없습니다. 구분대는 지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고 2계단전투에 진입했습니다.》

구분대장이 안타까와했다.

《내 오늘중으로 부대에 돌아오도록 하여주겠소.》

그러자 이번에는 정치지도원이 응대했다.

《원수동지, 구분대장동무와 저는 365일지휘관들입니다.》

최광은 말뜻을 알았다. 발전소건설장에서는 1년 365일 밤낮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않았던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일러 《365일지휘관》, 《365일병사》라고 하였다. 그러니 지금 마주서있는 구분대장과 정치지도원은 2계단공사에서도 작업장을 년중 순간도 떠나지 않을것이다.

그들과 작별한 최광은 평양에 도착하는길로 만수대언덕을 찾았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정히 드리고 거수경례를 하였다. 청년의용군 소대장시절처럼 곧추편 손으로 올리는 경례였다.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사령관동지께 전투보고를 올릴 때처럼!…

4

적들은 대규모전쟁연습의 실패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려는듯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전지역에 중무기와 군사인원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기관총은 말할것도 없고 각종 포와 땅크까지 끌어들이였다. 이것은 정전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였다. 실상 군사분계선 적측 비무장지대는 우리를 불의에 기습하기 위한 공격출발진지였다. 한편 적들은 서해해상에서 상륙작전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지난번의 공수작전연습에서 된타격을 받은 나머지 이번에는 해상상륙에 기대를 거는지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는데서 반제군사전선은 의연히 우리의 주공전선이였다.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것은 현실적인 초미의 문제였다. 조국과 인민이 있으면 경제는 얼마든지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생활도 높일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불꺼진 공장과 허리띠를 조이는 인민들을 뒤에 두고 아픈 가슴을 달래며 최전연부대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해 마가을 어느날 서해의 초도를 향해 떠나시였다. 최광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수행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미전부터 초도를 시찰하려고 하였습니다. 년세가 많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도에 들어가보시지 못한것을 아쉬워하시였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그 마음까지를 합쳐서 꼭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 초도로 들어가시려는 그날은 바다날씨가 예상밖으로 사나왔다. 전날 현지의 구분대에서 작성한 일기예보는 바람속

도가 초당 5메터였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그 예보를 엄청나게 뒤집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까지 내렸다. 대기하고있던 경비정은 집채같은 파도에 가랑잎처럼 뒤흔들렸다. 사정없이 곤두박혔다가는 한참만에야 제자리에 떠올랐다. 출항을 앞두고 바다쪽을 근심스레 바라보던 부대장이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최고사령관동지, 바다모양새가 몹시 나쁩니다. 바다모양이 저 정도면 바람속도는 20메터이상이고 파도높이는 3메터가 넘을것입니다. 지금형편에서 경비정으로는 항해하실수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초도의 병사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결연히 응대하시였다.

최광이 한걸음 나섰다.

《최고사령관동지, 가시더라도 좋은 날씨를 택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절절한 표정이 떠오른 최광을 바라보며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최광동지는 평양으로 되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다의 찬바람을 맞으면 페에 나쁠수 있습니다.》

최광이 페기종으로 앓고있다는것을 알고계시였다. 최전연부대들의 전방지휘소나 감시소에 오르실 때마다 뒤따르는 최광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자주 기침을 깇었다. 그를 부축하여 오르시면서 병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하시였다. 하지만 최광은 자기의 건강은 일없다면서 매번 수행하였다. 이번에도 최광은 말씀드리였다.

《저는 일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전에 저희들더러 최고사령관동지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에 절대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수령님의 그 유훈을 번번이 실현해드리지 못하는것이 죄스러워 말씀올리는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적이 있었습니까. 병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떠납시다.》

수행원들은 그이를 모신 경비정이 수면우에 떠오르자 막혔던 날숨

을 터치며 눈물속에 그이를 우러렀다. 세찬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며 노호하는 바다를 굽어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서리발 광채가 뿜어졌다. 그것은 그대로 그 어떤 격랑과 폭풍도 불굴의 의지와 담력으로 뚫고나가시는 백두령장의 모습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때에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는 아랑곳않고 최광을 념려하시였다. 곁에 서있는 최광의 허리를 부여안으며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주시였다. 기침을 하면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시기도 하였다. 최광은 창황중에도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없어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제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을 보장해드려야 할 대신 오히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 몸을 보호해주시니 이처럼 거꾸로 된 일이 어데 있겠습니까.》

《최광동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젊은 사람이 나이많은분을 부축해드리는거야 너무도 응당한것이지요.》

마침내 배들이 섬기슭에 닿았다. 섬기슭으로 떨쳐나온 병사들이 격정의 눈물속에 만세의 함성을 터치였다.

지휘관이 **김정일**동지께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그리고나서 뒤를 이었다.

《이렇게 험한 날씨에 저희들을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저희들은 그 어떤 원쑤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는 험한 길을 걷지 말아주십시오.》

《고맙소.》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에 서있는 수행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일없소. 저 아바이들이 힘들었을거요. 자, 지휘부로 갑시다. 동무들이 저분들을 부축해주시오.》

이날의 배길이 얼마나 험난하였는가는 촬영가들의 파손된 촬영기가 말해주고있었다. 병사들이 무기를 사랑하듯이 촬영가들은 촬영기를 눈동자와 같이 여긴다. 하지만 곤두박히고 뒤흔들리는 배전에서는 촬영기를 보호할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의 선군령장께서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오셨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초도에로의 항해길은 화면에 담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였다. 후날

집단체조창작단의 창작가들이 그것을 인상깊은 대집단체조의 한 장면으로 형상하였고 화가들이 훌륭한 화폭으로 남기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섬방위자들의 훈련도 보아주고 지휘관들에게 현대전에 대처한 전술적방안도 현명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전기문제를 비롯하여 병사들의 생활에서 애로되는 점들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섬을 떠나면서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동무들이 지켜선 초도뒤에는 평양이 있습니다. 동무들은 평양의 대문을 지켜섰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침입하는 적들을 초도앞바다에서 결정적으로 소멸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합니다.》

초도의 병사들은 심장으로 화답했다.

《최고사령관동지, 저희들은 월미도영웅들처럼 마지막 한사람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초도를 사수하겠습니다!》

초도에서 돌아온 **김정일**동지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판문점으로 떠나시였다.

판문점은 최전방중의 최전연이였다. 콩크리트중앙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곳이였다. 세상에 도끼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을 비롯하여 무시로 적들의 군사적도발이 벌어졌다. 이 지역으로 **김정일**동지께서 나가시는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였다. 일군들은 판문점에만은 나가지 말아주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판문점초병들을 어서 만나보자고 하며 결심을 굽히지 않으시였다.

길을 떠나던 그이께서는 따라서는 최광에게 말씀하시였다.

《최광동지는 오늘 밤 푹 쉬고 래일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최고사령관동지,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 일없습니다. 수행하도록 하여주십시오.》

최광의 얼굴에 간절한 빛이 떠올랐다.

《안됩니다. 년세가 많은데 지난 기간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몸에 무리가 간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제 병에 좋다는 약도 가지고 떠납니다. 판문점에서야 고지에 오르는 일도 없겠는데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최근년간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군부대들을 찾으면서 하나의 군사대학을 나온것 같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로부터 현대전에 대처한 군사전략을 많이 배웠습니다.》

잡도리가 좀처럼 입원치료에 수긍할 자세가 아니였다. 최광에게는 오랜 무관다운 고집이 없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최광동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겠습니다.》

최광의 얼굴에서 의혹과 긴장의 빛이 교차되였다. 그는 부지중에 차렷자세를 취했다.

《무조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에 그 정형을 나에게 보고하시오.》

《알았습니다.》

최광은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리였다. 명령을 접수한 군인의 자세와 대답은 달리될수 없었다. 10대의 시절로부터 80고개를 눈앞에 둔 오늘까지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였다.

×

최광은 달포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랬더니 건강이 회복되였다. 숨쉬기도 순조로왔고 기침도 멎었다. 기력도 전에 비해서는 퍽 좋아진듯싶었다. 퇴원을 하는 길로 그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찾아갔다. 명령대로 입원치료를 받고 돌아왔다는 최광의 보고를 받은 **김정일**동지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다.

《내 보기에도 최광동지의 건강이 퍽 좋아진것 같습니다.》

최광의 손을 이끌어 쏘파에 앉힌 그이께서는 집무탁의 서랍에서 정교하게 포장된 자그마한 곽을 꺼내시였다.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는 최광동지에게 주자고 그사이 내가 마련한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안경입니다. 나는 최광동지가 시력이 점점 약해진다는것을 진작 알고있었습니다. 나이탓인것만큼 치료로는 해결할수 없을것입니다.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로인들의 시력을 높여줄수 있는 안경을 마련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고맙습니다.》

최광은 가벼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받았다. 곽을 열어보니 밤색테안경이 빨간 비로도천우에 놓여있었다.

《한번 끼여보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 권하시였다. 하지만 최광은 안경을 얼른 끼여볼수 없었다. 북받치는 감사의 정이 전신에 줄달음치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안경을 손수 최광에게 끼워주시였다.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어찌된셈인지 전보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광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만큼 그는 고지식한 늙은이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렸는데 방안의 모든것이 흐릿해보이였다.

《그럴리가 없겠는데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걸음 다가서며 안경테를 바로잡아주시였다. 멀고 가까운 거리에 관계없이 망막에 새겨지는 초점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최신형안경이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최광의 코날개밑으로 눈물이 흐르는것을 보시였다.

《눈시울을 닦고 다시 끼여보십시오.》

그제서야 최광은 자기의 눈물을 의식했으며 그것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았다. 서둘러 눈시울을 닦고 안경을 다시 끼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잘 보입니다!》

최광은 어린애처럼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을 느껴왔는데 모든것이 선명하게 보이였다. 어둡던 나락에서 광명의 기슭에 나선듯 한 기분이였다. 사람이 주위세계를 감각하고 의식하는데서 눈처럼 중요한것은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의 몸이 통채로 천냥이라면 눈이 팔백냥이라고 일러왔다. 창밖의

멀리를 보아도 잘 보이고 코앞의 책을 보아도 잘 보이였다. 청춘시절의 시력이 되살아난듯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시였다.

《잘 보인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에 특별히 류의하십시오. 웬만한 일은 아래사람들에게 맡기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최광동지와 같은 로투사들이 곁에 있는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몇달후였다.

밤이 깊도록 집무를 보던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에서 보내오는 급보를 받으시였다. 최광동지가 심장마비로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실려간 후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꺼지는듯 한 충격을 받으시였다. 그 나이에 심장마비가 왔다면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였다.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거시였다. 원장에게 최광동지를 소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곡진히 당부하시였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협의회가 열리고 집중치료가 벌어졌다.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끼우고 강심제주사를 놓았으며 심장부위를 두드리기도 하고 손발을 주무르기도 하였다.

여러 시간만에 최광은 서서히 의식을 차렸다. 주위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성거리는 의사와 간호원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시야에 안겨왔다. 여기가 어데인가? 얼마후에야 자신이 인민무력부장실이 아니라 병원침대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되여 병원에 와있는지는 기억에 없었다. 다만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예감했을뿐이다. 그는 의식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서기와 부관에게 나직이 말했다.

《동무들, 돌아가서 내 군복과 권총, 시계와 안경을 가져다주시오.》

환자복을 입고 생을 마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서기와 부관이 지시대로 군복과 권총, 시계와 안경을 가져왔다.

최광은 그들에게 환자복을 벗기고 군복을 입혀달라고 하였다.

원수복을 입은 후에는 손목에 시계를 차고 눈에 안경을 끼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선물시계였고 그이께서 마련해주

신 그 안경이였다. 차림을 갖추고는 권총을 손에 쥐고 쓰다듬었다. 수령님께서 수여해주신 《백두산》권총이였다.

군복차림을 하고 침대에 누우니 한결 몸이 편안해진듯싶었다. 하지만 의식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할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면서 아득히 물러간 옛추억을 불러냈다.

《명석아, 명석아!》

최광은 자기를 애타게 찾는 소리가 귀가에 메아리쳐오는것을 의식했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동단조직의 지시를 받고 련락을 갔던 그는 자기네가 사는 동네에 들어서고있었다. 마을은 온통 불바다에 잠기였다. 일제《토벌》대놈들이 방금 휩쓸고간 후였다. 매캐한 내내와 비릿한 피비린내에 코를 들기가 어려웠다. 허둥지둥 경황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불에 타서 무너져내렸다. 아직 연기가 피여오르는 기둥이며 서까래를 헤집고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의 시신을 찾아냈다. 불에 타서 알아볼수 없었지만 혈육의 눈은 밝아서 누구의 시신인지를 정확히 가려보았다. 최광은 혼자서 산기슭에 묘혈을 파고 가족들을 합장했다. 한잔의 제주도 붓지 못했다. 다만 기어이 이 원쑤를 갚고야말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부모들과 형제들의 령전에 남기였다. 최광은 그길로 유격근거지를 찾아갔다.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만나뵈온 최광은 그이께서 자기의 아동단활동정형과 일가의 참혹한 희생을 진작 알고계시는데 놀랐다. 군복을 입혀주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동무가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여나는 날이라고 할수 있소.

그래서 최명석이라는 이름을 최광으로 고쳐부르기로 했소. 총대로 나라와 민족을 빛내여나가라는 뜻이요.》

이때부터 최광의 운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총대와 결합되게 되였다.

그것이 그의 나이 16살때의 일이였다. 그 추억은 끝났으나 귀가에는 총포성이 계속 울려오고 눈앞에는 화염이 솟구쳐올랐다. 환상속에서 오래동안 도발해오던 적들이 마침내 새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았던것이다. 최광은 손에 권총을 뽑아들고 그 불바다속을 내닫는다. 발이 땅에 닿는것 같지를 않았다. 온몸이 발사된 포탄처럼 허공

을 날고있었다. 높이 쳐든 《백두산》권총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발산되여 적진으로 날아가면서 원쑤들을 쓸어눕히였다. 뒤를 돌아보니 그 수효를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많은 철갑대오와 미싸일부대들, 총창을 비껴든 보병부대들이 뒤따르고있다. 그들모두도 땅우로 달리는것이 아니라 허공을 날고있다. 선군으로 다지고다져온 우리의 혁명무력이 적들의 아성을 향해 돌격하고있는것이다.

최광은 작전지도를 펼쳐들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적들의 작전적의도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령활한 전략적구상을 펼치신 지도였다. 지도에 그려진 작전부호들과 등고선들이 선명하게 보이였다. 최광은 지도를 보며 련합부대들에 진격을 명령한다. 명령을 하달한 후에는 전투적희열에 열광된 어조로 웨친다.

《전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이여,

백두령장의 전사답게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철저히 소멸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자!》

마침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통일의 단상에 높이 오르신다. 북남겨레가 목소리를 합쳐 만세의 환호를 올린다.

최광은 로친과 함께 군중속에 서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얼마나 오랜 세월 분렬의 비극을 체험하고 고난과 시련을 겪어오던 끝에 맞이한 경사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헤쳐온 진두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시였다. 이번의 최후대결전에서 이룩한 우리의 승리는 그이께서 선군정치로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천재적인 군사적예지로 전군을 령활하게 지휘하신 결과이다. 최광은 누구보다 이 력사의 진실을 잘 알고있다. 그는 손가락을 곧게 펴고 그이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리였다.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으나 김옥순도 빨찌산시절처럼 거수경례를 하였다. 이윽하여 그들은 알수 없는 충동에 떠밀리우며 함께 울었다. 이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우리곁을 떠나신 어버이수령님이 생각나서였다.…

최광은 희미하던 의식마저 꺼져가고있었다. 다시 심장발작이 일어났다. 심장과 뇌수의 기능, 체온과 맥박, 혈압 등을 정확히 가리키는 종합검진기의 바늘들이 어느것이나 정상수치에서 떨어지고있었

다. 겸진기를 바라보던 의사들은 당황했다. 년로한 몸에 재발한 심장발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리라는것은 명백했다. 원장은 급히 여러곳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인민무력부의 일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사연을 보고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던 일을 뒤로 미루고 급히 병원으로 가시였다.

의식을 잃은 최광은 단정히 침대에 누워있었다. 안경을 끼고 군복을 입은 그는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하는 자세였다. 왼손에는 《백두산》권총이 쥐여져있었다. 최후순간까지 그 총만은 손에서 놓을수 없었던 모양이다. 거수경례를 한 자세로 굳어진것을 보면 최고사령관동지께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고싶었던것이 있었던가싶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그의 두손을 잡으시였다.

《최광동지! 최광동지!》

애타게 부르시였다. 아직 최광의 손에서는 체온이 감촉되시였다. 두손을 흔들며 거듭 애절히 부르시였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하여 그의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려내고싶으시였다.

《최광동지! 내가 왔습니다. 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침내 최광은 비스듬히 눈을 떴다. 그에게는 **김정일**동지의 음성이 그 어떤 명약보다도 더 강력하게 생리적작용을 하면서 사라지던 의식을 되살렸을것이다. 그의 눈에 한가닥 빛이 가해졌다.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알아본것 같았다. 최광은 그이께 무엇인가 아뢰이려는듯 입술을 실룩이였다. 목소리는 입밖으로 새여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주위에 선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았다. 최광의 얼굴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더 받들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움과 그이의 건강을 바라는 절절한 심정이 어려있었다. 입가에 알릴듯말듯 한 미소를 그리며 최광은 숨을 거두었다.

《최광동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부르시였으나 최광은 반응이 없었다. 겸진기의 바늘들이 령으로 떨어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광의 두손을 부여잡은채 오열을 삼키시였다.

출입문이 열리더니 김옥순과 손녀가 들어섰다. 이미 소식을 들은 모양으로 그들의 눈시울은 젖어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보시니 간신히 참던 눈물이 몰박으로 쏟아지셨다. 하염없이 흐느끼시는데 곁에서 녀인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진정하십시오. 장군님께서 이러시면 저희들은 어찌랍니까.》

돌아보시니 김옥순이였다. 어느새 닦았는지 녀투사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그를 똑바로 마주보시였다.

《옥순어머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이미전부터 그의 건강에 관심이 깊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장군님, 무슨 말씀을… 장군님께서 극진히 보살펴주셨기에 최광동무는 팔순이 다 되도록 중임을 지니고 일할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속에서 한생을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한이 없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머리를 가벼이 끄덕여보이고 말씀하시였다.

《최광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였고 나의 친근한 전우이고 동지였습니다.

그는 당과 조국의 참된 아들이였습니다. 혁명과 군건설위업에 그가 남긴 공적을 후대들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최광을 바라보다가 김옥순에게 머리를 돌리시였다.

《나는 최광동지를 혁명렬사릉에 안치할 때 반신상에서 안경을 벗겼으면 합니다. 옥순어머니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안경을요?》

김옥순은 뜻밖인듯 놀라와하더니 경건한 어조로 뒤를 이었다.

《그 안경으로 말하면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것입니다. 최광동무는 그 안경을 끼고 멀리도 볼수 있고 가까이 책도 볼수 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래세에서도 그 안경을 벗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내가 마련해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금수산기념궁전의 로대에서 포대경으로 혁명렬사릉을 바라보며 항일투사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시였습니다. 오늘도 그러하실겁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알고계시는 최광동지는 안경을 끼지 않았습니다. 최광동지가 안경을 끼지 않아야 수령님께서 인차 알아보실겁니다. 최광동지도 백두산시절의 신념과 의지가 비꼈던 밝은 눈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게 하자는것이 나의 뜻입니다.》

《장군님의 뜻이 그러하시면 저도 찬성입니다.》

김옥순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감격했다. 그는 최광에게 허리를 굽히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신을 백두산시절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수령님앞에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생전처럼 그 뜻을 따라서 어버이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셔주십시오.

수령님께서 영생하시기에 혁명렬사들의 생도 빛나는것입니다.)

5

강계를 떠난 야전차가 평양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내 여러 부문을 돌아보고 귀로에 오르시였던것이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하는 1998년 올해 정초에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 앞으로!》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그 강행군의 진두에 나선 장군님이시였다. 정초부터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쉽없이 찾으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1월에 북방의 눈보라를 헤치며 자강도를 찾으셨던것이다. 엄혹한 계절이였지만 자강도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승리의 새봄을 맞는듯 한 느낌을 받으시였다. 가시는 곳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제일 추운 계절이였지만 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들이 거침없이 돌아가고 숨죽었던 공장, 기

업소들이 활기를 띠였다. 장자강주변에 불야경이 펼쳐지고 전기난방화된 집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였다. 이 전변된 현실을 보면서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시려는것이 그이의 결심이고 의지였다. 이번에 다시 가보시니 자강도에서는 중소형발전소도 새로 더 건설했고 농사작황도 좋았다. 놀라운것은 자강도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두벌농사를 하고있으며 일부 농장들에서는 세벌농사까지 지어서 도내 어려운 식량사정을 풀어나가고있는것이다. 자강도와 같이 추위가 일찌기 닥쳐오는 북방의 산간지대에서 두벌농사와 세벌농사를 짓는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강계정신의 구현자들인 그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전국이 강계정신을 따라배운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참으로 새로운 전환이 이룩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민,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리도 혹심한 고생을 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했다. 자신께서 강행군을 다그치면 그날이 앞당겨온다는 생각으로 이번의 현지지도에서도 순간의 휴식도 없이 자강도의 험한 산길로 야전차를 몰아가시였다. 도당책임비서는 하루라도 편히 쉬고 떠나시라고 간곡히 권유하였지만 오늘 새벽 4시에 강계를 떠나시였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건을 야전차안에서 보시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손에 잡힌 문건은 성강의 봉화에 대한 소식이였다.

지난 3월 9일 **김정일**동지께서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갈데 대하여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그후 성강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강철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는 한편 주체철생산에 대한 연구를 다그치고있다. 그에 따라 김철과 황철, 강선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이 추서고있다. 강철이 있으면 쌀도 나오고 사탕도 나온다. 인민생활을 위해서도 인민경제 선행부문이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다음 문건은 인공지구위성개발과 관련된 실태자료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위성의 설계와 제작을 끝내고 부분별 련동시험을 성과적으로 하였다. 위성발사대도 우리식으로 설계를 끝내고 제작에 착수했다. 문건에는 공화국창건 50돐전으로 발사가 가능하다고 지적되였다.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성강의 봉화가 타오르는 이 땅에서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날아오를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락관과 신심이 가슴에 넘치시였다.

야전차가 자강땅을 벗어나 평남도지경에 들어섰을 때 아침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차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에서는 이른아침부터 모내기가 벌어졌다. 논뚝에는 군데군데 붉은 기폭이 나붓기고있었다. 모를 내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부대들이 협동농장들에 나가 책임적으로 농사를 지을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지난해에는 가물과 수해가 겹치였지만 군대가 동원된 결과 농사가 괜치 않아서 올해식량사정은 나은편이였다. 올해농사형편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을것이다. 허덕복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황해남도에서는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두벌농사면적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두벌농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해주농기계수리공장에서 개발한 능률높은 밀보리파종기가 도입되여 봄철의 긴장한 로력문제가 풀리였다. 황해남도에 나간 양석의장이 밀보리파종기생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농기계수리공장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고무해주고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였다고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에도 농사를 지도하기 위해 당, 행정기관합동전권대표를 농촌에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여전히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야 했다.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여 불별이 쏟아지는 포전길을 쉽없이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이 식량사정이 어려워진 최근년간에 와서 누구에게나 더 깊이 리해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도록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기신 념원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숭고한 념원을 자신께서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고 결심하시였다.

어느덧 야전차는 평양시내에 들어섰다. 룡흥네거리에 들어섰을 때였다. 교통보안원처녀가 차를 멈춰세웠다.

운전사는 경적을 울리였다.

뒤좌석에 책임서기와 함께 앉은 장군님께서는 4.25회관쪽에서 달려오는 콩우유차를 띄여보시였다.

《나는 이미전에 콩우유차는 먼저 통과시켜야 하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제한된 구역에도 마음대로 달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소. 인민들은 지금 콩우유차를 〈왕차〉라고 하는데 응당 왕차가 우리 차보다 먼저 통과해야지. 잠간 기다립시다.》

야전차는 경적을 멈추고 기다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네거리를 꺾어서 돌아가는 두대의 콩우유차를 바라보시였다. 거침없이 달리는 콩우유차들이 후더운 감정을 불러냈다.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계속하지만 아이들에게 먹일 콩우유를 실은 차들은 저렇듯 경쾌하게 달린다. 어려운 시련속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은 배불리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더워나시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에게 최대의 배려를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후대관이 상기되시였다. 그 숭고한 후대관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과 더불어 영원히 사회주의조국에 구현될것이다! 인민군부대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현지지도하고 돌아올 때 콩우유차가 달리는것을 보면 쌓였던 피로가 가셔지면서 혁명을 하는 보람을 느끼군 하던 장군님이시였다.

이튿날 이른아침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이식료품공장으로 나가시였다. 현지에서 지배인과 공장당비서 리선복이 맞이했다. 지배인은 장년기에 이른 남자였는데 낯이 설었으나 리선복은 낯익은 당일군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어느 해인가 이 공장에 나왔을 때 구역당일군으로 사업하다가 새로 공장당위원회 비서로 임명되여온 리선복을 만나시였던것이다. 리선복은 그때에는 젊음이 넘치는 녀성일군이였는데 지금은 귀밑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인사를 받으신 후 공장구내에 들

어서시였다. 콩우유차들이 줄을 지어 구내를 벗어나고있었다. 그 차들의 행렬을 바라보는 장군님께서는 콩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흡족한 기분에 잠기시였다. 공장구내를 둘러보시니 그 어데나 알뜰하게 꾸려졌다. 공장건물들의 벽체는 연청색외장재를 새로 칠하였는데 어린이식료품공장다운 정서를 자아냈다. 공장건물들로 둘러싸인 구내초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어린이식료품들을 보아주시는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모셔져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벽화앞에 잠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께서 아이들의 식료품생산을 두고 그리도 깊이 마음쓰시던 나날을 추억하시였다. 벽화의 기단을 깨끗이 닦고있던 녀인이 손에 걸레를 든채로 조심히 다가오더니 깊이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나이가 지숙해보이는 녀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 우리 공장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하더니 장군님을 우러르며 뒤를 잇는데 그것이 뜻밖이였다.

《장군님.》

잠긴 목소리로 말을 번지더니 대뜸 눈굽을 적시였다. 녀인은 그 눈물이 부끄러운듯 황황히 물러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급히 사라지는 녀인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공장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저 녀동무에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리선복이 조심히 말씀드리였다.

《강순녀라고 지금 콩우유직장 1작업반 반장입니다. 지난날 공장에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동무가 어떻게 다시 공장에 나왔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뭇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물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강순녀동무는 퇴직을 한 몸이였지만 공장에 수령영생구호를 모실 때 남모르게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전기와 증기단독선공사를 벌릴 때에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증기관보온을 위한 철심조립

을 자원하여 했습니다. 공사장을 돌아보던 저를 띄여본 그는 달려와서 품에 안기며 용서해달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직시켰습니다.》

《그런 동무로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더운 감정에 휩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후에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하나의 생동한 사실로 실감하시였다. 지난날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가슴속에 우리 수령님은 영생하고계신다는 이 신념과 혈연의 뉴대는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할것이다.

이번에는 반백의 지배인이 말씀드렸다.

《강순녀동무가 다시 입직한 후에 전혀 딴사람이 되였습니다. 그가 반장으로 일하는 작업반이 지금 공장적으로 맨 앞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옳게 이끌어주었습니다. 그가 반장으로 된 후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비서동무가 매일 깨우치다싶이 하여서 반원들속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찌기 출근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이 벽화주변의 관리작업만은 다른 사람이 손쓸겨를없이 꼭 자기가 합니다.》

《그도 이 나라의 모든 녀인들이 그러하듯이 어버이수령님의 딸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다시금 우러러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상과 인덕으로 우리 인민을 얼마나 훌륭히 키워 물려주시였는가!

《장군님, 공장연혁실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일군이 올리는 말씀이였다. 퍼그나 시간이 지체되였다.

《이 공장이 걸어온 력사는 내가 잘 압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린이식료품을 두고 깊이 마음쓰셨기때문에 나도 이 공장에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생산현장부터 돌아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생복을 걸치시고 콩우유직장에 들어서시였다. 현대적인 최신설비들이 갖추어진 직장은 이를데 없이 정갈했다.

어린이식료품을 생산하는것만큼 위생조건에 관심이 크다는것이 알리였다. 녀성로동자들은 눈같이 흰 위생복에 넓은 마스크를 끼였는데 얼핏 보면 병원의 의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전에 자신께서 현장에 들어가도 기대를 멈추고 그 무슨 환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엄하게 이르시였다. 어린이식료품생산은 순간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따금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로동자들의 눈빛에는 경모의 심정과 다소 긴장감이 어려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되도록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콩을 씻는 공정으로부터 콩우유가 완성되여나오는 공정까지 모든것이 현대화되여있었다. 콩우유직장을 나선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리선복에게 말씀하시였다.

《방금 돌아본 현장에 강순녀동무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두 넓은 마스크를 끼여서 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그 동무를 잠시 만나보고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곧 데려오시오.》

리선복이 지체없이 강순녀를 데려왔다. 강순녀는 마스크를 벗어들었기때문에 벽화앞에서 만났을 때의 모습을 알아보실수 있었다.

《내가 그냥 돌아가면 동무의 가슴에 죄스러운 감정을 남겨둘것 같아서 찾았습니다. 나는 공장일군들로부터 어버이수령님서거후 새로운 출발을 한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일시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공장에서 퇴직을 하였다가 새 출발을 한 동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잘못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일을 잘하시오.》

《어버이장군님, 고맙습니다.》

강순녀는 목메여 흐느꼈다. 주견과 고집이 세다는 나많은 녀인의 눈에서 걷잡을수없이 순간에 눈물이 흐른다는것은 보통일이 아니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다 따뜻한 말씀을 해주고싶으시였다.

《나는 아직도 우리 인민의 생활이 어렵다는것을 잘 압니다. 집

에는 누가 있습니까?》

《딸애는 나와 함께 이 공장 애기젖가루직장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이 공장에서 일합니까?》

《아닙니다. 제사공장에서 일하는데 증기보장을 맡고있습니다. 한때 우리 공장과 제사공장은 같은 증기관에서 증기를 뽑아썼습니다. 공장에서는 제가 손탁이 세다는것을 알고 증기분배발브를 맡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증기분배때문에 말썽이 생겼을 때부터 령감은 자기 얼굴에 흙칠을 했다면서 집에 들어와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입니다. 인간생활에는 곡절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기 일터와 공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사이의 오해는 인차 풀리고 가정에 화목이 깃들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강순녀는 손에 들고있는 마스크로 눈물을 훔치더니 리선복을 피끗 쳐다보고나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일전에 우리 당비서동지가 령감을 찾아가서 어떻게 설복을 했는지 그도 잘못 생각했다고 했답니다. 제가 오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온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저녁 저한테 엎드려서 용서를 빌겁니다. 념려마십시오. 꼭 그렇게 됩니다.》

역시 강순녀라는 이 녀성은 자존심도 강한 녀인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그리며 리선복을 돌아보시였다. 그도 웃고있었다. 강순녀는 나이가 우였지만 당비서인 리선복을 친정어머니처럼 믿고있었다. 리선복이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킬것이라는 믿음이 가시였다.

《순녀동무는 지금 당생활을 합니까?》

《저같은게 어떻게 당원이겠습니까.》

강순녀는 어줍게 대답을 올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선복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앞으로 이들의 가정을 잘 도와주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강순녀를 바라보시였다.

《나는 동무를 장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잘해서 우리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갑시다.》

《알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강순녀는 힘있게 대답을 올리더니 또다시 오열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싸쥐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애기젖가루직장으로 가시였다.

지배인이 어줍은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어린이영양연구소의 녀성연구사동무가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아직 생산설비가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효소분해법으로 콩단백과 흰쌀단백을 분해해서 애기들의 소화기능에 적합한 젖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시제품을 우리 공장탁아소와 주변 몇개 탁아소에서 시험해보았는데 애기들의 소화흡수에 아주 좋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생산설비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따져물으시였다.

《기계공장들에 설비생산을 의뢰했는데 마지막건조공정과 포장공정설비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미처 설계를 하여주지 못한탓입니다.》

늙수그레한 지배인은 죄스러운 낯빛이였다.

《기계공장들에서 이 공장 대상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최대의 관심을 돌리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였습니다.》

수행한 일군들이 급히 수첩에 말씀의 내용을 적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직장안에 들어서시였다.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며 콩가공공정, 흰쌀가공공정, 효소분해공정, 배합공정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분무공정과 완성포장공정은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 그 공정들은 자체로 만든 어설픈 설비로 생산을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을 나서면서 일군들에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공장에 최대의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공장에 이미 물, 전기, 증기단독선이 설치된 조건에서 이제 남은것은 설비와 원자재입니다. 어린이식료품생산을 위한 콩과 흰쌀 기타 남새와 과일은 무조건 철저히 보장하는 체계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때 먼발치에 소녀애가 서있었다. 까만 치마에 흰샤쯔를 단정히 입은 어린애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저 애를 데려오라고 하시였다.

어린애의 느닷없는 행동에 당황한것은 리선복이였다. 그는 일순 난감한 기색을 짓더니 어린애에게 타일렀다.

《순애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인사올려라.》

순애는 첫순간 어리둥절한 낯색이더니 장군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한껏 기쁨의 기색을 지었다.

어린애는 얌전히 머리숙여 그이께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목소리도 또랑또랑했다. 매일아침 탁아소에서 어버이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인사를 올리던 애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애의 손목을 담쑥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준 다음 리선복에게 물으시였다.

《당비서동무의 손녀애입니까?》

《아닙니다. 애기젖가루를 연구한 장연순연구사의 딸애입니다.》

리선복은 순애가 찾아온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장연순은 흰쌀단백과 콩단백을 적당히 분해할수 있는 효소를 발견하기 위해 미생물실험을 하여왔다. 현미경으로 오래동안 긴장하게 미생물의 세계를 관찰하는 과정에 시력이 악화되였다. 연구사업이 성공한 다음에 리선복은 그를 안과전문병원에 입원시키였다. 그런데 순애의 아버지 최성호도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에 동원되여 집을 떠나게 되였다. 순애는 리선복이 자기 집에서 보아주기로 하였다. 어제 리선복은 순애더러 오늘 아침에 어머니를 면회하러 가자고 약속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찾아주시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런 약속을 했다. 순애는 어제의 약속을 잊지 않고 리선복을 찾아왔던것이다.

리선복의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순애를 안아 높이 쳐드시였다.

《너는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부부의 딸이로구나.》

공장일군들을 둘러보며 뒤를 이으시였다.

《나는 이 애 아버지도 알고있습니다. 남구주택건설사업소 기사이지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계실가? 리선복은 사뭇 놀라며 대답을 올리였다.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이의 볼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였다.

《그래, 너희 부모들은 훌륭한 나라의 인재들이다. 너의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큰일을 하고 너에게로 돌아올것이다. 아빠, 엄마가 보고싶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 아침 나를 데리고 엄마한테 가자고 했는데 할머닌 엇저녁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순애를 품에서 내려놓으며 리선복에게 말씀하시였다.

《당일군을 하자면 어머니, 할머니구실을 해야 할 일이 많을거요.》

그이께서는 지배인과 당비서를 번갈아보며 정중히 말씀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하루도 번지지 않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이 공장 전체 종업원들에게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감사를 줍니다.》

순간 지배인과 당비서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치미는것을 느끼며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감사는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 공장에 크나큰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저희들이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감사의 정이 북받쳤으나 입밖으로 터치지는 못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동된 낯빛으로 그냥 서있는 리선복에게 깨우

치시였다.

《비서동무는 오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시오. 애기젖가루 연구를 완성한 이 애 어머니에게도 나의 감사를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리선복은 순애의 손목을 잡고 장군님을 따라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비서를 미더운 눈길로 돌아보시였다. 그 어린것이 당비서를 《할머니》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른다. 이 하나의 사실이 그가 당일군으로 어떻게 사업하고있는가를 설명없이 말해주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자재창고를 비롯한 몇군데를 더 돌아보고 공장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을 떠나면서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남긴 사업수첩에서 콩우유와 애기젖가루에 대해 마음쓰신 기록을 여러 군데에서 보았습니다. 태여났을 때부터 다 성장할 때까지 우리의 후대들을 배불리 먹이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념원이였습니다. 수령님의 제자, 전사들인 우리는 이 념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신다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히 고수하고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6

리선복은 순애의 손목을 잡고 간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원실에 들어섰다. 침대 두개가 놓인 크지 않은 아담한 방이였다. 장연순은 오른쪽침대에 자리를 잡고있었다. 두눈을 붕대로 싸맨탓으로 방안에 들어서는 리선복과 순애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순애는 장연순의 얼굴이 반나마 가리워져있었으나 자기의 엄마를 첫눈에 알아보았다.

《엄마!》

반가운 부르짖음을 터치며 엄마의 품으로 살같이 달려갔다. 장연

순은 튕겨나듯 몸을 일으키며 딸애를 쓸어안았다.

《순애야, 네가 어떻게 왔니?》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비서동지가 오늘 또 수고를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리선복은 이미 여러번 면회를 왔었댔다. 번번이 올 때마다 순애를 데리고왔다. 녀성일군이고보니 엄마를 보고싶어하는 어린것의 심정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장연순의 손을 더듬어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연구사선생, 우리 공장에 경사가 났어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공장에 나오시였어요. 콩우유직장과 애기젖가루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을 돌아보면서 생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어요. 낟알로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를 개발한 연구사선생의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는 참말로 대단하다고, 마침내 애기젖가루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실현되였다고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애기젖가루가공공정에 필요한 설비들을 빠른 시일내에 갖추어줄데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루도 번짐이 없이 콩우유를 생산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한 우리 공장 전체 종업원들에게 최고사령관의 명의로 감사를 주시였어요. 그리고 연구사선생에게도 자신의 감사를 전해달라고 저에게 당부하시였습니다.》

장연순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며 방바닥에 내려섰다. 그리고는 감격에 목메여 마음속으로 아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희들의 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면서 실험기구도 최신형으로 해결해주고 따뜻이 고무해주셨기때문에 성공할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장군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군님께서…》

초상화를 우러러 깊이 머리숙이는 장연순의 눈을 싸맨 붕대가 삽시에 젖어들고있었다. 그는 흐느낌에 젖은 목소리로 뒤를 이었다.

《어버이수령님 생존시에 애기젖가루를 성공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북받치는 격정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장연순을 간호원이 부축하며 타일렀다.
《그만 진정하십시오. 지나치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시력장애를 받을수 있습니다.》
순애가 어머니곁으로 다가와 방금 어머니가 한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는 오늘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였어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나를 껴안아주셨어요.》
《순애야,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장연순은 도저히 어린애의 말을 믿을수가 없었다.
순애는 리선복에게 머리를 돌리고 보증을 바라듯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정말이지?》
《정말이다. 아무렴 우리 순애가 그런 거짓말을 할테냐?》
그랬으나 장연순은 믿지 않는 기색이였다.
리선복이 장연순에게 말했다.
《순애 말은 참말이예요. 오늘 우리 공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순애를 품에 안고 부모들의 뒤를 이어 나라의 훌륭한 과학인재가 되라고 장래를 축복해주셨어요.》
《그래요?!》
장연순은 입귀를 실룩이였다. 그랬으나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의혹이 채 풀리지 않은 눈치였다. 리선복은 그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제서야 장연순은 딸애를 담쑥 껴안고 볼을 비비였다.
《네가 오늘 그런 영광과 행복을 지녔구나!》
눈을 싸맨 붕대가 또다시 흥건히 젖어들었다.
리선복이 장연순에게 계속하여 알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순애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장연순은 다시금 놀랐다. 남편은 집을 떠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동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자신도 전혀 가늠할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를 듣고보니 어버이장군님께서 크게 관심하시는 일에 동원된것이 분명했다. 그로부터 두달후에야 무수단에 건설하는 인공지구위성발사대설계에 참가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장연순은 잠시후에야 리선복이 순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게 된 사연을 되새기며 미안스러운 어조로 간호원에게 말했다.

《내 눈에서 한순간만 붕대를 풀어주세요. 부탁이예요.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인사를 드리자고 그래요.》

지금까지 오고가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간호원은 장연순의 심정을 십분 리해했다. 별로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그의 눈에서 붕대를 풀어주었다.

장연순은 눈시울을 닦고 딸애와 나란히 섰다.

리선복은 이 순간의 감정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싶어서 순애곁으로 다가갔다.

순애는 리선복의 손을 잡고 자기곁으로 바싹 이끌었다. 어른들은 짓눌린 흐느낌소리를 냈고 순애는 방싯거리였다.

잠시후에 간호원이 새 붕대를 가져왔다. 장연순의 눈에 이미 싸맸던 붕대는 깨끗했지만 눈물에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리선복이 간호원에게 말했다.

《내 병원 책임일군들에게도 부탁하겠지만 아무쪼록 연구사선생의 시력을 빨리 회복시켜주세요. 장연순선생이 개발한 애기젖가루에 대한 학술보고서는 지금 국제저작권 및 발명품전시회에 제출되여있습니다. 워낙은 선생이 제네바에 가서 학술발표를 해야 하는데 입원중이여서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사업과정에 과도한 시력부담으로 생긴 병이기때문에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시력이 회복될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윽하여 리선복은 순애를 데리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20여일후였다.

장연순은 완전히 눈에서 붕대를 풀었다. 해빛에 닿으면 눈이 부시기는 했으나 시력은 회복되였다. 하루빨리 연구소로 돌아가려고 했다. 사흘전에 면회를 왔던 연구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애기젖가

루직장의 생산설비는 최상의것으로 그쯘하게 완비되였다고 한다. 그 설비들과 폭포처럼 쏟아지는 애기젖가루를 제 눈으로 보고싶었다. 그러나 안과병원에서는 며칠간 더 경과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루는 병원의 담당과장이 낯모를 중년남자를 데리고 입원실에 나타났다.

《우리는 연구사선생의 시력회복정형을 좀 더 관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본인의 희망대로 퇴원을 시키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퇴원시키는 일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대외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였단 말입니다.》

장연순은 멍하니 과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무슨 대외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단 말인가?

《과장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전혀 영문을 알수가 없어서 말끝을 흐리였다.

과장은 낯선 사나이에게 눈길을 돌리며 그를 소개했다.

《발명총국 부국장선생입니다.》

장연순은 그에게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를 보냈다. 부국장은 갱핏하게 생긴 얼굴에 미소를 그리며 응대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장선생을 만나게 되여 기쁩니다. 이번에 제네바에서 열린 새기술전시회에서 선생이 제출한 애기젖가루생산기술이 최우수상인 금상을 받았습니다. 선생이 제네바에 가서 학술발표를 해야 하는건데 입원중이여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발명 및 저작권기구 서기국장이 래일 우리 나라에 와서 금상과 상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장연순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기쁨의 기색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못마땅한듯 한 기색이 어리다가 명백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런 일때문이라면 저는 서둘러 퇴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의 과장과 발명총국 부국장이 의혹의 시선을 마주쳤다.

《어째서 말입니까?》

발명총국 부국장이 물었다.

《그 애기젖가루생산기술개발로 말하면 저보다 저의 스승인 경공

업대학 발효공학강좌장선생의 학술적공적이 더 큽니다. 발효법을 리용해서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만들수 있다고 처음 발기를 한것은 그 선생님이였습니다. 이번의 연구과정에도 강좌장선생님의 지도와 방조가 컸습니다.

제가 입원을 한탓으로 제네바에 제출된 학술보고서도 마감부분은 그 선생님이 썼습니다. 금상과 상금은 강좌장선생님이 받아야 합니다. 저는 국내 경공업과학분원에서 있은 과학기술심의때도 그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발효공학의 권위자인 강좌장선생님이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첫 지지토론을 하였기때문에 저의 연구성과로 락착되였습니다.》

《나도 그 사연을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콩단백질과 흰쌀단백질을 분해할수 있는 리상적인 효소를 발견한것이야 선생이 아니였습니까?》

《그러나 과학연구에서는 착상과 종자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발효법으로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그 연구를 시작한것은 강좌장선생님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상에서 발효법으로 식료품생산기술을 개발한것은 수천년전의 우리 조상들이였습니다. 발효공학기술로 된장이나 김치를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오늘에 와서는 알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하여도 그를 되살려서 시상식에 세울수야 없지 않습니까. 국내 과학기술심의에서도 누구나 일치하게 인정한바와 같이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생산에서 핵심적인 학술적고리는 콩이나 흰쌀단백질을 적당히 분해할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발견이였습니다. 선생은 내가 초면이겠지만 나는 선생의 학술론문심의회에도 참가했댔습니다. 나를 설득시킬 생각을 말고 퇴원을 하시오.》

장연순은 말문이 막힌듯 한순간 침묵하더니 안타까이 애원했다.

《제발 강좌장선생님에게 금상을 받는 영광이 차례지도록 하여주십시오. 그는 지금 70고령입니다. 어쩌면 이번의 애기젖가루연구가 그 선생님의 마지막연구과제로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 과학자입니다. 이제부터 젖떼기후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사탕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과학연구사업이야말로 도덕과 륜리

가 고결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연구사업의 도덕과 륜리로 말하면 무엇보다 어버이수령님의 념원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대로 연구사업을 지향시키는것입니다. 선생이나 강좌장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과학연구사업의 도덕과 륜리를 훌륭히 구현했습니다.
강좌장선생은 선생의 양보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선생이 금상을 받으면 자신이 받은것보다 더 기뻐할것입니다. 나도 강좌장선생을 좀 압니다. 오랜 교육자인 그는 수십명의 박사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의 연구사업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다 바쳐 과학기술적종자를 발견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주군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제자가 박사학위증서를 그에게 돌려준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으로 느낄것입니다. 이번 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지체말고 퇴원수속을 해야 하겠소.》
부국장은 마지막말마디에 그루를 박았다.
병원과장이 참견을 했다.
《환자 장연순동무, 퇴원을 합시다. 병원규정에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 불손한 행동을 하는 환자는 강제퇴원시키기로 되여있습니다.》
장연순은 두눈을 휘둥그레 뜨고 과장을 마주보았다.
《제가 그동안 무슨 불손한 행동을 했습니까. 명백히 말씀해주세요.》
《명백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식의 애기젖가루생산기술이 국제과학기술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것은 우리 조국의 영예입니다.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숭고한 일에 자신의 사사로운 도덕적감정을 앞세우는것은 분명히 불손한 행동입니다.》
장연순은 할말이 없었다. 더는 자기 고집을 세울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이튿날 그는 발명총국 부국장과 함께 제네바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비행장으로 나갔다.

×

비행장을 떠난 승용차가 시내중심을 향해 달리고있었다. 운전사 옆좌석에는 장연순이 앉았고 뒤좌석에는 국제저작권 및 발명권기구 서기국장인 안또니오와 우리 나라 발명총국 부국장이 앉았다. 성긴 노란 머리가 희여가는 안또니오는 오랜 학자풍이 짙게 풍기는 로인이였다. 넓은 이마밑의 파란 눈동자는 세계과학기술계를 살피는듯 영채롭게 빛났다. 그는 발명총국 부국장에게 머리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 전시회에 제출된 조선의 애기젖가루생산기술보고서를 보고 우리 서기국 심의위원회에서는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낟알로 애기젖가루를 만들려는 시도와 학술적착상이 새롭고 기발한데다가 그 생산공정이 매우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였습니다. 제품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필요한 영양소가 리상적으로 배합되여있었고 젖먹이아이들의 소화흡수에도 리상적이였습니다. 리상적인 애기젖가루의 개발은 유엔아동기금과 보건기구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습니다. 갓난애기들의 젖가루문제는 전인류적인 관심사였으니까요. 젖이 부족한 어머니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흔히 리용하여온 우유로 만든 젖가루는 아기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고 소화흡수도 좋은편이 못되였습니다. 조선에서 인류의 후대들을 위해 참으로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안또니오선생이 우리의 애기젖가루생산기술개발을 그렇게 값높이 사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조선으로 오면서 이처럼 훌륭한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는 필경 나이많은 로학자일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 30대의 젊은 녀성과학자이군요. 이 사실앞에 두번다시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과학기술계의 핵심은 20대, 30대의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입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 80년대초에 수재교육

사상을 제시하고 재능있는 과학인재들을 키울데 대한 제반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습니다. 그 결과 능력있는 젊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안또니오는 일순 생각에 잠기는듯 하더니 무엇을 상기한듯 두눈을 번쩍 뜨며 응대했다.

《부국장선생의 말씀이 리해됩니다. 재작년에 조선의 청소년학생들이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픽에 처음 참가해서 이런 성과를 거둔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놀래운 하나의 기적이였습니다. 수학올림픽은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미래를 보여주지요.》

서방세계에서 온 사람이지만 안또니오는 과학자로서 현실과 학술적진리를 공정하게 볼줄 알았다.

그는 차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였다. 조선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싶었다. 서방세계가 입을 모아 조선의 붕괴설을 떠들었다. 이러한 나라에서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국제과학기술전시회에서 금상을 받는다는것이 의혹스러운 일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조선은 신비의 나라였다. 이번 길에 그 의혹을 풀려고 했다. 그닥 멀지 않게 보이는 저편에 완성되여가는 웅장한 새 거리가 보이였다. 거의 직선으로 드넓게 뻗은 큰 도로의 량옆에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았다. 도로와 살림집건설은 이미 끝난 모양으로 지금은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이 한창이다.

《새로 건설되는 저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부국장에게 물었다.

부국장은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대답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에 따라 평양시민들의 교통과 살림집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저 거리건설을 발기하고 공화국창건 50돐전으로 완공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만일 안또니오선생이 9.9절후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지금의 거리가 아니라 새 거리로 달렸을것입니다.》

안또니오는 황홀한 눈빛으로 다시 새 거리를 바라보았다.

평양시내에 들어온 그는 장연순과 개별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은

인민문화궁전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발명총국 부국장과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발효공학강좌장이 함께 참가했다.

안또니오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발간하는 잡지에 장연순선생의 학술보고서를 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병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했기때문에 심의과정에 제기된 몇가지 질문은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앞상에 수첩을 펼치더니 학술심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말했다.

장연순은 혼자라면 다소 긴장하고 당황할수도 있었겠으나 곁에 강좌장선생이 앉아있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다. 그는 자신이 거침없이 대답할수 있는 문제도 강좌장에게 양보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옛스승이였고 이번 학술론문의 지도교원이였으며 과학원 후보원사, 교수, 박사이신 우리 강좌장선생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장은 난처한 기색을 지었으나 장연순이 진작 소개를 한것만큼 입을 열지 않을수 없었다. 영어에 능한 그는 통역도 필요없이 학술적문제들을 설명했다.

콩단백과 흰쌀단백을 리상적으로 분해하는 효소와 그 배양문제만은 장연순이 직접 설명했다.

면담이 끝났을 때 안또니오는 강좌장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서있듯이 재능있는 학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서있습니다.

나는 오늘 훌륭한 과학자이고 교육자인 당신을 알게 되여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제자인 장연순동무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찬양하는 과학적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크나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선생이 일하는 기구가 주최하는 과학기술전시회에 앞으로도 좋은 연구성과들을 보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오후에 안또니오는 어린이식료품공장 참관을 희망했다. 그의 희망은 쾌히 수락되였다.
공장에 이른 그는 공장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돌아보았다. 지배인은 먼저 그를 어린이식료품을 보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형상된 벽화앞으로 이끌었다. 안또니오는 벽화를 우러르며 감격한 표정이였다.
리선복은 그에게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얼마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는가를 감명깊게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공장연혁실로 안내했다. 연혁실에는 방금 리선복이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자료와 실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안또니오는 사진기를 꺼내들고 사진과 실물들을 찍고나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부모도 두분께서처럼 자식들을 사랑할수 없을것입니다.》
안또니오는 콩우유직장과 애기젖가루직장을 돌아보았다. 직장들에는 위생조건도 최상으로 보장되고 설비들도 모두가 최신형이였다. 그는 애기젖가루직장의 마감공정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름다운 상표가 그려진 비닐봉지에 포장된 애기젖가루를 집어들고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애기젖가루봉지를 놓지 못하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안또니오는 미안한 기색으로 리선복에게 말했다.
《이걸 나에게 몇봉지 팔아줄수 없겠습니까. 값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막내딸이 얼마전에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애한테 먹이려고 그럽니다.》
지배인은 애기젖가루 한지함을 그에게 주었다.
안또니오는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돈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애기젖가루인것만큼 그 값이 비쌀텐데 봉지당 얼마입니까?》
《값은 그만두십시오. 우리 나라에서는 그 애기젖가루가 젖먹이들에게 거저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공급됩니다. 선생님네 집에까지 날라다드린다면 수송비쯤은 받아야 하겠지만 공장에서 직접 받아가는

것만큼 그럴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가져가십시오.》

안또니오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는가 하는 낯빛이였다.

《그렇다면 이 공장은 어떻게 경영합니까. 적어도 생산원가는 뽑아야 공장을 돌릴게 아닙니까?》

《생산원가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을 세워주실 때부터 취하신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안또니오의 얼굴에 커다란 감격의 빛이 어리였다.

이튿날 장연순에게 금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의식이 있었다. 과학원의 책임일군들과 식료공학부문의 과학자들, 국내외의 기자들이 참가했다. 의식을 결속하면서 안또니오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제네바에 있을 때까지만 하여도 조선에서 어떻게 낟알로 그처럼 훌륭히 애기젖가루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였을가 하는 의문을 가졌댔습니다. 어제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돌아보면서 그 의문이 풀리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어린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과학자들이 리상적인 애기젖가루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분명히 **김일성**주석님과 그이의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인류의 대성인이십니다. 대성인들만이 어린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실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은 두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것입니다. 저는 어제 공장에서 막내딸 손자에게 먹일 애기젖가루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제네바에 돌아가서 그 젖가루를 손자에게 먹일 때 막내딸과 손자에게 대성인들께 감사를 드리라고 이르겠습니다.》

장내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7

《아니, 만수대창작사 사장선생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돌생산지휘부 책임자 최근식은 방안에 들어서는 리수환을 반갑게 맞이했다.

《빠른 시일내에 원석을 세개나 보장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리수환은 권하는 의자에 앉으며 헌헌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흘전에 만수대창작사에는 울타리용원석이 대형추레라에 실려왔다. 그렇게 원석이 빨리 해결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최근식이 돌광산에 나가서 원석생산을 직접 지휘했다.

《창작사에서 만점짜리 형성도안을 내놓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석이야 보장하지 못하겠습니까. 돌광산에서도 형성도안을 보더니 역시 만수대창작사의 화가들이 다르다고들 했습니다.》

최근식도 웃음진 얼굴로 응대했다. 진작 훌륭한 형성도안을 창작한 화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싶었다.

《그런데 정작 울타리제작에 착수하고보니 크게 걸린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형돌톱입니다.》

오래동안 돌을 다루어온 최근식은 리수환의 말뜻을 인차 리해했다. 원석을 울타리규격만큼 만들자면 돌톱이 있어야 한다. 짐덜기 작업을 정으로 쪼아내는 식으로 하자면 시간과 품이 어방없이 들것이다.

《현재 돌광산이나 석재공장에 있는 돌톱들은 어느 하나도 돌려쓸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설비보다 긴장하게 돌아가는것이 돌톱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사정을 알면서도 제기한단 말인가? 최근식은 불만과 의혹이 엇갈린 눈길로 리수환을 마주보았다. 리수환은 여전한 낯빛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창작사에서 돌톱을 수입해오도록 주선만 해주십시오. 지난해 돌생산지휘부에서 돌톱을 수입해온 일이 있었다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돌톱거래에 나섰던 사람의 부주의로 돌톱을 잘못 사왔던 불쾌한 추억이였다.

《남들이 의심하는것처럼 내가 돌톱거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흑심을 가졌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할겁니다. 하지만 어느땐가는 사실이 증명될 날이 꼭 올겁니다. 후에라도 석재설비거래로 샹강(홍콩)에 가게 되면…》

그는 미림벌에서 판석가공을 하는 돌격대에 자진하여 동원되였다. 기념궁전건설에 기여하려는 처음의 결심을 저버릴수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이번 만수대창작사에 필요한 돌톱을 사오면서 그의 문제를 확인할수 있지 않을가? 본래 그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였는가. 그가 떠날 때의 마지막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최근식은 선선히 응대했다.

《도와드려야지요. 창작사의 요구대로 대형돌톱을 인차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직성여부를 증명하는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이런 말이 치밀었으나 입밖으로 번지지 않고 말했다.

《내가 직접 석재공장 기사장동무를 데리고 샹강으로 가겠습니다. 기사장동무는 석재가공설비에 밝은 사람입니다. 되도록 세계적인 최신설비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은 려권수속을 한 후 지체없이 샹강으로 떠났다.

지난해 거래했던 아.태.기계무역회사는 샹강시의 중심에서 떨어진 쥬룽반도의 남쪽에 자리잡고있었다. 채굴설비와 석재가공설비들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회사였다. 세계적으로 채굴과 석재가공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유럽나라들의 기계를 사다가 아시아태평양지

역에 재수출하고있었다. 자유무역지대인 샹강의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것처럼 그 회사도 중계무역회사였다. 크지 않은 청사의 벽은 고급석재로 장식되여있었고 울타리를 따라 키높이 자란 아열대성정원수들은 청사건물을 서느러운 그늘로 덮어주고있었다.

회사의 사장 로태근은 평양에서 온 손님들을 친절히 맞이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맥주와 차를 권하며 확스를 받은 때부터 무척 기다렸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식과 석재공장 기사장 박만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우리에게 중고품기계에 뺑끼칠을 하여 새것으로 팔아먹었다. 당신들에게 두번다시 속지 않을것이다. 이런 각성을 가지고 로태근의 행동을 주의깊게 살피였다. 그러한 내심때문인지 로태근의 친절이 장사치의 다스러진 꾸밈처럼 여겨졌다. 고객의 환심을 사려고 친절히 대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 장사치들의 일반적인 처세술이다.

맥주를 나누며 인사가 오고갔다. 어지간히 시간도 흘렀다. 박만영이 최근식에게 눈짓을 했다. 이쯤 됐으면 흥정을 하기 전에 먼저번 거래에서 눈속임을 한 사실부터 까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였다. 비행기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여있었다. 돈만 있으면 샹강바닥에서 얼마든지 돌톱을 살수 있었다. 굳이 이번에도 아.태.기계무역회사와 거래를 하려고 한것은 지난해 있은 일의 진상을 캐기 위해서였다.

최근식이 마음을 다잡으며 들이대려고 하는데 상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이번에 사가는 돌톱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로태근으로서는 의례히 던져볼수 있는 물음이다. 고객이 얼마나 해당한 물건에 절박한 필요를 느끼는가를 타진하는것은 흥정을 앞둔 장사치의 수완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절박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값을 부르는대로 사가기마련인것이다.

《우리가 뭣에 쓰든 그거야 상관할바가 아니지요. 회사로서야 돌톱을 제값으로 팔면 그만이 아닙니까.》

최근식은 명백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상대의 내심을 꿰뚫어보려고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아래로 눈길을 떨구는 로태근의 얼굴에 아쉬운 기색이 진실하게 어리였다. 동시에 조용한 목소리가 입귀로 새여나왔다.

《회사로서는 무관계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으로서는 심중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최근식은 나직이 반문했다.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심중한 기색이 말그대로 떠오른 로태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도 조선사람이기때문입니다!》

그 대답이 무게를 가지고 웅글게 울리는듯 했다.

최근식과 박만영이 눈길을 마주쳤다. 뜻밖이여서가 아니였다. 그들은 이미 지난해에 왔던 동무들로부터 로태근이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로태근의 아버지는 조선사람이고 어머니는 중국사람이였다.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관념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에 그 어떤 애착을 가져서인지 로태근은 자기를 조선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는 여전한 어조로 뒤를 이었다.

《평양에서는 세해전 7월 8일에 우리 겨레의 구성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개관식을 가지였지요.

기념궁전을 꾸리는데는 석재가 많이 들지요. 만일 그 석재를 가공하는데 돌톱이 필요하다면 나는 무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주석님의 영생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가 된다면 나로서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최근식은 감동했다. 로태근은 이런 사람이였구나! 몸은 비록 조국을 떠나 멀리 해외에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그의 심정은 얼마나 절절한것인가. 눈시울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의식하며 머리숙여 응대했다.

《로선생의 심정이 그렇다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가려는 돌톱은 기념궁전돌울타리제작에 필요한것입니다.》

그러자 로태근은 기쁨을 금치 못하며 최근식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 예견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필경 당신네가 요구하는 돌톱이

그렇게 요긴하게 쓰일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회사에 들여온것중에서 제일 좋은 최신형을 몇틀 골라두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식은 진심으로 감사의 정을 보내고싶었다. 동시에 날카로운 의혹이 떠올랐다. 이렇게도 정직하고 선량해보이는 사람이 먼저번 거래에서 있은것과 같은 비렬한짓을 저지를수 있을가?

그때의 진상을 따지고싶었으나 뜻밖에 커다란 성의를 보이는 로태근에게 당장은 불쾌한 일을 상기시키고싶지 않았다. 그대신 그의 경력을 알고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로선생은 이 기계무역회사를 경영하는지 오랬습니까?》

《몇해밖에 안됩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원동의 채석장에서 설비지도원으로 일했습니다. 쏘련이 붕괴된 이듬해에 외삼촌의 연줄을 타고 샹강에 와서 그가 경영하던 이 회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나서자라서 오랜 세월 살아온 나에게는 자본주의적인 중계무역이 너무도 생소했습니다. 처음 한두해는 밑지는 놀음을 많이 했는데 점차 미립이 터서 인제는 괜치 않게 경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로태근은 두드러진 눈가에 쓸쓸한 눈웃음을 그리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쏘련공민이였댔군요.》

《그렇습니다. 아다싶이 샹강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제반 특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유무역지대가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교양과 생활의식으로써는 아직 리해할수 없는것이 많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제라도 형님처럼 조국에 돌아가 살고싶습니다.》

최근식은 그의 말끄리를 잡고 따져물었다.

《형님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살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뜻 수긍을 한 로태근은 회고에 잠기는듯 감개가 어린 그윽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형 로태심이 평양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나서 뒤를 이었다.

《1960년대초까지 편지거래가 있었는데 그후는 소식을 모릅니다.

아버지도 생존시에 늘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가문의 은인이시라고. 나는 한번도 주석님을 만나뵈온 일이 없지만 형님의 경우를 놓고보면 우리 겨레의 어버이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번에 주석님의 영생을 도모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자고 하는것은 이런 남다른 사연을 안고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흥미있게 듣고난 최근식은 얼핏 머리속을 스치는 하나의 생각을 덥쳐잡았다. 만수대창작사 연공반장에 대한 생각이였다. 사적지건설총국장으로 있을 때 그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경로에 대하여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던것이다. 무산지구혁명전적지를 건설할 때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건설을 끝내는 날 낯모를 중년녀인이 나타났다. 녀인은 기념탑앞에 꽃다발을 드리고 기념탑건설에 이미 참가했던 로태심과 만났다. 그날 밤에 로태심은 기구한 자기들의 사랑이 어떻게 결혼에로 이어졌는가를 이야기했다.

《혹시 형님의 이름을 로태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최근식은 느닷없이 물으며 초조한 기대로 가슴을 조이였다. 로태근은 흠칫 몸을 떨며 두눈을 휘둥그레 떴다. 입술을 벙싯거렸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너무도 세찬 충격에 일순 넋을 잃은듯 했다. 최근식은 같은 물음을 반복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을 아십니까?》

《항일무장투쟁전적지기념비건설을 할 때 함께 일한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일한다고 할수 있지요.》

《지금도 말입니까?》

로태근은 눈을 빛내이며 숨가쁘게 물었다. 이 순간에 최근식은 그의 얼굴에서 로태심의 모습을 발견했다. 우묵한 눈확속에서 담차게 빛나는 작은 눈이며 성큼한 코날, 짙은 눈섭이며가 형님과 비슷했다. 아버지로부터 두형제에게 공통으로 유전된것이 분명했다.

《나와 로태심동무는 지금 다같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참가하고있습니다.

로태심동무는 높은 기능과 성실성으로 해서 직장에서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로태근은 기쁨에 겨워 어쩔줄을 몰라했다. 조국에서 온 두 손님에게 번갈아 머리를 숙여보이더니 서둘러 전화기를 잡았다.

《여보, 당신이요? 나요. 인제 곧 내 사무실로 오우. 평양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소. 형님소식도 가져왔소. 빨리 와서 손님들에게 사죄를 하오. 오늘 저녁에는 손님들을 우리 집에서 쉬도록 해야 하겠소.》

최근식은 전화를 끝낸 로태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케를 보니 자기의 안해한테 거는 전화였다. 빨리 이리로 와서 인사를 하라는것은 리해할만 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죄를 하라는것은 무슨 뜻인가.

《부인도 조선사람입니까?》

조선말로 전화를 하기에 그렇게 물었다.

《아닙니다.》

로태근은 저으기 거북해하는 눈치였다.

최근식은 어느 민족 녀성인가고 캐여묻고싶었으나 어색해하는 상대의 낯빛을 살피며 침묵했다. 로태근은 조국에서 온 손님들앞에서 이족결혼을 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눈치였다. 아닌게아니라 그는 담배를 피워물더니 자기의 그러한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 아버지는 형님에게도 그러했지만 나에게도 반드시 조선족처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던 원동에는 조선족이 얼마 없었습니다. 1930년대말에 동포들은 모두 중앙아시아로 옮겨갔지요. 나는 하는수없이 우리 조선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한 나나이족처녀와 결혼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였습니다.》

《일단 한번 정을 주면 변심이 없는것이 진짜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해 당신네와 거래가 있은 다음에는 부부간에도 피줄의 차이는 속일수 없다는것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회사일을 주관하던 우리 집사람이 중고품에 뼁끼칠을 해서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던것입니다.》

아, 그 일이 이렇게 된것이구나! 최근식과 박만영은 눈길을 마주쳤다. 그때 거래를 한 우리 사람이 속히웠을뿐이지 그자신이 잘못한것이 아니였다.

그의 청백성이 마침내 증명되였다.
로태근은 다소 붉어지는 얼굴을 손으로 내려쓸더니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있겠지요?》
《포장을 뜯어보는 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청맹과니는 아니니까요.》
박만영이 퉁명스레 응대했다.
《참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조국에서 온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는 되도록 눅은 값으로 팔면서 성실성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늘 불만스레 여기던 처는 제가 없을 때 그런짓을 했습니다. 그도 조선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이족결혼을 한 자신을 후회하였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에는 부인이 회사일을 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그 녀자는 원동에 있을 때 산짐승털가죽장사를 하는 아버지의 슬하에서 장사물계를 배웠습니다. 처음 몇해동안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만큼이라도 우리 회사가 일떠서게 된것은 실상 그 녀자의 경영업무능력과 기질이 크게 은을 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손기척도 없이 출입문이 열리며 웬 녀인이 방안에 들어섰다.
최근식과 박만영은 나나이족에 대한 표상이 없었지만 조선사람과 용모가 비슷한 그 녀인이 로태근의 안해라는것을 알았다. 품을 들여 화장을 하고 몸단장을 한듯 한 그 녀자는 황홀하였다.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환한 이마, 보일듯말듯 한 웃음을 그리며 영채롭게 빛나는 눈동자, 오뚝한 코, 탐스러운 입술은 동방미인으로 불리울만큼 아름다왔다.
《여보, 인사하오. 평양에서 온 손님들이요.》
로태근이 안해에게 깨우쳤다.
녀인은 자연스럽고 세련된 몸가짐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최근식과 박만영에게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뜻밖에도 그 녀자의 입에서 조선말이 튀여나왔다. 힘겹게 발음을

하는 억양이 다소 어색할뿐이다. 남편에게서 조선말을 배운 모양이다. 인사가 오간 다음 그 녀자는 남편의 옆자리에 앉았다.

《지난번 거래에서 어리석은짓을 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그 일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만일 먼저번 평양에서 왔던분이 그 돌톱의 용도를 말해주었더라면 제가 그런 비렬한짓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 녀자는 나나이어가 아니라 로어로 말했다. 원동에서 자라면서 로어로 교육을 받았을것이다. 로태근이 안해의 말을 조선말로 통역했다. 굳이 통역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식과 박만영은 그 녀자의 말을 알아들을수 있었다. 대학시절에 로어를 익혔던것이다.

《때늦게나마 진실을 실토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장사거래에서 상대를 속이는 일은 있을수도 있는 일이지요.》

최근식이 선선한 표정으로 응대했다.

《먼저번에 사간 돌톱도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리는 일에 사용되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구나 죄스럽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저의 일가와 저자신에게도 은인이십니다.》

최근식과 박만영은 그 녀자의 아름다운 얼굴에 경건한 빛이 떠오르는것을 보았다. 그 어떤 깊은 사연을 안고있는듯싶었다. 아닌게아니라 천천히 뒤를 잇는 그 녀자의 말은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원동에 계실 때 저의 오빠는 그 부대에 자주 다니군 했습니다. 어린시절에 저의 오빠로부터 주석님의 고귀하신 인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석님부대의 조선사람들에 의해 저도 구원되였습니다. 아무르강에 나가서 미역을 감다가 물에 빠져버렸는데 그들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석님휘하의 군대들은 주변지역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었습니다. 생전의 주석님께 갚지 못한 은혜를 서거하신 이후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건데 제가 그처럼 불손한짓을 했습니다.》

자책과 회오에 휩싸이는 녀인의 고운 눈에 물기가 어리는듯싶었

다. 그는 잠시 진정을 하는듯 하더니 남편에게 머리를 돌렸다.

《당신은 이번에 평양손님들에게 최신형돌톱 한틀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내 몫으로 한틀 더 보내드리자요.》

그 녀자의 얼굴에 차마 거절할수 없으리만큼 간절한 애원이 흘렀다.

《그렇게 합시다.》

기꺼이 수긍한 로태근은 최근식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가 조선에 다녀올수 있도록 노력해주실수 없겠습니까?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을 찾아뵙고싶고 형님도 만나보고싶습니다.》

그 심정이 리해되였다.

최근식은 로태근을 데리고 그날로 샹강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를 찾아갔다. 사연을 듣고난 대표부에서는 즉시로 조국에 전화를 걸었다. 조국에서는 샹강항에 도착하게 될 우리 나라 무역선편으로 최근식일행과 로태근이 떠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8

샹강항을 떠난 무역선《칠보산》호는 남포항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로태근이 최근식의 안내를 받으며 갑판우에 나섰다. 굴곡이 심한 조선서해의 해안선과 남포항의 륜곽이 아스무레하게 보이였다. 마침내 선조들의 뼈가 묻힌 내 조국에 돌아오는구나! 로태근은 불쑥 이런 생각이 치밀면서 가슴이 설레였다. 그에게 있어서 조국이라는 개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있었다. 쏘련의 원동에서 나서자랐고 어머니는 중국녀자였다. 조선에는 태를 묻은 고장이 없었으므로 어린시절의 추억 또한 없었다. 다만 철이 들면서 아버지로부터 조선의 력사와 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정녕 죽어서도 고국을 잊을수 없다던 아버지의 심정을 엿보았다. 아버지는 림종의 시각에 혼혈된 피줄을 받고 이역에서 나서자란 로태근의 립장이 걱정되였던

지 간곡히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한즉 명백히 조선사람이다. 자고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자기의 민족별을 정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인륜이다. 그래서 네가 공민증을 낼 때 민족별을 기입하는 란에 조선사람임을 분명히 하라고 했었다. 내 살아서는 떠나온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만 죽어서라도 두 아들을 거느리고 조국에 돌아간다면 한이 없겠다.》

최후의 기력을 모아서 가슴에 마디마디 새겨주는듯 하던 아버지의 유언을 잊을수가 없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오늘 그처럼 아버지가 가고싶어하시던 조국땅을 밟게 됩니다.)

한번도 와보지 못했던 조국이여서 그 현실에 대하여 직접 보고 느낀 표상은 없었다. 다만 출판물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을뿐이다.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생활적으로 체험된 표상은 형님의 운명과 관련된 사연이였다. 한달동안의 휴가를 받고 조선에 나갔다가 조국의 모든것에 대해 뗄수 없이 정이 든 형님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인차 조국으로 떠났다. 그때 로태근은 두만강가에서 형님을 바래웠다. 그 애달픈 밤에 잠을 깬 물새는 왜 그다지도 처량하게 울던지… 작별의 서운함도 컸지만 기약할수 없는 형님의 장래가 걱정되여 속을 태웠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날아올줄이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지켜주시였고 가정의 행복을 마련해주시였다. 조국은 바로 형님의 행복을 지켜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품이였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인제는 형님의 머리에도 백발이 날릴것이다.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형수님, 형님이 원동에 왔을 때 그리도 마음씨 곱고 성실하다고 자랑을 하던 전날의 기중기운전공처녀도 인제는 로파로 되였을것이다. 조카들도 어른이 되였을것이다. 비록 작별의 세월은 멀리 흘렀지만 이제라도 형님과 그 일가를 만날수 있게 된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붕— 붕— 배고동소리가 길게 울린다. 기중기팔들이 수풀처럼 펼

쳐진 항구의 륜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윽하여 무역선은 서해갑문을 통과했다. 이미 어느 잡지에선가 서해갑문의 사진과 그를 설명한 기사를 본바가 있었지만 현지에서 직접 보니 감탄의 탄성이 저절로 터졌다. 날바다를 건너지른 갑문의 거창함과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갑문을 통해서 조국의 위력과 발전상을 한눈에 보는듯싶었다.

또한번 고동을 울린 배는 닻을 내리고 부두에 발판을 건너질렀다.

로태근은 최근식일행의 뒤를 따라 배에서 내렸다. 부두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선원의 가족들이였다. 녀인들과 아이들은 대양을 건느는 머나먼 항로를 거치며 무사히 돌아온 남편과 아버지들을 만난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그들과 조금 거리를 둔 왼켠에서 느닷없는 부름소리가 울리였다.

《태근아!》

참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귀익은 형님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가슴에 마쳐오며 심장을 두드렸다. 박동이 빨라지는 심장이 전신으로 뜨거운 피를 날라갔다. 현기증을 느끼듯 머리가 아찔해오고 숨이 막혔다. 서너명의 남자가 서있는데 오른쪽에 서있는 로인이 눈뿌리를 앗아갔다. 체소한 몸이였으나 청춘시절의 담찬 기개와 정기가 우묵한 눈확속에서 뿜겨지는 그 로인은 그렇게도 보고싶던 형님이 분명했다.

《형님!》

허둥거리며 불렀으나 안타깝게도 목소리는 입밖으로 터져나가지 못했다. 반가움과 기쁨에 목이 메였던것이다.

달려가고 달려오던 형제는 부둥켜안았다. 누구의 입에서나 《아!》, 《아!》하는 부르짖음이 연신 터져나왔다. 언어로써는 그 표현이 불가능한 감정의 폭발이였다.

로태근은 잔등을 쓰다듬는 형님의 장알진 손바닥의 촉감을 저릿저릿하게 느꼈다.

형님과 함께 아무르강에서 미역을 감고 고기잡이를 하던 일이며 숲속에서 함께 버섯을 따다가 곰을 만나 혼쫄이 나던 일이며 흘러간

옛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떠올랐다. 어느해 겨울이였던가? 태근이가 스케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을 때 형님은 희생적으로 구원해주었다. 그날 형님이 곁에 있지 않았다면 필경 태근은 죽었을것이다. 배 다른 형제였지만 한 어머니에게서 태여난 형제이상으로 우애가 깊던 그들이였다.

《형님, 어떻게 오늘 남포항에 도착하는줄 알고 여기까지 나오셨소?》

한참만에야 부둥켜안았던 팔을 풀고 물었다.

형님은 대답대신 곁에 선 중년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차림새와 몸가짐이 무척 세련되여보이는 그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로태근선생이 조국에 온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친절히 맞이해주라고 하면서 형님을 꼭 데리고 항으로 나가라고 하시였습니다.》

로태근은 두눈을 커다랗게 떴다. 그러니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름없는 해외동포의 한사람에 불과한 나의 조국방문에 그처럼 관심을 돌려주신단 말인가! 뜻밖의 일에 놀라움이 컸다. 어리둥절하여 어쩔줄을 모르는데 형님이 그 사나이를 가리키며 깨우쳤다.

《태근아, 인사를 올려라. 해외교포영접국의 최길호동지이시다. 조국방문기간 이 동지가 너를 안내하게 되였단다.》

《이렇게 만나서 기쁩니다.》

최길호가 먼저 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 동포애의 정이 진실하게 떠올랐다. 초면이였지만 로태근도 그가 오랜 지기처럼 느껴졌다. 겨레의 정이란 이런것인가? 지금까지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혈연의 감정을 느끼였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였다. 처음 만나도 기쁨과 반가움이 북받치는것이 겨레들사이에만 있을수 있는 일이 아닐가.

《장군님께서는 선생님이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기여하려고 돌톱을 두틀이나 기증한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고 최길호는 최근식에게 돌아섰다.

《해외에서 아득바득 어렵게 상업활동을 하겠는데 값은 물어주라

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것이지 돈이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하시였습니다.》

《값을 물어주겠습니다.》

최근식이 선선히 응대했다.

로태근은 다시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둘러 두사람을 번갈아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절대로 값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에 쓰일 돌톱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도모하는 일에 쓰일 돌톱을 두고 값을 받는다면 제 어찌 우리 겨레의 한 성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표정과 어조가 너무도 절절했다. 만일 자기의 심정을 리해하여주지 않는다면 참을수 없는 모욕감이라도 느낄상싶었다.

최길호와 최근식은 얼굴을 마주볼뿐 말을 못했다.

잠시후 일행은 두대의 승용차에 나누어타고 평양으로 향했다.

앞차에는 운전사옆에 최길호가 앉고 뒤좌석에 두형제가 어깨를 붙이고 앉았다.

로태심과 로태근은 가슴속에서 불같은 말마디들이 튀여나고있었으나 침묵했다. 수십년 쌓인 회포를 나누기에는 장소가 적당치 않았다. 발동기의 소음과 차체의 진동이 오손도손 오가야 할 대화를 방해했다. 헤여져 그립던 형제가 회포를 나눌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었다. 로태근은 조국에 여러날 체류하게 되여있었다. 그 나날 형님네 집에서 숙식을 할것이다.

승용차가 남포시내에 들어서자 로태근은 형님의 한손을 꼭 잡은채 차창밖에 시선을 주었다. 그는 조국의 현실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있었다. 동서방의 문물이 교역되는 샹강은 세계의 경제형편뿐아니라 정치현실에도 밝은 도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세계 보도수단들의 이목은 더구나 조선으로 쏠리였다. 서방세계는 입을 모아 조선붕괴설을 떠들었다. 어떤 보도매체들은 유명짜하다는 정치론평원들의 손을 빌어서 조선붕괴의 시간표까지 발표했다.

조선에 대하여 무심할수 없었던 로태근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정

세를 주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힘을 합쳐서 조선을 고립압살하려고 전례없이 기승을 부렸다. 그들의 봉쇄가 조선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것인가를 로태근은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상업적거래를 가지는 실무가였기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조선은 자연재해까지 혹심하게 입었다. 로태근자신의 판단으로도 조선은 불과 몇달을 지탱할것 같지 못했다. 쏘련과 같은 대국도 물먹은 담벽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을 체험한 그였다. 하물며 분렬된 작은 나라인 조선의 경우에야. 안타까이 가슴을 조이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리해관계에 비추어 사태발전을 주시하게 된다. 그는 조선의 붕괴를 원하지 않았다. 그 어떤 리념으로부터가 아니였다. 이러나저러나간에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여태껏 조선을 자기의 조국으로 여겨왔다. 거기에는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고 형님이 살고있다. 그러한 사정으로 조선이 부딪치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하기를 마음속으로 념원하였다. 그러던차에 **김일성**주석님 서거 한돐을 맞으며 세계를 경탄시킨 사변이 있었다. 조선에서 주석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길이 모실데 대한 공동결정서를 채택하고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개관을 선포했던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을 진감시키고 땅을 흔들리게 하는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일성**주석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따라서 주석님의 위업도 영원불멸하다는것을 과시하였다. 이 력사적사변앞에 깜짝 놀랐다. 그 사변을 계기로 조선붕괴설은 자취를 감추었다. 제국주의자들도 조선수뇌의 정치리념이 무엇이며 그 령도를 따르는 인민의 의지와 신념이 어떠한가를 깨달았던 모양이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따라 하나로 뭉친 인민을 타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이것은 적아의 벽을 넘어 누구나 공인하는 력사의 진리이고 정치학의 공리이다. 이즈막에 와서는 세계 그 어느 출판보도물도 조선붕괴설을 운운하는 일이 없었다. 로태근의 가슴속에서도 느껴지던 불안과 우려가 가셔졌다. 바로 그무렵에 최근식일행이 찾아왔다. 그래서 기꺼이 돌톱 두틀을 금수산기념궁전건설에 기증했던것이다.

승용차는 어느새 평양시내에 들어섰다.
로태근은 차창에서 줄곧 시선을 떼지 않았다.
눈앞을 스치는 행인들의 표정과 거리의 풍경에 주의를 집중했다. 도로에는 각종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였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비록 소박한 차림이였으나 얼굴들에는 기개와 활기가 흘렀다.
네거리교차점에 승용차가 멈춰섰다. 앞창으로 시선을 옮겼다. 도로복판에 제복을 입은 교통보안원처녀가 지휘봉을 쳐들고있었다. 그의 곁으로 렬을 지은 유치원아이들이 길을 건느고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티없이 맑고 명랑하다. 얼굴마다가 웃음꽃이다. 차에서 내려서 저 귀여운 아이들을 입맞춰주고싶은 생각이 치밀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길래 수십대의 차량을 멈춰세우며 길을 건너가는가? 불쑥 치미는 의혹에 형님을 쳐다보았다. 형님의 얼굴에 대견스러운 웃음이 느슨하게 흘렀다. 손길로 아이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맨앞에서 대장노릇을 하는 저녀석이 바로 내 손자일세.》
로태근은 형님의 손길을 따라 대오를 인솔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깡뚱한 검은 바지에 흰 샤쯔를 입은 아이는 그럴사하게 보아서 그런지 먼 눈에도 제 할아버지를 신통히 닮은것 같았다.
《형님, 내 차에서 내려 그 애를 안아보고 오겠습니다.》
《무슨 소릴 하나. 아이들이야 나라의 왕이니까 저렇게 특별한 취급을 받지만 어른들이야 교통규정을 어기면 안되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만나보게.》
아이들이 길을 건너가자 승용차가 다시 떠났다. 로태근은 눈앞에 펼쳐지는 시내의 풍경이 샹강에서 듣던바와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느꼈다. 샹강에 나도는 보도수단들은 심히 날조되고 외곡된 보도들을 했었다. 그 보도들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보게 된 평양은 번쩍거리는 겉멋이 없는 대신 생기와 활력이 넘쳐있다.
로태근은 만수대언덕우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몇번이고 뒤돌아보며 만수대언덕을 내려선 로태근은 형님네 집으로 향했다.
형님네 집은 화력발전소가 선명히 바라보이는 곳에 있었다. 아빠

트에 이른 로태근은 화력발전소를 잠시 바라보았다. 청춘시절의 형님과 형수가 저 발전소건설장에서 정이 들었다고 생각하니 무심히 볼수가 없었다.

최길호는 승용차를 타고 자기 직장으로 갔다. 로태심이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굳이 사양했다. 가정적인 상봉의 기쁨이 무르녹아야 할 장소에 자기의 존재는 방해로 된다고 여기는것 같았다.

로태심이 동생의 팔굽을 잡았다.

《우리 집은 4층 5호이다. 어서 들어가자.》

형제는 현관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랐다. 집앞에 이른 로태심이 초인종을 누르며 흥분된 어조로 문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 왔소. 동생이 왔단 말이요.》

방안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출입문열쇠가 절컥거렸다. 그러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이놈의 쇠가 오늘따라 왜 이 모양이야?》

안에서 로파의 푸념소리가 들리였다. 창황중에 쇠가 잘 열리지 않는 모양이다.

《마누라, 덤비지 말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라구.》

로태심이 친절히 깨우쳤다.

마침내 문이 열리였다. 문고리를 잡은 형수의 모습이 드러났다. 체소한 형님에 비해서는 체구가 풍만한편이였다. 머리칼이 반나마 희여지고 눈귀에 잔주름이 잡혔으나 얼굴의 륜곽과 영채로운 눈매는 형님이 반했던 처녀시절의 아름다운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로태근은 허리굽혀 인사를 했다. 처음의 상봉이였으나 형님의 입을 통하여 그에 대하여 들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며 반가움이 넘쳤다.

《적은이,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수.》

서분옥은 적은이의 손에 들린 트렁크를 받아들었다.

그들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세 방중에서 그중 넓은 가운데방에 자리를 잡았다.

형수가 권하는 쏘파에 앉은 로태근은 방안을 둘러보고 놀랐다. 초상화밑에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형님이 찍은 기념사진이 여러상 모셔져있었다.

형수가 언제 어디서 형님이 두분을 모시고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을 했다. 듣고보니 형님은 시인민회의 대의원이고 로력영웅으로 국가적인 회의와 행사들에 여러번 참가했다. 형님이 이렇게 조선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되였다는것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것인가. 그러나 그런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형수는 계속했다. 형님이 어느 공사장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가를 꼽아내리기 시작했다. 실상 서분옥은 령감자랑을 잘하는것으로 소문난 녀자였다. 사실 자랑을 할만 한 남편이기도 했지만 늙어서 특별히 금슬이 좋다보니 남편에 대한 이야기라면 커다란 흥분을 안고 펼치군 하였다. 하물며 외국에서 처음 온 시동생앞이고보니 여느때없이 신바람이 났다.

세면장에서 손을 씻고나온 로태심은 세월없이 한담을 펼치는 로친을 보고 퉁을 놓았다.

《여보, 제 녀편네나 제 남편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배안의 병신이라고 그만큼 일렀는데도 버릇을 못 고치거던. 그만하고 어서 냉큼 일어나서 점심이나 차려오우.》

그제서야 서분옥은 손으로 무릎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인차 크지 않은 두리반에 점심상을 차리였다. 상우에는 오이채꾸미에 노란 닭알고명을 올린 강냉이국수가 오르고 가두배추김치와 낙지회, 닭알부침들이 올랐다. 술은 상표도 없는 병에 담긴것이였다.

로태근은 가져온 트렁크를 열고 값진 프랑스포도술과 통졸임을 꺼내놓았다.

서분옥이 먼저 상우에 오른 술병을 기울여서 령감과 시동생앞에 놓인 유리잔에 따랐다.

《형님과 형수님은 제가 가져온 술부터 맛보십시오. 샹강에서도 보통 마시기 힘든 술입니다.》

《포장을 뜯지 말아라. 나는 마누라가 조제한것밖에 입에 대지 않

는다.》

로태심이 동생을 만류했다. 그리고는 제먼저 로친이 부어주는 잔을 들었다.

《네 안내를 맡은 동무는 너를 위해 고려호텔이나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자고 했었다. 그런걸 네 형수가 반대했다. 타국만리에서 처음 온 동생에게 자기 손이 간 음식을 꼭 대접해야 한다고 했다. 네 눈에는 식탁이 허술할테지만 그리 알고 많이 들어라.》

《형수님의 성의로 알고 달게 먹겠습니다.》

로태근은 형수가 부어준 술을 마시였다. 짜릿한 자극이나 감미로운 맛이 없는 술이였다. 그랬으나 술잔을 입술에서 떼기가 바쁘게 전신에 취기가 퍼지는듯 했다.

서분옥이 령감의 잔에 다시 술을 약간 따랐다. 마치도 화학실험을 하는 사람이 유리관에 제정된 량의 시약을 넣으며 눈금을 가늠할 때처럼 조심하는 동작이였다. 그러나 시동생의 잔에는 넘치도록 마음놓고 따랐다. 량이 적어서 형수가 형님의 잔에 적게 부었다고 생각한 로태근은 잔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형님은 펄쩍 놀라서 술잔을 잡았다.

《로친은 내 주량을 알기때문에 그렇게 부은것이다. 나는 술을 평소에는 입에 대질 못한다. 네가 왔으니 로친이 가늠해준걸로 흉내내는거다. 그리 알고 형은 상관말고 네 주량껏 마시렴. 내게는 조금만 지나쳐도 신경이 나고 몸에 해롭다.》

형제는 두번째 잔을 들었다.

얼굴에 약간의 취기가 번지는듯 한 형님이 헌헌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로친이 너한테 내가 언제 어느때 어떤 공을 세웠다고 자랑을 했다만 실은 그때마다 로친의 도움이 컸다. 나를 따라다니며 남몰래 돌봐주었고 내 뜻을 따라서 기중기를 능숙히 운전해주었지. 세상에 네 형수같은 녀자는 흔치 않을게다.》

로태근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형님네 량주를 번갈아보았다. 좀전에 형님은 남편이나 안해 자랑을 하는 녀자나 남자는 배안의 병신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안해자랑을 하는것이다. 세상에 그들

처럼 상대를 존중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한평생을 사는 부부는 흔치 않을것이다. 아무튼 형님은 조국에 와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남다른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있다.

점심상을 물린 형제는 헤여진 긴 세월에 쌓였던 회포를 나누었다.

형님의 지나온 인생행로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속에서 행복과 영광으로 수놓아진 이야기라면 동생의 이야기는 쏘련의 붕괴를 계기로 고민과 곡절로 얽혀진 이야기였다.

쏘련의 붕괴는 로태근의 생활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다니던 채석장은 기업활동이 혼란되였다. 그곳에서 석재를 사가던 건설기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생산된 석재를 팔수가 없었다. 로동자들은 로임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생계를 위한 길이 막혀버렸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성실한 로동으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길을 걷게 되였다. 로태근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여럿이 작당을 해서 착암기와 돌톱, 도화선과 폭약 등을 기업소에서 내다가 팔았다. 채석장에서 설비지도원을 하던 그로서는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후날 그것이 제기되여 2년간의 징역살이를 하였다. 로태근은 가슴을 두드리며 자기를 범죄의 길로 이끈 사회현실에 저주를 보냈다. 사회주의를 무너뜨린자들이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범죄구렁텅이로 떠밀었던것이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출옥을 하고보니 그사이 어머니는 로환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샹강에 살던 외삼촌이 집에 와있을 때여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어주었다고 했다. 외삼촌은 오래전부터 샹강에서 중계무역을 하고있었다. 그의 주선으로 로태근일가는 원동을 떠나 샹강으로 갔다. 로태근은 외삼촌이 대여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전반생을 보낸 그는 생소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세파에 다스러질대로 다스러진 거간군들에게 협잡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밑천을 떼우고 맨손으로 나앉게 되였을 때마다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바다에 몸을 던지려고 했었다. 제때에 안해가 달려와서 손을 잡지 않았다면 로태근은 이미 저세상사람이 되였을것이다. 나나이족출신의 안해는 북극여우처럼 야생적인 영악한 생활력을 가진 녀자였다. 그

는 어리숙한 남편을 제쳐놓고 자신이 중계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지금만큼이라도 토대가 잡힌 회사로 될수 있었다.

로태근은 형님과 상반되는 자기의 인생행로에 결론을 짓듯이 말했다.

《사회주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지요.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놈들때문에 나는 별의별 경난을 다 겪었습니다.》

《레닌이나 쓰딸린의 사상을 신념으로 새겼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테지.》

로태심은 생각깊은 어조로 응대했다. 그리고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해 취하신 조치들을 그밤이 지새도록 이야기해주었다.

이튿날 로태근은 최길호의 안내를 받으며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했다.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옵고 인사를 올린 그는 커다란 감격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기념궁전은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정성다해 꾸려졌다. 주석님께서는 서거하신것이 아니라 인민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존해계신다는 느낌이 강렬했다. 광장에 나서서 문득 고개를 들었다. 광장변두리에 세워진 구호가 한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여러곳에서 보아온 구호였다. 하지만 방금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석님을 뵈옵고난 지금은 그 구호의 의미가 현실감을 가지고 새롭게 안겨왔다. 입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았다. 그러자 머리속에서 섬광이 번쩍이는듯 했다.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이 어찌하여 무너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가! 이것은 오늘의 세계가 품고있는 수수께끼이다. 력사의 전례를 보면 조선은 열번도 더 무너질수 있었기때문이다. 로태근 자신에게도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적전진은 커다란 의혹이였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분명히 찾은듯 한 격동이 가슴에 차올랐다.

그렇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생이다!

쏘련의 붕괴과정을 체험하고 조선의 현실을 목격한 그의 심장이 터치는 웨침이였다.

×

금수산기념궁전방문을 마친 로태근은 최길호의 안내를 받으며 모란봉으로 발길을 옮겼다. 울창한 수림속으로 뻗은 폭이 좁은 길로 나란히 걸었다. 싱그러운 솔바람, 서느러운 그늘, 고운 새들의 우짖음, 이따금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밭, 거기서 풍겨오는 꽃향기… 시선을 들면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너머로 끝간데없이 펼쳐진 고층건물의 숲, 대동강강폭을 걷어차고 창공으로 떠오르는 물오리떼… 눈길이 닿는 곳마다 절승이다. 그랬으나 지금 로태근은 수려한 산천경개에 끌릴만 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받아안은 심중한 생각과 숭엄한 감정에서 아직 풀려나지 못했다.

《최선생, 여기 좀 앉지 않겠습니까?》

로태근은 느티나무그늘밑의 장의자를 가리켰다. 최길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들은 의자에 앉았다.

로태근이 허심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이번에 조국을 보면서 샹강에 있을 때 품었던 두가지 의문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셨을 때 서방세계는 조선에서 정치적혼란이 일어나고 조만간 붕괴되리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해가 바뀐 오늘에도 조선의 사회주의체제는 끄떡없이 존재하고 또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여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것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에 이른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의문입니다. 나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로선생은 그래 어떤 해답을 찾았습니까?》

최길호는 커다란 관심을 드러내며 빙그레 웃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고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십니다. 주석님께서 영생하시기에 그이께서 세우신 사회주의조선도 영생할것입니다. 이것은 력사의 진리입니다.》

《옳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길호는 신뢰어린 눈길로 로태근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이 해외동포는 조국땅을 밟은지 하루만에 조국의 정치현실을 정확히 가늠해보았다. 거기에는 형님의 영향이 컸을것이다.

로태근은 다시 입을 열었다.

《두번째 의혹은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고하니 국가의 최고공직계승문제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나라에서나 계승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여러해가 넘는 오늘까지 국가의 최고공직을 공백으로 남겨두고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아니라 많은 세상사람들의 의혹을 불러내고있습니다. 최선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길호는 긴장했다. 제기하여온 질문이 심중한 문제였다. 잠시 생각을 굴리던 끝에 응대했다.

《우리 인민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하루빨리 국가주석으로 모시기를 바라고있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을 보시던 그 공직에 자신께서 오르실수 없다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몇해전 1월 1일에 전체 인민에게 서한을 보내셨는데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갑시다.〉라고 씌여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데만 전심하고계십니다.》

《그이께서 그러하실수록 일군들이야 백성들의 의사를 따라서 위대한 장군님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서 계승행사를 늦잡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뿐만아니라 해외에 사는 우리 겨레모두가 그러합니

다. 얼마전에 나는 로스안젤스에서 샹강에 온 동포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재미교포들도 같은 심정이였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최길호는 서둘러 수긍했다. 참으로 그렇다. 그는 자기 직분의 덕으로 해외동포들도 조국에서 국가공직계승행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조국을 방문하는 동포들마다가 그런 심정을 토로하군 했었다. 겨레의 한 성원임을 자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념원은 수령님과 꼭같으신 장군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하루빨리 모시려는것이였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국가적인 공직만이 국가와 민족을 대표한다고 여기는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남녘인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일본에서 조국을 방문한 동포가 있었는데 그는 박용길녀사의 조카였다. 그는 서울에 사는 박용길고모의 심정까지를 겸하여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모님은 **김일성**주석님 서거 한돐행사에 참가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남측에서는 고모를 체포해서 철창속에 가두었습니다. 고모는 남측의 사법당국자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놈들, 최고성지에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으로 모시고 주석님의 유훈을 따르고있으니 **김정일**장군님은 반드시 이긴다! 이제 두고봐라.〉 죽음같은것은 초탈하고 호령하는 로인을 괜히 가두었다고 생각한 당국은 인차 고모를 석방시켰습니다. 고모는 석방후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모시였다는 소식이 평양에서 날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시민단체의 성원들에게 말합니다. 주석님 돌아가셨을 때에는 경찰들이 분향소들에 달려들어서 추모제를 제대로 못 지냈는데 그때의 죄스러움과 아픔을 가시기 위해서라도 주석님의 후계자이신 장군님께서 추대되시면 경축연을 반드시 베풀자고말입니다.》

최길호는 이 순간 로태근의 심정과 박용길녀사의 심정이 합쳐지면서 조국에 사는 공민의 한사람으로 죄스러움을 느꼈다.

《추대행사가 하루빨리 벌어지기를 바라는 해외동포들의 심정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양석의장에게 남녘겨레와 해외동포들의 심정을 종합

한 장문의 편지를 썼다.

9

《…

의장동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의 최고공직이 비게 되면 그 즉시에 비상회의를 열고 국가수반을 추대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전례인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범한 로동자인 저보다 의장동지가 더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4년이 넘도록 국가주석을 추대하지 않고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자면 최고인민회의 9기의 임기가 끝난 이듬해인 1995년에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선거를 하고 추대행사를 벌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도 없었고 추대행사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산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하는 행사가 하루빨리 벌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몇달후이면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 국가기구를 내오지 못하고 9월의 명절을 맞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최고인민회의가 력사와 인민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양석은 편지를 두손으로 받쳐든채 들여다보았다. 종이에서 글자들이 튀여나와 애타게 가슴을 쾅쾅 두드리는듯싶었다.

《력사와 인민앞에 지닌 책임…》 그 문구를 입속으로 조용히 뇌이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라는 직분이 천근의 무게를 가지고 자신의 두어깨를 내려누르며 몸과 마음을 압박하는듯 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부터 내처 느껴오던 압박감이였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농촌에 나가 농사일을 돌보았다. 자기를 바라보는 순박한 농민들의 말없는 시선들도 이렇게 묻는듯 했다.

《당신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이요?》

그 물음에 과연 무엇이라 대답할수 있었으랴. 대답이 궁한 나머

지 현지의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자기가 누구라는것을 인민들에게 말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지내다가 련락을 받고 그저께 평양에 올라왔다. 그동안 책상우에는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과 군부대들에서 보내온 편지가 더미로 쌓였다. 하루빨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기를 열망하는 내용들이였다. 방금 마지막편지를 읽었다. 검덕광산의 오랜 굴착기운전공이 보낸 편지였다. 그는 장군님께서 검덕광산에 오셨을 때 접견의 영광을 지닌바있는 로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절절한 념원을 피력하였다. 다른 편지들에 담겨진 념원도 하나와 같이 절절하였지만 굴진공의 편지는 류달리 력사와 인민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당부였다. 어쩌면 당부가 아니라 엄숙한 경고인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필경 구실을 못하는 나에게 그런 경고를 하고싶었을것이다. 상대의 체면을 봐서 삼가했을것이다. 암반을 뚫으며 한생을 보내는 오랜 굴진공은 에두름없이 마음속을 원색그대로 드러내며 나에게 엄숙한 경고를 보냈다.

이제는 더 미룰수 없다고 양석은 생각하였다. 애도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의 구호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굳건히 자리잡게 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은 개관식을 선포한 후에도 다음단계의 공사를 힘있게 벌려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려졌다. 지난해 3년상을 치르면서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는 공동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이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받드는 제반조치들이 최상의 경지에서 완성되였다. 인제는 더 미룰수 없는 추대행사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전화종이 울렸다. 무심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의장동무입니까?》

다정히 울려오는 귀익은 음성에 벌떡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다.

《예, 양석이 전화받습니다.》

《농촌에서 언제 평양에 올라왔습니까?》

《그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토론할 문제가 있으니 내 방으로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석은 느닷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무슨 문제를 토론하시려는것일가? 알수 없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기회에 방금 본 편지들에 반영된 내용을 말씀드릴수 있게 되였다. 기왕이면 수많은 편지들을 그이께 직접 보여드리고싶었다. 주섬주섬 편지들을 싼 큼직한 보자기를 들고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급히 향했다. 집무실앞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인규를 만났다. 그도 부르심을 받고 도착한 걸음이였다. 찾으신 영문을 모르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집무실로 들어서는 두 일군을 반가이 맞아주시였다.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던 장군님의 시선이 양석의 손에 들린 보자기에 미치시였다.
《뭘 그렇게 무드기 들고왔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자 양석은 얼굴에 기쁨이 확 번지였다. 이때다! 하는 충동이 치밀며 온몸이 떨리는듯 했다. 보자기를 약간 들어보이며 활기롭게 대답을 올렸다.
《장군님, 공화국창건 50돐이 되는 올해에는 반드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고 새 국가기구를 내와야 한다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념원이 담긴 편지들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웃음어린 시선을 드시였다.
《나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동무들과 의논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양석은 귀가 번쩍 열리는듯 한 느낌에 잠기였다. 여러해를 넘기며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자기가 혹시 잘못 듣지나 않았나 해서 얼른 조인규의 낯색을 살피였다. 길쭉한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번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자한 눈길로 두 일군을 다정히 바라보며 감회에 젖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부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하고 국가수반추대행사를 하자고 여러번 제기하여왔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생으로

받드는 일만을 생각해온 내 마음을 모르고 동무들은 성화를 부렸습니다. 동무들은 동무들대로 안타까웠을것입니다. 인제는 우리가 뜻을 합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할 때가 되였습니다. 잘해봅시다.》

양석과 조인규는 저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장군님의 깊은 심중을 알지 못하면서 선거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무작정 올리던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양의장동무는 지금 우리 나라 전반적인 사회적분위기를 어떻다고 봅니까?》

양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뭐라고 대답을 드렸으면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사회적분위기를 선거사업과 결부시켜보지 못하고 선거를 하자고 주관적욕망만을 앞세웠던 자신이 돌이켜지며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 갑자르다가 입을 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 분위기가 퍽 좋습니다. 인제는 선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어서 앉으라고 하시였다.

《의장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계속하여 좋아진 사회적분위기를 설명하시였다. 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내보낸 후 대중의 기세가 전례없이 높아졌다. 가는 곳마다에서 공장, 기업소들에 굽이치는 새로운 숨결과 열기를 느끼실수 있었다. 올해는 농사작황도 비교적 좋은편이다. 제철에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협동농장들에서 많은 면적에 앞그루로 밀보리와 올감자를 심었는데 어데나 잘되였다. 조만간 조기작물을 거두어들이면 어렵던 식량문제도 풀릴수 있었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체 인민이 신심에 넘쳐있다.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한다는것을 공포하면 인민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질수 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힘주어 뒤를 이으시였다.

《가까운 시일안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를 한다는것을 공포하고 7월 26일에 선거를 하면 다음날 7월 27일이 전승절이기때문에 명절을 의의있게 보내게 되니 좋을것입니다. 대의원선거를 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한달쯤 지나서 하면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고 공화국창건 50돐을 경축할수 있을것입니다.》

선거문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가. 양석은 커다란 감동에 사로잡히며 그이를 우러렀다.

《의장동무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 물으심에 양석은 튕겨나듯 벌떡 일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 그렇게 하는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참으로 명안입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인규에게도 의향을 물으시였다. 조인규도 격동된 어조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니 나도 기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와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나서 두 일군을 미더웁게 바라보시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은 상설회의가 맡아하게 되여있는것만큼 의장동무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되여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인규동무는 뒤에서 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일군은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일어서서 힘있게 말씀드리였다.

《알았습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4년이나 미루어온 중대사를 결심하고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듯 한 느낌을 받으시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일을 처리하셔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헌법수정문제였다. 법제위원회에서 올려보낸 수정된 헌법초안을 보시였다. 이미 오래전에 양석을 통해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수정

초안을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하지만 헌법초안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지금의 사회주의헌법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작성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한것이였다. 그러니 헌법을 수정하는 일은 매우 심중한 일이였다. 법제위원회가 조심스러워서 헌법에 크게 손을 대지 못했을것이다. 그들의 심정이 십분 리해되시였다.

법제위원회가 수정보충한 헌법을 보시던 **김정일**동지께서는 법제위원회를 맡아보는 양석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양의장동무입니까. 헌법수정과 관련해서 의논할것이 있으니 이제 곧 내 방으로 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힘있게 대답을 한 양석은 한달음에 달려왔다. 집무실에 들어서는 그의 훤칠한 이마에 땀발이 돋아있었다. 한손에는 먼저번보다 더 큼직한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묻지 않아도 군대와 인민들이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 보낸 편지들일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집무탁옆에 놓인 의자를 가리키며 어서 앉으라고 권하시였다.

양석은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의자에 앉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의장동무의 수고가 많은줄로 압니다.》

양석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였다.

《저야 뭐…》

어줍은 눈웃음을 그리던 양석은 어조를 바꾸어 활기롭게 뒤를 이었다.

《장군님께서 선거날을 7월 26일로 정해주셨는데 인민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다음날이 전승절이여서 이틀동안 명절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였습니다.》

《선거날이 박두해올수록 하루빨리 헌법수정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겠기에 의장동무를 불렀습니다. 헌법수정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법제위원회의 헌법수정보충안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무엇보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만년 길이 모시자면 주석제를 없애는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말했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석의 직함은 영원히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되여야 하는것입니다. 앞으로 누구도 주석의 직함을 도용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수령님은 공화국의 첫 주석이자 영원한 주석이십니다.

주석제를 없애는 대신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합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내오고 그 위원장이 공화국을 대표한다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힘주어 말씀하고 양석의 낯색을 살피시였다. 양석의 얼굴에 긴장하고 결연한 빛이 떠오르는것을 보시였다. 그러나 그 표정과는 달리 대답의 첫마디는 공손한 어조였다.

《장군님의 뜻대로 주석제는 없애겠습니다. 그대신 저와 법제위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양석은 말마디에 그루를 박으며 응대했다. 표정과 어조로 보아 강경하게 나올 잡도리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는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도 그렇고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도 여러 나라 수반들이 장군님을 《최고령도자》로 부른 일이 있으니 주석대신에 《최고령도자》의 직함을 새로 내오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석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시였다. 여러번 주석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더니 양석은 이런 방도를 모색했다. 참으로 고집스러운데가 있었다.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주먹으로 집무탁을 가볍게 울리며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양석은 제 가슴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소청이 아니라 전체 인민과 군대의 소망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습니다.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셔야 합니다. 선거날자가 발표된 후 전국각지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보내온 편지들에는

장군님을 국가수위에 높이 모실것을 한결같이 열망하고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좀 보아주십시오.》

양석은 큼직한 편지보따리를 집무탁우에 올려놓았다.

《나는 앞으로 인민의 이 기대와 념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러자 양석의 얼굴에서 결연하던 표정이 다소 풀리는듯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푹 가라앉은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나는 당과 군대를 이끌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인민군대가 영원히 조선로동당의 군대로, 수령님의 군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군대를 가지고 혁명을 해야 하는것만큼 국가기관가운데서 국방위원회가 기본으로 되여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양석은 새로운 깨달음과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며 표정이 달라졌다. 비로소 납득이 가는 모양이다.

장군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국가기구조직에서 국가방위와 국가관리권능을 가르되 국방을 우선시하자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양석의 얼굴에 어느새 희색이 돌았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자못 흥분된 목소리였다.

《납득이 된다니 나도 기쁩니다.》

여러해를 두고 거듭되여온 미해결문제가 이로써 끝난셈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듯 한 느낌에 휩싸이며 강조하시였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일뿐아니라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라는것을 명백히 하며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뿐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권까지 행사하도록 규제해야 하겠습니다. 총대만 강하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석은 흥분에 휩싸이였다.

국방사업의 최고수위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크고작은 국사중에서 군사를 앞세워나간다면 우리 공화국은 필승의 강국으로 영원히 부강할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의 긍지와 행운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법제위원회가 수정보충한 헌법초안을 끄당겨 펼치며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법문화하는 력사적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장동무도 1972년 1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수령님의 지도밑에 헌법초안을 토론하던 때가 기억납니까?》

《기억납니다.》

양석은 그때가 어제일처럼 생생히 머리에 떠올랐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종전의 민주주의헌법대신에 사회주의혁명이 전면적으로 승리한 기초우에서 그 승리를 법적으로 고착시킨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이 손수 사회주의헌법을 집필하고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광범히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그이의 일반적인 사업원칙일뿐아니라 나라법의 공정성을 존중하시는 수령님의 의도적인 요구이시였다.

광범한 토의과정에 제기된 한결같은 의견은 건국위업의 실현과 공화국의 지도사상을 밝힌 헌법의 해당한 조항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명백히 모시자는것이였다. 그 의견에 따라 고쳐진 헌법을 검토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견해를 내놓으시였다.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된》이라는 대목을 지적하시면서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이름을 빼야 한다, 내가 작성한 헌법에 **김일성**이라고 쓰면 어쩌는가, 나는 **김일성**이라는 공민의 한사람이

고 헌법은 누구나 다 지킬 의무가 있기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헌법 제1조는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지 못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라고 락착되였다.

다른 한 조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되여있는데 수령님께서는 이것도 삭제하라고 하시였다. 자신의 존함과 관련시킨 표현들은 찬성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양석은 추억에 잠기며 경건한 심정에 사로잡히였다. 동시에 당시 헌법의 해당한 조항들에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되살아났다.

김정일동지께서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당시 양의장동무가 책임지고있던 법제위원회에서 제기했던대로 헌법을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인제는 수령님께서 계시지 않는것만큼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원문을 처음부터 두세번 한자한자 찍어가며 읽어보았으나 의도를 실현할 틈이 없었습니다.

수령님은 헌법을 저술하신것만 봐도 법전의 천재였습니다. 경탄할만큼 압축되고 째인 문장속에 국가의 법무게가 실려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헌법에 서문을 앉히여서 수령님의 위업을 법으로 고착시키면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법제위원회를 유능한 법전문일군들로 몇명 더 보충해줄터이니 서문초안을 작성해보시오.》

《알았습니다.》

양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을 올리였다. 20여년전에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마침내 성취하게 되였다.

《헌법서문초안을 훌륭히 완성하길 바랍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선 양석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양석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

회의로 자리를 옮겨가며 책임적인 위치에서 오래동안 사업한 일군이며 수십년동안 겸직으로 법제위원회에서 일한 능력있는 일군이다. 그런것만큼 그가 책임지고있는 법제위원회에 믿음이 가시였다.

그로부터 10여일후에 헌법서문초안이 올라왔다.

주의깊게 읽어본 **김정일**동지께서는 양석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헌법서문초안을 보았습니다. 전기나 사회과학론문처럼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의장동무나 법제위원동무들이 누구보다 법문건의 특징을 잘 알겠는데 수령님의 평생위업을 담다보니 그렇게 되였을것입니다.》

며칠후에 다시 서문초안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게가 없는 짧은 서문을 만들었다. 선거날자가 점점 박두해오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서문을 쓰기 시작하시였다. 다른 글을 쓰실 때에도 그러하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붓이 거침없이 달리였다. 이미전부터 생각을 깊이 하였고 가슴속 깊이에 품었던 심정을 피력하시기때문일것이다. 집필을 끝낸 초안을 법제위원회에 내려보내면서 참고하여 완성하라고 하시였다. 이로써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헌법을 수정보충하는 문제가 해결된셈이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며칠 앞둔 1998년 8월 31일 세계를 격동시키는 사변이 벌어졌다. 우리자체로 만든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했던것이다. 인공지구위성은 모르스전신부호로 불멸의 혁명송가《**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우주공간에 전하였다. 이것은 수령님의 영생을 우주에 알리는 축포였다.

온 나라가 끓고 온 세계가 끓었다.

이 격동되고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9월 5일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공화국의 의지인 헌법은 엄숙히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새 헌법은 수령영생의 법전이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새 헌법의 작성을 위해 **김정일**동지께서 기울여오신 심혈의 사연은 모르고있었으나 거기에 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반영되였다는것만은 누구나 알고있었다. 회의에는 당과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모든것을 다해온 조인규와 허덕복, 리선복과 장연순 그리고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와 라남의 봉화의 구현자들, 피눈물의 바다를 건너 시련의 언덕을 넘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앞장에서 다그쳐온 인민의 충복들이 참가했다. 또한 대회의 기자석에는 국내외의 기자들과 공화국창건 50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에 온 문명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들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영원히 모시고 그이의 유훈관철을 공화국의 영원한 정치리념으로 선포한 새 헌법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누구나 엄숙한 격정에 사로잡히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은 사회주의조선의 영생이다! 그이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 우리 조국과 겨레는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오늘의 력사적사변을 안아오신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무궁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살게 될 후손들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영원한 력사

저 자	리 동 구
편 집	안 창 호
편 성	한 영 실
교 정	박 춘 애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4월 2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4월 30일

ㄱ—16663 값 20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432—9